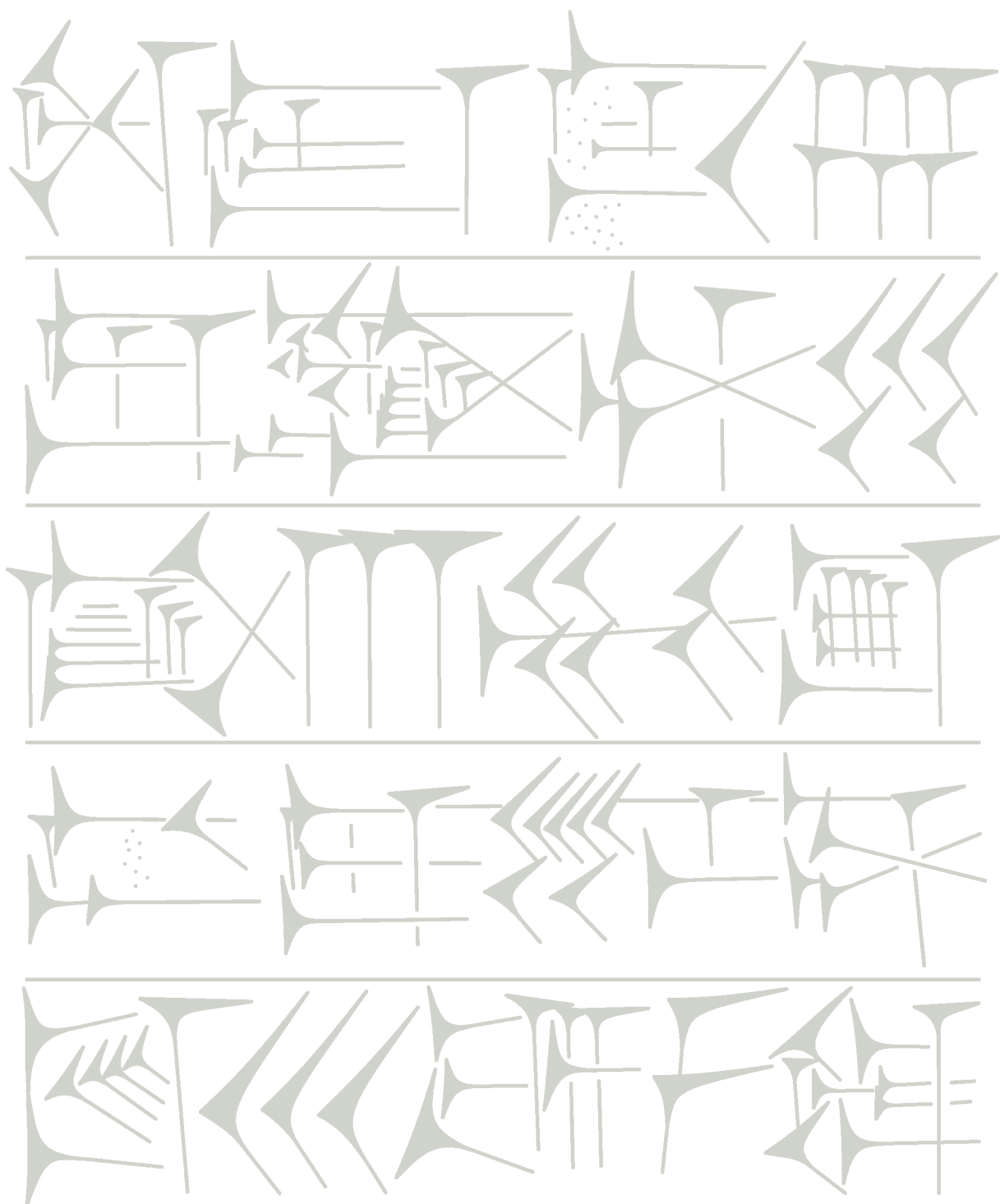


췔기문자

CUNEIFORM



문자와 문자문화 1

SCRIPTS AND
WRITING CULTURE

쇠기문자

CUNEIFORM

일러두기

1. 이 책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문자와 문자문화』 제1권으로, 박물관 소장 켈기문자 유물 5점에 관한 연구 성과를 담았다.
2. 표지의 문자와 문자문화 글자체는 『월인천강지곡』에서, Scripts and Writing Culture는 트라야누스 원주 기반 명문에서 집자하였다.
3. 도판 정보는 이름, 시대, 출토지, 크기, 소장 기관(유물 번호) 순으로 정리하였으며, 크기는 가로 × 세로 × 두께(cm) 순으로 표기하였다.
4. 인명·지명 등 외래어 고유명사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을 준용했으나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보편적인 공용어로 사용되었던 아카드어 원어의 발음에 최대한 가깝게 표기하였다.
5. 참고문헌은 각 저자가 제출한 원어 표기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 이 책의 모든 권리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있으며 게재한 자료와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ditorial Notes

1. This book is the first volume of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academic series Scripts and Writing Culture, and presents research on five cuneiform artifacts in the museum's collection.
2. The Korean title script of “문자와 문자문화” is taken from Worin cheongang jigok (Songs of the Moon's Reflection on a Thousand Rivers), while the English title script Scripts and Writing Culture is adapted from the inscription on the base of Trajan's Column.
3. Information on the plates is organized in the following order: name, period, findspot, dimensions, and holding institution (inventory number). Dimensions are listed as width × height × thickness (cm).
4. Proper nouns, including personal and place names, are rendered in accordance with the foreign-language transcription rule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although Akkadian terms—once the most widely used lingua franca in Mesopotamia—are transcribed as closely as possible to their original pronunciation.
5. The references are organized according to the original forms submitted by each author.

* All rights to this book are reserved by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The materials and photographs contained herein may not be used without permission.

문자와 문자문화 1

SCRIPTS AND
WRITING CULTURE

췘기문자

CUNEIFORM

1

췘기문자의 제작과 사용

008

- 1-1 췘기문자와 췘기문자 문명: 전통과 혁신에 대하여 윤성덕 010
- 1-2 췘기문자와 도시 020
- 1-3 췘기문자 사용 연표 024
- 1-4 진흙의 매력과 서기의 전승 주원준 028

2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췘기문자 점토판

034

- 2-1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췘기문자 소장품 현황 및 소개 성민정 036
- 2-2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췘기문자 소장품 연구와 활용 김혜정 040
- 2-3 원형배 점토판 044
- 2-4 구데아의 점토 못 062
- 2-5 슈메르 회계 점토판 072
- 2-6 가옥 매매 계약 점토판 096
- 2-7 췘기문자 행정점토판 110

3

논고

120

- 3-1 췘기문자의 지역적 변천과정 유성환 122
- 3-2 앓슈르와 바빌리에서 췘기문자가 소멸한 과정: 비교 연구 에카르트 프람 136
- 3-3 고대 동·서아시아 인장문화의 비교 연구 가능성 박준호 166

부록

182

- 저자소개 184
- 소장품 소개 188
- 췘기문자 표기법 190
- 인덱스 192

How Cuneiform was Made and Used 008

1-1 Cuneiform Script and the Culture Built on it: The Tradition and Innovation	Sungduk Yun	010
1-2 Cuneiform and the City		020
1-3 Timeline of Cuneiform Writing		024
1-4 The Allure of Clay and the Scribal Tradition	Wonjun Joo	028

Cuneiform Tablets of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034

2-1 Overview of the Cuneiform Collec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Minjeong Sung	036
2-2 Cuneiform Collections of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040
: Research Perspectives and Applications	Hyejung Kim	
2-3 Tablet of Round Ark		044
2-4 Gudea's Clay Cone		062
2-5 Sumerian Accounting Tablet		072
2-6 Cuneiform Tablet of a House Sale Contract		096
2-7 Cuneiform Administrative Tablet		110

Essays 120

3-1 The Regional Transformation of Cuneiform	Sunghwan Yoo	122
3-2 The Disappearance of Cuneiform Writing in Assyria and Babylonia: A Comparative Approach	Eckart Frahm	136
3-4 How the Shift from Wooden Tablets to Paper Affected Seal Culture in Ancient East Asia?	Junho Park	166

Appendices 182

List of Contributors	184
English Abstract	188
Cuneiform Transliteration System	190
Index	192

발간사

문자는 인류 문명이 남긴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자, 지식과 사유의 전승을 가능케 한 근본적인 도구입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2023년 개관 이래, 문자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규명하고 그 가치를 학문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연구서는 그 첫 결실로, 박물관이 소장한 다섯 점의 점토판을 대상으로 한 학술 연구 성과입니다. 다섯 점의 점토판은 인류 최초의 문자인 쐬기문자로 기록되었으며,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회상을 오롯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성서 노아의 방주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의 홍수 이야기를 비롯해, 회계 장부, 매매 계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록은 고대 인류의 신화적 서사와 일상의 경제 활동을 담아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본 연구는 한국 고대 근동학회와 예일대학교 연구팀의 공동 참여를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국내외 연구자들의 협업은 자료의 학문적 가치를 심도있게 조명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류 문자의 시원과 기록 문화의 형성 과정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향후에도 국내외 학계와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문자와 문자문화에 대해 체계적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성과는 박물관 연구 총서 『문자와 문자문화』로 발간하여, 학문적 성과를 집적하고 학계와 일반 대중이 공유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쐬기문자 연구서 발간을 위한 이번 연구에 헌신해 주신 한국 고대 근동학회의 윤성덕·유성환·주원준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낌없는 자문과 깊이 있는 논고를 써주신 예일대 고대근동언어문명학과 에카르트 프람 교수님, 정교한 라인아트 작업을 완성해주신 예일대 바빌리 컬렉션 클라우드 바겐조너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박물관 직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연구서가 문자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학술적 성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2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Preface

Writing is one of human civilization's greatest inventions and a fundamental tool that enables us to transmit knowledge and thought. Since its opening in 2023,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has been tirelessly conducting research aimed at ascertaining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writing systems and establishing their academic value in particular.

This research publication is the first result of such study and the fruit of academic research on five clay tablets collected by the Museum. Inscribed with cuneiform script, the world's earliest known writing system, these clay tablets provide precious insights into diverse aspects of the society of ancient Mesopotamia. Among them are the story of the flood from the Epic of Atrahasis, which is closely linked to the biblical account of Noah's Ark, as well as an accounting ledger and a sales contract. These records are an invaluable cultural heritage, capturing the mythological narratives and everyday economic activities of an ancient civilization.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a joint research team composed of scholars from the Korean Association for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and Yale University. The collaboration between researchers from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s established the basis for shedding new light on the academic value of the research materials, thereby deepening our understanding of the origins of human writing systems and the formation of recording culture.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will continue to conduct systematic research on writing systems and writing cultures, based on joint research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cholars. The results will be published in the Museum's research series, "Scripts and Writing Cultures," so as to consolidate our academic achievements and transmit them as a shared resource to both academia and the general public.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would like to express its profound appreciation to Professors Sungduk Yun, Sung Hwan Yoo, and Wonjun Joo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for their dedicated research, which has led to the publication of this volume on cuneiform studies.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would also like to extend its sincere gratitude to Professor Eckart Frahm of the Department of Near Easter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at Yale University for his generous advice and profound disquisition, and to Professor Klaus Wagonsonner of the Yale Babylonian Collection for his exquisite line-art work. Last but not least, the Museum expresses its deepest appreciation to all of its employees, who continue to give their best despite challenging circumstances. It is our hope that this research publication will serve as a substantive academic contribution that opens new horizons for the study of writing systems around the world.

December 2025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췔기문자의 제작과 사용

How Cuneiform was Made and Used



Section 1

췌기문자와 췌기문자 문명

: 전통과 혁신에 대하여

I —————
들어가는 말

II —————
췌기문자가 등장하게 된 과정

III —————
췌기문자가 표준화되는 과정

IV —————
그림문자가 부활하는가?

V —————
의고형 언어와
의고체 문자를 사용

VI —————
결론

I. 들어가는 말

췌기문자라는 필기체계가 알려진 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니느웨(Nimua, 현대 이라크의 모술 Mosul)를 발굴하던 때 부터다(Walker, 1990, pp. 14-73; Woods, 2015, pp. 29-114참조).¹ 특히 보타(Paolo Emilio Botta, 1802-1870)가 쿠윤직(Kuyunjik)과 호르싸밧(Khorsabad, 고대 앗슈르의 두르-샤루킨 *Dūr-Šarrukīn*)을 발굴하면서 유물들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다(1840-1843년). 그 후 발굴 작업은 레야드(Sir Austen Henry Layard, 1846-1851년)와 라쌌(Hormuzd Rassam, 1826-1910)이 계속 진행했고(Michalowski, 1997, p. 100; Adkins, 2003, pp. 226, 244-245, 318; Fagan, 2012, p. 208), 결국 신앗슈르 제국의 왕 앗슈르바니팔의 도서관을 찾아낸다. 이 발굴에서 토판 조각이 26,000점 정도 발견되었고 (Finke, 2004, p. 55; Oppenheim, 1977, pp. 15-18; Grayson, 1991, pp. 227-228; Roux, 1992, pp. 355-357) 서판들(writing boards)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pola, 1983, p.8, n.25; Finke, 2004, p. 60)(그림 1).

이렇게 발견된 췌기문자를 해독한 것은 롤린슨(Henry Creswicke Rawlinson, 1810-1895)이 비췌툰(현대의 Bisotun/서양에서 Behistun이라고 부름) 절벽에서 발견한 명문과 깊은 관련이 있다(1836-1846년, Gordon, 1982, pp. 55-61; Stronach & Zournatzi, 1997, pp. 330-331; Cathcart, 2011, pp. 2-3). 모두 세 언어로 기록된 이 명문 중에서 고대 페르시아어를 먼저 해독했고, 힝크스(Edward



그림 1. 현재 영국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앗슈르바니팔의 도서관 출토 점토판들

출처: Gary Todd CC0-1.0-Universal Public Domain <https://commons.wikimedia.org/wiki/앗슈르바니팔> (2025년 10월 7일 검색)

Hincks, 1792-1866)는 이 문자가 앗슈르(*Aššur*, 또는 앗슈르)와 바빌리(*Bābili*, 또는 바빌론) 지역 언어라고 추정하며 레야드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계속하였다. 롤린슨도 독립적으로 연구를 계속했고, 1851년 명문의 바빌리 방언을 일부 해독하는데 성공한다 (Bottéro, 1992, p. 60). 비슷한 시기에 탈봇(William Henry Fox Talbot, 1800-1877)과 오페르(Jules Oppert, 1825-1905)도 해독에 성공한다(Bruise, 2013, pp. 219-244; Robson, 2013, pp. 193-218; Baumgarten, 2001, pp. 77-99). 공식적으로 췌기문자가 해독된 해는 1857년이라고 간주 하는데, 힝크스와 롤린슨과 탈봇과 오페르가 새로 발견된 앗슈르 방언으로 기록한 문서를 각자 번역한 결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Pope, 1975, pp. 114-117; Bottéro, 1992, p. 60). 췌기문자는 원래 슈메르어를 기록하기 위해서 고안하였는데, 교착어의 특징을 가졌던 슈메르어 해독은 상대적으로 후대에 이루어졌다. 1905년 튜루-당쟁(François Thureau-Dangin, 1872-1944)이 슈메르어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고 (Kramer, 1988, p. 222; Bottéro, 1992, p. 63; André-Salvini, 1997, p. 203), 지금까지도 슈메르어 해독을 위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Michalowski, 2004, pp. 19-59).

이렇게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낸 췌기문자는 기원전 3200년경으로 기록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장부로부터 시작 해서 기원후 2세기 전문 종교인들의 문서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고대 서아시아의 문화를 주도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언어 전통이 변하기도 했지만 메소포타미아를 대표하는 필기체계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고대 서아시아 사람들이 전통을 향해 얼마나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사회가 전통에 관해 매우 높은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필기체계에 관련된 전통은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또 교육기관을 통해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에 일조하였다.

		=			
DUB.	SAR		<i>tup -</i>	<i>sar -</i>	<i>rum</i>

표 1. 슈메르어와 아카드어로 쓴 '서기'라는 낱말

1. 췌기문자 필기체계에 관한 연구를 폭 넓게 소개한다.

학교는 ‘토판의 집(슈메르어 É.DUB.BA = 악카드어 *bit tuppi*)’이라고 불렀고, 선생님은 ‘(토판의 집의) 아버지’ 그리고 학생은 ‘아들’이라고 불렀다. 또 교장은 ‘(토판의 집의) 감독관’ 또는 ‘채찍을 맡은 사람’이라고 불렀고, 조교들은 ‘선배’라고 부르거나 맡은 과목에 따라 ‘슈메르어를 맡은 사람’이나 ‘그림을 맡은 사람’, ‘회계 담당 서기’, ‘측량 담당 서기’, ‘농지 담당 서기’ 등으로 불렀다. 이런 학교를 졸업해야 드디어 ‘서기(DUB.SAR = *tupsarru* 토판에 쓰는 자)’가 될 수 있었다(표 1).

학생들이 이런 학교를 다니며 췌기문자를 배웠던 것은 물론 이 필기체계를 사용해서 기록할 수 있었던 다양한 전통적인 문학양식들을 습득했다. 사회가 공인하는 문서를 작성하려면 각각의 글자를 분명하고 바른 모양으로 써야 했던 것과 동시에 헌정문, 기념문 등의 왕정문서로부터 장부, 계약서, 편지 등 행정문서까지 정해진 양식을 따라 기록하는 것이 중요했다. 고급 과정으로 올라가면 종교적인 찬양시, 신화, 서사시 등을 필사하면서 더욱 풍성하게 문학적 전통을 맛보고 또 후대에 이를 전수했다.

그렇다면 삼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췌기문자는 전혀 변화 없이 동일한 필기 전통을 유지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오히려 췌기문자 필기체계가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었던 이유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변화를 계속해서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이 글은 췌기문자가 발명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대표하는 필기체계로 자리잡으면서 겪었던 다양한 변화를 조명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혁신을 감행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짧은 글을 통해 췌기문자의 역사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고대 서기들이 시도했던 혁신적인 노력을 평가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II. 췌기문자가 등장하게 된 과정

우리가 췌기문자라고 부르는 기호를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이전에는 특정한 개념이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Woodard, 2003, pp. 160-207)?² 지금까지 발견된 유물 중에서 췌기문자로 기록한 최초의 기록은 우룩(Uruk, 현재 Warka)이라는 도시에서 발견되며, 특히 우룩 제4 지층(Uruk IV, 기원전 3300년경, 우룩에서 발견된 그림문자들은

Green&Nissen, 1987; 텔 브락 Tell Brak에서 출토된 문서에 대해서는 Finkel, 1985참조) 그리고 우룩 제3지층(Uruk III, 기원전 3300-기원전 3000년)에서 발견된 기록들을 가리킨다(Walker, 1990, pp. 27-30; Michalowski, 1996, pp. 33-34; Michalowski, 2004, p. 19; Cooper, 2004, pp. 74-76). 미칼롭스키(Piotr Michalowski)는 우룩 제4 지층에서 발견된 기록이 인류가 최초로 필기체계를 발명했을 때와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Michalowski, 1996, p. 34). 그런데 이런 초기 기록들은 어표를 사용하는(logographic) 방법이나 상형문자(pictographic) 상태에 가깝고 표음문자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췌기문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상형문자에 가까운 필기체계가 일시적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장부 내용으로 사용하던 물표(tokens)가 문자 발명의 전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슈만트-베쓰랏(Denise Schmandt-Besserat)이 90년대부터 이 주장을 꾸준히 펴왔으며, 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Schmandt-Besserat, 1989, pp. 27-41; Schmandt-Besserat, 1992; Schmandt-Besserat, 1996).³ 그녀에 따르면 이미 기원전 8000년경부터 고대 서아시아 사람들은 물표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어떤 물표는 실제 물건의 모양을 본 따서 만들었고, 특히 복잡한 모양으로 만든 물표들 중에는 표면에 어떤 상징을 그려서 남기는 경우도 있었다(장식된 물표 decorated tokens라는 말은 Englund, 1998, p. 47). 간단한 모양의 물표가 농업 생산물을 가리킨다면, 복잡한 모양은 공업 생산품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다. 기원전 3500년경이 되면 간단한 물표를 점토로 만든 구형 봉투 안에 밀봉하여 보관하는 관습이 발견되며, 복잡한 물표는 줄에 꿰어 보관했다. 어떤 경우에는 간단한 물표들을 밀봉하기 전에 점토 봉투 위에 찍어서 내용물이 무엇인지 표기하기도 했다(Woods, 2012, pp. 3-8; Lieberman, 1980, pp. 339-358). 이런 관습이 결국 물표를 점토판 위에 찍어서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는데 문양을 새긴 복잡한 물표의 경우에는 첩필로 그 문양만 토판에 그리는 방법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 슈만트-베쓰랏은 간단한 물표는 초기 슈메르어 그림문자로 발전하는 기초가 되었고(곡식이나 동물 등) 복잡한 물표는 어떤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

2. 문자 발생 이전과 이후 상황에 관한 좀더 폭넓은 논의를 소개한다.

3. Pierre Amiet의 연구는 다른 연구에 비해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이들과 유사한 주장을 펼쳤다.

하는 기호로 발전했으리라 짐작한다(동물의 나이나 성별, 특별한 음식, 금속, 천, 무기, 도구 등). 같은 원리로 슈메르어 수사의 발전도 설명할 수 있다며, 공 위에 물표를 찍으면서 한 기호를 여러 번 사용하지 않고 따로 숫자를 만들어 기록하는 방법도 고안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과연 복잡한 물표 위에 그린 문양이 초기 슈메르어 그림문자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Englund, 1998, p. 46, n. 91; 2011, p. 33; Woods, 2012, p. 5; 2015, p. 48; Zimansky, 1993, pp. 513-517).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초기 슈메르어 문서들은 물표가 수행하던 것과 같은 사회적 기능, 즉 장부 작성 및 보존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슈메르어 그림문자들과 물표의 문양 사이에 분명한 유사성이 존재한다. 특히 이 문양들이 자연의 물체를 그대로 흉내 내지 않고 인위적으로 창조한 것일 경우 물표와 그림문자가 역사적으로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표 2).

	물표	그림문자
어린 양		
양		
암양		

표 2. 물표와 그림문자의 유사점
출처: Schmandt-Besserat, 1996, p. 72.

물표와 그림문자가 자연계에 있는 물체와 비슷하게 생긴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표 3).

이렇게 볼 때 물표와 초기 슈메르어 그림문자는 문화적으로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혁신’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생각해 보면, 구체적인 모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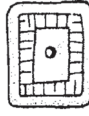
	물표	그림문자
개		
소		
양젖		
밭줄		
돛자리		

표 3. 물표와 그림문자
출처: Schmandt-Besserat, 1996, pp. 72-73, 75.

가진 물체를 사용해서 특정한 품목의 성격과 수를 가리키던 단계에서 추상적인 기호와 숫자를 사용해서 같은 목적을 성취하는 단계로 이전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물표는 원래 특정한 모양을 가진 물표가 그 대상 하나를 가리키는 형태였는데, 최종적으로 그림문자는 기호 하나가 그 대상이라는 관념을 가리키고 숫자를 통해 실제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방법을 쓰게 된 것이다. 특히 이런 변화는 슈메르 사회가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계층과 직업이 분화하는 상황과 상응한다. 그렇다면 이 혁신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실제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을 찾아 자연스러운 변화를 성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췌기문자가 표준화되는 과정

복잡한 물표나 초기 슈메르어 그림문자를 그리기 위해서는 끝이 가늘고 뾰족한 첨필(stylus)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연계의 사물을 그 모양대로 묘사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췌기문자가 표준화되면서 전혀 다른 모양의 필기구를 사용하게 되었다. 마르지 않은 토판에 끝이 삼각형으로 생긴 첨필을 사용해서 찍어 누르듯 문자를 써야 췌기문자를 쓸 수 있다. 이런 모양의

침필을 사용하면 머리가 삼각형이고 꼬리가 긴 ‘췌기’ 모양의 수평선과 수직선 그리고 사선을 쓸 수 있지만, 부드럽게 구부러진 선으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듯 문자를 기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초기 슈메르어의 그림문자가 췌기문자로 표준화되는 과정에서 기호의 모양이 추상적이고 짧은 직선으로 쓸 수 있게 변하는데, 이런 변화는 서기들이 사용하는 침필의 모양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이미 우룩 제 4-3 지층(Uruk IV-III)과 켈메트 나즈르 시대(Jemdet Nasr periods, 기원전 3300-기원전 2900년)에 이미 시작되었다(Green, 1985, pp. 345-372).

이와 함께 초기 슈메르어 그림문자가 췌기문자로 표준화되는 과정에서 문자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하여 그 사물의 일반적인 모습과 달라지는 현상도 발생한다. 그 이유를 한 마디로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토판을 왼 손에 쥐고 오른 손에 든 침필로 췌기문자를 찍어 쓰는 각도가 더 편리하도록 변화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원전 2500년경 이런 변화들이 거의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때에는 그림 문자의 특징은 거의 사라지고 추상적인 기호로 아카드어 문서를 작성하는 필기체계로 발전한다 (Labat, 1976, pp. 1-7, 40-41; Green, 1985, pp. 44-45; Cooper, 2004, pp. 84-89). 그림문자에서 추상적인 췌기문자로 발전해 가는 과정은 라바의 책에 잘 나타나 있다(그림 2).

가장 왼쪽 상자에는 초기 슈메르어 그림문자가 머리가 긴 여성의 옆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오른쪽 상자를 보면 곡선이 없어지고 췌기 모양의 짧은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식적인 슈메르어 기호가 나타난다. 문자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90도 회전하여 마치 이 여성이 누워있는 형상이다. 그 오른쪽에는 아카드어를 쓰는 췌기문자로 윗줄이 앗슈르 지방 방언이고 아랫줄이 바빌리 지방 방언이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고앗슈르/고바빌리어, 중앗슈르/중바빌리어, 그리고 신앗슈르/신바빌리어에서 썼던 기호들을 볼 수 있다. 이미 여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갈수록 간단하고 정형화된 기호로 표준화되고 있다. 이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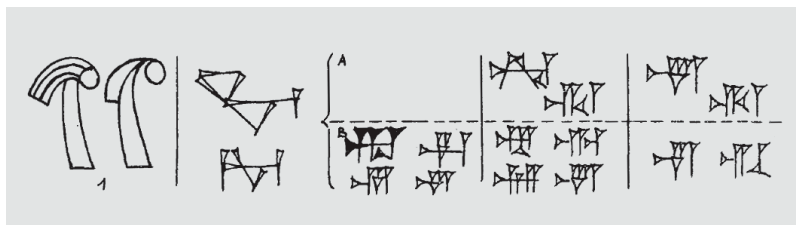


그림 2. 췌기문자 INNANA/INNIN 기호의 변천
아카드어로 /štar라고 읽음, 출처: Labat, 1976, pp. 84-85

방식으로 표준화된 췌기문자는 기원후 2세기까지 계속해서 사용하였다. 물론 후대에 가서는 자음표기 위주인 아랍어와 헬라어 알파벳이 상용어가 되면서 췌기문자는 신전과 같은 특별한 공동체 안에서만 사용되었다(Oelsner, 2002; Houston, Baines, & Cooper, 2003, pp. 450-456).

췌기문자가 표준화되면서 관찰할 수 있는 이 변화는 역시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작업 수행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그리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곡선을 이용한 사실적 대상 묘사를 지양하고 간단한 직선으로 누구나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기호를 사용하게 된 점이 그러하다. 특히 왼손에 든 토판을 돌려가며 침필로 눌러쓰기 쉽도록 필기 각도가 변한 것은 편리하게 문자를 기록하기 위해서 묘사의 대상이었던 사물의 모양과 결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변화들은 췌기문자가 슈메르어를 적는데 그치지 않고 셈족 이주민들이 아카드어를 기록하는데 차용하면서 더욱 급격하게 나타나며, 도시국가가 영토국가로 발전하는 단계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효율성과 정확성은 사회발전 단계에 맞추어 절실하게 요구되던 덕목이었고, 췌기문자 필기 체계가 그에 부응하여 혁신을 감행했던 것이다.

IV. 그림문자가 부활하는가?

이렇게 삼천 년 가까이 사용된 췌기문자의 역사 속에서 고대 서아시아 사람들은 추상적인 기호를 주로 사용했고, 그들의 필기 전통 속에서 그림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전통에 어긋나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아카드어의 신앗슈르(Neo-Assyrian) 방언으로 기록한 ‘고문서 토판(paleographic tablets)’이 그것인데, 이 문서에는 당시에 사용하던 췌기문자가 파생되어 나온 초기 슈메르어 그림문자가 무엇인지 그 연원을 기록하고 있다(Daniels, 1992, pp. 1-4; Finkel, 1997, p. 1; Michalowski & Misir, 1998, pp. 54-55; Veldhuis, 2011, pp.

79-80; Pearce, 1996, pp. 454-455, 473). 물론 이 문서에 남아있는 그림문자가 실제 슈메르어 문자인지 아니면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 낸 결과인지 확인할 길은 없다.

이와 달리 의도적으로 그림문자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으니 학자들은 이 문자를 ‘앗슈르 상형문자(Assyrian hieroglyphics)’라고 부른다. 신앗슈르 제국의 왕 사르곤

(Sargon II, 재위. 기원전 721-기원전 705년)과 에사르하돈(Esarhaddon, 재위. 기원전 680-기원전 669년) 시대에 일어난 일로 어법은 악카드어의 앗슈르 방언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르곤왕은 신전을 건축할 때 사용할 벽돌과 청동 물품에 신들의 이름을 표기하려고 호르싸밧의 서기들에게 특별한 그림문자를 만들 것을 명령했는데(Finkel & Reade, 1996, pp. 246-253), 이 그림문자들은 특정한 앗슈르어 낱말에 상응하는 어표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자면 ‘샤자’ 그림을 그려놓고 ‘왕’이라고 읽고, ‘왕’의 옆 모습을 ‘사르곤’이라는 이름으로 읽는 식이다.

에사르하돈 왕 치하에 기록된 문서 중 ‘에버딘 경의 검은 석비(Lord Aberdeen’s Black Stone)’라고 알려진 유물이 있는데(Finkel & Reade, 1996, pp. 254-256; Roaf & Zgoll, 2001, pp. 264-295), 앞면에 그림들이 두 줄로 새겨져 있다(그림 3).

윗 줄에는 신전, 왕, 나무, 황소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문자들을 왕의 이름 ‘에살하돈(악카드어로 *Aššur-abu-iddina*)’으로 읽을 수 있다. 아랫 줄에는 산과 쟁기, 나무, 울타리가 있으며, 여기서 산 그림이 이집트어처럼 ‘큰 집’을 상징할 수 있다면 ‘상부와 하부(메소포타미아)의 큰 집’이라고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이 명문 전체가 이집트식 왕의 호칭을 모방한 문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Finkel & Reade, 1996, pp. 258-261; Roaf & Zgoll, 2001, pp. 268-277).

신-앗슈르 제국의 서기들이 이미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쐐기문자 필기체계 외에 이런 그림문자들을 부활시킨 이유는 악카드어가 원래 슈메르어의 필기체계를 차용하였다는 자기인식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당시 신앗슈르 제국의 영토가 급속도로 넓어지면서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아나톨리아 반도의 상형문자(Luwian hieroglyphic)와 이집트 상형문자(Egyptian hieroglyphs)와 접촉하면서 그림문자를 향한 관심이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Finkel & Reade, 1996, pp. 245-246). 그렇다면 이 그림문자는 신-앗슈르 제국이 이런 지역을 군사적으로 접수하면서 문화적인 통합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Finkel & Reade, 1996, p. 261; Parpola, 1993, p. 197; 신-앗슈르 왕들의 이집트 정벌에 관해서는 Grayson, 1991, pp. 88-89), 이런 그림문자가 공문서 작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부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 보다는 이 현상을 서로 다른 문화들 간의 접촉 현상과 자기 정체성이라는 문맥에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앗슈르는 문화적인 면에서 볼 때 이라크 남쪽에서 먼저 발전하던 바빌리 문명의 후발 주자였다. 슈메르 문명을 계승하며 진작부터 고도의 도시문명을 구가하던 바빌리 지역에 비교할 때 앗슈르 지역은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문명의 세례를 받지 못하였고, 중앗슈르 시대가 되면서 미탄니 왕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영역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앗슈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인공이 된 것은 기원전 9세기 신앗슈르 제국이 형성되던 때부터이며, 제국의 성공은 주로 군사력의 우위에서 비롯되었다. 신앗슈르 제국은 티그리스 강 북부에서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는 물론 아나톨리아와 이집트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면서 성공을 거두는데, 문화적인 열등감은 쉽게 떨쳐 버릴 수 없었다. 글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니스웨에서 발견된 앗슈르바니팔의 도서관은 이런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한 절박한 노력 중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앗슈르바니팔 왕은 자기 왕궁에 보유할 도서를 수집하기 위해 직접 관리들을 남부 바빌리 지방에 파견할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고 알려져 있다(Finkel, 2004, pp. 55-57; Frahm, 2011, p. 523). 앗슈르바니팔이 자신의 관리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는데, 보르썩파(*Borsippa*) 도시에서 수집가능한 모든 서판을 모아 오되 특히 나부(*Nabû*) 신의 에지다(*Ezida*) 신전에 있는 문서들을 수집해 올 것을 명령하고 있다(CT 22, 1 obv. 8-10; Waerzeggers, 2010; Wiseman & Black, 1996, pp. 2-7).

그렇다면 앗슈르 상형문자도 이와 비슷한 문맥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군사력으로는 고대 서아시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항할 수 없는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아직도 문화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앗슈르 왕들이 유구한 역사를 통해 고도의 문화를 발전시켜온 이집트 같은 나라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이미 쐐기문자를 소리글자로 사용하는 필기체계가



그림 3. 에버딘경의 검은 석비
출처: Roaf & Zgoll, 2001, p. 265

확립되어 다양한 행정문서를 기록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고대 문명인들이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그림 문자를 통해서 명문을 기록해야 한다고 느꼈던 것이다. 물론 매우 인위적인 노력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역사가 깊은 나라의 명문처럼 기념비를 만들어 세우고자 했던 앗슈르 왕들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이 혁신책은 그리 오래 지속될 수 없었으며 폭넓게 사용되지도 못하고, 신앗슈르 제국의 멸망과 함께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V. 의고형 언어와 의고체 문자의 사용

악카드어를 기록한 췌기 문자 필기체계는 방언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어법과 문자를 사용한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고앗슈르/고바빌리 방언, 중앗슈르/중바빌리 방언, 신앗슈르/신바빌리 방언으로 여섯 가지 양태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 분류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표준 바빌리어(Standard Babylonian)’라고 부른다. 표준 바빌리어는 일상생활에는 사용하지 않고 앗슈르와 바빌리 지역 왕궁 서기들이 종교 문서나 왕정문서를 기록하기 위해 고안해 낸 인위적인 필기체계이며, 고바빌리어(Old Babylonian)를 모방한 의고형 문법과 문학적 표현 등이 특징이다(Huehnergard, 2005, pp. 595-598; Cooper, 1996, p. 37). 기원전 1500년경부터 시작해서 악카드어가 사라질 때까지 사용되었는데,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서들을 기록하는 지역 방언들과 공존하면서도 가상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인위적인 필기체계라고 할 수 있다.

표준 바빌리어 사용과 궤를 같이 하는 현상으로 신바빌리어(Neo-Babylonian) 문서에 어표 사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췌기문자로 기록하는 언어가 슈메르어에서 악카드어로 변하면서(Cooper, 1999, pp. 63-70) 표의문자인 어표 사용이 줄고 썸어를 충분히 표기할 수 있는 음절 기호 사용이 늘어난다. 악카드어는 동일한 어근을 특정한 모음이 포함된 양식에 적용하면서 동사 활용형이 결정되므로, 표의문자인 어표보다는 음절 기호를 이용해서 좀 더 구체적인 형태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바빌리어로 기록한 문서들 중에는 의도적으로 동사 활용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어표로 단순화시켜서 적는 경향이 발견된다. 독자는 문장에서 동사 어근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문장으로 읽으려면 본인의 문법지식을 동원하여 문장에 걸 맞는 악카드어 동사형으로 변화시켜 읽어야 한다. 때로 어표에 발음기호 역할을 하는 음절기호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냥 어표 하나로 대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악카드어 특유의 발음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문장들은 서투른 슈메르어 문장처럼 보이게까지 한다. 이 현상은 일반적인 췌기 문자 필기전통의 흐름에 반대되기 때문에 신바빌리 제국 서기들의 선택은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인위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필기체계와 구별되는 의고형 언어나 의고체 문자를 사용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전문직 서기들이 의도적이고 인위적으로 선택한 관습이라는 점도 유사하다. 표준 바빌리어는 거룩한 종교적 문서나 그 만큼 권위가 있는 왕정문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언을 고안한 경우이다. 결국 정치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언어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이다. 신바빌리어 필기습관도 권위있는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인위적인 선택이지만, 이 시대에 일상용어가 악카드어에서 아람어로 바뀐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라는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 사라져 가는 문화의 수호자들이 특별히 의고체를 선택한 것은 정치적 목적보다는 자기들의 문화적 자존심과 정체성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다. 악카드어 문서이긴 하지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의고체 문자들을 사용해 가며, 자신들이 대표하고 있는 문화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췌기문자 필기체계를 기초로 일어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아람어와 헬라어가 서아시아 문화를 설계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VI. 결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신들이 세상과 인간을 만든 후 일곱 현인들에 의해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가 확정된 후 그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 속에서 형성된 전통을 기초로 확립되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은 이미 운명으로 정해졌으니 인간은 신들의 뜻을 파악하고 그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의무이며 최종적인 지혜라고 여겼다. 췌기문자는 바로 이런 세계관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적 상징물이었다. 고대 서아시아 지역 서기들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췌기문자와 필기 전통을 습득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장 완벽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혁신적인 변화도 발생했다. 물표에서 췌기문자가 발생하거나,

그림문자가 쐐기문자로 또 음절문자로 필기전통은 끊임없이 변화했다. 글자 모양도 곡선보다 짧은 직선을 사용한 도식적인 형태로 바뀌고, 필기 각도도 쓰기 편한 쪽으로 돌렸다. 이런 변화들은 사회 상황이 변화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필기체계가 필요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났고,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인 변화로 정착했다. 한편 앗슈르 지역에서 일부러 그림문자를 다시 쓰는 현상이 목격되었고, 의고형 언어인 표준 바빌리어 방언 또는 신바빌리어에 일부러 의고형 문자를 삽입하여 기록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런 변화는 타문화와 접촉하면서 권위를 과시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도되었거나 또는 점점 사라져 가는 필기문화의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고 권위 있는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선택한 인위적인 변화였다. 일반적인 필기관습으로 정착하지도 못했고, 결국 명문 몇 가지만 남기고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렇게 볼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서는데 기초가 되었던 쐐기문자 중심의 필기체계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혁신책을 내놓고 명민하게 문화발전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이미 기울어 버린 대세를 되돌리려는 인위적인 노력은 그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역사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마감되었지만, 이런 외부 개입이 없었다고 해도 쐐기문자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적 한계에 부딪친 이후에는 역사의 물길을 되돌릴 수 없었을 것이다.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며 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단계에서는 기존의 쐐기문자 필기체계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 사회의 요구가 더 커지거나 쐐기문자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필기체계가 등장할 때 자연스럽게 기능을 멈추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s)

- Adkins, L. (2003). *Empires of the plain: Henry Rawlinson and the lost languages of Babylon*. New York: St. Martin's Press.
- Amiet, P. (1966). Il y a 5000 ans, les Élamites inventaient l'écriture. *Archéologia*, 12, 16-23.
- André-Salvati, B. (1997). Thureau-Dangin François. In E. M. Meyers (Ed.), *The Oxford encyclopedia of archaeology in the Near East* (Vol. 5, p. 20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umgarten, J. (2001). Jules Oppert et la naissance de l'assyriologie. *Histoire, Épistémologie, Langage*, 23, 77-99.
- Bottéro, J. (1992). *Mesopotamia: Writing, reasoning, and the gods* (Z. Bahrani & M. Van De Mieroop, Tra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usius, M. (2013). From photographic science to scientific photography: Talbot and decipherment at the British Museum around 1850. In M. Brusius, K. Dean, & C. Ramalinga (Eds.), *William Henry Fox Talbot: Beyond photography* (pp. 219-244).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Cathcart, K. J. (2011). The earliest contributions to the decipherment of Sumerian and Akkadian. *Cuneiform Digital Library Journal*, 1, 1-12.
- Cooper, J. S. (1996). Sumerian and Akkadian. In J. Sasson (Ed.),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Vol. 4, pp. 2279-2291).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Cooper, J. S. (1999). Sumerian and Semitic writing in most ancient Syro-Mesopotamia. In K. Van Lerberghe & G. Voet (Eds.), *Languages and cultures in contact: At the crossroads of civilizations in the Syro-Mesopotamian realm* (pp. 63-70). Leuven: Peeters.
- Cooper, J. S. (2004). Babylonian beginnings: The origin of the cuneiform writing system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S. D. Houston (Ed.), *The first writing: Script invention as history and process* (pp. 71-9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niels, P. T. (1992). What do the "paleographic" tablets tell us of Mesopotamian scribes' knowledge of the history of their script? *Mar Sipri*, 5, 1-4.
- Englund, R. K. (1998). Texts from the Late Uruk period. In J. Bauer, R. K. Englund, & M. Krebernik (Eds.), *Mesopotamien: Späturuk-Zeit und Frühdynastische Zeit* (pp. 15-223). Freiburg: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Englund, R. K. (2011). Accounting in proto-cuneiform. In K. Radner & E. Robson (Eds.), *The Oxford handbook of cuneiform culture* (pp. 32-5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agan, B. M. (2012). Botta, Paul Emile. In N. A. Silberman (Ed.), *The Oxford companion to archaeology* (Vol. 1, p. 20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inke, J. C. (2004). The British Museum's Ashurbanipal Library Project. *Iraq*, 66, 55-60.
- Finkel, I. L. (1985). Inscriptions from Tell Brak 1984. *Iraq*, 47, 187-201.
- Finkel, I. L. (1997). Practical political palaeography. *Nouvelles assyriologiques brèves et utilitaires*, 1, 1.
- Finkel, I. L., & Reade, J. E. (1996). Assyrian hieroglyphs.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86, 244-268.
- Frahm, E. (2011). Keeping company with men of learning: The king as scholar. In K. Radner & E. Robson (Eds.), *The Oxford handbook of cuneiform culture* (pp. 523-54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ordon, C. H. (1982). *Forgotten scripts: Their ongoing discovery and decipherment*. New York: Basic Books.
- Grayson, A. K. (1991). Assyria: Tiglath-Pileser III to Sargon II (744-705 B.C.). In J. Boardman et al. (Eds.),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Vol. 3, Pt. 2, pp. 71-10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en, M. W. (1985). The constr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uneiform writing system. *Visible Language*, 15, 345-372.
- Green, M. W., & Nissen, H. J. (1987). *Zeichenliste der archaischen Texte aus Uruk*. Berlin: Mann Verlag.
- Grayson, A. K. (1991). Assyrian civilization. In J. Boardman et al. (Eds.),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Vol. 3, Pt. 2, pp. 227-22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ehnergard, J. (2005). *A grammar of Akkadian* (2nd ed.). Winona Lake, IN: Eisenbrauns.
- Houston, S., Baines, J., & Cooper, J. (2003). Last writing: Script obsolescence in Egypt, Mesopotamia, and Mesoameric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45, 430-456.
- Kramer, S. N. (1988). *In the world of Sumer: An autobiography*.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 Labat, R. (1976). *Manuel d'épigraphie akkadienne* (Rev. and corr. by F. Malbran-Labat). Paris: Librairie Orientaliste Paul Geuthner.
- Lieberman, S. J. (1980). Of clay pebbles, hollow clay balls, and writing: A Sumerian view. *American Journal of Archaeology*, 84, 339-358.
- Michalowski, P. (1996). Mesopotamian cuneiform: Origin. In P. T. Daniels & W. Bright (Eds.), *The world's writing systems* (pp. 33-3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ichalowski, P. (1997). Sumerians. In E. M. Meyers (Ed.), *The Oxford encyclopedia of archaeology in the Near East* (Vol. 5, pp. 95-10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ichalowski, P. (2004). Sumerian. In R. D. Woodard (Ed.),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the world's ancient languages* (pp. 19-5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chalowski, P., & Misir, A. (1998). Cuneiform texts from Kazane Höyük.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50, 53-58.

- Oelsner, J. (2002). *„Sie ist gefallen, sie ist gefallen, Babylon die große Stadt“: Vom Ende einer Kultur*. Leipzig: Sächs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Leipzig.
- Oppenheim, A. L. (1977). *Ancient Mesopotamia: Portrait of a dead civiliz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rpola, S. (1983). Assyrian library records.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42, 1-29.
- Pearce, L. E. (1996). The number-syllabary text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16, 453-474.
- Pope, M. (1975). *The story of archaeological decipherment: From Egyptian hieroglyphs to Linear B*.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Robson, E. (2013). Bel and the dragons: Deciphering cuneiform after decipherment. In M. Brusius, K. Dean, & C. Ramalinga (Eds.), *William Henry Fox Talbot: Beyond photography* (pp. 193-218).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Roaf, M., & Zgoll, A. (2001). Assyrian astroglyphs: Lord Aberdeen's black stone and the prisms of Esarhaddon.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und Vorderasiatische Archäologie*, 91, 264-295.
- Roux, G. (1992). *Ancient Iraq*. London: Penguin Books.
- Schmandt-Besserat, D. (1989). Two precursors of writing: Plain and complex tokens. In W. M. Senner (Ed.), *The origins of writing* (pp. 27-41).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chmandt-Besserat, D. (1992). *Before writing, Vol. 1: From counting to cuneiform*. Austin, TX: University of Texas Press.
- Schmandt-Besserat, D. (1996). *How writing came about*. Austin, TX: University of Texas Press.
- Stronach, D., & Zournatzi, A. (1997). Bitun. In E. M. Meyers (Ed.), *The Oxford encyclopedia of archaeology in the Near East* (Vol. 1, pp. 330-33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eldhuis, N. (2011). Levels of literacy. In K. Radner & E. Robson (Eds.), *The Oxford handbook of cuneiform culture* (pp. 68-8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aerzeggers, C. (2010). *The Ezida temple of Borsippa: Priesthood, cult, archives*. Leiden: Nederlands Instituut voor het Nabije Oosten.
- Walker, C. B. F. (1990). Cuneiform. In J. T. Hooker (Ed.), *Reading the past: Ancient writing from cuneiform to the alphabet* (pp. 14-73). Los Angeles &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ondon: The British Museum.
- Wiseman, D. J., & Black, J. A. (1996). *Literary texts from the temple of Nabû*. London: The British School of Archaeology in Iraq.
- Woodard, R. D. (2003). Writing systems. In B. Comrie, S. Matthews, & M. Polinsky (Eds.), *The atlas of languages* (Rev. ed., pp. 160-207). London: Quarto Publishing.
- Woods, C. (2012). Early writing and administrative practice in the ancient Near East: New technology and the study of clay envelopes from Choga Mish. *The Oriental Institute News & Notes*, 215, 3-8.
- Woods, C. (Ed.). (2015). *Visible language: Inventions of writing in the ancient Middle East and beyond* (2nd printing with minor corrections). 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 Zimansky, P. (1993). Review of Schmandt-Besserat 1992. *Journal of Field Archaeology*, 20, 513-517.

췌기문자와 도시

Cuneiform and the City



* 앙카라

■ 보아즈코이-하투샤

■ 오르타코이-사피누와

튀르키예
Türkiye

■ 카네쉬

키프로스

지중해

레반트

가나안

사해

시나이

홍해

시리아
Syria

■ 에블라

■ 우가릿

■ 카데시

■ 에마르

■ 마리

이라크
Iraq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 호르샤밧

■ 니스웨(모술)

■ 님루드

■ 앳슈르

* 바그다드

■ 십파르

■ 키쉬

■ 바빌리

■ 님푸르

■ 슈룹팍

■ 우룩

■ 라르싸

■ 우르

■ 에리두

■ 수사

■ 기르수

이란
Iran

자그로스산맥

페르세폴리스
(페르시아 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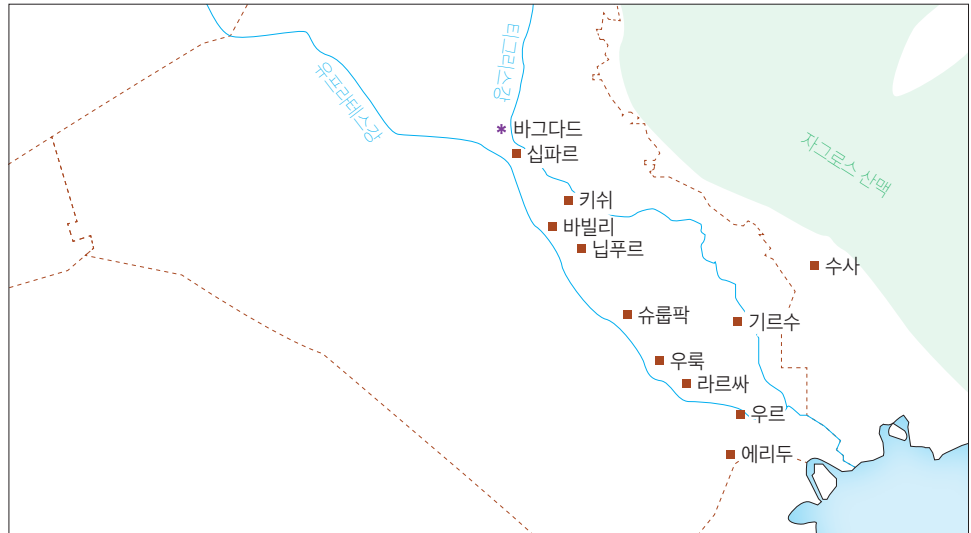
페르시아 만

사우디 아라비아

■ 고대 도시

* 현재 도시

남부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남부 Southern Iraq



지역	현재지명	내용
기르수 (Girsu)	텔로 (Tello)	라가쉬왕국의 종교 중심지로 켈기문자가 새겨진 구데아 왕의 조각상이 발굴됨.
넵푸르 (Nippu)	누파르 (Nuffar)	넵푸르는 슈메르의 종교 중심지이며 신들의 왕 엔릴(Enlil)을 섬기는 에쿠르(Ekur)신전이 있는 곳. 다른 지역에서 세력을 잡은 정치 지도자들과 다른 신상들이 넵푸르를 방문하여 제사와 헌정문을 올렸음.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전이라 알려진 '우르남무 법전(Ur-Nammu Law Code)'의 출토지.
라가쉬 (Lagas)	텔 알히바 (Tell al-Hiba)	구데아(Gudea)가 통치했던 도시국가, 그는 꿈속에서 닌기르쑈(Ningirsu)신에게 신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에닌누(Eninnu, 50가지 (신의 능력의) 집이라는 뜻)신전을 건립하고 점토 못에 신전을 바치는 헌정문을 켈기문자로 새겨 설치하였음.
라르싸 (Larsa)	텔 앓켄케레 (Tell as-Senkereh)	고바빌리 시대가 확립되기 전 도시 이썬(Ishin)과 함께 이라크 남부의 중심도시였음.
바빌리 (Babili, Babylon)	힐라 (Hilah)	기원전 20세기경 아모리인들이 서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이주하여 세운 도시.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Code of Hammurabi)으로 유명한 함무라비왕이 통치하면서 고바빌리 시대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였음. 이후 이라크 남부의 중심도시였으나 신바빌리(기원전 7-6세기)시대에 네부카드네צר 2세(Nebuchadnezzar II)가 대규모 토목공사로 제국의 수도로 재건하였음.
슈루팍 (Shuruppak)	텔 파라 (Tell Fara)	선사시대 주거지들이 확인됨. '홍수 설화'의 주인공이 슈루팍 출신으로 알려질 만큼 초기 슈메르 문명의 중심지였음. 속담 모음집인 '슈루팍의 지혜'도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음.
신파르 (Sippar)	텔 아부-합바 (Tell Abu Habba)	태양신 샤마쉬(Shamash)신전에서 잘 보존된 켈기문자 점토판이 대량으로 발견됨. 악카드제국의 왕 나람-썬(Naram-Sin, 기원전 2254-기원전 2218년경)의 정복전쟁과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나람-썬 승전비(Victory Stele of Naram-Sin, 기원전 2250년, 루브르박물관 SB4)가 발견됨.
우르 (Ur)	텔 엘-무카이야르 (Tell el-Muqayyar)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함, 메소포타미아 무역의 중심지이자 슈메르 대표적 도시국가로 달의 신 '난나' 숭배의 중심지임. 고대 주민 일부가 묻힌 약 2천기의 무덤이 발견됨.
우룩 (Uruk)	와르카 근처 (Warka)	켈기문자의 전 단계인 원-켈기문자(proto-cuneiform)가 1935년에 발굴됨, 당시 발견된 문자는 약 1,000자 정도로, 1자가 1단어를 나타내는 표의문자 체계였음. 이를 통해 기원전 3500년경 인류가 최초로 문자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음. 당시 경제의 중심지였던 신전에서 우룩의 사제들이 문자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됨. 기원전 3100년경부터 상형문자가 점차 켈기문자로 변화함. 전설적인 국왕 길가메쉬를 주인공으로 한 인류 최초의 영웅 서사시 <길가메쉬 서사시>의 지역적 무대임.
움마 (Umma)	움 알-아까리브 (Umm al-Aqarib)	초기 왕조 시대(약2900-2334년) 말에 라가쉬와 함께 지역 중심지로 발돋움하였음. 원-켈기문자를 비롯한 다양한 행정·경제 문서들이 다수 발견됨. 움마에서 출토된 우شم갈 석비(Stele of Ushumgal and Shara-igizi-Abzu, 기원전 2900-기원전 2700년, 메트로폴리탄미술관(58.29)는 당시 슈메르의 정치·종교적 상황을 반영, 토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일부 해석됨.
이썬 (Isin)	이산 바흐리야트 (Ishan Bahriyat)	이썬은 초기 왕조시대부터 슈메르 도시 국가로 역사가 깊었음, 우르 제3왕조가 멸망한 뒤 라르싸와 함께 세력을 다투는 중심도시로 성장했음. 왕을 찬양하는 시 등 전통적인 문학작품과 이쉬비-에라 시대(Ishbi-Erra, 기원전 2017-기원전 1985년경)에 '거룩한 결혼식' 관련 제의 문서 등이 발견됨.
에리두 (Eridu)	아부 샤흐라인 (Abu Shahrain)	『슈메르 왕조 목록』 기록 상, 홍수 이전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와 에리두에 있었다고 전함. 슈메르인이 건설한 최초의 도시였으나 일찍 쇠퇴하였음.
젬뎃 나즈르 (Jemdet Nasr)	젬뎃 나즈르 (Jemdet Nasr)	메소포타미아의 선사시대와 초기 슈메르 문명이 잘 남아있는 지역으로 원-켈기문자로 기록한 문서들이 다수 발견됨.
키쉬 (Kish)	텔 알-우하이미르 (Tell al-Uhaymir)	『슈메르 왕명록(Sumerian King List)』에서는 대홍수 기록으로 홍수가 땅을 휩쓸고 난 뒤 왕권이 다시 하늘에서 내려와 키쉬에서 시작되었다고 기록함. 초기 왕조 시대 슈메르 지역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했던 도시로 행정경제 관련 문서나 편지들이 다수 발견됨.

북부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북부

Northern Iraq



지 역	현재지명	내 용
니스웨 (Nineveh)	이라크 모술 (Mosul)	신앗슈르 제국의 센아헤립 왕(Sennacherib, 재위. 기원전 704-기원전 681년)에 의해 수도가 됨, 앓슈르바니팔 도서관이 있음.
앓슈르 (Assur)	칼앗 셰르갓 (Qal'at Sherqat)	이라크 북동부에 있는 작은 도시로 원래 상인들이 국제무역을 하던 곳이었지만 기원전 10세기 이후 신앗슈르제국의 첫 수도가 되면서 급격히 발전했음.

튀르키예

Türki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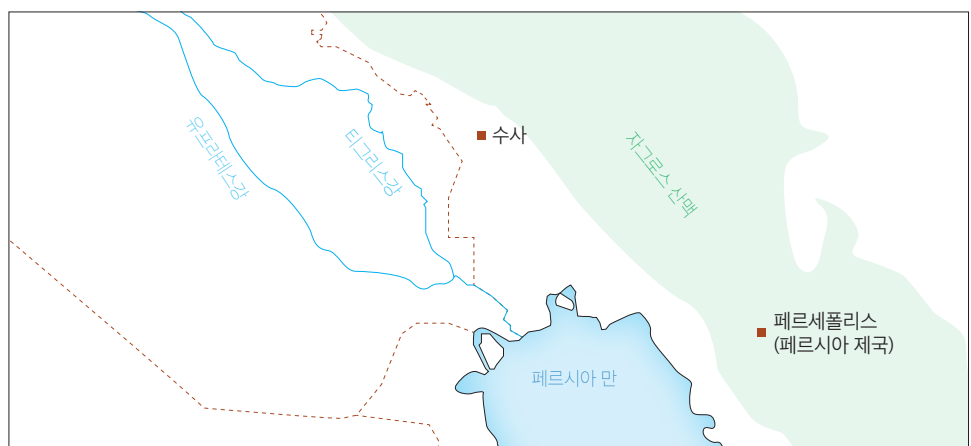
지 역	현재지명	내 용
보아즈코이-하투샤 (Boğazköy-Hattusa)	보아즈칼레 (Boğazkale)	보아즈코이-하투샤 문서고는 1906년 독일 고고학자 후고 빈클러(Hugo Winckler)에 의해 발굴되었음. 히타이트어, 악카드어, 슈메르어, 후르리어, 루위아어 등 8개 이상 서로 다른 언어의 썬기 점토판이 발견됨. 그 중, 히타이트 제국의 가장 오래된 법령인 텔리피누 법령(Telepinu Proclamation, 기원전 1525-기원전 1500년경)도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왕위 계승 원칙, 혈연 책임 폐지, 재판소 운영을 알 수 있게 됨. 히타이트인들은 기록뿐만 아니라 점토판을 보관하는 데에도 세심함을 보였으며, 점토판은 문서고로 보이는 곳에 잘 정리된 상태로 출토됨.
오르타코이-사피누와 (Ortaköy-Sapinuwa)	사피누와 (Sapinuwa)	히타이트의 제2수도, 히타이트 시대 히타이트어, 후르리어, 하티어, 악카드어, 슈메르어 등의 언어로 쓰여진 4,500개의 썬기 문자 점토판이 발견됨.
카네쉬 (Kanesh)	쿨테페 (Kültepe)	고대 아슈르의 상인들이 아나톨리아로 진출하면서 남긴 기록인 카네쉬 문고(Kanesh Archives) 또는 쿨테페 문고(Kültepe Archives)가 있음. 이 지역은 아나톨리아에 있던 무역도시로 상인들의 일상거래, 계약에 관한 점토판이 발견, 고대 근동인 개인 상인의 네트워크와 일상을 확인할 수 있음.

시리아 Syria



지역	현재지명	내용
마리 (Mari)	텔 하리리 (Tell Hariri)	유프라테스강의 중류에 있는 교통의 중심지로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시. 기원전 19세기 이후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세력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시대 상황을 묘사한 수 많은 편지들이 있던 문서보관소(마리 문서고, Mari Archives)가 발견되었음.
우가릿 (Ugarit)	라스 샴라 (Ras Shamra)	기원전 14-12세기, 시리아 해변에서 항구 도시로 융성했던 우가릿에서 쐐기문자를 기초로 만든 알파벳 계열의 문자 체계로 쓴 문서들이 대량으로 발견됨. 악카드 문자를 차용하여 우가릿어에 맞는 알파벳으로 개량했음. 우가릿 쐐기문자는 겉모양은 쐐기문자이지만 30개의 자-모음 문자로 구성되었으며, 해독은 1930년 한스 바우어(Hans Bauer)에 의해 이루어 짐.
에블라 (Ebla)	텔 마르딕 (Tell Mardikh)	청동기 시대 시리아 지역의 교역 중심지였고, 슈메르어와 악카드어로 쓴 쐐기문자 점토판이 다수 발견됨. 쐐기문자로 표현한 에블라 방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음. 기원전 2500-기원전 2350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약 20,000개의 쐐기문자 점토판이 발견되었는데 슈메르어와 에블라어, 악카드어가 쐐기문자로 기록, 에블라의 이중언어 어휘 목록(기원전 2350년경), 에블라와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음.
카데시 (Kadesh)	텔 안-네비 만두 (Tell al-Nabī Mandū)	기원전 1274년경 전략적 요충지였던 카데시를 두고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충돌한 카데시전투가 발생했음. 국경분쟁 끝에 기원전 1259년 최초의 평화협정인 '영원한 협정'을 체결. 협정 문서는 이집트본(카르낙, 룩소르 등에 새겨짐)과 히타이트 본은 외교 공용어인 악카드어로 기록되어 히타이트 수도 하투사에서 발견됨.
에마르 (Emar)	텔 마스케네 (Tell Meskene)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이의 무역로, 기원전 14세기 후반부터 기원전 12세기 초반에 작성한 쐐기문자 문서 800여점이 발견됨.

이란 Iran



지역	현재지명	내용
수사 (Susa)	후제스탄주 슈시 (Shush)	메소포타미아 동부 이란 산지에 위치한 고대 엘람의 수도. 기원전 3000년경부터 원시 엘람어로 된 문자를 사용하였으나 완전히 해독되지 않음. 기원전 26세기경부터 쐐기문자에 기초한 문자 체계를 사용했고, 이후 기록한 명문들이 존재함. 슈메르 문자 영향 아래 상형문자를 사용했으나 악카드의 사르곤왕에게 정복당한 후 단순한 쐐기문자를 사용하게 됨. 함무라비 법전과, 나람신왕 전승비가 이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두 석비 모두 원래 메소포타미아(바빌리, 악카드)에서 제작 되었으나 기원전 12세기 엘람의 침공 때 수사로 옮겨졌고, 20세기 초 프랑스에 의해 발견되어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됨.

정리: 김혜정(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감수: 윤성덕(연세대학교)

췁기문자 사용 연표

Timeline of Cuneiform Writing

기원전	남부 메소포타미아(Southern Mesopotamia)	북부 메소포타미아(Northern Mesopotamia)
3500	기원전 3500-기원전 3100년 후기 우룩시대 (Late Uruk period) 우룩 점토판 (최초의 문자 원-췁기문자(proto-cuneiform)발견)	도시국가 출현 (앗슈르 등)
3400		
3300	기원전 3300-기원전 2900년경 젬뎃 나프르 (Jemdet Nasr) 원-췁기문자(proto-cuneiform)	
3200	 젬뎃 나프르 발견 원췁기문자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3100	• 기원전 3100-기원전 2700년 블라우 석비(Blau Monuments, 메소포타미아 문명 초기의 계약문서, 영국박물관86261)	
3000	 블라우석비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2900	기원전 2900-기원전 2334년경 초기왕조 (Early Dynasty) 도시국가들의 출현과 문자의 사용 (키쉬, 님푸르, 슈룹팍, 움마, 우르, 우룩, 라가쉬 등)	• 기원전 2900-기원전 2700년 우숨갈석비 (Stele of Ushumgal and Shara-igizi-Abzu, 슈메르 사회에서 토지 및 재산거래를 보여줌, 메트로폴리탄미술관(58.29))
2800		 우숨갈석비 ©2000-2025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700	• 기원전 2600년경 슈룹팍의 교훈 (The Instructions of Shuruppak)	
2600		
2500		
2400	 나람신왕 전승비 ©2009 GrandPalaisRmn (Musée du Louvre) Franck Raux	 구데아 점토 못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2300	기원전 2334-기원전 2154년 악카드왕조 (Akkad Dynasty) • 기원전 2334-기원전 2279년 사르곤왕(Sargon, 왕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사용하는 전통을 확립) • 기원전 2254-기원전 2218년 나람신왕(Naram-Sin, 악카드 왕조의 전성기) • 기원전 2250년경 나람신왕 전승비(Victory Stele of Naram-Sin, 루브르박물관 SB4)	
2200	기원전 2141-기원전 2122년경 도시국가 라가쉬(Lagash)의 구데아 왕 구데아 점토 못 (Gudea's clay cone,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구입13)	기원전 2110-기원전 2003년 신슈메르왕조 (우르3왕조, Ur III Dynasty) • 기원전 2112-기원전 2095년 우르남무왕(Ur-nammu) • 기원전 약 2100-기원전 2050년 우르남무법전(Code of Ur-Nammu) • 기원전 2094-기원전 2047년 술기왕(Shulgi), 니푸르Nippur 문헌 외 다수
2100		

기원전	튀르키예 (Türkiye)	시리아 (Syria)	이란 (Iran)
3500		구석기 시대	도시 이전 단계의 수사 (Proto-Urban Susa II)
3400			
3300			
3200			
3100			
3000	기원전 3000-기원전 2250년경 트로이 I / II 초기 청동기 시대	초기 청동기 시대	슈메르 엘람 단계의 수사 (Sumero-Elamite Susa IV)
2900			
2800			
2700			기원전 2700-기원전 1600년 원시 엘람 단계의 수사 (Proto-Elamite Susa III)
2600			고엘람시대 (Old Elamite Period) 선형엘람어(해독안됨)
2500			
2400			
2300		• 기원전 2350년 에블라(Ebla)의 슈메르어-에블라어 (이중언어 어휘 목록), 행정문서 다수 출토	기원전 2330-기원전 2150년경 악카드 지배하의 수사 (Akkadian rule in Susa)
2200	• 기원전 2200-기원전 2000년 하투샤 보와즈코이(Hattuša, Bogazköy) 출토 썬기문자(일부 악카드어 썬기문자 발견)		• 기원전 2299-기원전 2000년 안산 출토 썬기문자 점토판 (Early Elamite Tablets of Anshan(Tal-e Malgam), 선형 엘람어 문자(해독되지 않음))
2100			

기원전	남부 메소포타미아 (Southern Mesopotamia)	북부 메소포타미아 (Northern Mesopotamia)
2000	기원전 2000년경 이신-라르싸 시기 (Isin-Larsa Period) • 기원전 2000년경 슈메르 왕명록(Sumerian King List) - 인류 최초의 왕조 연대 기록	기원전 2025-기원전 1378년 고앗슈르 시대 (Old Assyrian Empire)
1900	• 기원전 1934-기원전 1924년 리피트-이쉬타르 법전 (Code of Lipit-Ishtar)  리피트 이쉬타르법전 ©Penn Museum 2025	
1800	• 기원전 1894-기원전 1595년 고바빌리 시대 (Old Babylonian Period) • 기원전 약 1750년 함무라비 법전 (Code of Hammurabi, 루브르박물관 SB8)  함무라비 법전 ©2009 Grand PalaisRmn (Musée du Louvre) Franck Raux	• 기원전 1808-기원전 1776 삼시-아다드 1세의 왕실 비문들 (Royal inscriptions of Šamši-Adad I, 상업 및 행정 관련 문서, 편지들)
1700	• 기원전 1792-기원전 1750년 바빌리의 왕, 함무라비(Hammurabi) 수학 점토판(피타고라스의 정리, plimpton322, 콜롬비아대학교 박물관)	
1600	기원전 1595-기원전 1155년 카슈왕조 (Kassite Dynasty)  쿠두루 (토지경계석)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기원전 1600-기원전 1350년 미탄니 (Mitanni Kingdom) 인도유럽어족
1500	• 기원전 1595년경-기원전 1000년경 중바빌리 시대 (Middle Babylonian Period) 쿠리갈주 봉헌 명문 (Kurigalzu Dedicatory Inscriptions)	
1400	• 기원전 1350년 전후 아마르나 서한(Amarna Letters, 약카드어 쐩기문자로 기록된 외교 서한, 이집트 발견)  아마르나서한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기원전 1363-기원전 935년경 중앗슈르 시대 (Middle Assyrian Period)
1300	기원전 1156-기원전 1025년 이신 제2왕조 (Second Dynasty of Isin)	• 기원전 1450- 기원전 1250년 중앗슈르시대 법전 (Middle Assyrian law code)
1200		• 기원전 1350년경 수필룰리우마와 샤티와지의 조약 (Treaty between Šuppiluliuma and Šattiwaza, 약카드어(외국어) 쐩기문자, 히타이트 수도 하투샤 발견)
1100		• 기원전 1114-기원전 1076년 티글랏 필에세르 1세 각기둥 (Tiglath-pileser I)
1000		
900	기원전 934-기원전 609년 신앗슈르 시대 (Neo Assyrian Period) • 기원전 852년경 살만에세르3세 석비(Stele of Shalmaneser III at Kurkh, 영국박물관BM118884) • 기원전 825년 살만에세르 3세의 검은 방첨탑 명문(Black Obelisk of Shalmaneser III, 영국박물관BM118885) • 기원전 717년 사르곤 II 세 석비(Stele of Sargon II at Tell Tayinat) • 기원전 744-기원전 727년 티글랏 필에세르 3세의 연대기(Annals of Tiglath-pileser III) • 기원전 691-기원전 689년 쎄나헤립의 각기둥 명문 3점(Sennacherib's prism) • 기원전 672년 에사르하돈 왕의 충성 서약서(Esarhaddon's succession treaties)  살만에세르3세 석비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800	기원전 668-기원전 631년경 앗슈르바니팔 (Ashurbanipa) 앗슈르바니팔 도서관 (Ashurbanipal Library, 니느웨) - 길가메쉬 서사시, 표준 바빌리어 판본, 에누마엘리쉬, 바빌리 창조신화 등 3만 점 이상 발견  앗슈르바니팔 도서관 출토 쐩기문자유물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기원전 626-기원전 539년 신바빌리 시대 (Neo-Babylonian Period) • 기원전 604-기원전 562년 네부카트네짜르 2세의 헌정문 (East India House Inscription of Nabuchdnezzar II, 영국박물관129397)  나부나이드의 석비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700	• 기원전 600-기원전 501년 두르-칼림무 명문 [Dur-Katlimmu (Tell Sheikh Hamad) Inscriptions]	기원전 539-기원전 330년 페르시아 제국 (Persian Empire)  키루스 원통형 문서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600		• 기원전 539년경 키루스 원통형 문서 (The Cyrus Cylinder, 영국박물관90920)
500		
400		
300	기원전 331-기원전 64년 알렉산드로스의 지배(헬레니즘 시대)	

기원전	튀르키예 (Türkiye)	시리아 (Syria)	이란 (Iran)
2000			
1900	기원전 1950-기원전 1750년 카네쉬 문서보관소(Kültepe tablets, Kaneš archive, 고앗슈르 상인들의 썰기문자 점토 문서, 튀르키예 발견)  카네쉬의 쿨테페 발견 썰기문자 점토판 편지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기원전 1900-기원전 1500년 쑤칼막 왕조 (Sukkalmah Dynasty) 쑤칼막 왕조 명문 (Sukkalmah Dynasty inscription) - 악카드어 썰기문자
1800	기원전 1800-기원전 1500년 썰기문자 계약서, 편지 (하조르Hazor, 타아낙Taanach)	기원전 1800-기원전 1760년대 마리 문서고(Mari Archives, 악카드어 썰기문자, 행정 편지 대량 출토)	
1700	기원전 1700-기원전 1601년경 히타이트 왕국 초대왕 라바르나 1세(Labarna I)		
1600	기원전 1650-기원전 1475년 히타이트 고왕국(Hittite Old Kingdom)	기원전 1600-기원전 1100년 중기 청동기 시대 우가릿문자(알파벳 썰기)	
1500	기원전 1500-기원전 1475년 텔리피누 칙령(Telipinu Proclamation, 히타이트어 원문과 악카드어 번역본이 있음)		기원전 1500-기원전 1100년 중엘람시대 (Middle Elamite Period)
1400	기원전 1475-기원전 1350년 히타이트 중왕국(Hittite Middle Kingdom)	기원전 1400-기원전 1200년 우가릿 알파벳으로 작성된 서신 (A letter written in the Ugaritic alphabet, 루브르박물관 AO19940)	
1300	기원전 1350-기원전 1200년 히타이트 제국(Hittite Empire) 기원전 1300년 히타이트 제국 기록 보관소(보아즈콰이) 썰기문자 점토문서 약 3만 점 발견	 우가릿 알파벳으로 작성된 서신 ©2009 Grand Palais Rmn (musée du Louvre/ Franck Raux)	기원전 1300년경 나피르아수 여왕상 명문 (Statue Inscription of Queen Napir-Asu)
1200	후기 청동기 시대		기원전 1250년 운타쉬 나피리샤 지구라트 명문 (Untash-Napirish's ziggurat inscription, 초가 잔빌 Choga Zanbil)
1100	기원전 1274년경 카데시 전투(Battle of Kadesh)		
1000	기원전 1259년 카데시 협정(Treaty of Kadesh) 히타이트-이집트 조약문의 국 제협정, 히타이트판(악카드어 썰기문자), 이집트판(상형문자)  카데시협정 출처, wikipedia CC BY 3.0, 2025.10.		기원전 1000-기원전 539년경 신엘람시대 (Neo-Elamite Period)
900			
800	기원전 850-기원전 600년 우라루투 왕국 (Uratian Kingdom)	기원전 853년 카르카르 전투(Battle of Qarqar, 신앗슈르가 12개국 동맹군과 전투)	 비소튼 명문 출처wikipedia CC BY 4.0, 2025.10.
700	기원전 775-기원전 690년 프리기아-리디아시대 (Phrygian and Lydian Period)		기원전 625-기원전 550년 메디아 제국 (Median Empire)
600	기원전 626-기원전 539년 신바빌리 시대 (Neo-Babylonian Period)	기원전 605-기원전 539년 바빌리의 지배	기원전 520-기원전 460년경 페르세폴리스 궁전 기초부 출토 점토판 (Persepolis Foundation Tablets, 이란 페르세폴리스, 시카고대학교 오리엔탈연구소, 이란국립박물관 등)
500	기원전 539-기원전 330년 페르시아 제국 (Persian Empire)	기원전 539-기원전 330년 페르시아 제국 (Persian Empire)	기원전 559-기원전 330년 페르시아 제국 (Persian Empire) 기원전 521년 비소튼 명문 (Bisotun Inscription, 페르시아어, 엘람어, 악카드어 3중 썰기문자)
400			
300	기원전 331-기원전 64년 알렉산드로스의 지배(헬레니즘 시대)		

정리: 김혜정(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감수: 윤성덕(연세대학교)

주 원 준

한국고대근동학회·한남성서연구소

진흙의 매력과 서기의 전승

I —————
가장 오래된, 최신의 인문학

II —————
기본 용어

III —————
진흙의 무한한 매력

IV —————
자유로운 토판의 형태와 사용

V —————
샘하고 확인하는 서기

VI —————
서기의 교육

VII —————
서기의 전승

I. 가장 오래된, 최신의 인문학

쐐기문자 연구는 고대근동학의 역설적 성격을 잘 드러낸다. 기원전 4천 년대 슈메르어를 기록하면서 시작된 쐐기문자 문헌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록에 속하지만, 고대 근동 문명이 소멸하며 완전히 잊혔다. 대개 영국의 롤린슨(Sir H. Rawlison, 1810-1895년)과 독일의 그로테펜트(G.F. Grotefend, 1775-1853년)가 1820-30년대에 고대 페르시아어로 쓰인 비소툰(Bisotun) 비문을 해독하면서 쐐기문자를 인류가 다시 해독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잡으면 쐐기문자 연구는 겨우 200년이 못되는 역사를 지녔으니, 인문학의 가장 최신헌문에 속할 것이다. 참고로 비슷한 시기에 샹폴리옹(Jean Francois Champollion, 1790-1832년)이 로세타석(Roseta Stone)의 고대 이집트어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이면서 가장 최신의 학문인 고대근동학을 한국의 지성계와 대학은 아직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학에는 고대근동학 학과도 전공 교수도 없다. 인류 최초의 문명과 가장 최신의 인문학 트렌드에 모두 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한국고대근동학 문화원에서 고대 근동 언어 강의가 시작되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훌륭한 토판을 구비하고 인류 최초의 문자와 서기에 대해 밝혀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한국 지성계에 큰 빛을 비추는 뜻깊고 감사한 일임에 틀림없다.

II. 기본 용어

‘쐐기문자’(영어: cuneiform, 독일어: Keilschrift)란 이름은 이 문자의 직관적 형태에서 왔다. 이 문자를 처음 보면, 쐐기(라틴어: cuneus; 독일어: Keil-) 형태(-form)의 문자(-schrift)라는 느낌이 자연스레 든다. 과거에는 일본의 번역어에 영향 받아 ‘설형문자楔形文字’라고 옮겼지만, ‘설형楔形’이란 한국인의 일상에서 이미 사어死語가 되어 버린 말이다. 누구나 들으면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쐐기문자’라는 번역어를 제쳐둘 이유가 없다.

고대 근동의 방대한 문헌을 생산하고 전송한 사람들은 ‘서기’(영: scribe, 독: Schreiber)였다. 고대 근동의 서기들이 깊은 성찰과 식견을 바탕으로 상당히 창의적으로 일했음은 최근의 연구에서 더욱 상세히 밝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중세의 경전을 복사하는 직업을 연상시키는 ‘필경사筆耕士’는

적절한 번역어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서기가 관리는 아니었으므로, ‘서기관書記官’ 보다는 ‘서기書記’가 적절한 번역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토판의 재료가 되는 찰지고 끈적거리는 흙을 이르는 한자어 ‘점토粘土’나 우리말 ‘진흙’은 의미상의 큰 차이 없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된다. 필자는 두 용어를 혼용하는 데 찬성하지만, clay(영)나 Ton(독)의 번역어로 주로 ‘진흙’을 사용하겠다.

III. 진흙의 무한한 매력

진흙은 매력있는 재료였다. 테일러는 라이스(Rice)를 인용하여 토판을 만드는 진흙의 장점으로 가소성(plasticity)을 들었다(Taylor, 2011, p. 5). 진흙은 외력에 의해 변형되고 그 변형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곧 가소성이 높은 물질이었고, 물을 더하거나 증발시켜서 가소성의 정도를 쉽게 통제할 수 있었다. 물을 조금 섞어 자유롭게 형태를 잡는 것도 쉬웠지만, 쐐기문자의 세세한 획까지 표현할 수 있는 장점도 돋보였다. 또한 응달에 말려서 수분을 서서히 증발시키면 토판의 형태와 본문을 모두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었다. 가마에 구워버리면 세라믹이 되어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었다.

잘 마른 토판은 역사적으로 강인함을 증명했다. 인류는 기원전 3천 년대에 토판에 기록한 작은 획도 잘 알아볼 수 있으니, 토판의 내구성은 확인된 셈이다. 이 점에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왜 하필 토판에 글을 적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도 추측할 수 있다. 토판은 썩지도 않고 변형되지도 않는다. 화재 등의 사고로 불에 닿으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특성을 지녔다. 그래서 서기들이 적은 문헌이 오래 보존될 수 있었다.

중국이나 이집트 등의 다른 고대 문명에서는 죽간竹簡, 비단, 파피루스 등의 재료에 글을 적었는데, 그런 문헌은 결국 역사의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상당히 소실되었다(Cooper, 2004, p. 72). 물론 돌, 바위, 동물의 뼈, 조개껍질, 건물의 벽, 신상 등에 기록한 본문은 오랫동안 보존되었지만, 그런 재료에는 본디 글을 새기기도 무척 힘들었고 일부 재료는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진흙은 일상에서 쉽게 구하면서도 가소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무척 매력적인 재료였다.

그밖에도 진흙은 인류가 처음 건설한 문명의 재료였다. 진흙으로 벽돌과 타일을 만들었고, 그보다 더 먼저 도기(pottery)와 사람과 신과 동물의 상을 제작했다. 서기 뿐 아니라 벽돌공과 건축가와 도공과 신상을 만드는 이도 진흙을 사용한 것이다(von Soden, 1994, pp. 112-115). 이들은 모두 상당한

지적 노동을 하는 직업이었다. 물론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흙 외에도 실, 직물, 자수, 가죽, 나무, 쇠 등이 필요했다. 그러나 일상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진흙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IV. 자유로운 토판의 형태와 사용

진흙은 조심스레 다뤄야 했다. 완성된 토판을 응달에 말릴 때 온도와 습도 조절에 실패하면 금이 생겨 갈라지거나 심지어 터질 수 있었다. 따라서 서기는 질 좋은 진흙을 원했고, 토판을 잘 만들고 보관하는 기술도 익혀야 했다. 고대에 토판을 만드는 방법이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개 좋은 진흙을 여러 번 치대고 툴러로 밀기를 반복하여 내부의 공기를 빼냈다. 그리고 적당한 모양을 성형했다. 실제 토판의 유물에는 사람의 지문 일부나 손톱자국 등이 발견된다. 또한 토판을 성형하는 과정에서 진흙을 밀거나 접은 흔적도 일부 볼 수 있다(Taylor, 2011, p. 8).

뽕기문자를 적은 매체를 흔히 ‘토판’(clay tablet)이라 일컫지만, 실제로는 넓적한 ‘판’(tablet)의 형태를 벗어난 것도 많다. 둥글거나 각진 실린더형, 가운데가 볼록 솟아오른 형태, 토판 내부에 구멍을 (한 개 또는 여러 개) 뚫은 형태, 토판의 이곳저곳에 인장을 찍은 형태, 짐승의 일부(장기 등) 모습을 본뜬 형태, 식물의 일부(나뭇잎 등)를 본뜬 형태, 기타 불규칙한 형태 등 다양하게 볼 수 있다. 네모난 토판이 가장 많기에 표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크기는 다양했다. 현대의 신용 카드 보다 작아서 한 손에 쏙 들어가는 것 부터 A4 용지보다 훨씬 큰 것도 있다. 토판의 면적에 따라 두께도 달라졌다. 일부는 진흙 봉투에 싸여있다.

서기는 진흙으로 다양한 형태의 토판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토판에 지도, 도형, 식물과 동물의 모습, 신들과 인간의 모습, 도시의 모습, 동물과 인간의 장기, 우주의 천문도와 수학 공식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수 천년을 뛰어 넘어 그들의 작품이 우리에게 전해진다. 물론 현존하는 모든 토판이 수준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때로 줄이 안맞거나 글씨가 뽕뽕뽕한 것도 있고, 본문이 면이나 칼럼의 경계선을 넘어 흐르거나, 진흙이 마르기 전에 교정한 흔적도 볼 수 있다. 줄이 맞지 않거나 옆면까지 글이 넘친다고 해서 서기의 수준이 낮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각각의 토판이 그런 모습에 이른다는 저마다 이유와 사연이 있을 것이니, 사뭇 흥미로운

연구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토판의 진흙은 재사용할 수 있었다. 오래된 토판을 부숴 뜨리거나 가루로 만들어 물을 타면 다시 진흙으로 만들어 쓸 수 있었다. 때로는 조각난 토판을 건물의 기초에 묻어버리기도 했다.

V. 셈하고 확인하는 서기

토판에 글을 새긴 사람은 서기였다. 그들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장 정신적인 유물을 남겼다. 그런데 그들은 도대체 처음에 왜 글을 써야 했을까? 대개 뽕기문자로 글을 쓴 이유란 사회적 정치적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가 증가되었다는 설명이 공통적이다. 쿠퍼는 다양한 고대근동학자들을 인용하여, 기원전 4천 년대에 탄생한 세계최초의 도시 우르크에서 “회계와 행정책임성”(accounting and accountability)이 증가하여 문헌 기록이 탄생하였다고 설명했다(Cooper, 2004, p. 73). 도시는 분업화와 전문화가 일어난 혁명적 공간이었고, 새로운 체계를 통제할 권력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문자생활이 시작되었다(주원준, 2022, p. 52). 곧 회계와 행정적 이유가 뽕기문자 토판을 낳았다.

기원전 3500년경 회계와 행정의 필요가 존재했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신전과 왕궁 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신전이 처음 세워질 때 부터 노동자의 명부와 임금, 각종 재화의 외부 조달과 내부 책임자의 이름과 직위, 신전 내부에서 재화의 이동과 책임, 신전의 건설과 완공과 보수를 위한 다양한 서류와 영수증들, 제물과 각종 제사에 필요한 기물 등의 생산과 완성과 보존 등을 기록해야 했다. 이런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책임있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Van de Mieroop, 1999, p. 13).

물론 신전이나 왕궁 외에도 부잣집에 고용된 ‘사적 서기’가 존재했고 그들은 사적 문서를 남겼다. 이들은 ‘상인의 서기’였고 국가의 관리가 아니었으니 ‘서기관’이라는 호칭은 맞지 않는다. 신전이든 왕궁이든 부잣집이든, 어느 곳에서 일하든 서기는 회계와 행정문서를 기록하고, 기록과 실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그 변화하는 양과 이유와 책임자를 다시 기록하고, 그런 기록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서기는 본디 ‘셈하는 사람’이었다. 히브리어로 서기를 의미하는 단어도 (*sefer*) 본디 ‘셈하다’(*SPR*)는 어근에서 파생했다.

그러므로 서기는 과거의 경전을 베끼는 사람, 곧 ‘필경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과거의 본문을 절대 그대로 재현하지 않았다. 자신의 눈으로 사람과 재화의 변화를 확인하고, 자신의 머리로 설편 결과를 기록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동료 서기의 기록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었고, 필요한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곧 서기는 연속적으로 설편하고 확인하는 끊임없는 행정의 과정에서 기록을 책임졌다. 이렇게 서기는 글로 쓰인 바가 실제의 변화를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사람이었기에, 논리적이고 비판적 인식을 지니고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미 초창기의 서기부터 신전에 들어오는 외래의 귀중품을 기록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생산되는 청금석(lapis-lazuli)은 가장 비싼 보석이었다. 서기는 외래의 물품의 이름, 산지, 거래꾼, 외국의 가격 표 등 외국어를 적는 일, 곧 번역도 해야 했다. 때로 외국 임금이나 관리의 이름이나 외국 신의 이름도 기록해야 했다. 이후 그들의 작업은 시리아-팔레스티나와 아나톨리아 등 여러 문화권으로 퍼져나갔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오랜 세월을 걸쳐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실질적이고 논리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서기의 정신은 변하지 않았다.

VI. 서기의 교육

악카드어 ‘토판’(tuppu)은 사실 문서, 편지, 서류 등을 의미하는 말이다. 슈메르어 로고그램(DUB)에서 유래한 이 단어의 의미와 쓰임새는 췌기문자 토판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표적인 문헌 매체였음을 드러낸다(그림 1).



그림 1. ‘토판’을 의미하는 슈메르어 DUB
출처: ePSD
The Pennsylvania Sumerian Dictionary

이 악카드어 낱말은 서기와 관련된 많은 전문용어에 쓰인다. 토판에 췌기를 찍는 첨필(stylus)을 악카드어로 “토판의 갈대”(qan tuppi)라고 하는데, 이 말도 역시 슈메르어(GI.DUB.BA.A)에서 유래했다. 물론 첨필의 재료는 다양했다. 상아, 나무, 뼈, 금속 등으로 제작했다. 하지만 언제나 ‘토판의 갈대’라는 표현은 첨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서기의 학교를 악카드어로 “토판의 집”(bit tuppi)이라고 한다. ‘글의 집’의 의미로 새길 수 있으니, 흥미롭게도 이 낱말은

서당書堂이라는 한국 고유의 교육기관과 문자 그대로 같다. 옛부터 학교는 글을 배우는 집이었나보다. 비록 이 표현은 기원전 1900년 이후 문헌에서 사라지지만(van der Toorn, 2007, p. 54) 이와 유사한 제도는 계속해서 운영되었을 것이다.

서기 학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몇 살에 입학해서 어떤 교과 과정을 거쳐 몇 살에 졸업했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도 알지 못한다. 다만 몇몇 표현이 문헌에 남아 있다. 서당에 다니는 학생을 “글의 집의 아들”(mār bit tuppi)이라 했다. 한자로 굳이 옮기자면 ‘서당의 아이書堂子’라는 뜻인데, ‘글의 집의 아들’은 학생을 뜻할 뿐 아니라 ‘서기’를 의미하기도 했다. 서기는 스스로를 겸손되이 ‘글의 집의 아들’로 부르는 관행을 지켰던 것 같다. “선생님”(ummānu)을 뜻하는 악카드어는 ‘장인’, ‘전문가’, ‘학자’를 뜻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은 “어르신”(ummānu)을 뜻하는 말과 무척 닮았다. 선생님은 존경받는 직업이었다.

왕궁이나 신전에서 능숙하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상당한 기간을 집중적으로 교육에 몰두해야만 했다. 그래서 대체로 서기들은 높은 귀족이나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었을 것이다. 남녀노소 상하귀천을 막론하고 문맹이 보편적이던 시절에 글을 능숙하게 다루는 서기는 일종의 엘리트적 집단 정신(esprit de corps)을 공유했던 것 같다(van der Toorn, 2007, p. 65). 일단 서기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또한 복잡한 췌기문자에 숙달한 것 자체는 엄청난 무형의 자산임에 틀림없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특이하고 배타적인 엘리트들이었을 것이다.

악카드어로 “서기”(tupšarru)는 “토판(tup-)에 쓰는(šarāru) 사람”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서기書記’라는 번역어는 이 악카드어 단어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더욱 추상적 의미로 파생된 “툽샤루툼”(tupšarrūtum)은 서기의 지위, 서기의 식견 또는 학식, 서기의 글쓰기 능력 등을 의미했다. 톽샤루툼은 ‘서기의 기술’이요 ‘서기의 소명’이었다. 결국 서기 학교는 학생들에게 ‘툽샤루툼’을 가르친 곳이다.

VII. 서기의 전승

흥미로운 질문과 답을 소개하고, 즐거운 상상력으로 짧은 글을 마치려고 한다. 슈트렉(P.S. Streck)은 이집트 학자 포이스트(C. Peust)의 ‘과연 고대 근동 문헌의 양은 모두 얼마나 될까?’

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소개하며, 이에 답하는 논문을 썼다 (Streck, 2010, p. 35). 그는 방법론적 단계를 자세히 밝혔다. 고대 근동 세계를 기원전 3000년부터 300년으로 한정했다. 그는 고대에 생산되었을 본문의 양을 상상하지 않았고, 이미 현존 인류에게 전승된 본문만을 셈하였다. 그리고 문헌의 양을 세기 위해,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본문의 ‘단어 수’를 셈하는 방법을 썼다. 물론 그가 모든 문헌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고, 여러 언어가 사용된 문헌이 존재하는 등 세부적인 항목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는 방법을 썼다(Streck, 2010, pp. 35-36).

우선 포리스트의 결과를 보자. 오른쪽의 표는 슈트렉이 인용한 포리스트의 결과 가운데 일부만 추린 것이다(Streck, 2010, pp. 38-39)(표 1).

슈트렉은 이 연구 결과에서 악카드어와 슈메르어가 누락된 것을 보충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발견된 슈메르어와 악카드어 문헌의 발굴지별로 문헌의 분량을 제시하고 모두 더하였다. 그의 결과에 따르면 슈메르어 문헌은 3백만 단어 수준이고(3,076,000 단어) 악카드어는 9백9십만 단어 분량이다(Streck, 2010, pp. 53-54). 슈메르어나 악카드어 모두 포리스트의 예상과 크게 빗나가지는 않았다. 이 결과로 우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서기가 남긴 문헌의 분량이 어느정도 인지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문헌별 언어	발견된 본문의 분량
이집트어 성각문자/신관문자	약 5백만 단어
이집트어 민용문자	약 1백만 단어
그리스어	5천7백만 단어 이하 (기원후 400년까지)
라틴어	1천만 단어 이상
악카드어	라틴어와 비슷한 수준
슈메르어	이집트어보다 적은 수준
히타이트어	약 70만 단어
우가리트어	4만 단어
히브리어 구약성경	305,500 단어
아람어	1십만 단어
페니키아어	1만 단어
고대 페르시아어	7천 단어

표 1. 현존하는 고대 근동 문헌의 대략적 분량

현존하는 슈메르어 문헌은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성경의 10배 분량이고, 악카드어 문헌은 약 33배에 이른다. 물론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서기들이 남긴 췌기문자는 슈메르어와 악카드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대 라틴어 문헌에 필적하는 이런 방대한 양도 놀랍지만, 오랜 세월 잊혀지고 소실된 역사를 떠올리면 과연 고대 메소포타미아 서기들의 창의성과 부지런함과 생산력은 놀랍기만 하다.

참고문헌 (References)

주원준(2022). 인류최초의 문명과 이스라엘 - 고대근동 3천 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Cooper, J.S.(2004). Babylonian beginnings: the origin of the cuneiform writing system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Houston, S.D., *The First Writing: Script Invention as History and Process*(pp. 71-99).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Streck, M.P.(2010). Großes Fach Altorientalistik: Der Umfang des keilschriftlichen Textkorpus, *Mitteilung der Deutschen Orient-Gesellschaft zu Berlin* 142, 35-58.

Taylor, J.(2011). Tablets as Artefacts, Scribes as Artisans, in; Radner, K./Robson, E. (2011) *The Oxford Handbook of Cuneiform Culture*. Oxford: Oxford Univ. Press, 5-31.

Van de Mieroop, M.(1999). *Cuneiform Texts and the Writing of History*. London: Routledge.

Van der Toorn, K.(2007). *Scribal Culture and the Making of the Hebrew Bibl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Von Soden, W.(1994). *The Ancient Orient -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Ancient Near East*. Grand Rapids Rapids, MI: Eerdmans.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췌기문자 점토판

Cuneiform Tablets of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Section 2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췌기문자 소장품 현황 및 소개

I —————
머리말

II —————
내용 및 유형

III —————
제작기법 및 특징

IV —————
맺음말

I. 머리말

현재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소장한 켈리문자 자료는 총 5점이다. 이중 점토판이 4점이고, 점토 못이 1점이다. 소장 중인 자료들은 기원전 22세기에서 기원전 13세기에 이르는 긴 시기를 아우르며, 명문의 내용 및 문자의 특징을 바탕으로 메소포타미아 남부(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된다. 18-19세기부터 발굴 및 연구를 이어온 서구권 주요 박물관들의 컬렉션에 비하면 그 수량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국내에는 켈리문자 자료를 소장한 기관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해당 유물들은 국내 켈리문자 연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II. 내용 및 유형

켈리문자 자료는 크게 봉헌문, 행정문서(회계문서·계약서), 문학 작품으로 나눌 수 있다. 시기순으로 각 유물의 유형 및 내용을 살펴보겠다.

소장자료 중 가장 오래된 유물은 <구데아 점토 못>으로, 신슈메르 시대(기원전 22세기)에 제작되었다. 이는 라가쉬의 왕 구데아(Gudea, 재위. 기원전 2144-기원전 2124년)가 닌기르쭈(Ningirsu) 신의 신전 에닌누(Eninnu)를 건설하며 신께 바친 봉헌문으로, 못 머리부터 꼬리 쪽으로 슈메르어 켈리문자가 10행 기록되었다(Such-Gutiérrez, 2015). 구데아는 라가쉬의 부흥을 이끌었던 왕으로, 이 점토 못은 도시국가의 정치적 재건과 종교적 헌신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물이다. 켈리문자가 단순한 행정 기록을 넘어 정치적·종교적 권위를 시각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슈메르 회계 점토판>은 우르 제3왕조 아마르슈쭈엔 재위 9년(기원전 2038년경)에 메소포타미아 남부 움마에서 제작된 행정 점토판으로, 앞뒤 총 229행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¹ 그 내용은 1년간 국가가 제의에 공급한 소·양·염소 등의 가축 분배 내역으로, 각 동물의 사육 방식과 용도를 세분하여 기재하였다. <가옥 매매 계약 점토판>역시 우르 제3왕조 시기의 유물로, 회계 점토판보다는 후대인 라르싸 왕조 시기(립썬 재위 3년, 기원전 1820년경)에 제작되었다. 슈메르어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이며, 언어적 특성과 증인 이름 등을 근거로 우르 출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켈리문자가 법적 효력을

뒷받침하는 공식 기록 수단으로도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月本昭男, 2020). 이와 같이 우르 제3왕조 시기의 유물들은 켈리문자가 행정 운영 도구로 사용된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원형배 점토판>은 고바빌리 시기(기원전 2000-기원전 1600년)의 유물로 추정되며, 어빙 핑켈 박사는 이 자료를 기원전 1750년경으로 편년하였다. 이 점토판은 악카드어 켈리문자로 「아트라하시스 신화」의 일부가 기록되었다. 내용에는 대홍수 이야기와 방주의 재료·구조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어, 후대 성서의 노아 방주 서사와의 연관성을 보여준다(Irving Finkel, 2015). 이 점토판은 켈리문자가 단순한 행정 기록을 넘어, 문학작품을 문자로 정착시킨 대표적 사례로서 문자 기능의 확장을 잘 보여준다. 이는 고대 근동 문화의 지적 성취를 상징하는 중요한 증거물이다.

마지막으로 츠키모토 아키오 교수 기증의 <행정 점토판>은 기원전 14세기 후반-기원전 13세기 초, 시리아 북부 에마르(Emar)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악카드어로 기록된 인명 명단으로, 각 행의 첫머리에 수량 기호와 인명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는 도장이 찍혀 있다. 명문에 나타난 이름들은 주로 서셈어권에서 사용된 인명들로, 메소포타미아 서부 지역의 인명 전통을 반영한다.

이처럼 다섯 점의 유물은 슈메르 시기와 고바빌리 시대 등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요 국면을 반영하며, 종교적 봉헌, 행정과 경제 활동, 법률 문서, 문학적 전승 등 켈리문자의 다양한 활용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III. 제작기법 및 특징

다섯 점의 자료 모두 점토를 재료로 하며, 갈대편을 이용하여 켈리문자를 새겨 넣는 메소포타미아 특유의 기록 전통을 공유한다. 그러나 제작 방식과 문자 체계는 각 유물의 제작 시기와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구데아의 점토 못>은 봉헌용으로 제작되어 점토 표면에 슈메르어 명문을 나선형으로 새긴 독특한 형식을 갖는다. <회계 점토판>은 일정한 구획과 도량형 체계를 갖춘 판료 문서형으로, 고도로 발달한 행정적 표준화의 증거다. <립썬 계약문서>는 문서의 사면 전체를 활용하여 계약 내용·증인·

1. <https://cdli.earth/search?simple-value%5B%5D=Christie%27s+Erlenmeyer+no.+93&simple-field%5B%5D=keyword>

맹세문을 기록하였고, 점토 표면의 균질성과 정밀한 획각은 법률 문서의 형식미를 잘 보여준다. <원형배 점토판>은 문학 작품으로서 문장 구조와 어미 표기가 정교하며, 악카드어가 문학어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행정 점토판>은 소형의 직사각 점토판으로, 필체는 속필적이며, 행 구분선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행정 문서의 실무적 속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도장날인을 통해 행정 검증 체계를 보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형식적 특성은 메소포타미아 중심부와 시리아 북부 지역의 행정문화 차이를 시사한다.

종합하면, 다섯 점의 유물은 동일한 재료와 문자 체계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각기 다른 용도에 따라 제작 방식과 기록 형식을 달리하였다. 이는 켈기문자가 종교·정치·행정·법률·경제·문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표 1).

IV. 맺음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소장한 켈기문자 자료는 비록 5점에 불과하지만, 기원전 22세기에서 기원전 13세기에 이르는 약 1,000년의 시기를 포괄하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여러 국면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신슈메르, 우르 제3왕조, 라르싸, 고바빌리 등 다양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켈기문자는 종교적 봉헌물, 행정·경제 관리, 법적 계약 문서, 문학적 전승 매체, 행정 명단으로서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컬렉션은 단순히 소장 수량을 넘어, 각 시기의 켈기문자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실물 자료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더욱 크며, 향후 학술 연구와 전시를 통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인류 문자사의 기원을 심화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s)

- 月本昭男. (2020). リム・シン第3年の敷地付家屋 (é.dù.a) 売買契約文書とその背景. 古代オリエント博物館紀要 (= Bulletin of the Ancient Orient Museum), 38, 1-12.
- Finkel, Irving(2015). The Ark before Noah - Decoding the Story of the Flood . Kindle edition, Hodder & Stoughton Ltd.: London.
- Such-Gutiérrez, M. (2015). The texts from the 3rd millennium BC at the Oriental Museum, University of Durham (England). Cuneiform Digital Library Journal, 2015(3). https://cdli.ucla.edu/pubs/cdlj/2015/cdlj2015_003.html

사진	명칭	시대	크기 cm (가로×세로×두께)	용도
	원형배 점토판 Tablet of Round Ark	고바빌리 기원전 2000-기원전 1600년	6.0×11.5×2.8	문학작품
	구데아의 점토뿔 Gudea's Clay Cone	신슈메르 기원전 2141-기원전 2122년	13.4(높이) 6.2(지름)	건축물 봉헌용
	슈메르 회계 점토판 Sumerian Accounting Tablet	우르 제3 왕조 기원전 2039-기원전 2038년	17.2×18.4×3.6	행정 및 회계용
	가옥 매매 계약 점토판 Cuneiform Tablet of a House Sale Contract	라르싸 왕조 기원전 1820년경	4.5×7.4×1.8	부동산 계약서
	췌기문자 행정점토판 Cuneiform Administrative Tablet	기원전1300년(추정)	7.0×5.0×1.7	행정문서

표 1.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췌기문자 소장품 목록

김혜정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췌기문자 소장품 연구와 활용

문자는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후대에 전달하는 지적 도구이자, 인류가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류 최초의 문자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문자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문자와 문자문화』 1권에서는 인류가 처음으로 발명한 문자 체계인 켈리 문자를 다루며,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소장한 켈리 문자 관련 유물 5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 남부 우룩(현 이라크 남부 와르카, Warka)의 수메르인은 사물을 상징하는 그림문자 형태의 단어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기록 방식의 변화와 함께 점토판에 켈리모양을 새기는 문자로 변화했으며 이 문자는 행정·경제·종교·문학 등 사회 전반을 기록하는 데 활용되며 인류 최초 문명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후 켈리문자는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아카드인에 의해 차용되었고(연구동, 2023, pp. 16-17), 기원전 2000-기원전 1000년 사이에 서아시아 전역에서 사용한 국제 공용문자로 발달을 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2022, p. 50). 켈리문자는 메소포타미아와 이란, 튀르키예, 시리아까지 확장하여 바빌리어, 앗슈르어, 우가리트어, 히타이트어, 에블라어 등 10여 개가 넘는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였지만(연구동, 2023, pp. 13-16) 기원후 1세기 경 천문 관측에 관한 기록을 끝으로 소멸하였다고 알려져 있다(Finkel & Taylor, 2015; Houston, Baines, & Cooper, 2003; Tsukimoto, 2023;).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개관 이전부터 초기 문자 체계의 연구와 전시를 위해 구입과 기증을 통해 총 5점의 켈리문자 점토판을 수집하였다. 이 가운데 3점은 개관 당시부터 상설 전시실의 시작점에 전시하여, 관람객에게 인류 문자 역사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일본의 대표적인 고대근동학자인 츠키모토 아키오(月本昭南, 릿쿄대학교 명예교수)는¹ 수메르 문자로 쓴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시리아(에마르, Emar) 지역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아카드어 켈리문자 행정 점토판, 총 2점을 2023년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이 자료들은 고대 근동에서 화폐 단위·가치 체계·증인을 두는 계약 방식 등을 보여 주었다. 또한 점토판의 인장 흔적을 통해 고대 동·서아시아의 인장 문화와 비교 연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



그림 1. 켈리문자 소장품을 활용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하는 소중한 기증품이다.

이처럼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켈리문자 소장품은 구입과 기증을 통해 확충되었으며, 개관 초기부터 전시·교육·학술 연구 등 다양한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박물관은 관람객의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 탐험대: 켈리문자> 프로그램에서는 문명과 문자의 기초를 배우고, 전시실에서 실제 켈리문자 유물을 찾아보는 탐험 활동을 진행하였다(그림 1). 더불어 갈대펜을 사용해 직접 켈리문자를 써보는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고대 문자를 몸소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보존하는 공간을 넘어, 문자 문화를 경험하고 학습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 하였다.

2024년에는 켈리문자 해독의 결정적 단서가 된 비쉴톤 비문(Bisotun Inscription)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로제타 석과 비쉴톤 비문을 통해 만나는 문자의 여명>을 개최하였다. 학술대회에서는 문자 발전의 기반을 이룬 켈리문자의 해독 과정, 다의성, 고대 언어학적 특징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

1. 츠키모토 아키오(月本昭南) 교수는 일본에서 고대 근동 연구의 선도적 학자로 평가된다. 그는 도쿄대학교에서 종교사를 전공하고 독일 튀빙겐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릿쿄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구약성서학과 성서고고학을 가르쳤다. 또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도쿄 고대오리엔트박물관 관장을 역임하며 메소포타미아 켈리문자 자료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이러한 공헌을 바탕으로 그는 일본종교학회상과 일본오리엔트학회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림 2.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쐼기문자 소장품 주제의 국제학술대회 및 연구서 발간

으며, 그 성과는 학술총서 제2권으로 발간하였다(국립세계문자박물관, 2024)(그림 2). 작년의 연구 사업은 우리 박물관의 쐼기문자 소장품을 해외 학계에 소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원형배 점토판과 슈메르 회계 점토판이 국제 쐼기문자 온라인 플랫폼인 CDLI(Cuneiform Digital Library Initiative, 쐼기문자 디지털 자료관)에 소개되었다.² 이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우리 박물관의 쐼기문자 자료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올해는 『문자와 문자문화』 1권을 발간하며 인류 최초의 문자인 쐼기문자를 주제로 삼아, 우리 박물관 소장 쐼기문자 5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그림 3). 이번 연구는 한국고대근동학회의 윤성덕, 주원준, 유성환 박사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각 소장품에 대한 전사(Transliteration), 해석(Translation), 주해³와 더불어 쐼기문자를 사용했던 고대 근동 지역과 쐼기문자 사용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소장품 쐼기문자 형태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예일대학교 고대근동언어문명학과 클라우스 바겐조너(Klaus Wagensonner) 박사가 참여하여 라인 드로잉(Line drawing) 작업을 담당하였다.

이번 발간에서는 문자의 발명뿐만 아니라 소멸 과정까지 함께 다루었다. 문자의 소멸은 문명의 흥망과 문화적 단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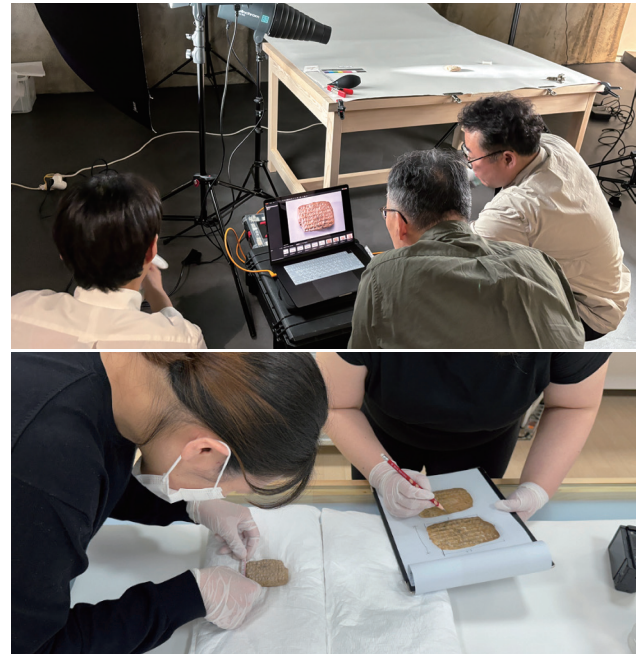


그림 3. 『문자와 문자문화』 1권 제작과정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쐼기문자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이해하는 것은 문자의 생명력과 지속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예일대학교 고대근동언어문명학과 에카르트 프람(Eckart Frahm) 교수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쐼기문자의 소멸 과정을 다룬 논고를 집필하여, 연구에 깊이를 한층 더해 주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쐼기문자 소장품은 단순한 유물을 넘어, 인류 문자 역사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살아있는 자료이다. 『문자와 문자문화』 1권은 소장품 각각이 지닌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였으며, 전사와 해석, 라인 드로잉 제작을 포함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연구·교육·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는 국내 고대 근동 문자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제 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 박물관은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쐼기문자를 비롯한 다양한 문자 연구를 통해 연구자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문자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내외 연구 기관 및 박물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문자 연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자가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과 그 의미를 지속적으로 탐구하며 공유하고자 한다.

2. <https://cdli.earth/search?simple-value%5B%5D=WORLD+WRITING+systems&simple-field%5B%5D=keyword>

참고문헌 (References)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2024). *문자의 여명: 베히스톤 명문과 로제타 석비로 본 쐩기문자와 이집트문자*.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 Ohta, A. A. (2024). 쐩기문자 해독과정에서 영국왕립아시아학회의 역할. In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Ed.), *문자의 여명: 베히스톤 명문과 로제타 석비로 본 쐩기문자와 이집트문자* (pp. 9-22).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 국립중앙박물관. (2022). *메소포타미아: 저 기록의 땅*. 국립중앙박물관.
- 연규동. (2023). *세계의 문자사전*. 따비. (pp. 13-17)
- Tsukamoto, A. (2020). 림·シン第3年の「敷地付家屋 (é.dù.a)」売買契約文書とその背景. 古代オリエント博物館紀要 (Bulletin of the Ancient Orient Museum), 38, 1-12.
- Fehervari, G., Lambert, W. G., Rinder-Wilson, R. H., & Wenzel, M. (1966). *Art of the Eastern World* (Vol. 1). Hadji Baba Ancient Art.
- Finkel, I. (2014). *The Ark before Noah: Decoding the story of the flood* (Kindle ed.). Hodder & Stoughton.
- Finkel, I., & Taylor, J. (2015). *Cuneiform*. The British Museum.
- Houston, S., Baines, J., & Cooper, J. (2003). Last writing: Script obsolescence in Egypt, Mesopotamia, and Mesoamerica. In S. D. Houston (Ed.), *The first writing: Script invention as history and process* (pp. 430-479). Cambridge University Press.

원형배 점토판

Tablet of Round Ark

1

고바빌리(Old Babylonia)

기원전 2000-기원전 1600년

문자/언어 켈리문자/아카드어

크기 6.0×11.5×2.8cm

원형배 점토판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널리 퍼졌던 홍수 서사의 일부로, 홍수에서 생명을 구할 배를 상세히 묘사한다. 토판의 앞면, 밑면, 뒷면을 빼곡하게 채운 전체 60행의 본문은 문학적 완성도가 뛰어나다. 이 토판은 매우 능숙한 서기관이 만들었지만 글자의 각도가 불규칙하고 줄이 겹치는 등 정성을 들여 차분하게 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특성 때문에 초보자가 읽기에는 쉽지 않다. 대중적 낭독용 토판이라기 보다는 능숙한 서기들만이 서로 알아볼 수 있게 제작한 것일 수 있다.

이 토판에서 설명하는 배를 우리말로 '둥근 배' 또는 '원주' 𒂍𒀭라 불러야 할 것이다. 흔히 사용하는 '방주' 方舟는 영어의 'ark'(독: Arche) 등을 번역한 말로 '네모난 배'의 뜻이다. 그 뿌리가 된 라틴어 낱말(arca)은 '상자, 껍, 관, 궤' 등을 의미했다. 그런데 이 토판에서 말하는 배는 정확히 둥근 모습이다(7-8행). 따라서 '둥근 방주'(둥근 네모난 배) 등으로 옮기는 실수를 조심해야 한다. '둥근 배'가 가장 직관적 번역어로 보이고 '방주'에 대응하는 맥락에서 '원주'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토판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트라하시스(*Atra-basis*, 2행)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대표적인 홍수 설화인 <아트라하시스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의 이름은 '드높은(*Atra*) 지혜(*basis*)'라는 뜻이다. 하지만 <아트라하시스 이야기>에서 아트라하시스는 엔키(*Enki/Ea*)의 계시로 배를 짓고 생명을 구하는데, 이 토판에서는 엔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아트라하시스가 "나의 주님"으로 두 번이나 달(moon)의 신인 신(*Šin*)을 부른다(45행, 49행). 이 점은 이 토판이 <아트라하시스 이야기>와 구별되는 문학적 전승을 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밖에도 이 토판은 다른 홍수 설화들과 차이를 보인다. 우선 홍수의 내러티브가 전혀 없기에, 홍수를 일으킨 원인과 의미를 알 수 없다. <아트라하시스 이야기>에서는 인간이 일으킨 소란(*bubūrum*) 때문에 신들이 홍수를 일으켰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야훼는 세상의 폭력과 타락 때문에 홍수를 일으켰다(창세 6:9-12). <길가메쉬 이야기>에서는 영생을 찾는 길가메쉬에게 우트나피쉬티가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지만 이 토판은 오직 '둥근 배'에만 초점을 맞춘다. 배의 의미는 이상의 홍수 설화들과 병행하지만, 배를 짓는 세부항목은 적잖은 차이를 보인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토판은 홍수 이야기에서 '배'에 대한 새롭고 독특한 전승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른 아카드어 홍수 이야기와 구약성경의 노아 이야기와의 비교문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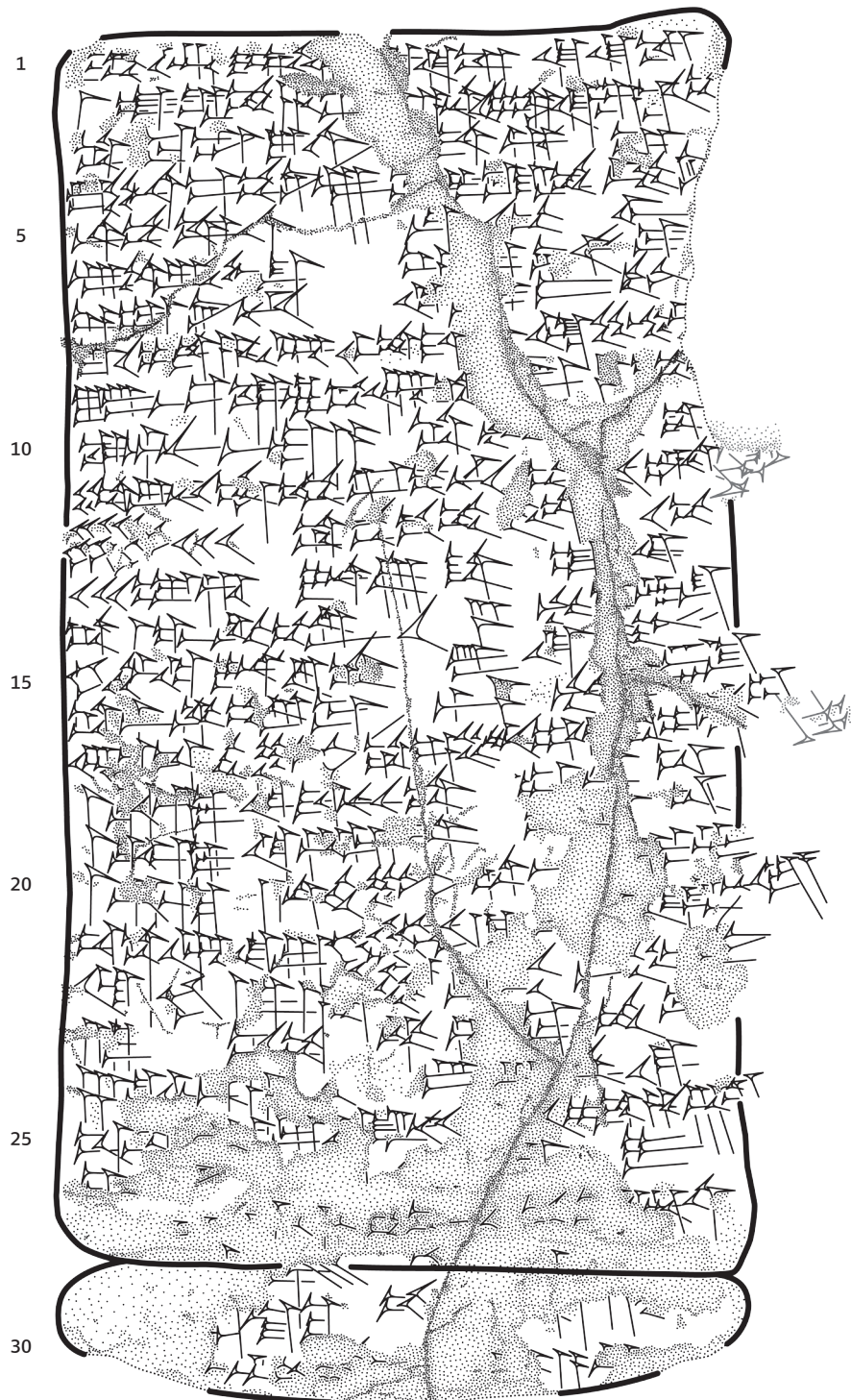
앞면(Obverse)



뒷면(Reverse)

앞면 Ob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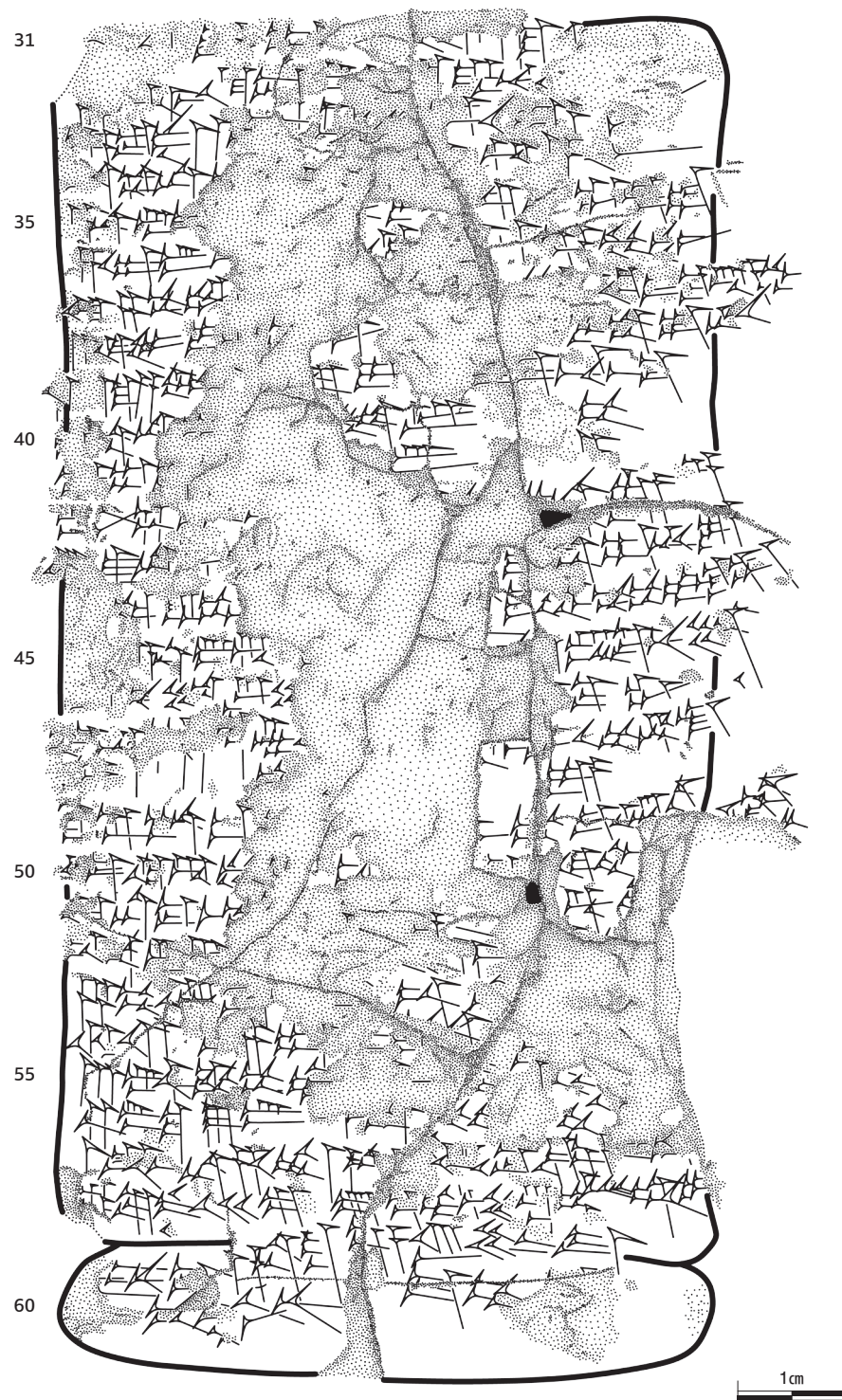




1cm

뒷면 Reverse





Line Art ©Klaus Wagonsonner

약자(abbreviation)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약자가 사용되었다.

- Gilg.: <길가메쉬 이야기>. 악카드어 원문은 (George, 2003) 참조.
 - AH: <아트라하시스 이야기>. 악카드어 원문은 (Lambert & Millard, 1969) 참조.
 - CAD: Gelb, I.J, et. al. eds.(1964-2010). *The Assyrian Dictionary of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Chicago*, vol. 1-21. Chicago.
- 구약성경 본문은 가톨릭 교회의 『성경』을 사용하였다.

연구자의 노트

핑켈은 이 점토판의 최초 연구서로서(edition princeps) 본문의 관찰과 번역을 남겼다(Finkel, 2014, app.4). 한국의 입수 과정에서 윤성덕도 상세한 본문 관찰 리포트를 남겼다. 필자는 두 학자의 관찰에 기반하여 약카더어 본문 주해를 첨가한다.

이 점토판은 문학적으로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화자의 변화, 줄거리의 변화, 주제와 구성원의 변화 등은 높은 수준의 문학적 완결성을 보여준다. 60행이나 되는 비교적 긴 본문을 문학적 구조에 따라 설명한다.

1) 신의 계시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고, 배의 의미와 둥근 모습을 알려준다(1-12행)

- (1) 계시의 시작: “벽이여”(1-2행)
- (2) 배의 의미: “생명을 구하라”(3-5행)
- (3) 배의 개요: “둥글고 큰 배”(6-12행)

2) 배를 짓다

주인공은 이 계시에 따라 문과 기둥과 층을 만들고 역청을 바른다(13-33행)

- (1) 배의 구조: “문과 기둥과 층을 만들었다”(13-17행)
- (2) 중요한 재료: “역청을 발랐다”(18-33행)

3) 출범 준비

공동체의 의례와 주인공의 개인적 기도가 이어지고, 짐승과 식량을 신는다(34-58행)

- (1) 공동체의 잔치: “먹고 마셨다”(34-38행)
- (2) 개인적 기도: “달의 신이여!”(39-50행)
- (3) 짐승과 식량을 신다: “둘씩 배로”(51-58행)

4) 배를 단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주인공의 말로 배의 문을 단는다(59-60행)

앞면(Obv.)



행	전사(Transliteration)	해석(Translation)
1	<i>i-ga-ar i-ga-a[r k]i-ki-iš ki-ki-iš</i>	벽, 벽이여! 갈대 벽, 갈대 벽이여!
2	<i>ˁat-ra-am-ḥa-si-[i]s a-na mi-il-ki-ia qú-ul-[ma]</i>	아트라하시[스여], 내 지침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3	<i>ta-ba-al-lu-uṭ [... d]a-ri-iš</i>	영원히 [...] 네가 살 것이다.
4	<i>ú-bu-ut É bi-ni MĀ m[a-a]k-ku-ra-am ze-e[r-ma]</i>	집을 부숴라! 배를 지어라! [재]산을 포기해[라! 그리고]
5	<i>na-pí-iš-tam šu-[... u]l-lim</i>	생명을 [...] 구해라!
6	<i>MĀ te-ep-pu-šu e-[š]e-er-ši-ma</i>	배를 지어야 한다. 그것을 [그]려라. 그리고
7	<i>e-še-er-ti ki-[i]p-pa-tim</i>	둥근 것의 그림을.
8	<i>lu mi-it-ḥa-ar ši-id-da-[š]a ù pu-u[s-sa]</i>	갈게 하라, 그것의 길이와 [그것의] 너비를.
9	<i>lu-ú 1 IKU ka-aq-qā-ar-š[a lu]-ù 1 NINDAN i-ga-r[a-tu-ša]</i>	그 넓이가 한 이쿠가 되게 하라. [그] 벽들이 한 닌다누가 [되게] 하라.
10	<i>ka-an-nu aš-la-a ta-mu-u[r] ša [MĀ]</i>	칸누-줄 아슬루-줄로 너는 [그 배를] 보았다.
11	<i>li-ip-ti-il-kum GIŠ ár-ti pí-[t]i-il-tam</i>	짜게 하라. 나뭇잎들과 야자나무 섬유를.
12	<i>ŠĀR 4 30 ta-qab-bi-am li-[ku]-ul</i>	3600×4 + 30(쑤투)를 네가 말하면 그 만큼 되리라.
13	<i>30 še-ri i-na ŠĀ-ša a[d]-dī</i>	내가 그 안에 30 개의 문을 세웠다.
14	<i>ša 1 PI ik-bi-ru 10 NINDAN mu-r[a]-ak-šu</i>	그것이 1 파르씩투 정도 두껍고 10 닌단 정도 길었다.
15	<i>ŠĀR im-dī ina ŠĀ-ša ú-ki-in</i>	내가 기둥 3600개를 그 안에 고정했다.
16	<i>ša 1/2 (PI) ik-bi-ru-ma ½ NINDAN mu-ra-ak-šu</i>	그것이 1/2 (파르씩투) 정도 두껍고 1/2 닌단 정도 길었다.
17	<i>ar-ku-ús ḥi-in-ni-šā e-le-nu-um ù ša-ap-lu-um</i>	내가 그 선실들을 위와 아래에 설치했다.
18	<i>1 ŠU.ŠI ESIR ki-da-ti-ša ap-[r]u-ús</i>	내가 그 밖의 역청을 한 움큼 떼었고
19	<i>1 ŠU.ŠI ESIR qí-ri-ib-ša ap-[r]u-ús</i>	내가 그 안의 역청을 한 움큼 떼었고
20	<i>1 ŠU.ŠI ESIR a-na ḥi-in-ni-ša aš-[t]a-pa-ak</i>	내가 그 선실의 역청을 한 움큼 쏟아 부었다.
21	<i>uš-ta-ar-ki-ib ŠĀR x 8 ESIR.UD.DU.A [i-n]a ki-ra-ti-ia</i>	내가 쿠프루-역청 3,600 x 8 (쑤투)를 가마 안에 넣었고,
22	<i>ù ŠĀR ESIR a-na li-ib-bi aš-pu-uk</i>	역청 3,600 (쑤투)를 그 안에 쏟아 부었다.
23	<i>ESIR ú-ul iq-r[i]-ba-am-ma</i>	그 쿠프루-역청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았고
24	<i>5 ŠU.ŠI na-ḥa-[a]m ú-re-[e]d-di</i>	내가 돼지 비계를 다섯 움큼 첨가했다.
25	<i>uš-ta-ar-[k]i-ib ki-ra-ti [...] mi-it-ḥa-ri-iš</i>	내가 가마에 [...]를 동일하게 넣었다.
26	<i>GI[Š].ŠINIG GIŠ [...]</i>	버드나무와 [...] 나무 줄기 [...]
27	<i>[...] e na as tum i bi ma ba-ar-tam</i>	...
28	<i>[...] MEŠ [...] in bi</i>	...아들...
29	<i>il-la-ku bi-rit še-e-ri-ša</i>	그것들이 그 문들 사이로 간다.
30	<i>[...] nam [...]</i>	...
31	<i>[...] ia i [...] ESIR [...]</i>	[...] 역청 [...]



행	전사(Transliteration)	해석(Translation)
32	ESIR.UD.DU <i>ki-du-ú [ša k]i-ra-ti [...]</i>	쿠프루 역청이 [가]마[의] 바깥에 [...]
33	<i>e-zu-ub 2 (x 60) G[UR] ú-pa-az-zi-rù um-mi-[ia-ni]</i>	120 구르 중에서 [내] 일꾼들이 따로 떼어 놓았다.
34	<i>uš-ta-na-al [...] ri-a-ši</i>	내가 함께 누웠고 [...] 기쁘게 [...]
35	<i>a-na MÁ i-[ru-bu-ma ...] k[i-i]m-<tu> sa-al-la-at</i>	그들이 그 배로 들[어갔고 ...] 가[족] 친척 [...]
36	<i>ḥa-du-ú [...] ki [...] e-mu-tim</i>	즐겁게 [...] 친들 [...]
37	<i>ù za-bi-il [...] ù su e ri a tum</i>	그리고 짐꾼 [...]
38	<i>a-ki-lum i-ik-k[a-a] [ša-tu-ú] i-ša-at-ti</i>	충분히 먹고 [충분히] 마셨다.
39	<i>a-na-ku a-wa-t[um i-na Š]À-í[a ul] i-ba-aš-ši-ma</i>	나는, 내 마[음 속에] 말이 [없]다. 그리고
40	<i>[...] na ti [...] i-ib-bi</i>	[...] 내 마음 [...]
41	<i>[...] ab [...] ú-a</i>	[...] 아버지(?) [...] 나의...
42	<i>bi-ni-it [...] i-ti-ia</i>	그는 지으셨[...] 나의 [...]
43	<i>[...] áš na/gi an [...] e ša-ap-ti-ia</i>	[...] 내 입술 [...]
44	<i>[...] ne ra bi [...] it pi-qum aš-la-al</i>	[...] 좁은 [...] 내가 누웠다.
45	<i>e-li a-na ú-ri ú-[sa-ap-pi] a-na ^dEN.ZU be-li</i>	내가 지붕으로 올라갔다. 나는 나의 주님(Sîn) 신에게[기도했다].
46	<i>GAZ lib-bi li-ib-l[i la ta-ta-a]b-ba-al</i>	내 [마음]의 괴로움이 끝나기를! [없어지지 않습]니다.
47	<i>[...] ak [...] ti-bi ik-la</i>	[...]
48	<i>i-na [...] -ia</i>	[...] 나의 [...] 안에
49	<i>^dEN.ZU i-na GIŠ.G[U.ZA-šuit-ta-m]ega-ma-ar-tam</i>	신(Sîn) 신은 [그의] 권좌에서 전멸을 [맹세하십니]다.
50	<i>ù ar-m[u-tam i-na u4-mi-im] e-ṭi-i[m ...]</i>	그리고 어두운 [날에] 황폐[함을 ...]
51	<i>ù na-ma-aš-t[um i-na še]-ri-i[m ...]</i>	그리고 들짐[승이 광]야[에서...]
52	<i>ša-na MÁ lu-[ú ...]</i>	돌씩 배로 [...]
53	<i>5 KAŠ ar ma [...] uš-t[a- ...]</i>	맥주 다섯(단위) [...]
54	<i>11 12 ú-za-ab-ba-lu [...]</i>	그들은 열하나, 열둘을 낳았고 [...]
55	<i>3 Ú šī-iq-bi u[k-ta ...]</i>	슈크부-폴 셋을/세 단위를
56	<i>1/3 ú-ku-lu-ú um/dub mu/gu [kur]-din-nu</i>	먹는 풀 1/3 (단위) [...] 쿠르딘누-풀
57	<i>1 ŠU.ŠI na-ḥa-am a-na gi-ri-ma-de-e aq-ta-na-bi</i>	내가 기리마두를 위한 돼지 비계 한 움큼을 명령했다.
58	<i>e-zu-ub 30 GUR ú-pá-az-zi-rù LÚ.MEŠ um-mi-a-[ni]</i>	30 구르 중에서 [나의] 일꾼 사람들이 따로 떼어 놓았다.
59	<i>i-nu-ma a-na-ku e-ru-bu-ma</i>	그 때에 바로 내가 들어왔다. 그러니
60	<i>pi-ḫi pīt ba-bi-ša</i>	그 문의 입구를 닫아라!

앞면(Obv.)

1행

i-ga-ar i-ga-a[r k]i-ki-iš ki-ki-iš

벽, 벽이여! 갈대 벽, 갈대 벽이여!

*igāru*는 ‘벽, 담, 담장, (길이의) 단위’를, *kikkišu*는 ‘갈대 벽’ 또는 특별한 종교적 목적 등을 위해 사용하는 ‘갈대 움막’을 의미한다. 벽은 신과 소통하는 매개로 이 벽은 신전의 가장 안쪽, 곧 가장 내밀한 지성소의 벽을 말할 것이다. ‘신전의 벽’(*i-ga-ru bīti*) 등의 용법 등으로 미루어보면, 특정한 의례나 신전과 관련있을 것이다(CAD I/J, 34.37; CAD K, 352). 조지(A.R. George)는 이 벽을 ‘갈대로 만든 벽’으로 부르는 것이 독특하다고 관찰했다(George, 2003 II, p. 879). 1행의 기호 *i*는 표준 바빌론어가 아닌 바빌론어 형태로 볼 수 있다.

2행

ˁat-ra-am-ḫa-si-[i]s a-na mi-il-ki-ia qú-ul-[ma]

아트라하시[스여], 내 지침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조언, 지침, 명령’ 등을 의미하는 단어(*milku*)가 사용되었는데, <아트라하시스 이야기>의 해당되는 곳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말’(*siqrū*)이 쓰였다(AH III,i.21). 이 낱말을 ‘말’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두 본문의 차이를 드러내는 번역이 나올 것 같아 ‘지침’으로 옮겼다(CAD M2, p. 66). 2인칭 단수 명령형으로 쓰인 *qâlu* 동사는 ‘침묵 속에 조용하게 귀를 기울이다’는 뜻이다(CAD Q, p. 72). 이는 신의 지침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가리킨다.

4-5행

ú-bu-ut É bi-ni MĀ m[a-a]k-ku-ra-am ze-e[r-ma]

집을 부숴라! 배를 지어라! [재]산을 포기해라! 그리고

na-pī-iš-tam šu-[... u]l-lim

생명을 [...] 구해라!

4행 기호 *ú, É, ni*는 표준바벨어의 형태가 아니다. 4행에서 사용

된 슈메르어 로고그램 ‘집’(É)과 ‘배’(MĀ) 가운데, ‘배’(MĀ)는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사용된다. 4-5행은 <아트라하시스 이야기>의 병행 본문과 거의 일치한다(AH III,i.22-24). 다만 5행의 마지막은 일치하지 않아 보이는데, 본문이 훼손되어 확인할 길이 없다. 5행은 전체적으로 줄이 비틀어졌다.

논의

생명을 살리는 배

3-5행은 배의 참된 의미를 기술한다. 이 배는 홍수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 남아있는 점토판에는 ‘홍수’(*abūbu*)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이 배는 주인공이 영생 하고(3행) 생명을 구하기 위한(5행) 것이며 집과 재산을 포기 해야 한다(4행). 참 생명을 위해 현세의 물질적 가치를 버리는 것은 고대근동 지혜문학의 공통적인 최고 가치이다. 그러므로 배를 짓고 홍수를 이긴 주인공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길가메쉬 이야기>에서 길가메쉬가 (영원한) “생명”(*balṭu*)을 찾아 헤메다 우트나피쉬티를 만난 것은 당연한 결과다(Gilg. XI, 7). 이스라엘의 야훼 신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모든 생물을 결국 “살아남게 하여라”(창세 6:9-20)는 명령을 내렸다.

6행

MĀ te-ep-pu-šu e-[š]e-er-ši-ma

배를 지어야 한다. 그것을 [그]려라. 그리고

기호 *te, ep, e*는 표준바벨어가 아니고, 동사형이 표준문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7행

e-še-er-ti ki-[i]p-pa-tim

둥근 것의 그림을.

7행은 이 배가 ‘둥근 원 모양’임을 정확히 알 려 준다. *kippatu*는 ‘둥근 원의 모양’이고 *ešertu*는 ‘의도된 그림’이란 뜻이기에,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CAD K, p. 397) *ešertu*의 첫째 기호가 조금 특이하게 쓰였는데, 핑겔은 *uṣurtu*형태로 사용되었다고 보았다(Finkel, 2014, p. 385).

8행

lu mi-it-ḥa-ar šī-id-da-[š]a ù pu-u[s-sa]

갈게 하라, 그것의 길이와 [그것의] 너비를.

7행의 ‘둥근 원 모양’을 부연설명한다. “그것의 길이와 그것의 너비”(šiddaša ù pussa)는 “그것의 한 면과 다른 면”으로도 옮길 수 있는데, 7행의 ‘둥근 원 모양’을 뒷받침한다.

9행

lu-ú 1 IKU ka-aq-qā-ar-š[a lu]-ù 1 NINDAN i-ga-r[a-tu-ša]

그 넓이가 한 이쿠가 되게 하라. [그] 벽들이 한 닌다누가 [되게] 하라.

9행에서 슈메르어 로고그램(logogram)으로 쓰인 *iku*는 슈메르 시대부터 사용된 단위인데, ‘강 또는 수로 사이의 경작지’를 의미한다(CAD I/J, p. 68). 이 슈메르어 로고그램 등 9행과 10행의 문자들 일부는(*lu, ú, ka, aq, qā; ka, an, nu, ta, ša*) 고바벨 형태이다. 또한 슈메르어 로고그램으로 *nindamu*는 노(rod)의 길이를 의미하는데 ‘12 큐빗’ 또는 대략 6미터 정도를 뜻한다(CAD N2, 283). 9행에 쓰인 IKU는 고바벨 형태이고, 그 외의 *lu, ú, ka, aq, qā*는 바벨어 형태이다.

10행

ka-an-nu aš-la-a ta-mu-u[r] ša [MÁ]

칸누-줄 아술루-줄로 너는 [그 배를] 보았다.

10행의 *kannu*와 *ašlu*는 모두 끈 또는 줄(rope)을 의미하는데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CAD K, p. 156; CAD A2, p. 447). 여기서 여러 종류의 줄들을 9행과 연관시키면 측량단위로 볼 수 있지만, 11행과 연관시키면 배의 재료와 관련될 것이다. 10행은 칸누 줄과 아술라 줄루로 그 배의 크기를 가늠했다고 새길 수 있다. 고대근동 문헌에서 ‘보다’(amāru)는 시각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보다’는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10행에 쓰인 *ka, an, nu, ta, ša*는 바벨어 형태이다.

11행

li-ip-ti-il-kum GiŠ ár-ti pí-[t]i-il-tam

짜게 하라. 나뭇잎들과 야자나무 섬유를.

일꾼을 시켜 (길게 자른) 나뭇잎(*artu*)과 야자나무 섬유

(*pitiltu*)로 10행의 밧줄을 짜라는 명령인데, 이는 배를 만드는 재료 또는 크기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였을 것이다.

12행

ŠAR 4 30 ta-qab-bi-am li-[ku]-ul

3600×4 + 30(쑤투)를 네가 말하면 그 만큼 되리라.

12행에서 슈메르 로고그램 ŠAR로 표현된 3,600에 4를 곱하면 14,400이고, 거기에 30을 더하니 14,430이 된다. 본문에는 생략되었지만 이 단위는 *sūtu*인데 어떤 “그릇”(vessel)을 뜻하는 단위였다. 이 그릇은 특별히 “땅에 뿌릴 씨앗을 담은 용기”인데, “그 용기에 담긴 씨앗을 뿌리기에 필요한 땅”을 의미하기도 했다(CAD S, p. 420). “네가 말하면, 그만큼 되리라”고 옮긴 곳을 직역하면, “네가 말하면 그가 먹으리라(=소모하리라)”이다. 계시를 받는 존재가 계시받은대로 일꾼에게 일을 시키고 그렇게 이루어지리라는 뜻으로 새길 수 있다.

논의

배의 종류

핑켈은 이 배를 아일랜드와 영국의 웨일즈 등에서 옛부터 타던 코라클(coracle)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했다(Finkel, 2014, pp. 137-140). 코라클은 식물의 줄기나 나무 등으로 가볍게 만든 둥글고 작은 배로 고대부터 영국, 이라크, 베트남, 인도, 티벳 등에서 사용되었다(“coracle”, Wikipedia). 특히 이라크 등에서 옛부터 타던 코라클인 구파(*guffa*)라고 보았다(Finkel, 2014, p. 140).

배의 크기

고대 근동의 도량형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서 정확히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이 배가 무척 크다는 점은 확실하다. 9행의 ‘이쿠’(iku)는 흐르는 물을 접하는 좋은 경작지를 의미했는데,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다. 그래서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었고, 한 도시의 권력체가 대규모 경작을 지휘하였다(CAD I/J, p. 68). 핑켈(Finkel)은 ‘경작지 규모의 설계도’(a field-sized plan)로서 “참으로 거대한” 배라고 인정했다(Finkel, 2014, pp. 126, 161). 9행과 동일한 <길가메시 이야기>의 병행본문을 조지(A.R. George)는 정밀하게 계산하였다. 그는 시대에 따라 ‘1 이쿠’가 ‘0.36에서 0.81 헥타르’ 정도의 땅으로 추정했다(George, 2003 I, p. 708; n. 5; Finkel, 2014, p. 131). 이를 환산하면 대략 축구장 ‘절반’에서 ‘하나보다 조금 큰’ 면적

이 된다. 그렇게 넓은 땅에 높이는 ‘1 닌다누’(nindanu), 곧 대략 6미터 정도이니, 상당히 웅장한 신전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13행

30 *še-ri i-na ŠĀ-ša a[d]-di*

내가 그 안에 30 개의 문을 세웠다.

13행부터 주어가 ‘나’로 바뀐다. 13행의 *še-ri*를 핑겔은 ‘갈빛대, 옆’을 뜻하는 *sehu*로 이해하여, 배의 갈빛대, 곧 기둥이나 서까래로 보았다. 그런데 그보다는 ‘문(door)’의 경첩을 의미하는 *serru*로 보면 “30개의 문”으로 새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14-17행의 문맥도 자연스럽다(Finkel, 2014, p. 378; CAD S, p. 137; 29행의 주해 참조).

14행

ša 1 PI *ik-bi-ru* 10 NINDAN *mu-ra-ak-šu*

그것이 1 파르씩투 정도 두껍고 10 닌단 정도 길었다.

방의 크기를 나타낸다. 슈메르 로고그램 PI는 *parsiktu*라는 단위를 의미하는데 이것도 곡식을 담는 그릇이었다.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다(CAD P, p. 192). 닌단누는 9행에서 설명했다. 10 닌단누는 대략 60미터 되는 크기이므로 상당히 큰 방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동사 *ik-bi-ru*의 마지막 *u*-모음은 불필요한 것일 수 있다.

15행

ŠĀR *im-di ina ŠĀ-ša ú-ki-in*

내가 기둥 3600개를 그 안에 고정했다.

“기둥”(imdu 또는 ‘지지대’)가 3,600개가 필요하다고 한다. 3,600이 상징수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큰 규모임을 알 수 있다.

16행

ša 1/2 (PI) *ik-bi-ru-ma* ½ NINDAN *mu-ra-ak-šu*

그것이 1/2 (파르씩투) 정도 두껍고 1/2 닌단 정도 길었다.

16행은 지지대가 문의 절반의 두께이며 길이도 펍 짧은 것이라고 한다. 14행과 16행에서 ‘길이’(mīraku)는 문과 지지대의 폭을 의미할 것이다.

17행

ar-ku-ús bi-in-ni-šā e-le-nu-um ù ša-ap-lu-um

내가 그 선실들을 위와 아래에 설치했다.

“위와 아래”(e-le-nu-um ù ša-ap-lu-um)는 이 배를 2층으로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논의

배의 내부 구조

내부에 30개의 문을 만들었으니(13행), 이 배에는 30개의 방이 있는 셈이다. 그리고 기둥을 3,600개나 세웠다(15행). 방 하나에 120개 씩이다. <길가메쉬 이야기>에서는 정사각형의 방주를 ‘7구획의 9개의 방’(Gilg. XI, pp. 61-63)로 나누라고 했고, 노아의 방주에서는 내부에 방들을 만들지만 몇 개라는 말은 없다(창세 6:14). <아트라하시스 이야기>에서는 내부의 방을 만들라는 본문이 없는데, 점토판이 훼손된 곳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점토판이 말하는 원주圓舟에는 방을 “위와 아래”(17행) 만들었다. 이는 2층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다. 한편 노아의 방주는 3층이었고(창세 6:16), <길가메쉬 이야기>에서는 7층이었다(Gilg. XI, p. 61). 이처럼 홍수 이야기마다 방의 종류와 개수와 층에 대해서도 서로 전승이 다르다.

지붕

독특하게도 이 점토판에서는 ‘지붕’을 덮으라는 말이 없다. 큰 비가 내려 세상이 잠길 것이니, 이 배는 필수적으로 튼튼한 지붕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다른 모든 홍수 본문에는 지붕을 덮으라는 말이 중요하게 나온다. 물론 이 점토판의 훼손된 다른 곳에 지붕을 덮으라는 말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실제로 45행에는 ‘지붕’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18행

1 ŠU.ŠI ESIR *ki-da-ti-ša ap-[r]u-ús*

내가 그 밖의 역청을 한 움큼 떼었고

슈메르 로고그램 ŠU.ŠI는 *ubānu*(“손, 손가락”)단위를 의미하고, ESIR는 “역청”(ittū)을 의미한다. 결국 ‘한 손으로 떼어낸 분량의 역청’을 가리킬 것이기에 ‘움큼’으로 옮겼다. “그 밖의(ki-da-ti-ša) 역청”은 배의 밖에 바를 역청의 의미다.

19행

1 ŠU.ŠI ESIR *qí-ri-ib-ša ap-[r]u-ús*

내가 그 안의 역청을 한 움큼 떼었고

“그 안의(*qí-ri-ib-ša*) 역청”은 배의 내부에 바를 역청을 뜻한다.

20행

1 ŠU.ŠI ESIR *a-na bi-in-ni-ša aš-[t]a-pa-ak*

내가 그 선실의 역청을 한 움큼 쏟아 부었다.

“그 선실의(*a-na bi-in-ni-ša*) 역청”은 선실에 바를 역청을 뜻한다. 이렇게 역청을 장소에 따라 나누는 것은 구약성경의 창세기와 병행한다. 노아의 방주는 이 점토판 처럼 역청을 “안과 밖”으로 나누어 바른다(창세 6: 14).

21행

uš-ta-ar-ki-ib ŠAR x 8 ESIR.UD.DU.A [i-n]a ki-ra-ti-ia

내가 쿠프루-역청 3,600 x 8 (쑤투)를 가마 안에 넣었고,

ESIR.UD.DU.A는 “역청”(kupru)를 의미하는데, 앞과 다른 종류의 역청을 말하는 것 같다. 역청은 배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였다. 앞의 18-20행은 비교적 소량의 역청을 초벌로 발랐는데, 21-22행에서는 다양한 역청을 대량으로 쏟아 붓는다.

22행

ù ŠAR ESIR a-na li-ib-bi aš-pu-uk

역청 3,600 (쑤투)를 그 안에 쏟아 부었다.

20행과 22행에서는 “쏟아 붓다”(šapāku)를 뜻하는 동일한 어근의 동사가 동사줄기만 조금 차이나게 쓰였다. 이런 뉘앙스의 차이를 정확히 번역하기란 쉽지 않다.

23행

ESIR *ú-ul iq-r[i]-ba-am-ma*

그 쿠프루-역청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았고

‘내게 가까이 오지 않았다’를 핑겔은 ‘표면까지 (충분히) 오지 않았다’로 이해했다(Finkel, 2014, p. 379). 곧 21-22행에서 쿠프루-역청을 대량으로 쏟아부어 발랐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3단계 공정이 시작하는데, 배의 남은

윗부분에 돼지 비계를 바른다(24행).

24행

5 ŠU.ŠI *na-ḫa-[a]m ú-re-[e]d-di*

내가 돼지 비계를 다섯 움큼 첨가했다.

*nāḫum*은 돼지 비계(lard)를 의미한다(CAD N1, p. 142). 이어지는 점토판이 훼손되어 여기서 배를 짓는 일이 완성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점토판의 상태와 문맥을 고려해서 여기서 완성되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5행

uš-ta-ar-[k]i-ib ki-ra-ti [...] mi-it-ḫa-ri-iš

내가 가마에 [...]를 동일하게 넣었다.

안타깝게도 점토판이 훼손되어 25행에서 가마에 어떤 재료를 넣었는지 알기 힘들다. “동일하게” (*mi-it-ḫa-ri-iš*)란 의미는 24행의 ‘다섯 움큼의 돼지 비계’를 의미할 수 있다.

26행

GI[Š].ŠINIG GIŠ [...]

버드나무와 [...] 나무 줄기 [...]

슈메르어 로고그램 GI[Š].ŠINIG는 “버드나무”(binu)를, GIŠ는 나무 줄기를 의미한다. 점토판이 훼손되어 정확한 문맥을 이해하기 힘들다.

27-28행

[...] e na as tum i bi ma ba-ar-tam

...

[...] MEŠ [...] in bi

...아들...

점토판이 심하게 훼손되어 판독이 어렵다.

29행

il-la-ku bi-rit še-e-ri-ša

그것들이 그 문들 사이로 간다.

*še-ri*를 핑겔은 13행과 같이 ‘갈빗대, 옆’을 뜻하는 *ṣelu*로 보았지만, 여기서는 ‘문(door)의 경첩’(serru)으로 해석했다(Finkel,

2014, p. 380). 문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점토판이 훼손되어 문맥을 알 수 없다. 29-31행은 점토판의 밑면에 쓰여 있다.

30-31행

[...] nam [...]
...
[...] ia i [...] ESIR [...]
[...] 역청 [...]

점토판이 심하게 훼손되어 거의 알아볼 수 없고, 32행의 문맥도 이해하기 힘들다.

뒷면(Rev.)

32행

ESIR.UD.DU <i>ki-du-ú</i> [<i>ša k</i>]/ <i>ra-ti</i> [...]
쿠프루 역청이 [가]마[의] 바깥에 [...]

훼손이 심하다. 이곳부터 점토판의 뒷면이 시작된다.

33행

<i>e-zu-ub 2</i> (x 60) <i>G[UR]</i> <i>ú-pa-az-zi-rù</i> <i>um-mi-[ia-ni]</i>
120 구르 중에서 [내] 일꾼들이 따로 떼어 놓았다.

슈메르어 로고그램 GUR는 곡식을 세는 단위(*kurru*)를 의미하는데, 그 무게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CAD K, pp. 564-565). “60”은 완전성을 의미하는 대표적 상징수이고 그 두 배인 “120”은 무척 많은 양을 의미한다. 역시 33행도 문맥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어지는 34행의 의미로 미루어보아 여기서 배를 짓는 일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행은 58행과 병행한다.

논의

능숙한 서기

‘역청’은 대개 슈메르 로고그램 A.ESÍR로 쓰이지만 이 점토판에서는 줄곧 ESIR로 쓰였는데, 핑겔은 이런 현상을 능숙한 서기의 ‘줄임말’(shorthand) 스타일이라고 이해했다(Finkel, 2014, p. 385).

역청

이 점토판은 배를 만들 때 역청에 대해 상세히 묘사한다. 역청을 바르는 일은 최소한 3단계로 이루어졌다(18-20행, 21-22행, 23행). 그리고 단계마다 재료와 양이 다르다. 첫째 단계는 배의 밖과 안과 선실에 한 움큼씩 역청을 떼어 바르는 것이다(18-20행). 비교적 적은 양을 세분하여 초벌로 바른 첫째 단계가 완성되면 둘째 단계가 시작된다. 쿠프루-역청이라는 다른 종류의 역청을 3,600의 8배의 양만큼 넣고, 첫째 단계의 보통 역청을 3,600을 넣는다(21-22행). 둘째 단계에서 역청의 양은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역청을 넣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23행). 그래서 마지막으로 특이하게도 돼지 비계를 다섯 움큼 바른다(24행). 역청은 모든 홍수 신화에서 배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였고 중요하게 묘사되었다. 하지만 이 점토판과 세부항목에서 차이가 적지 않다.

배의 건조 시도

핑겔은 실제로 인도의 케랄라에 있는 조선소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배를 건조하였다. 그런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이런 설계도로는 배가 무너져서 도저히 만들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배가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갈대로 만든 약한 배의 몸체에 역청이 너무 많아 무겁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략 1/5 크기로 줄여서 여러가지 보강재를 덧대었고, 결국 배를 띄우는 데는 성공했다(Finkel, 2014, chap 15).

34행

<i>uš-ta-na-al</i> [...] <i>ri-a-ši</i>
내가 함께 누웠고 [...] 기쁘게 [...]

배를 짓자 홍수가 임박한다. 공동체의 종교적 잔치가 이어지고 아트라하시스는 개인적인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배에 짐승과 식량등을 실었다. 배를 띄우기 위한 의례등을 실천하며 배를 완성하고 배에 오르며 잔치를 이는데 본문의 분위기가 바뀐다.

35행

<i>a-na MĀ i-[ru-bu-ma ...]</i> <i>k[i-i]m-<tu> sa-al-la-at</i>
그들이 그 배로 들(어갔고 ...) 가[족] 친척 [...]

‘가족’(*kimtu*)과 ‘친척’(*salatu*)을 알아볼 수 있다.

36행

<i>ba-du-ú</i> [...] <i>ki</i> [...] <i>e-mu-tim</i>
즐겁게 [...] 친척들 [...]

*emūtu*는 ‘남편의 친척’을 의미한다. 결국 35-36행은 다양한 친척을 언급하고 있다.

37행

ù za-bi-il [...] ù su e ri a tum
그리고 짐꾼 [...]

‘짐꾼’(*zābīlu*)을 알아볼 수 있을 뿐, 문맥을 이해하기는 힘들다. 이 짐꾼들은 배를 짓는 재료를 날랐던 이들일 것이다. 배가 완성되었으니 이들도 함께 잔치에 참여한 것 같다.

38행

a-ki-lum i-ik-k[a-a] [ša-tu-ú] i-ša-at-ti
충분히 먹고 [충분히] 마셨다.

“먹는 자가 먹었고, 마시는 자가 마셨다”인데, 충분히 먹고 마셨음을 의미한다. 큰 잔치가 벌어진 것이다.

논의

공동체의 잔치

완성된 배의 곁에서 모든 사람이 큰 잔치를 벌이는 모습은 큰 신전 옆에서 벌어진 종교적 의례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홍수가 임박하자 배를 짓던 공동체가 종교적 의례를 벌인 것은 홍수 이야기들에서 병행하는 점이다. <아트라하시스 이야기>에서도 홍수 이전에 잔치를 벌인 점을 알 수 있고(AH III, pp. 39-44; 주원준, 2025, pp. 90-92). <길가메쉬 이야기>에서도 황소와 양을 잡고 맥주와 기름과 포도주 등을 먹는 초하루 잔치가 나온다(Gilg. XI, pp. 71-75). 한편 노아는 홍수 이전에 잔치를 벌이지 않았다.

39행

a-na-ku a-wa-t[um i-na Š]Ā-ī[a ul] i-ba-aš-ši-ma
나는, 내 마[음 속에] 말이 [없]다. 그리고

1인칭 대명사가 사용된 것은 위 단락과 구분되며, ‘나’를 강조한 용법으로 볼 수 있다. 59행에도 같은 용법이다. 39행과 40행에서 반복되는 ‘마음’을 고려하면 지극한 내면의 기도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신은 계시했고(1-2행) 계시의 지침대로(3-12행) 아트라하시스는 모두 실천했다(13-38행). 이제 그는 기도를 시작한다.

40행

[...] na ti [...] i-ib-bi
[...] 내 마음 [...]

39행에서는 ‘마음’이 슈메르어 로고그램으로 쓰였지만(*ŠÀ*) 40행에서는 악카드어로 쓰였다(*libbu*).

41-44행

[...] ab [...] ú-a
[...] 아버지(?) [...] 나의...
bi-ni-it [...] i-ti-ia
그는 지으셨[...] 나의 [...]
[...] áš na/gi an [...] e ša-ap-ti-ia
[...] 내 입술 [...]
[...] ne ra bi [...] it pi-qum aš-la-al
[...] 좁은 [...] 내가 누웠다.

점토판이 훼손되어 판독이 힘들다.

45행

e-li a-na ú-ri ú-[sa-ap-pi] a-na ⁴EN.ZU be-li
내가 지붕으로 올라갔다. 나는 나의 주님(*Sîn*) 신에게[기도했다].

‘지붕’(*ūru*)은 아마 방금 완성된 배의 지붕일 것이다. 홍수 신화에 등장하는 구원의 배는 모두 지붕을 튼튼하게 만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점토판에서는 찾을 수 없다. 다만 훼손된 26-30행에 지붕을 덮으라는 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46행

GAZ lib-bi li-ib-[l]i la ta-ta-a]b-ba-al
내 [마음]의 괴로움이 끝나기를! [없어지지 않습니다].

훼손이 심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내 마음의 폐허”(GAZ=*ḫepû lib-bi*)를 알아볼 수 있다. 문맥을 고려하여 “내 마음의 괴로움”으로 옮겼다.

47-48행

[...] ak [...] ti-bi ik-la
[...]
i-na [...] ia
[...] 나의 [...] 안에

판독이 힘들다.

49-50행

⁴EN.ZU *i-na* GIŠ.G[U.ZA-šuit-ta-m]ega-ma-ar-tam
신(*Sîn*) 신은 [그의] 권좌에서 전멸을 [맹세하십니]다.
ù ar-m[u-tam i-na u4-mi-im] e-ṭi-i[m ...]
그리고 어두운 [날에] 황폐[함을 ...]

달의 신은 45행에서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권좌에서”(GIŠ.

GU.ZA = *kussû*) 모든 생명을 전멸하는 결정을 내린다. 달의 신은 이 점토판에서 유일하게 언급되는 신인데, 이 신이 최고 신이 내릴 법한 결정을 내리는 점은 이 점토판의 무척 독특한 점이라고 하겠다.

논의

아트라하시스의 내면

홍수가 임박하자 아트라하시스의 마음은 공허하고(39행) 괴로움으로 가득 찼다(46행). 홍수는 모든 생명의 전멸을 의미하니(49행), 어둡고 황폐한 날이(50행)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배의 지붕에(45행) 올라가 그의 주님인 달(moon)의 신(*Sîn*)에게 기도했다(45행, 49행). 고대의 문헌에서 주인공의 개인적 내면이 이렇게 상세히 묘사된 점은 펍 드물기에, 매우 인상적이다. 홍수가 임박하자 안절부절하는 모습은 <아트라하시스 이야기>와 병행하는데(AH III, 45-47; 주원준, 2025, pp. 92-93), 구체적인 표현에서는 차이가 심한 것 같다. 한편 <길가메쉬 이야기>와 노아 이야기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아트라하시스의 주님

아트라하시스가 “나의 주님”(be-li)으로 신(*Sîn*) 신을 부르는 것은 무척 독특하다. ‘신’은 남성신으로서 난나(*Nanna*) 또는 수엔(*Suen*)으로 불리며, 특히 고바빌에서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Black & Green, 2003, p. 135). 그러므로 여기서 ‘신’을 부른 것은, 고바빌의 대중신임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신’이 “권좌에서”(49행) 홍수를 결정한다는 것은 다른 홍수 신화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아트라하시스 이야기>나 <길가메쉬 이야기>에서는 홍수를 일으켜 인간의 절멸을 결정하는 신은 엔릴(*Enlil*)이고, 그 결정을 수행하는 신은 비바람의 신 아다드(*Adad*)이다. 이는 메소포타미아의 일반적 신학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독특하게도 달의 신이 홍수의 결정을 내린다.

51행

û na-ma-aš-t[um i-na še]-ri-i[m ...]

그리고 들짐[승이 광]야[에서...]

접속사 ‘그리고’(i)는 이제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는 표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nammaštu*는 들짐승의 무리를 의미한다(CAD N1, p. 234). 게다가 ‘광야에서’(i-na še-ri-im)이라는 표현도 덧붙여있다.

52행

ša-na MĀ lu-[û ...]

들씩 배로 [...]

“들씩”(ša-na)은 들짐승의 무리가 한 쌍씩 배에 탔음을 의미한다. 모든 생명의 종을 보존하기 위해 암수 한 마리씩 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53행

5 KAŠ ar ma [...] uš-t[a- ...]

맥주 다섯(단위) [...]

슈메르어 로고그램 KAŠ는 ‘맥주’(šikāru)를 의미하는데 다섯 개의 ‘단위’가 훼손되었다. 핑겔은 53행의 끝의 uš-t[a- ...]를 1인칭 동사의 시작부와 같다고 보았는데(Finkel, 2014, p. 383) 아마 ‘놓다’ 또는 ‘주다’가 적절해 보인다. 맥주는 사람이 마시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사람과 짐승이 먹을 식량을 싣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4행

11 12 ū-za-ab-ba-lu [...]

그들은 열하나, 열둘을 낳았고 [...]

본문이 훼손되어 “11”과 “12”가 어떤 ‘단위’인지 알 수 없다. 한편 핑겔은 ‘11’을 살짝 지운 흔적이 있다고 보고, ‘12, 12’, 곧 ‘열 둘 씩’으로 읽을 가능성을 제시했다(Finkel, 2014, p. 385).

55행

3 ū šī-iq-bi u[k-ta ...]

쉬크부-폴 셋을/세 단위를

슈메르어 로고그램 은 일반적인 “폴”(šammu)을 의미한다. 그 뒤에 이어지는 단어가(šī-iq-bi) 꾸며주지만 ‘쉬크부-폴’이 어떤 폴인지 알 수 없다. 문맥상 짐승이 먹는 폴의 일종으로 추측한다. 한편 핑겔은 <길가메쉬 이야기>의 병행구절을 근거로 ‘지혜의 식물’(IGI.GÁL.BI)로 읽을 가능성도 제시했다(Finkel, 2014, p. 385).

56행

1/3 ū-ku-lu-ū um/dub mu/gu [kur]-din-nu

여물 1/3 (단위) [...] 쿠르딘누-폴

식물의 종류가 두 가지 나온다. *ukullû*는 인간과 짐승이 먹는 풀을 의미한다(CAD U/W, 58). 하지만 *kurdinmu*는 식물의 일종이라는 것만 알 뿐이다(CAD K, p. 557). 문맥으

로 미루어 짐승에게 주는 사료로 추측한다. 한편 핑겔은 마지막 글자인 *kurdinnu*는 훼손되어, ‘가시덤불’을 의미하는 *amurdinnu*로 복구할 가능성도 제시했다(Finkel, 2014, p. 385). *amurdinnu*는 <길가메쉬 이야기>에서 깨달음의 식물을 의미하기에 55행과 연관지어 새롭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57행

1 ŠU.ŠI *na-ḫa-am a-na gi-ri-ma-de-e aq-ta-na-bi*
내가 기리마두를 위한 돼지 비계 한 움큼을 명령했다.

기르마두(*girmadû*)는 슈메르어에서 유래한 외래어로 배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다(CAD G, p. 89). 배의 한 부분이라면 돼지비계는 배를 수선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ŠU.ŠI는 18행을, 돼지 비계는 24행을 참조할 수 있다.

58행

e-zu-ub 30 GUR *ú-pá-az-zi-rù* LÚ.MEŠ *um-mi-a-[ni]*
30 구르 중에서 [나의] 일꾼 사람들이 따로 떼어 놓았다.

33행과 병행한다. 다만 58행에는 “사람들”(LÚ.MEŠ)이 첨가되었다.

논의

짐승을 싣다

안타깝게도 점토판이 훼손되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짐승을 한 쌍씩 싣고 양식 등을 실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다. 방주에 다양한 동물을 실었다는 표현이 가장 풍부한 것은 노아의 이야기이다(창세 6:19-20; 7:8-16). <아트라하시스 이야기>

에서는 해당하는 본문이 훼손되었지만, 역시 다양한 종류의 짐승을 한 쌍씩 실었음을 알 수는 있다. <길가메쉬 이야기>는 그저 ‘모든 짐승을 실었다’는 간단한 언급 뿐이다.

59행

i-nu-ma a-na-ku e-ru-bu-ma
그 때에 바로 내가 들어왔다. 그러니

시작하는 “그 때에”(i-nu-ma)는 장면이 바뀔을 드러낸다. 또한 1인칭 대명사는 39행처럼 강조의 용법으로 볼 수 있다.

60행

pi-ḫi pīt ba-bi-ša
그 문의 입구를 닫아라!

명령형으로 쓰인 동사는(*peḫû*) ‘막다, 메우다, 봉인하다’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문을 닫다’로 해석한다.

논의

주인공의 명령

주인공이 1인칭으로 “들어왔다”(e-ru-bu 59행)는 표현에서 지금까지 아트라하시스가 배의 밖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체의 잔치와 개인적 기도가 끝난 다음, 그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배의 문을 닫으라고 명령을 내린다. 아마 배 밖에 있는 일꾼에게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결국 이 점토판은 신의 명령으로 시작하여 인간의 명령으로 끝나는데, 이 점도 이 점토판의 문학적 완결성을 높인다. 주원준(한남성서연구소)

참고문헌 (References)

주원준(2025). 아트라하시스 이야기 8. *KANES NOTE*, 5, 79-98.
Black, Jeremy & Green, Anthony(2003). *Gods, Demons and Symbols of Ancient Mesopotamia - An Illustrated Dictionary*, Univ. of Texas Press.
Finkel, Irving(2014). *The Ark before Noah - Decoding the Story of the Flood*. Kindle edition, Hodder & Stoughton Ltd.: London.
George, A.R.(2003). *The Babylonian Gilgamesh Epic - Introduction, Critical Edition and Cuneiform Texts*, vol. I, II. Oxford University Press.
Lambert, W. G. & Millard, A. R.(1969). *Atra-ḫasis - the Balylonian Story of the Flood*. Clarendon P.: Oxford.
“coracle”,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Coracle> (2025.8.31 접속)

구데아의 점토 못

Gudea's Clay Cone

2

신-슈메르시대(Neo-Sumerian Period)

도시국가 라가쉬의 왕 구데아 통치기

기원전 2141-기원전 2122년

문자/언어: 쐼기문자/슈메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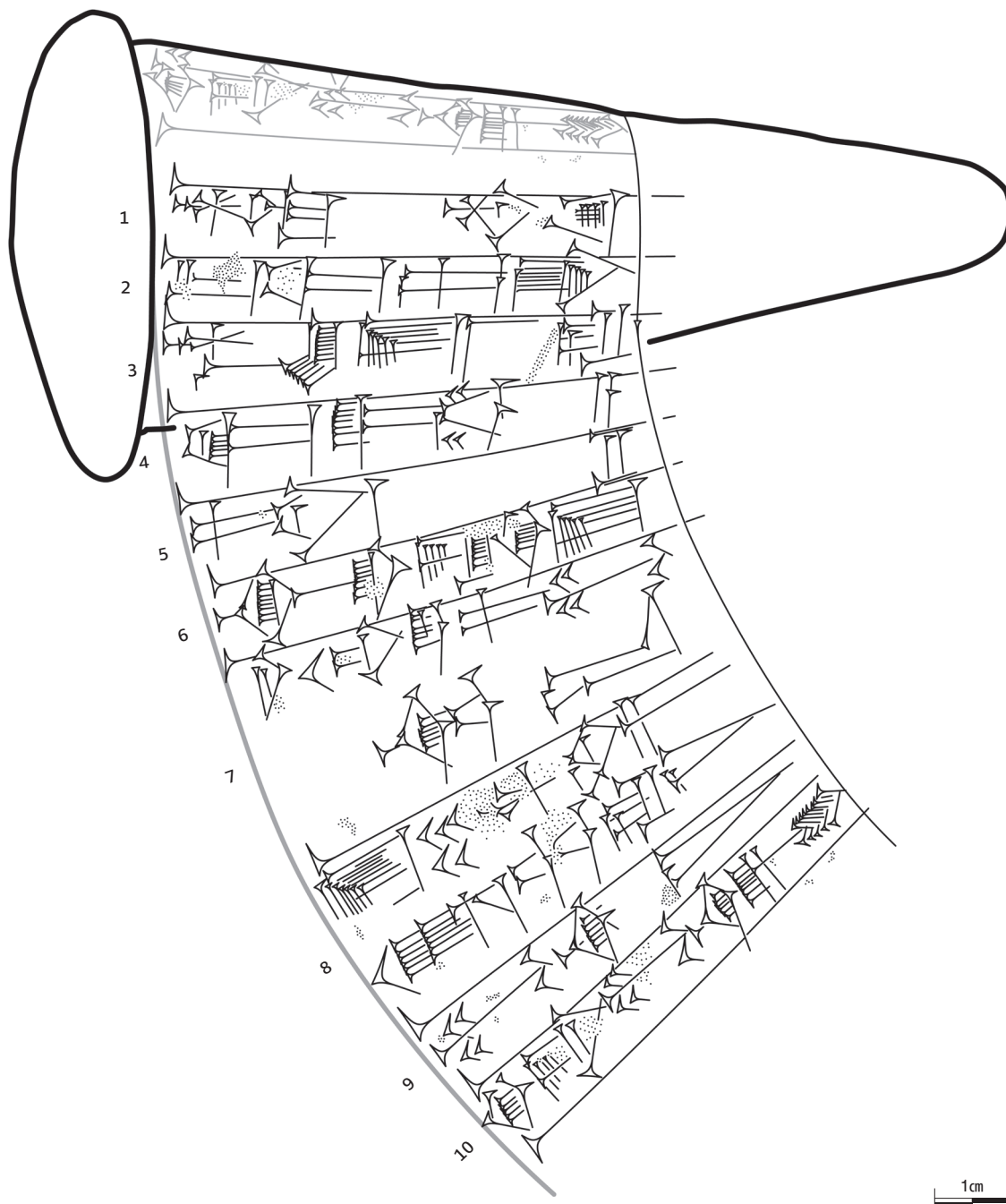
길이 13.4cm, 지름 6.2cm

라가쉬(Lagash)의 왕 구데아(Gudea)가 닌기르쭈(Ningirsu) 신의 신전 에닌누(Eninnu)를 건설하고 신께 바치면서 기록한 글이다. 신전에 예물을 바칠 때는 그것을 받는 신의 이름과 헌정자의 이름 그리고 헌정자의 소원을 적어서 헌정문을 기록한다. 왕들이 건축물을 짓거나 보수하고 헌정문을 기록할 때는 훨씬 더 긴 헌정문을 지어서 토판이나 석판이나 석비에 남겼고, 그것을 공공장소에 전시하기도 하였으나 건물 기초에 묻어서 신이 읽거나 후대 왕이 발견하도록 하였다. 건축물과 관련된 헌정문을 짧게 기록하는 예도 있는데, 건물에 들어가는 점토 벽돌에 도장처럼 찍어 낸 명문이나 본 전시품처럼 점토 못에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점토 못은 명문을 기록했으나 건물 벽에 박아 넣거나 건물 기초에 묻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이 이 글을 읽고 헌정자를 기억해주기 바라거나, 건물이 무너져서 후대 왕이 다시 보수 공사를 할 때 선조인 헌정자와 그의 업적을 알아주기 바랐던 것이다.

이 유물은 슈메르 지역 북동부에 있던 라가쉬의 왕 구데아가 기록하였는데, 당시 슈메르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큰 왕국은 없었으며, 동부 산지에서 내려온 구티 왕조와 북서부 도시국가 마리 그리고 여타 중소 도시들이 병존하던 시기였다. 구데아는 이런 시대에 라가쉬를 다스리면서(기원전 2144-기원전 2124년)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본인의 조각상을 여러 개 제작하여 여러 신전에 설치하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26개에 이른다.







연구자의 노트

점토를 빚어서 못 모양을 만든 뒤에 몸통 부분에 췌기문자를 새긴 이 유물은 현대 이라크 남부에 있었던 고대 도시국가 라가쉬의 왕 구데아 시대에 만들었다. 현대인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적지 않으나, 당시에는 누구나 인정하는 관습이었다. 유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씩 알아보자.

행	전사(Transliteration)	해석(Translation)
1	^d Nin-gir ₂ -su	닌기르수
2	ur-sag kal-ga	엔릴의 강한 영웅에게
3	^d En-lil ₂ -la ₂ -ra	엔릴의
4	Gu ₃ -de ₂ -a	구데아
5	ensi ₂ (pa-te-si)	라가쉬의 엔씨가
6	la ^{ki} ga ₄	라가쉬의
7	nig ₂ -du ₇ -e pa mu-na-e ₃	적절한 [제의를] 나타나게 하였다.
8	é-ninnu anzu ₂ ^{mušen} -babbar ₂ -ra-ni	'에닌누' 그의 하얀 안주 새를
9	mu-na-du ₃	건축하였고
10	ki-be ₂ mu-na-gi ₄	제 자리에 돌려 놓았다.



주 해

1행

^dNin-gir₂-su

닌기르쑤

제1행과 제3행은 딩기르(dingir)라는 기호로 시작한다(본문에는 어깨글자로 d 라고 표기하였다). 이 글자는 매우 기초적인 글자이며, 기본적인 모양은 쐐기 4개를 별표 모양으로 쓴다. 그런데 이 명문은 가로 쐐기 2개, 대각선 쐐기 2개, 세로 쐐기 1개로 쐐기를 모두 5개 사용하고 있다. 문맥에 따라 다른 글자일 가능성은 없는데, 기호를 쓰는 방식이 특이한 경우이다. 제1행 마지막에 나오는 기호 쑤(su)는 내부에 들어간 가로 획과 세로 획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리게 남아 있다.

3행

^dEn-lil₂-la₂-ra

엔릴의

제3행 둘째 기호 릴(lil)은 제일 밑에 있어야 할 가로 획이 매우 흐리게 남아 있다. 제3행 마지막 기호 라(ra)는 여격 어미이며 제1-3행에 나온 닌기르쑤 신의 이름과 호칭을 하나의 문장 요소로 읽어야 함을 알려준다. 닌기르쑤 신은 이 문서와 문서에 기록한 건물을 헌정 받는 존재이다.

6행

lagas^{ki}-ke₄

라가쉬의

제6행 마지막 기호 케(ke₄) 안에는 주격 어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4-6행에 나온 구데아와 그의 호칭이 이 문장의 주어임을 알려준다.

7행

nig₂-du₇-e pa mu-na-e₃

적절한 [제의를] 나타나게 하였다.

제 7, 9, 10행에 동사 세 개가 나오고 있으며, 제의를 바로 잡고 신전을 건축해서 제자리에 돌려놓았다고 주장한다.

논의

쐐기문자로 기록한 문서는 대개 점토판이나 석비 위에 새기기 때문에 점토 못 위에 글씨를 쓰는 관행은 현대인의 눈에 매우 특이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처음으로 글자를 발명하여 글을 쓰던 시기에는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실험을 하였다. 점토 못을 비롯하여 원통이나 사각 기둥 또는 육각 기둥 모양으로 점토를 빚어 필기 재료로 사용하였고, 중간 부분을 볼록하고 두툼하게 만들거나 가운데 구멍을 뚫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그 중에서 점토 못은 한 쪽에 둥글고 두께가 두껍지 않은 머리가 있고 반대쪽에 원뿔 모양의 몸통이 있다. 몸통 부분에 사각형으로 쐐기문자들을 새길 공간들을 그려서 만들고, 한 칸마다 필요한 만큼 쐐기문자 기호들을 한 줄이나 두 줄로 써 넣었다. 문서를 시작하는 칸과 마무리하는 칸 사이에 빈 줄을 삽입하여, 문서의 시작과 끝을 표기하였다. 두께나 길이는 정해진 바가 없이 다양하게 만들었다.

점토 못 형태로 만든 쐐기문자 문서는 기원전 2500년경부터 사용했고, 대개 건물 기초나 벽에 박아 넣는 형식으로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서 글씨를 쓴 몸통 부분을 건물 안에 박아 넣어 겉에서는 아무 글자도 없는 머리 부분만 볼 수 있는 것이다. 글자로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특정한 내용을 적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라면, 점토 못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서의 독자는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신전에 설치하여 신에게 기도로 바치는 문서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후대인들이 건물 기초를 발굴할 때 찾아내어 해당 건물을 누가 처음 짓고 또 증축했는지 알아내는 방법이 되기도 했다.

명문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닌기르쑤’라는 신의 이름이다. 닌(nin)은 주인이라는 말이고 기르쑤(gir₂.su)는 도시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닌기르쑤는 ‘기르쑤 도시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개인의 이름보다는 호칭에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 기르쑤는 도시 라가쉬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 국가 라가쉬의 종교 중심지이다. 그리니까 라가쉬 국가의 수호신을 섬기는 중앙 신전이 기르쑤에 있고, 그 신전의 주인이 바로 닌기르쑤인 것이다.

닌기르쑤는 이렇게 라가쉬나 기르쑤가 있는 지역에서 숭배를

받던 신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닌우르타(Ninurta) 신과 동일시 된다(E. Ebeling and B. Meissner eds., 1998-2001, p. 367). 특히 기원전 2000년이 되기 직전에 이런 혼합주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농업과 전쟁의 신이라는 점 그리고 신화적인 동물 안주(anzu) 새와 관련된다는 점 때문에 이런 혼합주의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Lurker ed., 2004, p. 136). 닌기르쭈는 엔릴(Enlil)과 닌후르썩(Ninhursag) 신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의 여자 형제로 난쉐(Nanše) 여신 그리고 아내는 바우(Bau) 여신이 있었다(Black & Green, 1992, p. 138). 닌기르쭈의 아들과 딸들을 언급하는 문서도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하위 신들이다. 그를 섬기던 도시의 국력이 약화되면서 그와 관련된 제의나 신화도 종교적인 힘을 잃었고, 결국 닌우르타 신과 동일시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명문에서 닌기르쭈 신의 호칭은 “엔릴의 강한 영웅”이며(제 2-3행), 이것은 전쟁의 신이 사용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엔릴 신이 슈메르 지역 전체를 관장하는 신들의 왕이므로 그의 아들 닌기르쭈가 강한 영웅으로 부친의 권위를 행사하는 자임을 자부하고 있다. 다른 한편 엔릴 신은 하늘에 거주하며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직접 간여하지 않으므로, 닌기르쭈는 지상에서 엔릴의 뜻을 시행하는 중재자이자 실제적인 지상의 왕이기도 하다. 이런 구조는 실제 슈메르 왕들에게 매우 유용하였고, 라가쉬의 왕들은 전쟁 영웅인 닌기르쭈가 자신들의 왕권을 보장하고 주변 지역 도시국가들과 분쟁이 있을 때 승리를 약속하는 신되할 수 있는 최고의 신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닌기르쭈 신은 폭풍우와 홍수를 무기로 휘두르며 온 지표면을 휩쓰는 무서운 힘을 가졌다고 찬양을 받았다.

닌기르쭈 신은 <독수리 석비(the Stele of the Vultures)>에 거인처럼 큰 인물로 등장하는데, 전곤(mace)과 전투용 그물을 사용하여 라가쉬의 적대국이었던 움마(Umma) 군인들을 공격하고 사로잡았으며, 사자들이 끄는 전차를 탄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안주 새가 사자를 사냥하는 모습이 닌기르쭈 신을 상징하기도 했는데, 라가쉬 지역에서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 자료들 중에는 구데아 왕이 남긴 문서들 중에 닌기르쭈 신이 가장 자주 등장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소장하는 점토 못 이외에도 구데아가 점토 원통에 남긴 기록에서 이 신과 그의 신전을 자주 언급한다. 안주 새가 운명의 토판을 훔

쳐가고 전쟁 영웅인 젊은 신이 이것을 되찾아 온다는 <루갈레(Lugale)>라는 신화가 있는데, 후대 판본은 그 주인공이 닌우르타라고 하지만 고바빌리 시대 판본들 중 닌기르쭈가 주인공이라고 쓴 경우도 있다.

닌기르쭈 신을 부르며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구데아(Gudea)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구데아는 기원전 22세기 또는 기원전 21세기에 라가쉬를 다스렸던 왕으로 알려져 있다(Steinkeller, 1988, pp. 47-53; 루, 2013, pp. 218-223).¹ 현대 이라크 남부에서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처음으로 이끈 주인공들은 슈메르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기원전 3000년 이전부터 도시 문명을 일으키며 이 지역을 다스렸다. 슈메르인들이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주인 노릇을 한 것은 우르 제3 왕조 시절이었는데(기원전 22세기), 동부 산지에서 내려온 구티(Guti)인들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구데아는 이라크 남부를 지배하는 전통적인 주도 세력이 사라지고, 슈메르인들과 구티인들이 서로 경쟁하던 시기에 도시 라가쉬의 왕으로 등극한 것이다. 그는 라가쉬라는 작은 국가와 그 주변 지역을 다스렸지만, 그의 치하에서 라가쉬는 비교적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구가할 수 있었다.

우리 명문에서 구데아는 라가쉬의 엔씨(pa-te-si = ensik)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제5-6행), 슈메르어로 ‘지배자’나 ‘총독’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구데아는 현대인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낱말 루갈(lugal)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고대 도시 국가의 지배자들이 쓰던 호칭으로 불렀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슈메르 사람들이 도시 문명을 일으킨 뒤 사회 지배층이 형성되면서 도시마다 최고 지배자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는데, 엔(en ‘주인’이라는 뜻)이나 엔씨나 루갈(‘큰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낱말을 썼다. 그러니까 왕정체제가 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낱말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루갈’이 정치 지도자들의 선택을 받았고, 고바빌리 시대 이후에는 이 낱말이 약카드어 ‘왕(šarrum)’에 해당하는 말로 간주되었다. 구데아가 살던 시기에는 이런 의미의 전환이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엔씨는 최고 정치 지도자보다 지역 총독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편의 상 구데아를 라가쉬의 왕이었다고 부르지만, 구데아 본인은 자신의 지위를 상당히 겸손하게 정의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구데아가 살았던 시기가 언제인지 그 연대를 정확히 추정하는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 구데아 시대의 역사를 폭넓게 조망할 수 있다.

구데아와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유물은 그의 조각상들이다(Johansen, 1978). 그는 외국에서 수입한 단단하고 검은 돌에 자신이 앉거나 서 있는 모습을 새긴 조각상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자신이 짓거나 재건한 신전에 설치했는데, 현대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그의 조각상이 거의 서른 개에 달한다. 세밀한 선으로 얼굴 표정과 모자와 의복을 새긴 이 조각상들은 대부분 두 손을 가슴께에 모아 쥐고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기도하는 자세이다. 다시 말해서 슈메르 문명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도시 최고 지도자의 모습은 경건하고 겸손하게 신 앞에 서며, 전통적으로 지배자의 의무였던 신전을 보수하고 증축하는 자였던 것이다. 후대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한 일을 자랑하던 것과 크게 다르다.

참고로 도시의 이름은 ‘쉬르부르라’라고 썼는데, ‘라가쉬’라고 읽는다. 명문에 기록한 철자는 슈메르 지명인데, 학계의 관례에 따라 후대 악카드어 이름을 대신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이다. 또 슈메르어 지명은 쉬르부르라이지만 맨 뒤에 지명을 가리키는 의미 한정어가 붙는다(sir-bur-la-ki). 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앞에 나온 ‘쉬르부르’가 ‘부루(buru)’ 기호인 경우 까마귀를 가리키지만, 지명에 까마귀가 들어갈 가능성이 적으므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 어떤 낱말 목록에서 라가쉬라는 낱말을 ‘창고’라고 풀이한 경우도 있으나(Jacobsen, 1978/1979, p. 12, note 48) 이 지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

라가쉬는 기원전 30세기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고 기원전 26세기부터 도시국가를 이룬 것으로 추정한다. 그 후로 악카드 왕국이나 우르 제3왕조와 같은 지역 맹주들의 지배를 받았고, 권력의 공백이 생기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독립하여 자유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데아는 악카드 왕국이 몰락한 뒤에 라가쉬를 다스리면서 부와 권력을 누렸다.

명문의 주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제의를 바로 잡은 것과 신전을 건축한 일이며, 모두 종교적 의무를 다했음을 강조한다. 구데아가 군사 업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 점토 못은 신전 봉헌과 관련되어 있고 글을 쓸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가장 간단하게 이 두 가지만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구데아가 신전을 재건한 일은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을 만 한데, 원통형으로 만든 점토 유물 위에 신전을 건축한 일을 자세히 써서 남기기도 했다(Wilson, 1996; Edzar, 1997; Suter, 2000).

먼저 신전의 이름은 에닌누(e₂-ninnu ‘오십의 집’)인데 ‘오십가지 신적인 능력이 깃든 신전’을 의미한다. 이 명문에는 신전의 별칭까지 붙어서 ‘에닌누 그의 하얀 안주 새’라고 불렀다. 안주(anzu) 새는 위에서 언급한 <루갈레> 신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닌기르쭈 신의 속성처럼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에닌누 신전은 원래 메쌀림(Mesalim)과 우르-난쉐(Ur-Nanše) 왕이 처음으로 건립했으나, 그 후에 여러 왕들이 증축했고 그 중에 구데아의 증축이 기록에 제일 잘 남아 있다(George, 1993, no. 897, p. 134).

구데아의 명문에 따르면 신전 건축은 꿈 속에 나타난 신의 계시 때문에 시작되었다. 구데아는 꿈에서 키가 하늘에 닿는 남자와 빛나는 갈대를 든 여자를 보았는데,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여신들의 도움을 받아 닌기르쭈와 니싸바 여신이 꿈에 나타났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선물을 바친다. 그 후 다른 꿈을 꾸었고, 신전을 지으라는 명령과 도면을 받았다고 한다. 구데아는 먼저 라가쉬 거주민들을 한 어머니의 아들들처럼 통합하고 세금을 걷고 거룩한 구역을 정했다. 그는 진흙으로 벽돌을 제작하고, 외국에서 장인들을 데려 왔으며, 귀한 목재와 금속과 석재를 수입하여 건축을 준비했다. 그리고 일 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 신전을 제전하였다. 구데아가 증축했다는 신전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고, 우리는 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신전이 완공되고 명문의 주제를 묘사하는 문장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10행에 “제 자리에 돌려 놓았다”는 말이 따라온다. 이 문장은 본 유물처럼 헌정문을 기록해서 바칠 때 공식처럼 따라 붙는 표현이며, 슈메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장이다. ‘제 자리’라고 말할 때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사람과 물건들은 모두 정해진 자리가 있음을 가리키며, 세상을 창조한 신들이 모든 존재가 생겨날 때 그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과 맥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처음 생겨날 때부터 가장 완벽한 질서를 가지고 태어났고 가장 이상적인 삶은 그 질서와 운명에 따라 순응하며 사는 자세에서 나온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태초에 신들이 정한 질서와 운명이 어긋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며, 이런 사태는 결국 이 세상과 그 거주민들에게 불안하고 불행한 나날을 초래한다. 신전과 관련해서 같은 논리로 말할 수 있다. 닌기르쭈 신을 섬기는 신전은 태초부터 존재했고, 그 신전의 겉모습과 그 안에서 시행하는 제의 역시 신들이 정한 질서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구데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 질서와 운명이 깨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통을 존중하는 슈메르 왕이라

면 이 사태를 바로 잡을 의무가 있었고, 구데아는 그 책임을 훌륭히 완수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닌기르쭈 신전의 경내를 확장하여 훨씬 크게 짓거나, 혁신적인 건축 기술과 새로 구한 건축 재료로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왜곡된 제의를 바로 잡고 신전 건물을 원래 상태로 즉 제 자리로 돌려 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이것은 왕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며, 그가 완수해야 할 의무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성취하고 마무리했음을 가리킨다.

구데아의 점토 못은 이렇게 장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태어났고 또 수메르 문명이 끝나고 아직 바벨리 문명이 확립되기 이전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다. 이렇게 작은 유물 뒤에 길고 복잡하면서도 아주 특별한 역사와 문화가 숨어 있음을 깨달으며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된다. 윤성덕(연세대학교)

참고문헌 (References)

- 루, 조르주. (2013). *메소포타미아의 역사 1* (김유기, 역). 서울: 한국문화사. (원서 출판 1986년)
- Black, J., & Green, A. (1992). *An illustrated dictionary of gods, demons and symbols of ancient Mesopotamia* (p. 138). London: British Museum Press.
- Edzard, D. O. (1997). *Gudea and his dynasty (The Royal Inscriptions of Mesopotamia: Early Periods, Vol. 3/1)*. Toronto, Buffalo, Lond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Ebeling, E., & Meissner, B. (Eds.). (1998-2001). Ningirsu. In *Reallexikon der Assyriologie und vorderasiatischen Archäologie* (Vol. 9). Berlin & New York: Walter de Gruyter.
- George, A. R. (1993). *House most high: The temples of ancient Mesopotamia*. Winona Lake, IN: Eisenbrauns.
- Jacobsen, T. (1978/79). Iḫḫt-Kiši and his times. *Archiv für Orientforschung*, 26, pp. 1-14.
- Johansen, F. (1978). *Statues of Gudea, ancient and modern*. Copenhagen: Akademisk Forlag.
- Lurker, M. (Ed.). (2004). *Ningirsu*. In *The Routledge dictionary of gods, goddesses, devils and demon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Steinkeller, P. (1988). The date of Gudea and his dynasty.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41(1), 47-53.
- Suter, C. E. (2000). *Gudea's temple building: The representation of an early Mesopotamian ruler in text and image*. Groningen: Styx.
- Wilson, E. J. (1996). *The cylinders of Gudea: Transliteration, translation and index*. Kevelaer & Neukirchen-Vluyn: Verlag Butzon & Bercker; Neukirchener Verlag.

슈메르 회계 점토판

Sumerian Accounting Tablet

3

우르 제3왕조(Ur III dynasty)

기원전 2039-기원전 2037년

아마르슈우엔왕 제8-9년(기원전 2039-기원전 2038년)

슈우엔왕 제1년(기원전 2037년경)

움마(Umma, 현 Tell Jokha)

문자/언어: 쐩기문자/슈메르어

크기 17.2×18.4×3.6cm

이 유물은 도시 움마(Umma)의 어느 행정기관에서 일 년 동안 들고난 가축의 수를 정리하여 기록한 문서이다. 비교적 큰 토판을 다섯 단으로 나누고 폭이 좁은 줄을 그어서 정리하였으며,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서기가 세심하게 제작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전면은 다섯 단에 모두 글을 기록하였으나 뒷면은 세 단만 기록하였고, 남은 두 단은 비워 두었다. 보존된 문서는 모두 229줄이다. 이 문서는 도시 움마에서 가축과 관련된 장부로 작성하였다. 가축을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나누어 숫자를 파악하였고, 이것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슈메르 시대 움마 사회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이다. 언급하고 있는 가축은 살진 황소, 살진 양, 풀 먹인 양, 털이 있는 양과 없는 양, 젖 먹는 어린 양, 염소, 살진 염소 등인데, 용도에 따라 가축을 세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축들을 지급하는 이유는 신전에 바치는 각종 제물이 언급되었는데, 신전 이름과 몇 번째 드리는 제물인지, 누구를 통해 드리는지도 기록하였다. 또한 정확하게 그 성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움마에서 지키는 제의도 몇 가지 언급하였다.

문서 말미에 가축을 맡아서 돌보는 목동들이 맹세를 했다는 내용이 남아있는데, 가축의 주인과 피고용자인 목동들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특히 계약이 끝났을 때 목동들이 제공해야 할 가축의 수를 맞추지 못했을 때 염소 1마리를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와 달을 계산하는 방법이 통일되지 않았던 시기에 움마에서 해와 달을 세던 방법도 알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을 들어 해에 이름을 붙여서 사용했으며, 달 이름은 계절이나 종교와 관련된 이름을 정해서 썼다. 이런 관습은 지역마다 다르고 또 서로 간에 논리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해와 달 이름을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했다. 가축의 출납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크기가 작은 토판에 적어서 보관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큰 토판으로 옮겨서 정리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 문서는 고대 슈메르 사회에서 행정적인 문서를 생산하고 보존하는 방법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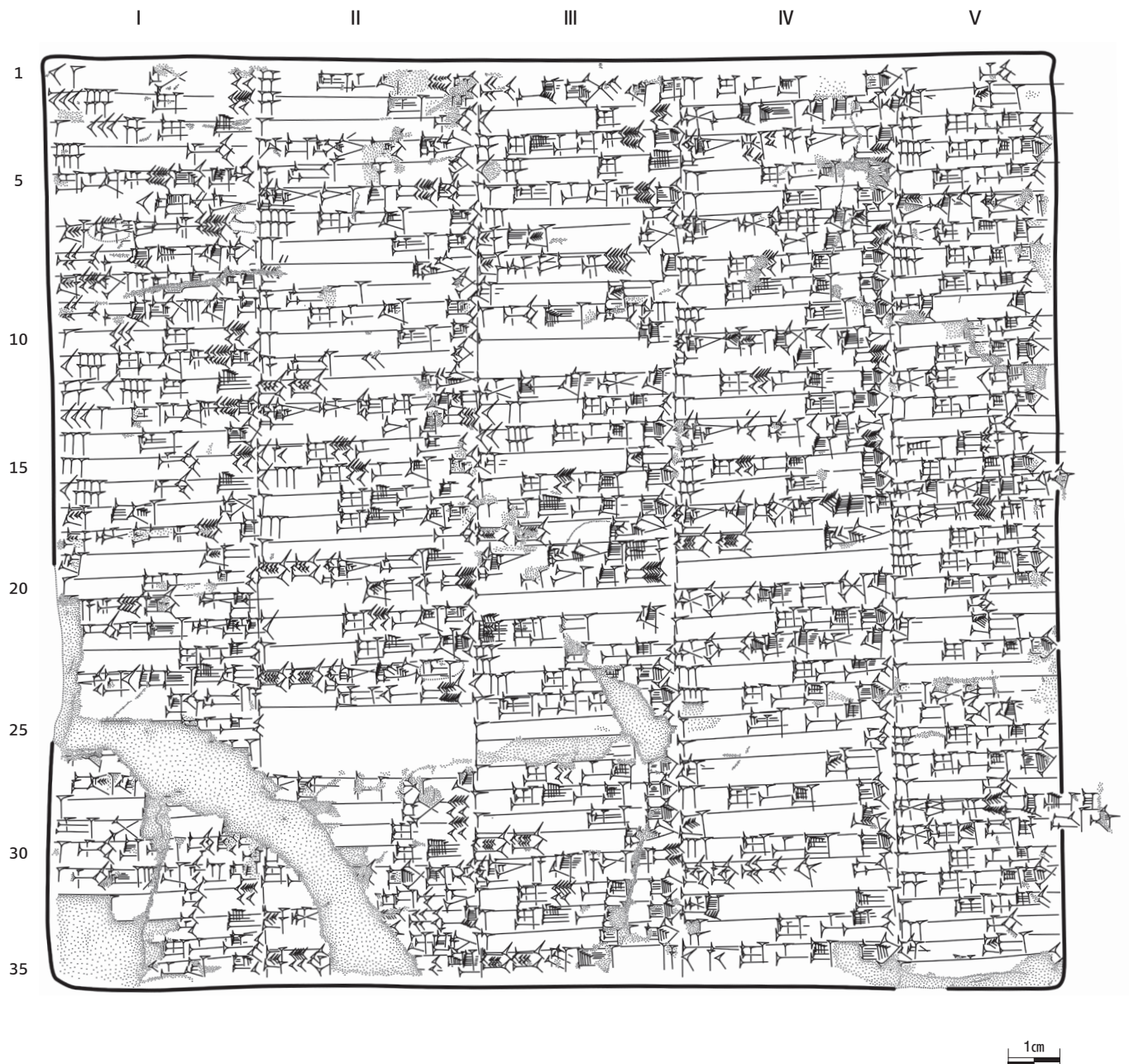
앞면(Ob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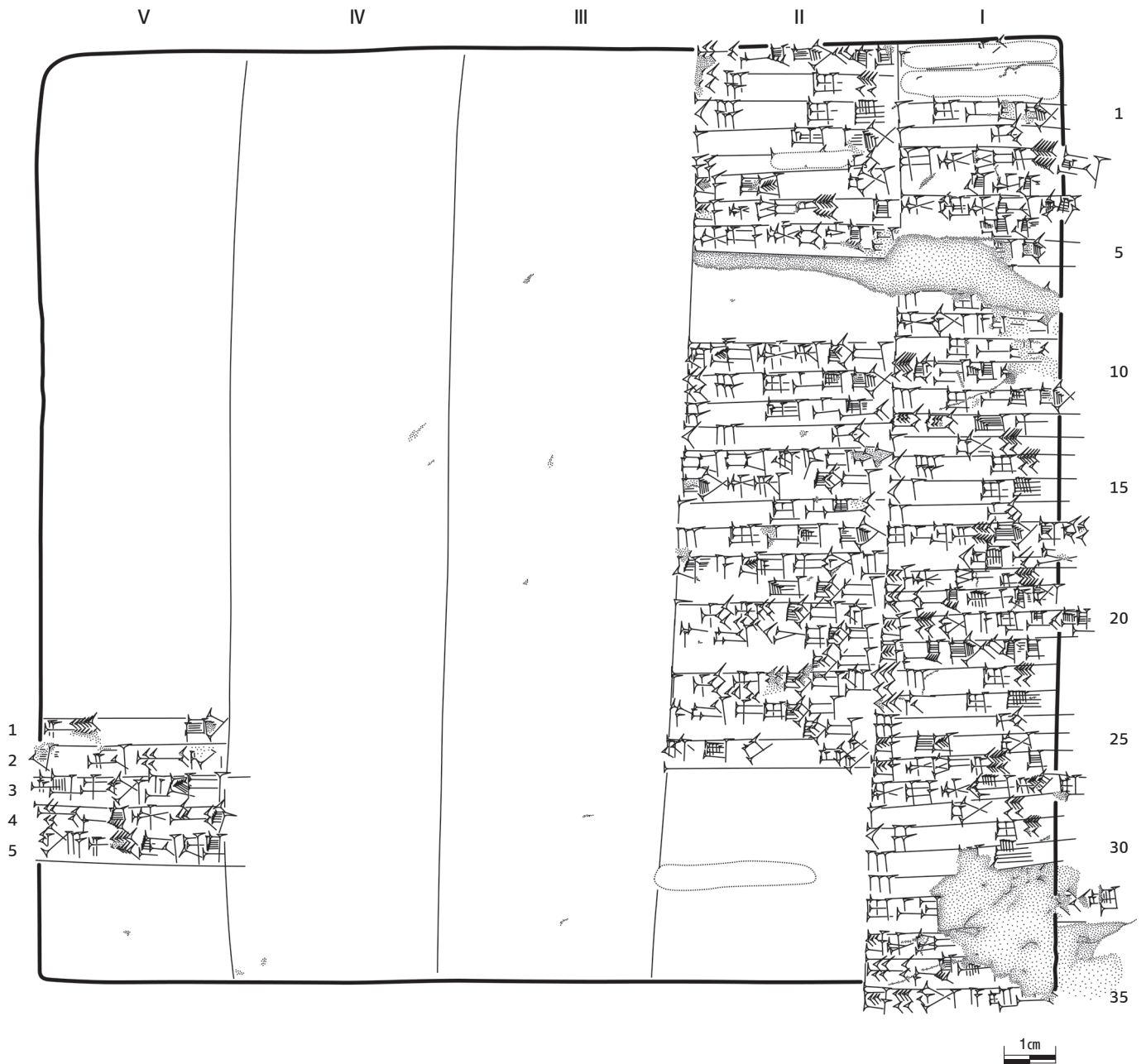
뒷면(Reverse)

앞면 Obverse









연구자의 노트

앞면(Obv.)

I



행	전사(Transliteration)	해석(Translation)
1	10+1 gud niga	살진 황소 11 (마리)
2	30+7 udu niga	살진 양 37 (마리)
3	60+30+4 udu ú	풀 (먹은) 양 94 (마리)
4	8 mās	염소 8 (마리)
5	udu bar-ba zi-ga siki ġīr-gul nu-tuku	밖으로 지급하는 양, 기르굴-털은 없음
6	iti ^d dumu.zi	두무지 신의 달
7	mu en eridu-ki-ta	에리두에 엔-사제를 (임명한) 해부터
8	iti še kar-ra gál-la	보리가 항구에 있는 달
9	mu en ga-eš ^{ki} -šè	엔-사제를 가에쉬에 (임명한) 해까지
10	60+50 udu niga	살진 양 110 (마리)
11	10+7 udu bar-ba zi-ga	밖으로 지급하는 양 17 마리
12	240+10+8 udu ú	풀 (먹은) 양 258 (마리)
13	30+1 udu bar-ba zi-ga	밖으로 지급하는 양 31 (마리)
14	3 sila ₄ ga	젖 (먹는) 어린 것 3 (마리)
15	3 mās niga	살진 염소 3 (마리)
16	10+8 mās ú	풀 (먹은) 양 18 (마리)
17	iti nesaġ-ta	첫 열매(제물) 달부터
18	iti ^d dumu-zi-šè	두무지 신의 달까지
19	sá-dug ₄	정기적 제물
20	1 udu bar-gál	(털이) 있는 양 1 (마리)
21	[di]ri zi-ga ^d šára	샤라 신을 [위해 추가]로 지급
22	[...] mās ugula é ^d šára-šè	샤라 신전 관리자를 위해, 염소 [...]
23	[...] udu bar-gál	(털이) 있는 양 [...]
24	[^d]nin-ġi ₆ -par ₃ ú-sag-šè è-a	닌-기파르의 새 곡식을 위해 보냄
25	[...] udu bar-gál	(털이) 있는 [양 ...]
26	[...] unug ^{ki} [...]	[...] 우늑 [...]
27	1 [...]	[...] 1 (마리)
28	ugula-1 [...]	관리인 1 [...]
29	1 mās šu-[ni]r gú-d[è-na]	구데나 ¹ 상징을 위한 염소 1마리
30	1 mās é níġ/nì-lagar-sikil-la	에닉/니라가르씨킬라 신전을 (위한) 염소 1 (마리)
31	[...] gud niga	[...] 살진 황소
32	[...] gud ú	[...] 풀 (먹은) 소
33	[...] udu bar-gál	[...] (털이) 있는 양
34	[...] udu bar-su-ga	[...] (털이) 없는 [양]

¹ 램버트는 Gunena라고 읽었는데, 그것 역시 가능하다.

앞면(Obv.)

II



행	전사(Transliteration)	해석(Translation)
1	4 sila ₄ bar-b[a-z]i-ga	밖으[로 배]급하는 어린 양 4 (마리) ²
2	4 sila ₄ [bar-gál]	[털이 있는] 어린 양 4 (마리)
3	1 máš	염소 1 마리
4	níg ġeš-tag-ga lugal	왕의 제물과 (관련된) 것
5	a-rá 5-kam	5번째
6	giri šagia-ne	잔을 드리는 자를 통해서
7	8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8 (마리)
8	2 sila ₄ ga	젖을 (먹는) 어린 것 2 (마리)
9	siskur lugal	왕의 제물
10	a-rá 1-kam	첫번째
11	2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2 (마리)
12	2 sila ₄ ga	젖을 (먹는) 어린 것 2 (마리)
13	a-rá 2-kam	2 번째
14	siskur lugal	왕의 제물
15	giri ^d nin-mar ^{ki} -ka šagia	잔을 드리는 자, 닌마르카를 통해서
16	10 lal 1 udu niga bar-gál	살진 (털이) 있는 양 9 (마리)
17	10+3 udu niga bar-su-ga	살진 (털이) 없는 양 13 (마리)
18	1 udu ú bar-gál	풀 (먹은, 털이) 있는 양 1 (마리)
19	3 udu ú bar-su-ga	풀 (먹은, 털이) 없는 양 3 (마리)
20	1 máš	염소 1 (마리)
21	siskur giri du-ú-du ¹¹ igi-du ₈	제물, 두두를 통해서, 알현 예물
22	10 udu niga bar-su-ga	살진 (털이) 없는 양 10 (마리)
23	1 udu ú bar-su-ga	풀 (먹은, 털이) 없는 양 1 (마리)
24	siskur giri lugal-ur-sag igi-du ₈	제물, 루갈우르삭을 통해서, 알현 예물
25	-	- ³
26	^d šara umma ^{ki}	움마의 샤라 신을 (위해)
27	[1?] gud niga	살진 황소 [1마리] ⁴
28	[4?] udu niga	살진 양 [4마리] ⁵
29	[...] udu ú	풀 (먹은) 양 [...]
30	udu [bar? ba? zi]-ga siki ġir-gul nu-tuku	양 [... 지]급, 기르쿨-털은 없음
31	iti ^d [...] mu en [eridu-ki] ba-ġun-ta	[...] 신의 달, [에리두에] 엔-사제를 (임명한) 해부터
32	iti še-ka[r-ra-g]ál-la	보리가 항구에 있는 달 ⁶

² 제2단 1행은 기호가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도록 훼손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보존처리를 하면서 흠을 막아서 매끈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깨진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기호의 남은 흔적을 볼 수 있는데, 불필요한 처리를 하였다.

³ 의도적으로 빈 줄을 남겼다.

⁴ 램버트는 이 줄 맨 앞에 기록된 숫자를 읽었으나, 현재는 보존처리를 하면서 다른 재료로 덮어 버리는 바람에 아무런 기호도 읽을 수 없다.

⁵ 램버트는 이 줄 맨 앞에 기록된 숫자를 읽었으나, 현재는 보존처리를 하면서 다른 재료로 덮어 버리는 바람에 아무런 기호도 읽을 수 없다.

⁶ 날짜를 기록하는 공식이 제3단 1행까지 이어진다.

앞면(Obv.)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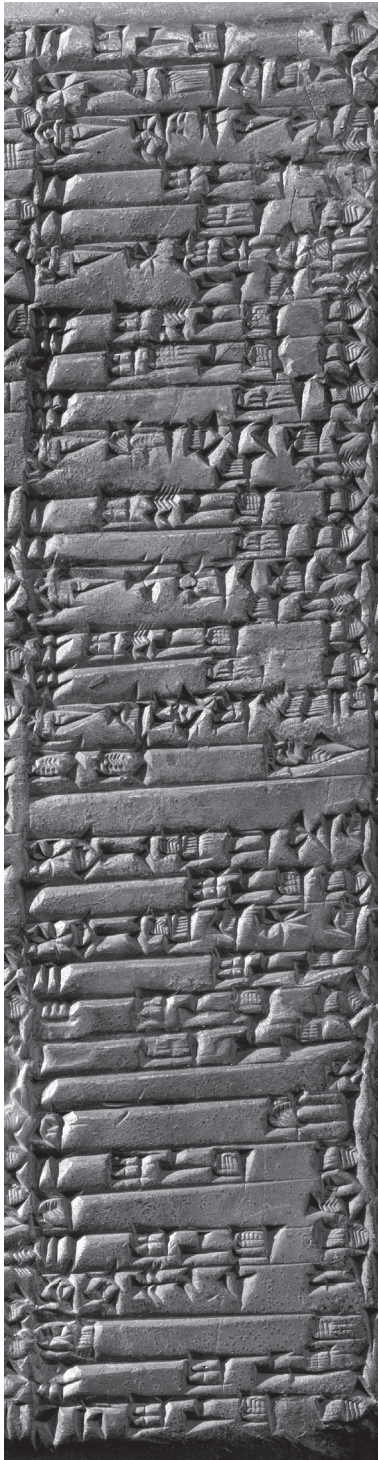


행	전사(Transliteration)	해석(Translation)
1	mu en ga-eš ^{ki} -šè	가에쉬에 엔-사제를 (임명한) 해까지
2	10 udu niga	살진 양 10 (마리)
3	4 udu ú bar-ba-zi-ga	외부로 지급한 풀 (먹은) 양 4 (마리)
4	10+5 udu ú	풀 (먹은) 양 15 (마리)
5	2 sila ₄ bar-ba-zi-ga	외부로 지급한 어린 양 2 (마리)
6	3 máš	염소 3 (마리)
7	iti nesag-ta	첫 열매의 달부터
8	iti ^d dumu-zi-šè	두무지 신의 달까지
9	sá-dug ₄	정기적 제물
10	1 máš é-maḥ sikil-la	순전한 예막 신전을 (위한) 염소 1 (마리)
11	-	- ⁷
12	^d šá-ra KI.AN ^{ki}	키안 땅의 샤라 신을 (위해)
13	10+2 udu bar-gál	(털이) 있는 양 12 (마리)
14	20+7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27 (마리)
15	sá-dug ₄	정기적 제물
16	1 udu niga bar-su-ga	살진 (털이) 없는 양 1 (마리)
17	2 udu ú bar-su-ga	풀 (먹은, 털이) 없는 양 2 (마리)
18	sískur lugal	왕의 제물
19	gìri lugal-šú-nir-[re] šagia	잔을 드리는 자, 루갈슈니레를 통하여
20	-	-
21	barag gir ₁₃ -geš ^{ki}	기르게쉬의 단상을 (위해)
22	6 udu bar-gál	(털이) 있는 양 6 (마리)
23	10+3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13 (마리)
24	1 sila ₄ bar-ba-z[i]-ga	외부로 지급한 어린 양 1 (마리)
25	1 [má]š	염소 1 (마리)
26	[sá-dug ₄ níg-ez]e[m-ma]	[정기적인 제물, 명]절[을 위한 것] ⁸
27	1 udu niga bar-su-ga	살진 (털이) 없는 양 1 (마리)
28	1 udu ú bar-su-ga	풀 (먹은, 털이) 없는 양 1 (마리)
29	1 sila ₄ ga	젖 (먹는) 어린 양 1 (마리)
30	sískur lugal	왕의 제물
31	gìri a-ki-a šagia	잔을 드리는 자 아키아를 통해서
32	1 udu niga bar-su-ga	살진 (털이) 없는 양 1 (마리)
33	1 udu ú bar-[su]-ga	풀 (먹은) [털이 없는] 양 1 (마리)
34	1 [sila ₄] ga	젖을 (먹는) [어린 양] 1 (마리)
35	sískur šag ₄ é [...]-a	[...] 신전 내부를 (위한) 제물

⁷ 의도적으로 빈 줄을 남겼다.

⁸ 램버트는 제26행을 무리 없이 읽었는데, 현재 토판에는 표면을 평평하게 발라서 아무런 기호가 남아있지 않다. 보존처리를 하면서 남은 글자의 흔적을 다 지운 것으로 보인다.

앞면(Obv.)
IV



행	전사(Transliteration)	해석(Translation)
1	2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2 (마리)
2	dingir nibru ^{ki} -šè gen-na	신이 니브루로 갔을 때
3	gìri nam-ḫa-ni šaġia	잔을 드는 자, 남하니를 통해서
4	2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2 (마리)
5	2 sila ₄ ga	젖을 (먹는) 어린 것 2 (마리)
6	gìri ^d nin-mar ^{ki} -ka šaġia	잔을 드는 자, 닌마르카를 통해서
7	6 udu niga bar-su-ga	살진 (털이) 없는 양 6 (마리)
8	10 udu ú bar-su-ga	풀 (먹은, 털이) 없는 양 10 (마리)
9	7 sila ₄ ga	젖 (먹는) 어린 것 7 (마리)
10	gìri puzur ₄ -iš ₈ -târ šaġia	잔을 드리는 자, 푸즈르-이쉬타르를 통해서
11	2 udu niga bar-su-ga	살진 (털이) 없는 양 2 (마리)
12	2 sila ₄ ga	젖 (먹는) 어린 것 2 (마리)
13	gìri nu-úr-iš ₈ -târ šaġia	잔을 드리는 자, 누르-이쉬타르를 통해서
14	4 udu niga bar-su-ga	살진 (털이) 없는 양 4 (마리)
15	5 sila ₄ ga	젖을 (먹는) 어린 것 5 (마리)
16	gìri na-am-rí-lum a-zu	의사, 남릴룸을 통해서
17	siskur lugal	왕의 제물
18	-	-
19	^d gu-la umma ^{ki}	움마 땅의 굴라 여신을 (위해)
20	1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1 (마리)
21	^d gu-la KI.AN ^{ki}	키안 땅의 굴라 여신을 (위해)
22	3 udu bar-gál	(털이) 있는 양 3 (마리)
23	8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8 (마리)
24	1 sila ₄ bar-gál	(털이) 있는 어린 것 1 (마리)
25	1 máš	염소 1 (마리)
26	sá-dug ₄	정기적인 제물
27	2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2 (마리)
28	du ₆ -kug	(거룩한) 장소를 (위해)
29	3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3 (마리)
30	gú-gú-mu-è	구구무에 제의
31	^d en-líl	엔릴 신을 (위한)
32	4 [?] udu bar-gál	(털이) 있는 양 4 (마리) ⁹
33	10 lal 1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9 (마리) ¹⁰

⁹ 점토판 표면이 훼손되어 숫자가 분명히 보이지 않으며, 4 또는 6으로 읽을 수 있다.

¹⁰ 이 숫자는 '10 빼기 1'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9라는 뜻이다.

앞면(Obv.)
V



행	전사(Transliteration)	해석(Translation)
1	1 máš	염소 1 (마리)
2	sá-dug ₄	정기적인 제물
3	4 udu bar-gál	(털이) 있는 양 4 (마리)
4	8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8 (마리)
5	1 sila ₄ bar-gál	(털이) 있는 어린 것 1 (마리)
6	balag ud-nú-a	발락-악기를 (위해), 달이 사라진 날에
7	^d nin-eb-gal	닌엠틸 신을 (위해)
8	8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8 (마리)
9	1 sila ₄ bar-gál	(털이) 있는 어린 것 1 (마리)
10	^d en-ki	엔키 신을 (위해)
11	1 [ud]u bar-gál	(털이) 있는 양 1 (마리)
12	1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1 (마리)
13	^d nin-sún	닌쑤 여신을 (위해)
14	2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2 (마리)
15	1 máš	염소 1 (마리)
16	še ₁₂ dé-a	찬 물을 붓는 제의를 (위해)
17	1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1 (마리)
18	dingir KI.AN ^{ki} -šè gen-na	신이 키안 땅으로 갈 때
19	^d dumu-zi uru ₁₈ -a	우루의 두무지 신을 (위해)
20	5 udu bar-gál	(털이) 있는 양 5 (마리)
21	8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8 (마리)
22	1 sila ₄ bar-gál	(털이) 있는 어린 것 1 (마리)
23	1 máš	염소 1 (마리)
24	sá-dug ₄	정기적인 제물
25	1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1 (마리)
26	1 [máš]	염소 1 (마리)
27	gur ^d dumu-z[i-da] umma ^{hi}	움마(에서) 두무[지] ¹¹ 신이 돌아갈 때
28	5 udu bar-gál	(털이) 있는 양 5 (마리)
29	5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5 (마리)
30	2 máš	염소 2 (마리)
31	^d dumu-zi en-nuĝ-šè ĝen-n[a]	두무지 신이 지키는 자리에 가실 때
32	^d nin-e ₁₁ -e	닌에에 신을 (위해)
33	1 udu bar-gál	(털이) 있는 양 1 (마리)
34	4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4 (마리)
35	1 sila ₄ bar-gál	(털이) 있는 어린 것 1 (마리)
36	3 máš	염소 3 (마리)
37	sá-dug ₄	정기적인 제물
38	-	- ¹²

¹¹ 제27행 끝 부분도 보존처리를 한 흔적이 보이는데, 그로 인하여 기호 두 개 정도가 사라졌고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¹² 의도적으로 빈 줄을 남겼다.



행	전사(Transliteration)	해석(Translation)
1	-	-
2	-	- ¹³
3	1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1 (마리)
4	1 máš	염소 1 (마리)
5	gur ^d dumu-zi-da KI.AN ^{ki}	키안 땅(에서) 두무지 신이 돌아갈 때
6	^d nin-an-da lagaš ^{ki}	라가쉬 땅의 닌안다 신을 (위해)
7	[...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 마리]
8	[^d li ₉ -si ₄ ...]	[...] ¹⁴
9	3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3 (마리)
10	^d kar-ra-[DU]	카라[두] 신을 (위해)
11	1 udu bar-gál	(털이) 있는 양 1 (마리)
12	še il-la ^d [nanše]	[난셰 신을] ¹⁵ 위한 곡식 올려 드리기
13	3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3 (마리)
14	sískur é-maš	에마쉬 신전을 (위한) 제물
15	1 gud niga	살진 황소 1 (마리)
16	10+7 udu niga	살진 양 17 (마리)
17	10+1 udu ú	풀 (먹은) 양 11 (마리)
18	2 máš	염소 2 (마리)
19	udu bar-ba zi-ga siki gír-gul nu-tuku	밖으로 지급하는 양, 기르굴-털은 없었음
20	iti ^d dumu-zi	두무지 신의 달
21	mu en eridu ^{ki} -ta	에리두에 엔-사제를 (임명한) 해부터
22	iti še kar-ra gál	보리가 항구에 있는 달
23	iti en ga-eš ^{ki} -šè	엔-사제를 가에쉬에 (임명한) 해까지 ¹⁶
24	50+3 udu niga	살진 양 53 (마리)
25	30 lal 1 udu ú	풀 (먹은) 양 29 (마리)
26	6 máš	염소 6 (마리)
27	iti nesag-ta	첫 열매의 달부터
28	iti ^d dumu-zi-šè	두무지 신의 달까지
29	^d lamma ^d šul-gi-ra	술기 신의 거룩한 조각상을 (위해)
30	1 gud niga	살진 황소 1 (마리)
31	10+4 udu niga	살진 양 14 (마리)
32	3 [udu] ú	풀 (먹은) [양] 3 (마리)
33	3 [...]	[...] 3 (마리)
34	udu bar ba [zi-ga ... gír]-gul	밖으로 [지급한] 양 [...]
35	iti ^d dumu-[zi]	두무[지] 신의 달
36	mu en eridu ^{ki} -ta]	에리두에 엔-사제를 (임명한) 해[부터]
37	iti še-kar-ra-gál	보리가 항구에 있는 달

¹³ 뒷면 제1단은 시작하면서 두 줄이 비어 있는데, 둘째 줄은 보존처리를 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니까 어떤 기호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는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이다.

¹⁴ 다른 학자들은 기호의 흔적을 읽어 놓았는데, 현재 보존처리 때문에 아무것도 읽을 수 없다.

¹⁵ 램버트는 난셰라는 신명을 무리 없이 읽었으나, 현재 그 기호는 보이지 않는다.

¹⁶ 제22행 첫째 기호는 iti ‘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대 서기의 실수이다. 해 이름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mu ‘해’라고 써야 했다.

뒷면(Rev.)

II



행	전사(Transliteration)	해석(Translation)
1	mu en ga-eš ^{ki} -šè	엔-사제를 가에쉬에 (임명한) 해까지
2	40+5 udu niga	살진 양 45 (마리)
3	10+6 udu ú	풀 (먹은) 양 16 (마리)
4	1 sila ₄ ga	젖 (먹는) 어린 것 1 (마리)
	4 [m]áš	[염]소 4 (마리)
5	iti nesag-ta	첫 열매의 달부터
6	iti ^d dumu-zi-šè	두무지 신의 달까지
7	^d lamma ^d amar- ^d suen	아마르-쑤엔의 거룩한 신상을 (위해)
8	-	-
9	sá-dug ₄ dingir-re-ne	신들을 위한 정기적인 제물
10	40+6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46 (마리)
11	4 sila ₄ bar-gál	(털이) 있는 어린 것 4 (마리)
11	10+3 máš	염소 13 (마리)
13	èš-èš šà níg-ĝeš-tag-ga dingir-re-ne	에세쉬 축제를 (위해), 신들의 희생제물
14	1 udu bar-gál	(털이) 있는 양 1 (마리)
15	3 udu bar-su-ga	(털이) 없는 양 3 (마리)
16	ki-a-naĝ énsi-ke ₄ -ne	엔씨 지도자들을 (위한) 헌주 장소
17	1 máš nam-NE.RU ku ₅ -ra ₂ ūnu-dè-ne	염소 1 (마리), 소치는 사람들이 한 맹세
18	šà ^{kuš} dug ₃ -gan	가족부대를 (걸고)



행	전사(Transliteration)	해석(Translation)
1	-	-
2	zi-ga	지금
3	ki uš-mu-ta	우슈무로부터
4	kišib énsi-ka	엔씨 지도자의 문서
5	mu en ʿhanna kar-zi-da ba-ḥun	카르지다에 난나 신의 엔 사제를 임명한 해

주 해

앞면(Obv.) - I

I-1행

10+1 gud niga

살진 황소 11 (마리)

‘살지다’는 용어는(1-2행) 니가(niga)라는 기호를 추상적으로 읽은 낱말인데, 이 기호의 원래 읽기는 쉐(še)이고 ‘곡식’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료로 곡식도 섞어 먹여서 살진 가축을 가리킨다.

I-3행

60+30+4 udu ú

풀 (먹은) 양 94 (마리)살진 황소 11 (마리)

그냥 풀만 뜯던 양은 ‘우두 우(udu ú)’ 즉 ‘풀(ú) 양’이라고 썼다. 방목하면서 풀만 먹은 양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을 테고 경제적인 가치도 떨어졌을 것이다.

I-5행

udu bar-ba zi-ga siki ġir-gul nu-tuku

밖으로 지급하는 양, 기르굴-털은 없음

기르굴(ġir-gul)은 양모의 종류를 부르는 말이다. 정확하게 어떤 양모인지 알 수 없다.

I-6-9행

iti ^ddumu.zi

두무지 신의 달

mu en eridu-ki-ta

에리두에 엔-사제를 (임명한) 해부터

iti še kar-ra gál-la

보리가 항구에 있는 달

mu en ga-eš^{ki}-šè

엔-사제를 가에쉬에 (임명한) 해까지

슈메르 시대에는 낱자를 표기하는 관습이 통일되지 않았고 도시마다 다른 방식으로 발전되고 시행되었다. 제6행에는 ‘두무지’ 신의 이름을 써서 특정한 달을 부르고 있는데(iti ^ddumu.zi), 이것은 도시 움마(Umma)의 전통이다. 후대 전통에 따르면 두무지 달은 넷째 달이며 양력으로 6-7월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서아시아에서 건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풍요의 신 두무지가 지상을 떠나 지하세계로 내려간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위로하면 몇 달 후에 그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서 우기를 시작한다.

해를 세는 방법도 아직 고정되지 않았던 시기인데, 슈메르 지역에서는 지난 해에 있었던 기억할 만한 사건을 골라서 새 해의 이름을 정했다. 제7행에 나온 이름은 아마르쭈엔 왕 치하에서 사용했던 해 이름이며, 짧게 “에리두에 엔-사제를 (임명한) 해”라고 표기했다. 이 이름은 아마르쭈엔 제8년의 이름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이름 중 원래 형태는 “엔누네키 악아마르쭈엔이 에리두에 엔-사제로 임명된 해”였을 것이다(Frayne, 1997, pp. 239-240).

제8행에 나오는 달 이름은 ‘보리가 항구에 있는’ 달이다. 열두째 달 이름이며, 현대 양력으로 2-3월에 해당한다. 그 전 해 10월에 우기가 시작되고 농사를 지었을 때 다음 해 3월이 되면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되는데, 가장 먼저 추수할 수 있는 곡식은 보리이다. 그러므로 추수한 곡식을 항구 창고에 모으고 수운을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수출을 했던 정황이 드러난다. 제9행에 나오는 해 이름은 ‘엔-사제를 가에쉬에 임명한 해’라고 기록하였는데, 아마르쭈엔 왕 제9년을 가리킨다. 역시 짧게 줄인 형식이며, 원래 이름은 “엔-난나-아마르-쭈에나라-키악을 가에쉬/카르지다에 난나 신의 엔-사제로 임명한 해”라고 했다(Frayne, 1997, p. 241).

I-17행

iti nesaġ-ta

첫 열매(제물) 달부터

17행에 나오는 달 이름은 ‘첫 열매(제물을 바치는) 달’이다. 첫째 달 이름이며, 현대 양력으로 3-4월에 해당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슈메르 월력으로 열두째 달이 끝나고 다음 해 첫째 달이 시작되면 우기 동안 지은 농사의 추수철이 돌아온다. 그러므로 첫째 달에 거둔 열매의 첫 것을 신전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이는 추수에 감사하는 예물인 동시에 얼마 후에 돌아오는 밀 추수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물이기도 하다.

I-18행

iti ^d dumu-zi-šè
두무지 신의 달까지

여기에 나오는 달 이름은 넷째 달을 가리키며, 제6행 설명을 참조하라. 첫째 달부터 넷째 달까지는 일년 중 가장 풍성한 추수기를 가리키며, 풍년을 기원하며 여러 제의를 시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I-20행

1 udu bar-gál
(털이) 있는 양 1 (마리)

(털이) 있는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르갈(bar-gál)이라는 말이 양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아직 털을 깎지 않아서 양모가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I-21행

[di]ri zi-ga ^d šára
샤라 신을 [위해 추가]로 지급

샤라(^dšára)라는 신명이 나오는데, 이 신은 슈메르 신들 중에서 전쟁을 주관하는 하위 신이다. 그러나 도시 움마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이 문서에서 그의 신전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I-22행

[...] máš ugula é ^d šára-šè
샤라 신전 관리자를 위해, 염소 [...]

머리에 숫자가 기록된 부분이 훼손되어 염소 몇 마리를 샤라 신전에 주었는지 알 수 없다.

I-24행

[^d]nin-gi ₆ -par ₃ ú-sag-šè è-a
닌-기파르의 새 곡식을 위해 보냄

이 행에 나오는 닌-기파르([^d]nin-gi₆-par₃)라는 이름은 ‘기파르 신전의 여주인’이라는 뜻이다. 기파르 신전(é gi-par)은 달의 신 난나(Nanna)와 그의 아내 닌갈(Ningal)을 섬기는 엔(en)-사제의 거처이므로, 위의 이름은 ‘기파르 신전의 여주인’은 닌갈 여신을 가리킨다.

I-26행

[...] unug ^{ki} [...]
[...] 우눅 [...]

앞과 뒤로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문맥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간에 도시 이름이 하나 남아 있다. 우눅(unug^{ki})이라는 도시인데, 후대에는 악카드어로 우룩(*Uruk*)으로 알려진 곳이다.

I-28행

ugula-1 [...]
관리인 1 [...]

램버트는 이 부분에서 Papu’e라는 낱말을 읽었는데, 지금은 조각들을 연결하기 위해 점토를 발라서 아무런 기호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기호들이 남아있었다면 pa₄-ú-e였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움마에서 열한째 달을 부르는 이름이다.

I-29행

1 máš šu-[ni]r gú-d[è-na]
구데나 상장을 위한 염소 1마리

‘구데/네나 상장’이라는 말에서 상장은 신과 관련된 어떤 어떤 그림이나 조각상 등 그야말로 신의 임재를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체를 말한다. 그런데 구데나 또는 구네나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명일 수도 있고 소원(gú)을 말하는(dè) 상장을 가리킬 수도 있다.

I-30행

1 mās é nīg/nī-lagar-sikil-la

에닉/니라가르씨킬라 신전을 (위한) 염소 1 (마리)

신전 이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셋째와 넷째 기호가 일부 훼손되어 정확한 읽기는 알 수 없다. 에닉/니라가르씨킬라(é-nīg/nī-lagar-sikil-la)로 읽을 수 있으나, 이 이름으로 알려진 신전은 없다. 훼손된 부분을 자유롭게 읽으면 에후르씨킬라(é-ḥur-sag-sikil-la)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이 신전은 후대 도시 바빌리에 있었던 신전이라서 이 토판에 기록될 가능성이 없다.

I-34행

[... udu] bar-su-ga

[...] (털이) 없는 [양]

남아 있는 기호는 양의 종류를 표시하는 말 바르쭈가(barsuga)이며, 이미 털을 깎아서 양모가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앞면(Obv.) - II

움마의 샤라 신을 위해 바치는 희생제물과 관련된 것(nīg ḡeš-tag-ga, 4행), 일반적인 제물(sískur, 9, 14, 21, 24행), 그리고 알현제물(igi-du, 21, 24행)이라는 말이 여러 번 기록되어, 이 목록의 용도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 외에 누구를 통해서 몇 번째 드리는 것인지 언급한 점도 흥미롭다. 그러나 체계적인 서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II-31행

iti [...] mu en [eridu-ki] ba-ḥun-ta

[...] 신의 달, [에리두에] 엔-사제를 (임명한) 해부터

달 이름과 해 이름이 모두 적혀 있다. 그런데 달 이름은 신의 이름을 가리키는 한정사 외에는 훼손되어 알 수 없고, 해 이름은 제7행과 같은 아마르쭈엔 제8년이다. 움마의 달 이름들 중에 신명이 들어간 예는 두무지 신의 달 외에 리씨(^dli₅-si₄) 신의 달이 있으며, 둘 중 어떤 달인지 확인할 수 없다. 램버트는 두무지 신의 달이라고 읽었으나, 현재 보존처리 때문에 기호를 읽을 수 없다. 그러나 제2단 31행부터 제3단 1행까지 기록한 날짜는 제1단 6-9행과 매우 비슷해 보인다. 만약 같은 기간을

지시하고 있다면, 열거한 물품들을 같은 기간에 다른 용도로 쓴 물품들로 보이며, 제1단에 비해 제2단에서 제물이 많이 언급된 이유도 미루어 짐작할 만 하다.

II-32행

iti še-ka[r-ra-g]āl-la

보리가 항구에 있는 달

이 달 이름은 제8행과 같은 열두째 달을 가리킨다.

앞면(Obv.) - III

III-1행

mu en ga-eš^{ki}-šè

가에쉬에 엔-사제를 (임명한) 해까지

해 이름은 제9행과 같으며 아마르쭈엔 왕 제9년이다.

III-7-8행

iti nesag-ta

첫 열매의 달부터

iti ^ddumu-zi-šè

두무지 신의 달까지

달 이름은 첫째 달(7행)과 넷째 달(8행)이며, 이것은 제1단 17-18행과 같은 기간이다.

III-10행

1 mās é-maḥ sikil-la

순전한 에막 신전을 (위한) 염소 1 (마리)

에막(é-maḥ)은 움마에 있는 샤라 신의 신전이며, ‘고귀한 집’이라는 뜻이다(George, 1993, p. 119, no. 718). 왕족들의 헌정문과 각종 찬양시 그리고 본 유물과 같은 행정 문서에 여러 번 등장한다.

III-12행

^dšāra KI.AN^{ki}

키안 땅의 샤라 신을 (위해)

키안(KI.AN^{ki})이라는 이름 뒤에는 지명을 가리키는 한정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움마 근처에 있는 도시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Edzard, 1976-1980, p. 586). 샤라 신은 기본적으로 도시 움마의 수호신인데, 그 주변 도시도 같은 신을 섬기면서 신명 뒤에 지명을 붙여서 불렀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곳에서 다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거나, 움마의 지배력이 강해지면서 수도의 수호신을 다른 도시에서 섬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종교 전통의 발달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기록인데, 이 글의 양식이 목록이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가 없는 것이 아쉽다.

III-21행

barag gir₁₃-geš^{ki}

기르게쉬의 단상을 (위해)

‘기르게쉬의 단상을 (위해)’라는 말은 너무 흥미로운데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제일 뒤에 지명을 가리키는 한정사가 붙어 있으므로 ‘기르게쉬’는 지명이고, 단상이라고 옮긴 낱말은 신전 관련 시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움마 정부는 기르게쉬에 있는 신전 운영을 위해 가축을 지급한 것이다.

앞면(Obv.) -IV

IV-2행

dingir nibru^{ki}-šè gen-na

신이 니브루로 갔을 때

신이 니브루(nibru, 후대 지명 *Nippur*, 현대 지명 Nuffar)로 갔다는 보도는 매우 흥미롭다. 슈메르 신들은 특별한 명절이 되면 자신의 신전을 나와서 신들의 왕 엔릴(En.líl)을 방문하기 위해 니브루로 여행을 떠났다. 신전을 나와 배를 타고 니브루까지 항해하고 부두에서 환영을 받는 모습은 슈메르어 찬양 시에 잘 남아 있다. 제4단 2행에 나오는 간단한 문장은 움마에서 섬기는 샤라 신의 신상을 배로 모시고 종교 중심지인 니브루로 여행하는 관습을 언급하고 있다.

IV-16행

giri na-am-rí-lum a-zu

의사, 남릴룸을 통해서

인명 남릴룸(na-am-rí-lum)은 ‘빛나다’는 뜻의 동사 ‘나와/마루(naw/māru)’와 ‘신’이라는 명사 ‘일루(ilu)’로 구성되어, ‘신이 빛나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해석이 옳다면 전형적인 서셈어 이름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남릴룸의 직업인데, 그는 의사(a-zu)이다. 고대 서아시아 세계에서 의술은 기본적으로 병을 가져온 하위 신존재를 달래거나 악귀를 내쫓는 퇴마사들이 맡아서 치료하였는데, 그 중에서 의사(a-zu)는 제의 이외에도 먹거나 바르는 약을 처방하여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서에서 남릴룸은 왕의 제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본업이 아니라 정부 고위 관료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IV-19행

^dgu-la umma^{ki}

움마 땅의 굴라 여신을 (위해)

제18행이 빈 칸으로 남겨져 있고 19행이 시작되면, 샤라 신이 아니라 굴라(^dgu-la) 여신에게 드리는 제물들을 열거하기 시작한다. 굴라는 치유의 여신이고, 여러 곳에서 그녀를 섬겼지만 주로 도시 이췌(Isin)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다(그녀의 다른 이름 닌이췌나Ninisinna가 여기서 나왔다). 주로 우르 제3 왕조 시대와 중바빌리 시대 초반에 숭배를 받았고, 사납게 생긴 개가 그녀 곁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문서는 우르 제3 왕조의 왕 아마루췌엔 시기에 기록했기 때문에 도시 이췌는 아직 우르의 지배권 아래 있었을 것이며, 수도가 아닌 지역 종교 전통을 흡수하여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IV-21행

^dgu-la KI.AN^{ki}

키안 땅의 굴라 여신을 (위해)

‘키안 땅의 굴라 여신’은 제3단 12행에 나온 ‘키안 땅의 샤라 신’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호칭이다. 샤라 신을 움마와 키안에서 섬긴 것처럼 굴라 여신도 움마와 키안에서 섬긴다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종교와 관련된 정책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IV-30행

gú-gú-mu-è

구구무에 제의

구구무에(gú-gú-mu-è)라는 슈메르어 낱말은 특정한 종교의식을 부르는 이름이며, 우르 제3 왕조 시대에만 나오는 말이다(Sallaberger, 1993, p. 257). 움마에서 두무지의 달(넛째 달)에 시행하는 제의로 알려져 있다.

바로 다음 31행에 엔릴(^den-líl) 신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구구무에 의식도 그 신을 부르며 소원을 비는 제의라고 짐작할 수 있다.

IV-31행

^d en-líl
엔릴 신을 (위한)

샤라와 굴라를 거쳐 엔릴 신의 이름이 나왔다. 만신전 안에서 이들의 위치는 이런 순서를 따르지 않고, 엔릴이 단연 최고의 지위를 지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통에 따라 종교 정책을 시행할 때는 다른 질서가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앞면(Obv.) - V

V-6행

balag ud-nú-a
발락-악기를 (위해), 달이 사라진 날에

제6행에 나오는 발락(balag) 악기는 커다란 북일 것으로 짐작한다. 그러나 이 악기가 하프와 같은 현악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Cooper, 2006, pp. 41-42, 44). 슈메르어로 지은 찬양시나 애가에 자주 언급되며, 시를 낭송하면서 이 악기를 연주하라는 지시가 남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락’이라는 이름이 이런 방식으로 공연하는 시/음악 작품을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했다. ‘달이 사라진 날에’라는 표현은 슈메르 월력에서 매달 28일 또는 29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V-7행

^d nin-eb-gal
닌엠폅갈 신을 (위해)

제7행에 나오는 ‘닌엠폅갈’이라는 이름은 신을 가리키는 한정사가 붙어 있는데, 그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엵(eb)을

‘신전’이라고 읽는다면 ‘거대한 신전의 여주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닌에갈(^dNin-é-gal = *Bēlet ekalli*)’과 같은 뜻이 된다. 이 여신은 불특정한 신전의 여주인을 가리키는 이름이지만 동쪽으로 엘람(Elam), 서쪽으로 마리(Mari)나 카트나(Qatna)로 전파되면서 자신만의 전통을 지닌 여신으로 성장하는 현상을 보인다.

제6-7행을 같이 읽으면 움마 지역에서 닌엠폅갈 여신을 섬기기 위해 매달 말에 발락 악기를 연주하며 어떤 의식을 진행했고, 움마 정부는 이를 위해 가축을 제물로 제공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교 전통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운데, 매우 흥미로운 기록이 아닐 수 없다.

V-10행, 13행

^d en-ki
엔키 신을 (위해)
^d nin-sún
닌쑤 여신을 (위해)

제5단 목록은 각종 신전에 보급한 가축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엔키(10행)와 닌쑤(13행)도 그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엔키 신은 엔릴(제4단 31행)과 함께 슈메르 만신전에서 최고 지위를 누리는 지혜와 물의 신이지만, 닌쑤 여신은 그렇지 않다. 닌쑤는 그 유명한 길가메쉬 왕의 어머니이며 역시 전설적인 루갈반다 왕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다. 길가메쉬는 3분의 1이 인간이고 3분의 2가 신인 반신반인이었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 닌쑤이 여신이었기 때문이다. 우르 제3 왕조에 속한 왕들은 자신이 길가메쉬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지배권을 정당화하려고 했는데, 이런 분위기를 타고 닌쑤 숭배도 강조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V-16행

še ₁₂ dé-a
찬 물을 붓는 제의를 (위해)

‘찬 물을 붓는 제의’를 언급했는데, 이 제의가 어떤 것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라가쉬의 왕 구데아가 닌기르쑤 신의 신전을 지을 때 빵과 찬 물을 바치는 장면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Gudea Cylinder 37), 이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V-18-19행

dingir KI.AN ^{ki} -še gen-na
신이 키안 땅으로 갈 때
^d dumu-zi uru ₁₈ -a
우루의 두무지 신을 (위해)

신이 키안 땅으로 간다는 말은 제4단 2행에 나온 말과 관련이 있는데, 고대 서아시아에서 신상을 한 신전에서 다른 신전으로 옮기면서 시행하는 의식이 있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우루의 두무지’는 현대 이란의 후지스탄 서부에 있는 도시 우루에서 섬기는 두무지 신을 가리킨다(Sallaberger, 1993, pp. 239-240). 다시 말해서 ‘우루’라는 곳에서 ‘키안’까지 두무지 신상이 이동을 한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것처럼 움마와 키안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큰 신전들이 있었으므로 그 곳에서 시행하는 의식이나 축제에 참여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V-27행

gur ^d dumu-z[i-da] umma ^{ki}
움마(에서) 두무[지] 신이 돌아갈 때

이 줄에는 돌아가다는 동사 구르(gur)와 신명 두무지 그리고 도시 이름 움마가 남아 있다. 중간에 훼손된 부분도 있고 이 세 낱말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줄 문법사항들이 생략되어 정확한 해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18-19행과 연결해서 해석한다면, 우루에서 키안으로 왔던 두무지 신상이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27행은 ‘두무지가 움마에서 돌아갈 때’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V-31-32행

^d dumu-zi en-nuĝ-še ĝen-n[a]
두무지 신이 지키는 자리에 가실 때
^d nin-e ₁₁ -e
닌에에 신을 (위해)

제31행에 다시 한 번 두무지 신의 이동을 묘사하는 표현이 나온다. 이번에는 두무지 신이 엔눔(en-nuĝ)으로 간다고 했는

데, 이 낱말은 ‘지키는 자리’ 또는 ‘감옥’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두무지 신이 감옥에 간다는 말이다. 풍요의 신 두무지는 건기가 시작될 때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갇혀 있다가 우기가 시작될 때 지상으로 돌아온다는 신화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 표현은 추수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송배를 받을 신의 이름은 닌에에(^dnin-e₁₁-e)라고 적혀 있는데, 우르 제3 왕조 시대에만 사용하는 이름이고, 어떤 신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뒷면(Rev.) - I

I-5행

gur ^d dumu-zi-da KI.AN ^{ki}
키안 땅(에서) 두무지 신이 돌아갈 때

제5행의 내용은 앞면 제5단 27행과 관련되며 키안 땅에 왔던 두무지가 다시 돌아가는 시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5단 27행 주해 참조)

I-6행

^d nin-an-da lagaš ^{ki}
라가쉬 땅의 닌안다 신을 (위해)

제6행에 나온 신명은 ‘닌안다’라고 썼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름이다.

I-10행

^d kar-ra-[DU]
카라[두] 신을 (위해)

신명 ‘카라[두]’ 역시 읽기가 불분명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름이다. 카라두 또는 카라긴이라고 읽을 수 있다.

I-12행

še il-la ^d [nanše]
[난셰 신을] 위한 곡식 올려 드리기

남아 있는 기호들이 곡식을 들어 올려 바치는 제의를 묘사하고 있는데, 제물을 받는 신은 아마 난셰(Nanše) 여신으로

보인다. 난쉐 여신은 바다와 늪지대 그리고 그 곳에 사는 새와 물고기들의 수호신이다. 후대에는 점술과 꿈해몽 등과 관련해서 숭배를 받기도 했다. 난쉐는 니나(Nina) 또는 씨라라(Sirara) 등 유명하지 않은 도시의 수호신이었으나, 아답이나 니브루, 움마, 우림(우르), 우눅(우룩) 등에서도 그녀를 섬겼다.

I-14행

siskur é-maš
에마쉬 신전을 (위한) 제물

에마쉬 신전은 말기움(Malgium)에 있는 울마쉬쉬툼(Ulmaššitum, 아가데의 이쉬타르)의 신전으로 알려져 있다 (George, 1993, p. 121, no. 740). 에마쉬는 ‘양 우리’라는 뜻이기도 하다.

I-20-23행

iti ^d dumu-zi
두무지 신의 달
mu en eridu ^{ki} -ta
에리두에 엔-사제를 (임명한) 해부터
iti še kar-ra gál
보리가 항구에 있는 달
iti en ga-eš ^{ki} -šè
엔-사제를 가에쉬에 (임명한) 해까지

앞면 제1단 6-9행과 제2단 31-32행 그리고 제3단 1행에 나왔던 날짜가 세 번째로 다시 나왔다. 사실 뒷면 제1단 35-37행과 제2단 1행에도 네 번째 날짜가 나온다. 같은 날짜가 자주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목록의 전체 구조를 분석할 근거를 제공해준다.

I-27-28행

iti nesag-ta
첫 열매의 달부터
iti ^d dumu-zi-šè
두무지 신의 달까지

앞면 제1단 17-18행과 제3단 7-8행 그리고 이 곳에 같은 날짜가 나왔고, 뒷면 제2단 5-6행에도 반복된다.

I-29행

^d lamma ^d šul-gi-ra
술기 신의 거룩한 조각상을 (위해)

이 행에는 술기 왕의 조각상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 술기는 우르 제3 왕조에 속한 왕이다(기원전 2094-기원전 2047년). 흥미로운 점은 이 왕의 이름 앞에 신을 가리키는 한정사가 붙어서 그를 신으로 묘사한다는 점이다. 길고 긴 메소포타미아 역사 중에 스스로 신임을 자처한 왕들은 악카드 왕국과 우르 제3 왕조에 속한 왕들 몇 명이 전부인데, 술기는 그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조각상은 신상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 신상에 바칠 제물이 목록에 열거된 것이다.

뒷면(Rev.) - II

II-1, 5-6행

mu en ga-eš ^{ki} -šè
엔-사제를 가에쉬에 (임명한) 해까지
iti nesag-ta
첫 열매의 달부터
iti ^d dumu-zi-šè
두무지 신의 달까지

날짜

II-7행

^d lamma ^d amar- ^d suen
아마르-쑤엔의 거룩한 신상을 (위해)

이 줄에는 신적인 존재인 아마르쑤엔 왕의 조각상이 언급되어 있다. 아마르쑤엔 왕은 부친 술기 왕의 관행에 따라(뒷면 제1단 29행)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II-9행

sá-dug ₄ dingir-re-ne
신들을 위한 정기적인 제물

‘신들을 위한 정기적인 예물’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열거한

내용을 총정리하는 느낌이 있으며, 어쩌면 전체의 제목일지도 모른다. 물론 신의 이름을 하나로 정하지 않고 종교와 관련된 용도로 배정된 또 다른 가축들을 열거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II-13행

èš-èš šà níg-geš-tag-ga dingir-re-ne
에셰쉬 축제를 (위해), 신들의 희생제물

에셰쉬(èš-èš) 축제는 매달 특정한 시기에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기쁘게 지키는 기간이다. 시대에 따라 구체적인 관행은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음력으로 매달 1일과 7일 또는 15일 등 달의 모양이 변하는 시기를 정하여 기념하였다. 축제의 이름은 '신전'이라는 기호(èš)를 두 번 반복해서 써서 복수 형태를 표현하였으며, 여러 신들의 신전에서 동시에 시행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II-16행

ki-a-naĝ énsi-ke ₄ -ne
엔씨 지도자들을 (위한) 현주 장소

엔씨(énsi)라는 낱말은 '총독'이라는 뜻이며, 초기 왕조 시대에는 특정한 도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가리켰으나 우르 제3왕조 시대에는 왕 밑에서 지방 행정지역을 책임지는 고위 관리의 호칭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우르 왕궁 치하에 옴마에서 총독 직을 맡은 자가 특정한 제의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축을 지급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총독이 시행한 의식은 물이나 술을 부어 바치는 '현주' 의식인데, 아마도 죽은 선조들을 위해 현주하는 일종의 제사인 것으로 보인다.

II-17행

1 máš nam-NE.RU ku ₅ -ra ₂ ùnu-dè-ne
염소 1 (마리), 소치는 사람들이 한 맹세

다른 행처럼 염소 1마리를 언급하며 시작했는데, 그 뒤를 따라 나오는 말이 이 문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문장이다. 소치는 사람들(ùnu-dè-ne)이라는 명사와 맹세를 하다(nam-NE.RU ku₅-ra₂)는 서술부가 있다.

II-18행

šà ^{ku₅} dug ₃ -gan
가죽부대를 (걸고)

가죽부대(^{ku₅} dug₃-gan)라는 명사가 나온다. 일단 맹세하는 행위는 종교 의식이기 때문에 제물을 걸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따라 나오는 신명이나 왕명이 없어서 실제 맹세를 묘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가죽부대가 언급되는데, 그 앞에 있는 기호는 '심장'이나 '한 가운데' 또는 '내부'를 가리키는 낱말(šà)이다. 가죽부대는 소 치는 사람들이 휴대하는 물품이지만, 맹세하는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뒷면 제3, 4단은 비워두었다.

뒷면(Rev.) - V

V-4행

kišib énsi-ka
엔씨 지도자의 문서

제일 앞에 있는 썬기문자 기호(kišib)는 '원통형 도장' 또는 이런 도장을 찍은 문서를 가리키는 명사이다. 그러므로 제4행은 엔씨 지도자의 도장 또는 도장을 찍은 문서를 가리키고, 이 문서가 지역 최고 관리의 결제를 받은 공식 문서임을 확인한다.

V-5행

mu en ^d nanna kar-zi-da ba-tun
카르지다에 난나 신의 엔 사제를 임명한 해

마지막에 나오는 해 이름은 물론 아마르쑤엔 9년을 가리킨다. 달과 날짜를 밝히지 않은 것은 이 문서가 아마르쑤엔 9년 말까지 진행된 출납현황 전체를 정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면(표 1), 아무 것도 기록하지 않고 빈 줄로 남겨진 부분이 중간에 여러 번 나타난다(앞면 제2단 25행, 제3단 11, 20행, 제4단 18행, 제5단 38행, 뒷면 2단 8행). 내용 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아마르쑤엔 제8년 넷째 달부터 제9년 열두째 달까지 21

개월을 가리키는 날짜 표기와 첫째 달부터 넷째 달까지 4개월을 가리키는 날짜 표기가 반복해서 나온다(긴 날짜 표기는 앞면 제1단 5-9행, 제2단 31-32행, 제3단 1행, 뒷면 제1단 20-23행, 35-37행, 제2단 1행에 나오고, 짧은 날짜 표기는 제1단 17-18행, 제3단 7-8행, 뒷면 제1단 27-28행, 제2단 5-6행에 나온다). 그리고 제의와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물(sá-dug₄)을 먼저 나열하고 일반 예물(sískur)을 기록했는데, 이 때 용도가 무엇인지 또는 누구를 통해 바치는지 정보를 상술하였다. 내용 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런 예물을 받는 신의 정체이다. 처음에는 제물을 받는 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목록을 시작하지만 곧 샤라 신과 그의 신전이 나오는데(앞면 제1단 21-22행), 이 문맥이 옴마의 샤라 신(제2단 26행)과 키안의 샤라 신(제3단 12행)을 부르며 계속된다. 그러나 제4단에 있는 빈 줄(18행)을 지나면서 제물을 받는 대상이 바뀐다. 옴마의 굴라 여신(제4단 19행)과 키안의 굴라 여신(21행), 엔릴 신(31행), 닌엘갈 신(제5단 7행), 엔키 신(10행), 닌쑤 여신(13행), 두무지 신(19행), 닌에에 신(32행), 닌안다 신(뒷면 제1단 6행), 카라두 신(10행), 난쉐 여신(12행)이 차례로 나온다. 심지어 신격화 된 우르 제3 왕조 왕들의 조각상도 제물을 받는데, 술기(뒷면 제1단 29행)와 아마르쑤엔(제2단 7행)이 이름을 올린다. 가축들의 종류와 숫자는 정확한 규칙을 보여주지 않는다. 가끔 긴 날짜 표기와 짧은 날짜 표기 사이에 있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21개월 동안 들고 난 가축의 합계가 아닐까 짐작해 보지만, 문서에 남아 있는 정보를 계산해서 합계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이런 관찰 내역을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앞면	1:1-5	목록: (샤라)
	1:6-9	긴 날짜 표기
	1:10-16	목록
	1:17-18	짧은 날짜 표기
	1:19-2:24	목록: 샤라; 정기적 제물 + 일반 제물
	2:25	빈 줄
	2:26-30	목록: 옴마의 샤라
	2:31-3:1	긴 날짜 표기
	3:2-6	목록
	3:7-8	짧은 날짜 표기
	3:9-10	목록
	3:11	빈 줄

앞면	3:12-19	목록: 키안의 샤라; 정기적 제물 + 일반 제물
	3:20	빈 줄
	3:21-4:17	목록: 정기적 제물 + 일반 제물
	4:18	빈 줄
	4:19-5:37	목록: 굴라, 엔릴, 닌엘갈, 엔키, 닌쑤, 두무지, 닌에에
	5:38	빈 줄
뒷면	1:1-19	목록: 닌안다, 카라두, 난쉐
	1:20-23	긴 날짜 표기
	1:24-26	목록
	1:27-28	짧은 날짜 표기
	1:29-34	목록: 술기
	1:35-2:1	긴 날짜 표기
	2:2-4	목록
	2:5-6	짧은 날짜 표기
	2:7	아마르쑤엔
	2:8	빈 줄
	2:9-18	목록
	2:19	빈 줄
	3-4단	빈 공간
	5:1-5	간기

표 1. 슈메르 회계 점토판의 구조적 특성

목록 자체가 신전에 드릴 예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슈메르 종교 전통과 관련된 언급이 짧게 여러 번 나온다. 해당 문서만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이미 알려져 있는 신화나 전설과 부합하는 것들도 있고 새로운 것들도 있어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신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옴마의 수호신인 샤라 신이 단연 많은 제물을 받으면서 가장 숭배를 받는 신으로 나타났다. 다른 신들도 정기적인 제물을 받았는데, 슈메르 만신전의 상하관계와 달리 옴마 지역 전통을 따른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만신전 최고 지위에 속한 엔키 신보다 두무지 신이 훨씬 많은 제물을 받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마지막으로 왕의 조각상이 신상의 자격으로 제물을 받았으며, 전설적인 명성이 있는 선왕 뿐만 아니라 현재 왕위에 앉아 있는 왕도 이런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사 속에서 거의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연구할 주제이다.

논의

문서의 내용을 메소포타미아 역사 속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움마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자. 움마(Umma)는 현대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있고, 현대 지명으로 텔죽하(Tell Jokha) 또는 움 알아까립(Umm al-Aqarib)일 것으로 추정한다.

움마에서 가장 추앙을 받은 신은 샤라(Šara)였고 풍요의 신으로 닌우르타(Ninurta)도 섬겼다. 문학작품 속에서 샤라 신은 〈인안나가 지하세계로 내려가다〉 속에 나오는데, 지하세계로 내려갔다가 시체가 된 인안나 여신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자로 나온다. 나중에 지상으로 돌아온 인안나 여신은 샤라 신을 지하로 잡아 가려는 저승사자들을 말리면서 샤라 신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 지역은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아 정확한 거주 역사를 기술할 수는 없으나 초기 왕조 시대 이전부터 슈메르 남동쪽 지역에서 주요 도시로 성장해 왔다. 기원전 2400년을 전후하여 움마는 좀 더 남쪽에 라가쉬(Lagash)와 경쟁 관계에 접어들고 여러 번 접전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움마의 루갈자게씨(Lugal-

zagesi)왕은 기원전 2350년경에 경쟁자를 물리치고 실권을 잡으며 움마의 절정기에 이른다. 그러나 곧 악카드 왕국이 발흥하여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지배하게 되면서, 움마는 남서부의 중심 도시 정도로 지위가 격하된다. 그 후 우르 제3 왕조 시대에도 움마는 남부 주요 도시로 유지되었고, 우르의 왕들과 지역 총독들이 움마에 신전을 짓는 등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경제 문서나 법 관련 문서들을 보아도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 우르 왕정이 무너지고 이썬과 라르싸가 주도하는 시기가 되면서 움마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쇠퇴기를 겪는다. 위에서 다룬 문서는 바로 우르 제3 왕조 시대에 속하고, 이 때 움마는 우르 왕궁의 지배를 받는 지역 거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고대 사회에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때 가족의 출납과 같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크기가 작은 점토판에 적어서 보관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큰 토판으로 옮겨서 정리하였다. 이 문서는 고대 슈메르 사회에서 행정적인 문서를 생산하고 정리하고 보존하는 방법을 잘 보여준다. 윤성덕(연세대학교)

참고문헌 (References)

- Cooper, J. (2006). Genre, gender, and the Sumerian lamentation.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58, 41-44.
- Edzard, D. O. (1976-1980). KI.AN. In *Reallexikon der Assyriologie* (Vol. 5), p.586. Berlin & New York: Walter de Gruyter.
- Fehervari, G., Lambert, W. G., Rinder-Wilson, R. H., & Wenzel, M. (1966). *Art of the Eastern World* (Vol. 1). London: Hadji Baba Ancient Art.
- Frayne, D. (1997). *Ur III period (2112-2004 BC)*. (*The Royal Inscriptions of Mesopotamia, Early Periods*, Vol. 3/2).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George, A. R. (1993). *House most high: The temples of ancient Mesopotamia*. Winona Lake, IN: Eisenbrauns.
- Sallaberger, W. (1993). *Der kultische Kalender der Ur III-Zeit*. Berlin & New York: Walter de Gruyter.
- Cuneiform Digital Library Initiative (CDLI). (2005, July 1). CDLI entry: P315448.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https://cdli.ucla.edu/P315448>

가옥 매매 계약 점토판

Cuneiform Tablet of a House Sale Contract

4

라르싸 왕조(Larsa Dynasty)

기원전 1820년경/ 림-씬(Rim-Sin) 재위 3년

움마(Umma, 현 Tell Jokha)

문자/언어: 켈리문자/슈메르어

크기 4.5×7.4×1.8cm

이 점토판은 한 주택의 매매 계약을 기록한 것으로, 증인들 앞에서 해당 거래가 적법하며 취소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재산의 상태, 위치, 가격은 정확하게 기재되었으며, 권위를 들어 거래를 취소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금지되었다. 총 아홉 명의 증인이 증언하였으며, 각 인물은 신원 확인을 위해 이름과 부칭(父稱)으로 식별된다. 날짜는 당대의 관례에 따라 월과 연호를 포함하여 기록되었다.

이 문서는 공식 계약서와 유사하며 필수 요소들도 갖추고 있지만, 각 요소가 충분히 서술되지 않고 매우 간략하게만 언급되어 있다. 또한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문서의 실제 성격에 의문을 제기한다. 더불어 점토판은 관례적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필체가 유난히 크고 거의 비문 필체와 같은 모습이며, 가로줄과 인장(seal)이 없는 점 또한 이례적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 점토판이 실제 계약 문서가 아니라 학생의 연습용 필사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면(Obverse)



뒷면(Reverse)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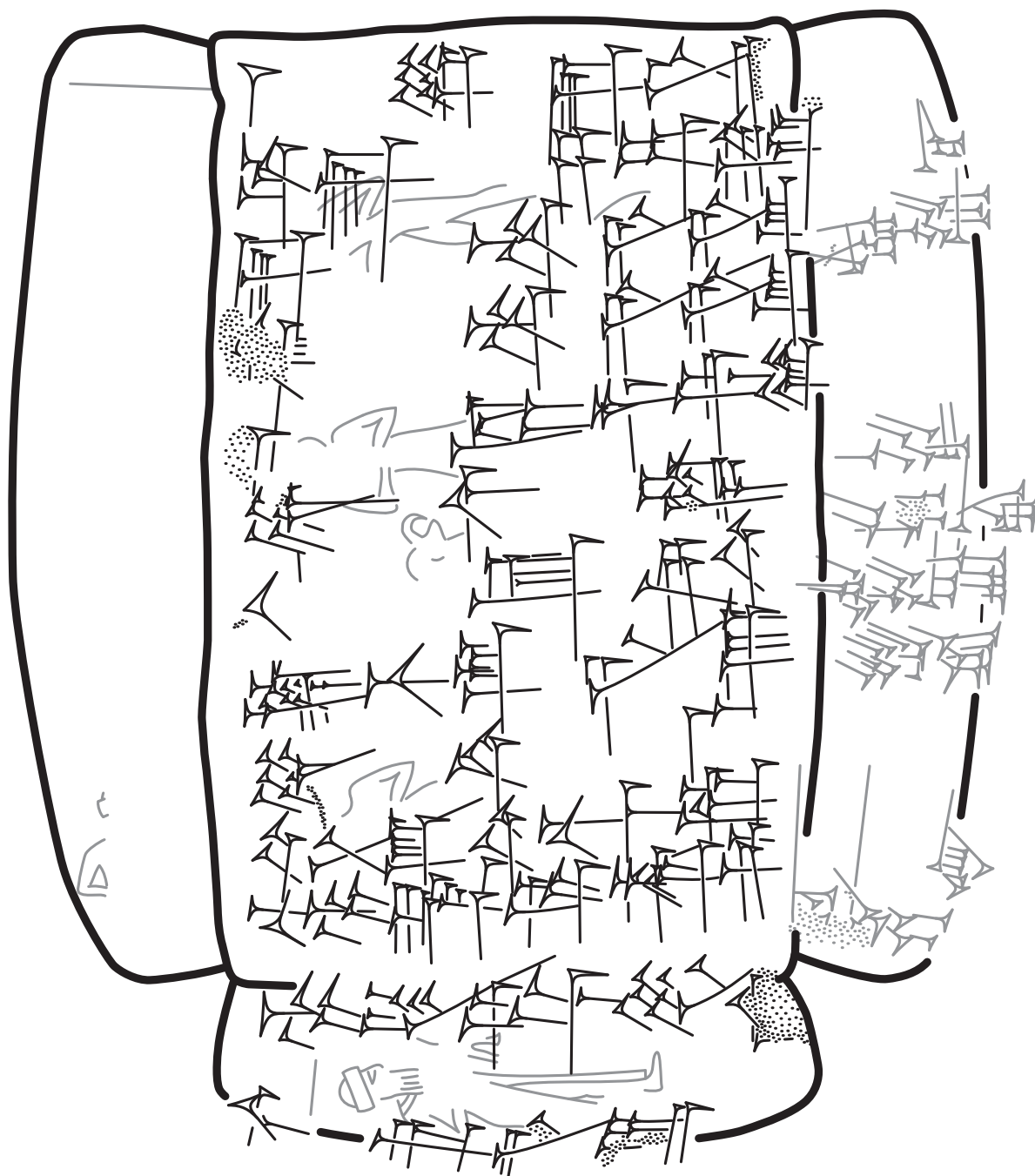
10



1

5

10



1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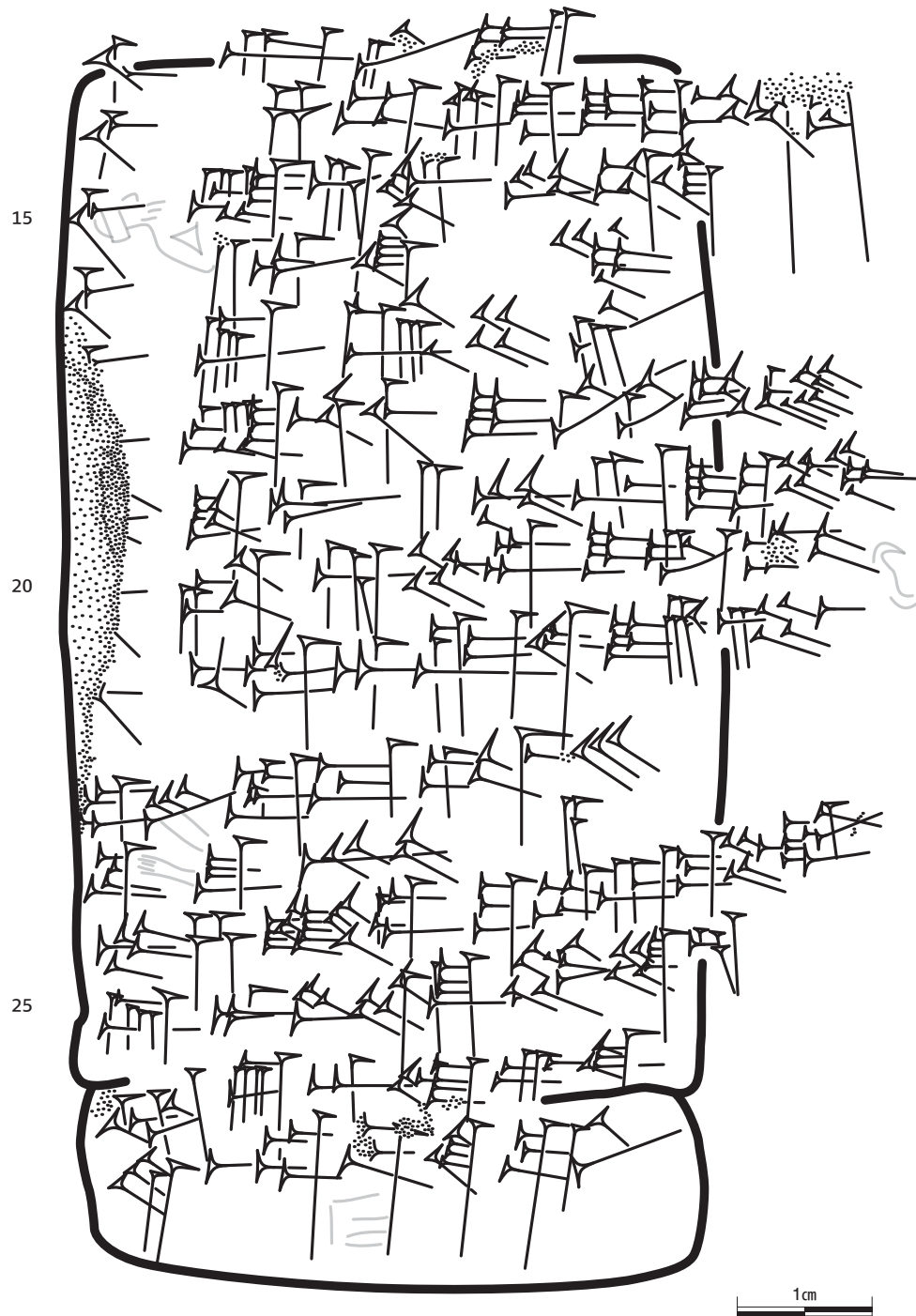
뒷면 Reverse

15

20

25





연구자의 노트

앞면(Obv.)



행	전사(Transliteration)	해석(Translation)
1	1 sar é.dù. ^f a ¹	1 싸르 (넓이의) 가옥
2	da é Ša-ab-ru-um	짜브룸 소유의 집 옆에 (있는)
3	é ìr-ì-lí-šu	와라드일리슈의 집:
4	[ki] ìr-ì-lí-šu	와라드일리슈로부터
5	¹ dumu- ^d mar.tu	마르아무리미
6	in.šì.šám	구입했다.
7	10 gín kù.babbar	은 10 쉼켈
8	šám.til.la.ni.šè	그 액수 전체를
9	in.na.lá	그가 달아주었다.
10	ud.kúr.šè ud.nu.me.ka	누구든지 후 일에
11	nu.mu.un.ta.bal.e	이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12	mu lugal.bi<ME>in.p[ād]	왕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뒷면(Rev.)



행	전사(Transliteration)	해석(Translation)
13	igi lb-ni-ia	증인, 입니아
14	igi Ša-ab-ru-um dumu Ku-bi-na ² -da ²	증인, 짜브룸 쿠비나다의 아들
15	igi ^d zuen-re-em-šeš.ab ^{ki}	증인, 쉼렘우림
16	igi A-dingir-ki-nim ₄	증인, 아필일림키님
17	[ig]i é-ga-še-er	[증]인, 빗가셰르
18	[ig]i ^d zuen-na-ši dumu Ī-lí-i-din-nam	[증인], 쉼나쉬, 일리딘남의 아들
19	[ig]i Ša- ^d A-mu-ur dumu Ku-bu-lum	[증인] 샤아무르, 쿠불룸의 아들
20	[ig]i Ta-ri-bu-um dumu Al-kum	[증]인, 타리붐, 알쿰의 아들
21	[ig]i Nu-úr- ^d ka.di dumu Ĥa-zi-rum	[증]인, 누리쉬타란, 하지룸의 아들
22	[ki]šib ^{ti} inim.ma.bi ^{meš}	증인들의 도장
23	^{ti} šū.numun.a	두우주 월
24	mu 4 alan.urudu ku-du-ur-ma-bu-ik	쿠두르마복 (왕의) 청동상 4개를
25	é. ^d nanna.šè in.ku ₄ .re	난나 신전에 봉헌하고
26	ù é ^d nin.mar.ki	닌마рки 신전을
27	šà aš.dub.ba ^{ki} ba.dù	아쉬둡바에 건설한 해

앞면(Obv.)

1행

1 sar é.dù.ʿaʿ

1 싸르 (넓이의) 가옥

숫자 다음에 나오는 싸르(sar)라는 기호는 ‘밭’이라는 명사나 넓이 또는 부피를 가리키는 도량형으로 쓴다. 메소포타미아 역사 초기에는 표준 도량형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지역마다 시대마다 서로 다른 체제를 사용했다. 넓이는 가장 작은 기호가 gín이고 그 다음이 sar, iku, bur의 순서로 올라간다. 고바빌리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1싸르는 약 36 제곱 미터 정도를 가리킨다. 마지막 기호 아(a)는 오른쪽 반 정도가 훼손되어 보이지 않는다. 거래 물품은 ‘가옥(é.dù.[a])’이다. 이 말을 직역하면 ‘(잘) 지은 집’이라는 뜻이고, 가옥을 사고 파는 거래임을 알 수 있다. 아키오의 ‘궁전 소속 가옥’이라고 해석하지만, 문맥에 궁전 관련 정보가 전혀 없으므로 굳이 그렇게 확대하여 해석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행

da é ʒa-ab-ru-um

짜브룸 소유의 집 옆에 (있는)

첫째 기호 다(da) 그리고 뒷부분의 루(ru)는 형태가 매우 단순화된 필체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바빌리 시대의 형태에 가깝다. 2행에 나오는 인명을 짜브룸(ʒa-ab-ru-um)이라고 읽었는데, 아카드어 이름으로 추정한다(아카드어 동사 *šabāru* ‘반짝거리다, 깜박이다’와 관련).

3행

é ʔr-ʔl-šū

와라드일리슈의 집:

이르(ʔr)라는 기호는 고바빌리 시대 이후의 필체에 가깝다. 3행에 나오는 인명은 와라드일리슈라고 읽었는데, 어표 이르(ʔr)는 ‘중(아카드어 *uandū*)’이라는 뜻이고, 그 뒤에는 음절 문자로 일리슈(*i-lī-šū*)라고 썼고 함께 읽으면 이름은 ‘그 신의 중’이라는 뜻이다. 널리 사용하는 이름이다.

5행

¹dumu-^dmar.tu

마르아무림이

5행에 나온 이름은 아카드어로 마르아무림(¹dumu-^dmar.tu)이라고 했는데, 어표 2개를 이용한 이름이고 ‘아무루의 아들’ 또는 ‘신적인 서쪽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어표 두무(dumu)와 신명으로 구성된 이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루’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흔한 편은 아니다. 특히 ‘서쪽’은 메소포타미아 본토 거주민들이 외부인으로 무시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신적인 서쪽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상식적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이름이라고 볼 수 없다. 아키오 논문에 인용된 용례(YOS 5, 41, 8)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6행

in.šī.šām

구입했다.

첫째 기호 인(in)은 너무 간략하게 표기되어 중바빌리 또는 신바빌리 필체처럼 보인다. 아니면 앗슈르 필체에 더 가깝다. 마지막 기호를 샴(šām)으로 읽어야 동사를 읽어낼 수 있는데, 세로 획들이 몇 개 부족하고 가로 획들만 두 개 이상 보인다.

7행

10 gín kù.babbar

은 10 셰켈

기호들은 모두 명확하게 고바빌리 시대 필체이다. 기호 긴(gín)은 도량형이며 셰켈(*šīqlu*)을 가리키며 약 8.4그램에 해당한다. 집 가격으로 10셰켈을 지불했으므로, 은 84그램 정도에 해당한다. 집 한 채 가격이 10셰켈이라는 점은 재고가 필요한데, 아무리 초기 왕조 시대라 하더라도 너무 낮은 가격이다. 아키오의 논문에 조사된 정보를 신뢰한다면 경우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30셰켈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8행

šám.til.la.ni.šè

그 액수 전체를

“액수 전체”라는 용어는 거래의 성격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계약서에 꼭 밝혀야 할 필수 조건이다. (아래 논의에서 상술)

9행

in.na.lá

그가 달아주었다.

기호 나(na)는 고바빌리 필체이다.

11행

nu.mu.un.ta.bal.e

이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기호 운(un)은 앞부분에 가로획이 모자란다. 기호 발(bal)은 마지막에 필요없는 세로 획이 있다. 제10-12행은 계약서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경고하는 문장이며,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요소이다. 그러나 이 조건을 어길 경우 받게 될 벌을 지정하지 않아 축약된 형태라고 봐야 한다.

뒷면(Rev.)

13행

igi lb-ni-ia

증인, 입니야

제13-22행은 거래를 입증해 줄 증인 목록으로 계약서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증인이라는 낱말을 대표하는 어포 이기(igi)와 인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니야”는 상당히 흔한 이름이다. 원래 ‘짓다’ 또는 ‘창조하다’는 뜻의 아카드어 동사(*banû*)와 신명을 엮어서 이름을 짓지만, 신명을 생략한 축소형도 발견된다. 제13행의 입니야는 이렇게 축소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아키오는 입니에아(*Ibni-Ea*)라는 이름을 짧게 줄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14행

igi ša-ab-ru-um dumu Ku-bi-na²-da⁷

증인, 짜브룸 쿠비나다의 아들

짜브룸은 거래 대상인 주택 옆에 사는 이웃이다(제2행 참조). 그의 부친의 이름은 기호 네 개로 썼는데, 뒤에 나오는 기호 두 개가 불분명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앞 부분은 쿠부(Kubu) 또는 쿠바부(Kubabu)라는 신명일 가능성이 있다.

15행

igi ^dzuen-re-em-šeš.ab^{ki}

증인, 쥔렘우림

쥔렘우림(^dzuen-re-em-šeš.ab^{ki})은 메소포타미아 풍 이름이 분명하지만 흔한 이름은 아니다. 이름 앞에 신명 ‘쥔(^dzuen)’이 나오는데 달의 신이며 도시 우르의 수호신이다. 이 신명은 슈메르어로 난나(Nanna) 또는 쥔엔(zuen)이라고 썼고 후대 아카드어에서 ‘쥔(*šm*)’이라고 읽었으며, 학계에서 관습적으로 후대 이름을 사용해서 읽는다. 이름의 둘째 요소는 ‘렘(re-em)’이라고 썼고 ‘자궁’ 또는 ‘자비’라는 뜻의 아카드어 명사 ‘레무(*rēmu*)’의 연계형으로 보인다. 마지막에 나온 기호들은 뒤에 지명을 가리키는 한정사가 붙어서, 도시 우림(šeš.ab^{ki})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어포로 쉼쉬압(šeš.ab)이라고 쓰고 한정사(ki)를 붙였는데, 슈메르 시대에는 우림이라고 불렀고 후대에는 아카드어로 우르라고 불렀다. 이렇게 모든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어순이 문제가 된다. 중간에 들어간 낱말이 ‘자비’라는 뜻이고 연계형이기 때문에 신명이 그 다음에 오면서 ‘어떤 신의 자비’라고 써야 일반적인 순서이고, 이런 형식으로 지은 이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명사 뒤에 도시 이름이 나오면서 ‘도시 우림의 자비’가 되었고, 신명은 이 서술부의 주어로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굳이 해석하지 않으면 ‘쥔은 우림의 자비이다’는 문장이 완성되지만, 그 의미를 매우 추상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또 자주 보기 어려운 이름이라고 말해야 한다.

16행

igi A-dingir-ki-nim₄

증인, 아필일림키님

제16행에 나오는 이름은 아필일림킬룸(A-dingir-ki-LUM)이

라고 읽을 수 있지만, 읽기가 옳은지 확신할 수 없다. 어표a는 ‘아들’ 또는 ‘후계자’를 가리키며 악카드어 낱말(*aphu*)의 연계형(*apil*)으로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부친의 이름이나 신명이 나오리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기호가 어표 딩기르(*dingir*)이며 명사 또는 신명을 가리키는 한정사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기호 두 개가 신명이면 좋은데, 사실 킬룸이라는 신은 알려진 바 없다. 특히 마지막 기호를 룬(*LUM*)이라고 대문자로 표기하는 이유는 그 읽기가 불분명하다는 뜻이다. 이 구조가 옳다면 ‘킬룸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 될 텐데, 신명이 문제로 남는다. 참고로 닌킬림(*Ninkilim*)이라는 신명이 있는데, ‘킬림의 여주인(*nin*)’이라는 뜻이다. 제 16 행의 이름과 어떤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이 이름의 마지막 기호를 *nim*₄ 또는 *nu*₄ 또는 *num*₂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마지막 기호 두 개가 키님/키누/키눔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영원하다’ 또는 ‘참되다’는 뜻의 ‘키누(*kinu*)’의 변화형이 된다. 그렇다면 둘째 기호도 명사로 읽어서 아필일림키님 즉 ‘참된 신의 아들’이라고 읽을 수 있다. 물론 이런 이름이 발견된 적은 없으나 아플루케누(*Aplu-kênu*)라는 이름은 있으므로 역시 전혀 불가능한 읽기는 아니다. 아키오는 기호 하나를 삽입하여 A-<bi/hi>-dingir-ki-LUM이라고 읽었다. ‘킬룸 신이 내 아버지/형제이다’는 뜻이다.

17행

[ig]i é-ga-še-er

[중]인, 빗가쉐르

빗가쉐르(*é-ga-še-er*)라는 이름은 ‘집’이라는 뜻의 어표(*é*)와 ‘강하다’는 뜻의 악카드어 동사(*gašāru*)에서 파생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기호 세 개가 따라온다. 여기서 첫째 기호를 ‘집’이라는 명사의 연계형(*bit*)으로 읽으면 뒷부분은 신명이나 호칭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름은 전체적으로 신전 이름으로 보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뒤에 나오는 기호 세 개가 ‘강하다’는 동사의 분사형으로 ‘강한 자’로 읽으면, ‘강한 자의 집/신전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유일한 문제는 같은 이름이 다른 문서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18행

[igi] ^dzuen-na-ši dumu Ì-lí-i-din-nam

[중인], 쯔나쉬, 일리딘남의 아들

쯔나쉬(^dzuen-na-ši)는 위에서 나왔던 달의 신 ‘쯔(zuen)’과 ‘들다’는 뜻의 악카드어 동사(*našû*)의 분사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YOS 5, 2 III:30; 139:3 참조). 그렇게 읽으면 ‘쯔이 나를 드는 자’ 즉 달의 신이 나의 보호자이자 수호신이라는 고백이 된다.

부친의 이름은 일리딘남(*Ì-lí-i-din-nam*)이며 훌륭한 악카드어 문장을 이룬다. ‘나의 신(*ilī*)이 나에게 주셨다(*iddinnam*)’는 뜻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19행

[igi] Ša-^dA-mu-ur dumu Ku-bu-lum

[중인] 샤아무르, 쿠불룸의 아들

샤아무르(*Ša-^dA-mu-ur*)라는 이름은 소속을 표현하는 악카드어 낱말(*ša*)과 신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의 이름은 구매자의 이름에도 나오는 ‘아무르’인데, 제5 행은 어표 마르투(*mar.tu*)로 썼으나 제19 행은 한정사와 음절로(^dA-mu-ur) 기록했다. 이름은 ‘아무르 신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다.

부친의 이름은 쿠불룸(*Ku-bu-lum*)인데, ‘불구가 되다’는 뜻의 동사(*kabāhu*) 반복형 어간(D)에서 나왔고, 독립적인 형용사(*kubbulu*)이며 명사처럼 ‘불구가 된 자’라는 뜻으로 쓴다. 그렇다면 이 이름은 조롱 조의 의미가 섞여 있어서, 정식 이름이 아니라 호칭일 수도 있다. 물론 고대인들의 관습은 현대인과 다를 수도 있으므로 정식 이름일 가능성도 있다.

20행

[ig]i Ta-ri-bu-um dumu Al-kum

[중인], 타리붐, 알쿰의 아들

인명 타리붐(*Ta-ri-bu-um*)은 췌기문자 읽기도 분명하고 사람 이름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일반적인 이름이다. ‘대체하다’는 뜻의 악카드어 동사(*riābu*)에서 나온 명사(*taribu*)가 있고, 이 명사에 신명이나 형용사를 붙여서 이름을 짓는다. 그렇다면 제20행에 나온 타리붐은 둘째 요소를 생략한 축소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친명 알쿰(*Al-kum*) 역시 매우 분명하게 읽을 수 있고, ‘강둑’ 또는 ‘부역’이라는 악카드어 명사(*alku*)도 있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 결국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기 어렵다.

21행

[ig]i Nu-úr-^dka.di dumu ḥa-zi-rum

[중]인, 누르이쉬타란, 하지룸의 아들

인명 누르이쉬타란(Nu-úr-^dka.di)은 전형적인 메소포타미아 풍 이름이다. ‘빛’이라는 뜻의 악카드어 명사(*nūru*)와 신명 ‘이쉬타란’을 어표(^dka.di)로 써서 ‘이쉬타란의 빛’이라는 이름을 완성했다. 이쉬타란은 데르(Der)라는 도시의 수호신이며 신들의 재판관(슈메르어 ka.di가 관직명)으로 그리고 그를 상징하는 동물 뱀과 함께 알려져 있다. 데르가 정치적 맹주로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쉬타란 신도 종교 전통이나 문학에서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며, 자세하게 알 수 없는 신으로 남아 있다.

부친의 이름 하지룸(Ha-zi-rum)은 ‘돕는 자’라는 뜻의 악카드어 명사(*bāziru*)에서 나온 이름이다. 서셈어에서 파생된 형태로 보이며, 다른 문서에도 나오지만 유명한 이름은 아니다.

23행

^{iti}šū.numun.a

두우주 월

첫째 기호 이티(iti)가 중바빌리 시대 필체이거나 앗슈르 필체이다. 어표(^{iti}šū.numun.a)로 두우주(*du'ūzu*)라는 달 이름을 썼다. 잘 알려진 표기법이며, 메소포타미아 월력에서 넷째 달이기 때문에 현대 달력으로 6-7월에 해당한다.

24-27행

mu 4 alan.urudu ku-du-ur-ma-bu-ik

쿠두르마복 (왕의) 청동상 4개를

é.^dnanna.šè in.ku₄.re

난나 신전에 봉헌하고

ù é ^dnin.mar.ki

닌마르키 신전을

šà aš.dub.ba^{ki} ba.dū

아쉬둑바에 건설한 해

문서의 마지막에 해 이름(year name)이 나온다. 아직 해를 세는 방법을 현대처럼 체계화하지 못했던 시대에 해마다 어떤 문장으로 이름을 지어 붙이는 방법과 누군가 잘 알려진 인물을 지목하여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문

서는 전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인물이 신전을 건설하고 조각상을 바친 일을 기념하고 있다. 이 해 이름은 기원전 18세기 쯤 라르싸(Larsa)를 다스렸던 립썬(^dRi-im-^dzuen) 제3 년의 이름이며(Ungnad, 1938, pp. 131-195, esp. p. 161) 묘사한 건설 사업들은 립썬 왕의 업적임을 알 수 있다.

라르싸(Larsa)는 이라크 남부에 있었던 도시 국가이며 기원전 3000년 이전부터 존재했던 유서 깊은 장소이지만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자의 자리에 오른 적은 없는 중소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수호신은 태양 신 우투(Utu)로 알려져 있다. 기원전 18세기경 고대 왕조 시대 말에 지역 왕조 출신이 아닌 쿠두르마복(Kudur-Mabuk)이라는 자가 왕위에 올랐고(엘람 출신일 가능성도 있음), 그의 두 아들도 그의 뒤를 이어 차례로 왕이 되었는데, 첫째가 와라드썬(Warad-Sin)이었고 둘째가 립썬이다. 립썬은 약 60년에 걸쳐 왕위를 지켰으나, 바빌리의 함무라비에게 패전하면서 권력을 잃었다.

해 이름에서 “쿠두르마복 (왕의) 청동상 4개를” 만들었다는 말은 자기 부친의 조각상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서아시아 문화에서 사망한 왕의 조각상을 만드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립썬은 매우 효심이 깊거나 꼭 그렇게 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라르싸는 우투 신의 도시였으나 달의 신 난나도 섬겼던 것으로 보인다. 우르 제3 왕조의 지배를 받으며 종교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립썬이라는 이름 속에도 달의 신의 이름을 쓴 것으로 보아 당시에 라르싸에서 달 신 숭배가 주목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아쉬둑바라는 장소에 닌마르키 신전을 건설했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먼저 닌마르키 여신은 유목이나 무역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신존재이며, 아쉬둑바 역시 라가쉬와 기르썬 근처에 있던 거주지로 짐작할 뿐이다(Sallaberger, 1998-2001, pp. 463-468).

이러한 문서는 대개 수평선으로 기준선을 그리고 그 줄에 기호를 맞추어 쓰는 것이 관행인데, 전혀 줄을 그리지 않았다는 점은 특이하다고 말할 수 있다. 크기가 작은 토판인 경우에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 토판은 그리 작지 않고 행과 행 사이 간격도 넓어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쓰기로 했는지 생각해볼 만 하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매매 계약서는 대개 매우 숙련된 서기들이 작은 토판 위에 필기체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유물의 기호들은 마치 돌에 새긴 것처럼 획들을 정교하게 새겨 넣었다.

논의

고대 서아시아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상당히 많이 발견되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형이 나타나기는 해도 이런 초기 시대의 계약서 양식은 상당히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적어서 거래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서기라면 관행적인 문서양식을 따라 문서를 꾸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서에 나오는 표현이나 문장은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양식을 따른 것이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양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거래 대상 묘사	주택인지 토지인지 명시하고, 거래 대상 주위에 누구 소유의 어떤 땅이 있는지 소상히 적어 위치를 밝힌다.
거래 대상자 명시	거래 대상의 현소유주와 구매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힌다.
거래 가격과 지불 상황	거래 가격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물론 구매자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일시불 또는 할부로 구매하는지 명시한다.
맹세	신이나 왕의 이름을 걸고 거래의 완결을 선언한다.
법적인 부가 사항	거래 이후에 거래 당사자나 그들의 후손이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처리 방법을 밝힌다.
증인 목록	거래를 보증하는 증인들의 이름을 적는다.
날짜	거래 날짜

표2. 고대 서아시아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양식

본 유물의 명문은 전반적으로 관례를 따르고 있으나 세목에 있어서 자세한 정보를 생략하고 간략하게 적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 거래 대상을 묘사하면서(1-2행) 거래하는 주택 옆에 짜브룸이란 자의 집이 있다고 말했다. 대개 매매 대상의 사면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주를 모두 밝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웃집 하나만 언급한 것은 매우 개략적인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주택의 현소유주와 구매자의 이름이 나오는데(3, 5행) 부친의 이름을 빼고 기록하여 법적인 권위가 있는 공식문서에 어울리지 않는 매우 개략적인 관행이라고 말해야 한다.
- 주택의 가격을 밝히고 금액 전체를 지불했다는 문장은 관례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7-9행). 주택 가격이 예상보다 싸다는 점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 법적인 부가 사항(10-11행) 역시 지나치게 짧게 기록했다. 거래 대상자의 이름과 그들의 가족과 친지를 하나씩 지적하면서 거래를 무효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만약 이런 시도를 하면 어떻게 배상하는지 정확한 액수까지 적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 증인 목록은 관례적인 형태를 따르고 있으며(13-21행), 충분히 긴 목록으로 볼 수 있다.
- 달의 이름과 해의 이름 모두 다른 문서나 사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다.

문서를 기록한 형태나 필체 등과 함께 고려했을 때 이 문서가 실제로 경제적, 법적 목적을 위해 기록한 것인지, 실제 문서를 축소해서 요약한 판본인지, 아니면 문서 작성양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가상의 문서인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간단히 라르싸라는 도시와 림썬이라는 왕을 소개했는데, 이 시대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고 나서 바빌리와 앗슈르라는 도시가 전면에 나서기까지 약 15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데,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석기 시대를 지나 역사시대를 여는 단계는 대개 도시 문명의 발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래 자그로스 산맥의 계곡이나 산기슭에 살던 사람들이 좀 더 넓은 땅을 찾아 남서쪽으로 이동해서 강가에 자리를 잡는데, 이 지역은 강우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로를 지어 강물을 끌어들이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관계시설을 짓기 위해 고된 노동이 필요했지만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강가로 모여 들었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인구가 늘어나자 계층이 분화되고 지배세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인류 문명 최초로 도시국가가 발생한 것이다. 학자들은 이 시기를 초기 왕조 시대라고 부르는데(기원전 3000-기원전 2350년), 우눅(후대의 우룩)과 우림(우르), 라가쉬, 키쉬 등 여러 도시국가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서로 경쟁하였다. 이런 도시는 성벽을 쌓아서 외부 지역과 거주지를 구분했고, 도시 중심부에 수호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서 지배세력이 종교인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최소한 초기에는 이 신전이 넓은 농토를 소유하여 거주민들이 공동으로 일하고 식량을 배급받는 사회체제였을 것으로 짐작한다. 인구가 늘어나고 농지 소유권을 두고 도시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전쟁을 지도할 군사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신전과 관련되지 않은 세속 권력자가 출현하는 배경이 된다. 도시 국가마다 서로 다른 호칭을 쓰는 지배자들이 서로 다른 지배체제를 발전시켰고, 특정한 맹주 없이 소규모 지역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문화적으로 췌기문자를 발명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문서는 물론 문학 작품들을 생산했다. 신화와 서사시, 찬양시, 그리고 <길가

메쉬 서사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이 시기에 창작되었다.

라르싸는 초기 왕조 시대부터 도시국가로 존재했다. 태양 신 우투를 섬기는 에바바르 신전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다양한 무역활동에 간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원전 2500년경부터 라가쉬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정치적 독립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라르싸의 경제적 문화적 일상생활은 평소처럼 진행되었으나, 거주민들의 안녕은 라가쉬 왕들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지 여부에 종속되었다.

기원전 24세기가 되면 메소포타미아는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셈족어를 사용하며 서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아가데(후대의 악카드)라는 도시를 세우고 왕이 다스리는 왕국을 건국한다(악카드 왕국 시대, 기원전 2334-기원전 2154년경). 악카드 왕국을 다스린 첫 왕은 사루케누(영어로 Sargon, 재위. 기원전 2334-기원전 2279년경)였는데, 전쟁을 통해 여러 도시국가들을 점령하여 슈메르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던 광대한 영역국가를 건설한다. 그는 이란 산지의 엘람, 티그리스 강 상류의 앗슈르와 니느웨, 유프라테스 강 중류의 마리를 정복하였고 멀리 레바논과 튀르키예 지역까지 원정을 하는 등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전쟁 영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어 진정한 의미의 왕조를 형성했고, 자신의 딸 엔헤두안나를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대사제로 임명하여 종교와 문화 영역에서도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끌어안으려고 노력했다. 악카드 왕국은 자그로스 산맥에서 내려온 구티인들의 침입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는데, 그 시기에 심각한 가뭄과 겨울 먼지 폭풍 때문에 국력이 약해진 탓이었다.

악카드 왕국 시대에 라르싸는 다른 슈메르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악카드 왕의 지배를 받았다. 엔헤두안나는 슈메르 지역에 부임해서 건설한 신전들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라르싸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셈족 왕조가 슈메르 땅과 라르싸 도시를 다스렸지만, 아직 슈메르 문화와 전통이 존중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침입자들을 물리치고 분열된 시대를 정리하고 메소포타미아의 지배자로 올라 선 세력은 우눅(우룩)의 왕 우투헤갈이었다. 그러나 그는 왕조를 건설하지 못했고, 그의 무장이었던 우르남무가 우림(우르)에서 왕조를 창건하는데 성공한다. 학자들은 이 시대를 우르 제3 왕조 시대라고 부른다(기원전 2112-기원전 2004년). 정치적으로 슈메르 사람들이 다시 메소포타미아의 주인공으로 돌아왔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들이 고대의 도시국가 체제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악카드 왕국을 경험한 슈메르인들은 강력한 왕이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통해 다스

리는 왕국을 세운다. 예를 들어 우르남무는 살인, 강도, 간통, 상해 등 범죄 행위와 그 처벌규정을 슈메르어로 적어 문서화했으며 사회를 다스리는 정의로운 원칙이 있음을 정치적 이상으로 제시했다. 우르 제3 왕조는 영토 확장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슈메르 문명의 전통을 글로 옮기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자그로스 산맥에 살던 엘람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세력이 약해졌고, 결국 엘람인들이 우르를 점령하면서 멸망하였다.

우르 제3 왕조 시대에도 라르싸는 지역 중심도시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르남무 왕은 라르싸에 있던 태양 신의 신전 에바바르를 증축했으며, 이로써 고대 슈메르 문화와 전통이 라르싸를 중심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엘람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메소포타미아를 점유하여 다스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권력 공백기가 찾아왔다. 그래서 전통적인 메소포타미아 거주민들과 새로 유입된 이주민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었고, 그 중에 이주민들이 중심이 된 이썬(Isin)과 라르싸(Larsa)가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이썬-라르싸 시대, 기원전 2025-기원전 1763년). 특히 이썬에 자리를 잡은 이쉬비에라는 우르 제3 왕조의 관리였기 때문에 멸망한 슈메르 왕국의 권위를 이어간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세력을 키워 나갔다.

라르싸에서 총독으로 일하던 궁구눔은 이썬에 대항하여 자신만의 왕조를 세웠는데, 종교와 전통 면에서 명성이 높은 우림(우르)을 점령하면서 지역의 실력자로 올라섰다. 그 뒤를 이은 왕들도 님푸르 등지를 점령하고 운하와 수로 지배권을 이썬으로부터 강탈하였다. 이 때 왕위에 오른 것이 립신 1세이다(기원전 1822-기원전 1763년). 그는 60년 가까운 기간을 다스리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기원전 1793년에 이썬을 점령하면서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꽤 넓은 지역을 지배하기에 이른다. 립신 치하에서 라르싸는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 사업자 중심의 국제교역을 장려하였고, 슈메르 문화를 간직한 점토판들을 대규모로 필사하여 남긴다. 그 중에 수학과 관련된 내용도 남아 있는데, 직각삼각형의 변들을 비율에 따라 계산해서 삼각함수와 유사한 계산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립신 통치기는 라르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의 절정기라고 말할 수 있으며, 립신 왕이 여러 신전을 건축하거나 증축하고 여러 가지 헌물을 바쳤다는 기록과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무역과 함께 상거래도 활발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고, 해당 유물과 같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역시 많이 작성되었을 것이다. 윤성덕(연세대학교)

참고문헌 (References)

- 月本昭男. (2020). リム・シン第3年の「敷地付家屋 (é.dù.a)」売買契約文書とその背景. 古代オリエント博物館紀要 (= Bulletin of the Ancient Orient Museum), 38, 1-12.
- Sallaberger, W. (1998-2001). Ninmarki. In D. O. Edzard (Ed.), *Reallexikon der Assyriologie und vorderasiatischen Archäologie* (Vol. 9, pp. 463-468). Berlin & New York: Walter de Gruyter.
- Ungnad, A. (1938). Datenlisten. In E. Ebeling & B. Meissner (Eds.), *Reallexikon der Assyriologie und vorderasiatischen Archäologie* (Vol. 2, pp. 131-195). Berlin: Walter de Gruyter.

췌기문자 행정점토판

Cuneiform Administrative Tablet

5

기원전 13세기경(기원전 1300-기원전 1201년)

에마르(Emar, 현 Tell Meskene) 추정

문자/언어: 췌기문자/악카드어

크기 7.0×5.0×1.7cm

점토를 빚어서 토판을 만들고 기준선을 그린 뒤 췌기문자를 새긴 전형적인 점토판이다. 앞면 왼쪽 하단과 뒷면 왼쪽 상단이 훼손되어 기호를 읽을 수 없다. 문서는 뒷면 중간 정도까지 기록했고, 중간부터 그 밑으로는 일종의 도장인이 여러번 찍혀 있다. 행정과 관련해서 매우 숙련된 글자체로 빠르게 쓴 목록으로 보인다. 점토판 모양이 직사각형인데 아래 위로 길게 놓고 쓰는 일반적인 관례와 달리 좌우로 길게 놓고 기록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뒷면 인장 부분 확대



앞면(Ob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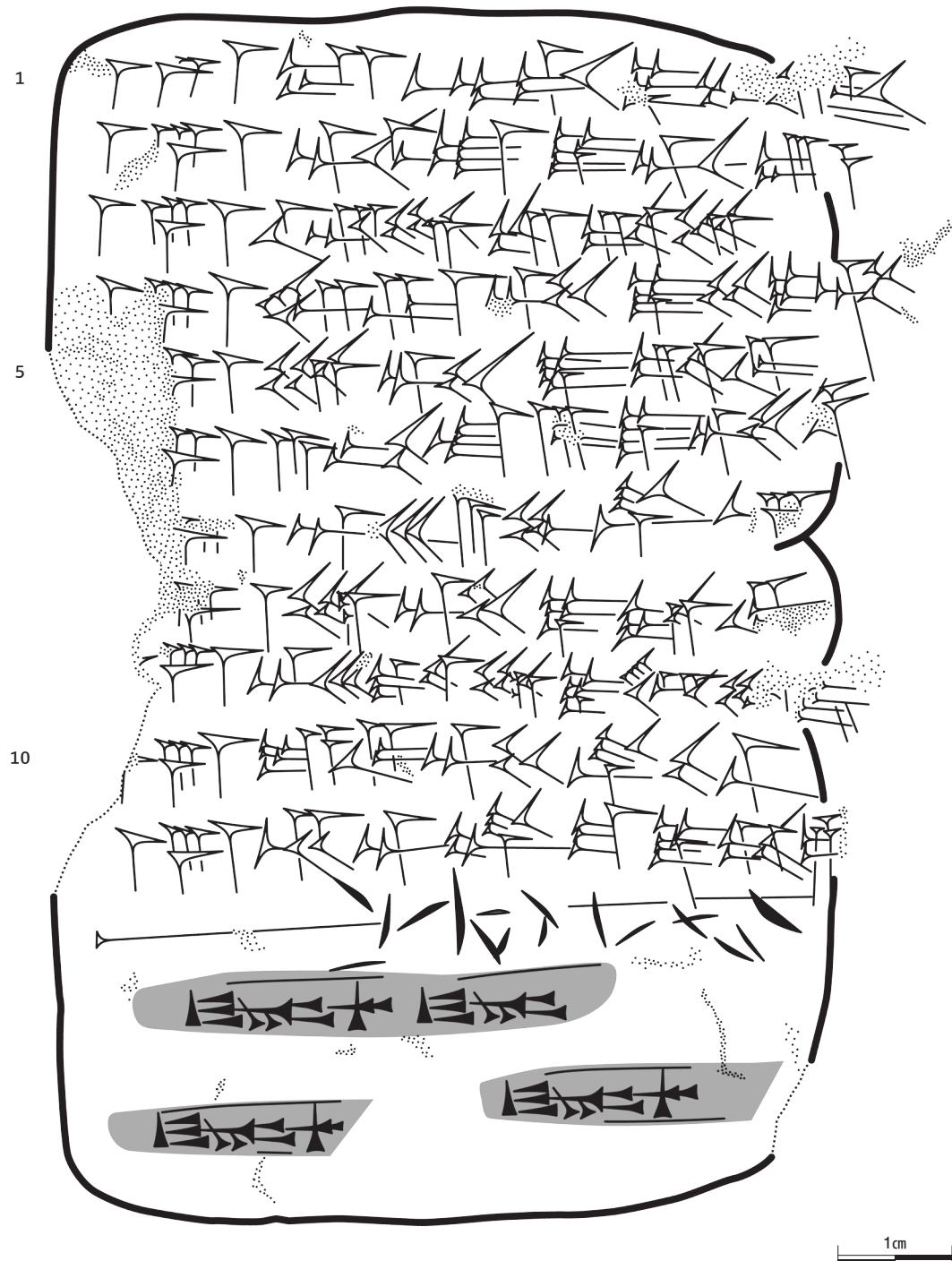
뒷면(Reverse)

앞면 Obverse



뒷면 Reverse





연구자의 노트

앞면(Obv.)



뒷면(Rev.)



행	전사(Transliteration)	해석(Translation)
1	1 4 ¹ zu-aš-tar-ti DUMU [...]	1 4 주-아쉬타르티, [...]의 아들
2	1 4 ^{1d} KUR-AD DUMU ^d 10-[-...]	1 4 다간-아비, 아다드[...]의 아들
3	1 4 ¹ el-la-ti-KUR ^{1aḫ} -lā-mu	1 4 엘라티-다간, 아홀라무(의 아들)
4	1 4 ¹ im-ri- ^d KUR DUMU še-[-...]	1 4 샤리-다간, [...]의 아들
5	[1] 4 ¹ iŠKUR- ^d 20 DUMU ḫat-ti-[-...]	[1] 4 샤리-샤마쉬, 핫티[...]의 아들
6	[1] 4 ¹ a-bi-la-[-...] DUMU maš-ḫa-[-...]	[1] 4 아비라[...], 마쉬하[...]의 아들
7	[1] 4 ^{1d} 30-a-bu [-...]	[1] 4 씬-아부 [-...]
8	[...]	[...]
9	[1] 4 ¹ ia-di- ^d KUR ŠEŠ [-...]	[1] 4 야디-다간, [...]의 형제
10	1 4 ¹ en- ^d šeš-šu DUMU [...]	1 4 바알-아히슈, [...]의 아들

앞면(Obv.)

1행

1 4 ¹zu-aš-tar-ti DUMU [...]

1 4 주-아쉬타르티, [...]의 아들

제1 행부터 끝까지 모든 행을 숫자 두 개로 시작하고 있다. 1과 4라고 읽으면 자리수가 다른 숫자 두 개 또는 도량형이 다른 두 단위를 차례로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60진법과 10진법을 한꺼번에 사용했기 때문에, 자리수가 다른 두 숫자라면 $(1 \times 60) + 4$ 즉 64로 읽어야 한다. 도량형이 다른 두 숫자라면 마치 ‘1킬로그램 4그램’처럼 읽어야 한다. 물론 도량형이 무게인지 부피인지 문맥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주-아쉬타르티(¹zu-aš-tar-ti)라는 이름은 어떤 명사(zu)와 신명(aš-tar-ti)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구조인데, 명사가 무슨 뜻인지 쉽게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만약 이 낱말이 악카드어(zū)라면 대추야자 줄기에서 추출한 실이나 가축의 똥을 가리키고, 사람 이름으로 쓰기에 부적절하다. 이 낱말이 아랍어(zū, zeh/zū)라면 ‘이것’이라는 뜻의 지시대명사로 쓸 수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신에게 (속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어형이 조금 다르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동일한 zū 형태는 여성 단수라는 점). 후대 앗슈르 제국의 문서들 중에 ‘주아비(zū-abi 아비에 게 속한 자)’ 또는 ‘주아히(zū-aḫi 형제에게 속한 자)’라는 아랍어 이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메소포타미아 주변부에서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Baker, 2011, p. 1449).

한편 이 이름과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다른 외부 자료가 있으며, 바알라-카바르(^dIM-GAL)의 아들 주-아쉬타르티(Zū-Ašstarti)는 에마르라는 도시의 지배자였다(Huehnergard, 1983, p. 11; Arnaud, 1975, p. 89) 그렇다면 이 이름이 고대 서아시아에서 사용되었고, 심지어 최고 정치 지도자가 쓸 만큼 영예로운 이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자료에 나오는 주-아쉬타르티는 부친의 이름도 분명히 남아 있지만, 이 문서는 부친명을 쓴 부분이 훼손되어 잘 보존되지 못했다. 이름을 쓴 첫째 기호의 머리는 켈기문자 쉐(še)에 가깝고, 이 모양은 어쩌면 임(im)으로 읽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바알라-카바르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

을 가리키는 한정사가 없고, 남아 있는 기호의 흔적이 불분명하여 더 자세한 해석은 추측의 영역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2행

1 4 ^{1d}KUR-AD DUMU ^d10-[...]

1 4 다간-아비, 아다드[...]의 아들

다간-아비(^{1d}KUR-AD)라는 이름도 신을 가리키는 한정사가 붙은 신명(^dKUR)과 ‘아버지’라는 뜻의 일반 명사(AD)인 전형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는 신명 때문에 그 의미를 읽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켈기문자 쿠르(kur)는 원래 ‘땅’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기호인데, 이 기호가 신을 가리키면 시대와 장소에 따라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땅의 신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전통이 전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쿠르(^dKUR)는 라만누(Ramannu)라는 신을 가리키거나 쿠르나(^dKUR-na)라고 써서 샬다나(Šadāna)를 가리킬 수 있다. 쿠르갈(^dKUR.GAL)은 아무루(Amurru) 신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다. 메소포타미아 서쪽 현대 시리아 지역에서 쿠르(^dKUR)는 다간(Dagan)이라는 신을 가리킬 수도 있다(Fleming, 2001, p. 43; Crowell, 2001, p. 43). 결국 이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한 가지로 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제1행에 주-아쉬타르티가 서쪽 지역에서 잘 알려진 이름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다간 신이 내 아버지이다’라는 뜻의 ‘다간-아비’라고 읽기로 한다.

부친의 이름은 역시 훼손되어 다 남아 있지 않은데, 현재 보이는 부분은 신을 가리키는 한정사와 켈기문자 우(u) 정도이다. 이 두 기호가 신명이라면 숫자(^d10)로 읽고 아다드(Adad)로 이해할 수 있으나, 달디(Daddi = ^dU.U) 또는 네르갈(Nergal = ^dU.GUR)이라는 이름의 일부일 가능성도 있다.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기호를 기준으로 이름 앞 부분이 아다드로 시작한다고 읽는다.

3행

1 4 ¹el-la-ti-KUR ¹aḫ-lá-mu

1 4 엘라티-다간, 아홀라무(의 아들)

엘라타-다간(¹el-la-ti-KUR)은 ‘순수하다’ 또는 ‘분명하다’는 뜻의 엘루(*ellu*)라는 악카드어 낱말(여성 단수형)과 신명 쿠르(KUR)로 구성되었다고 이해하고 읽은 것이다. 첫째 낱말이 여성형이라면 이 이름의 주인이 여성이 되어야 자연스러운데, 이런 경우 인명을 가리키는 한정사로 1(¹)이 아니라 무누스(^{MUNUS})를 써야 한다. 신명은 위에서 다간이라고 읽은 바 있으나, 이 이름에 신을 가리키는 한정사를 적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를 무릅쓰고 엘라타-다간으로 읽으면 ‘다간 신의 순수한 여자’라는 뜻이 된다. 만약 첫째 낱말의 모음을 엘리티(*eliti*)로 고쳐 읽는다면 ‘다간 신의 귀한 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나(악카드어 명사 *elitu* 사용), 본문과 다른 읽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엘라타-다간이라는 읽기는 확실하지 않다.

부친 명은 아흘라무(¹ah-lá-mu)인데, 이 말은 악카드어 명사(*ablamû*)로 아람 사람을 가리킨다. 즉 메소포타미아 서쪽 지역에서 중심부로 이주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메소포타미아 원주민 입장에서 보면 외부에서 이주한 사람이라고 멸시하는 의미가 담긴 낱말인데, 이주민들은 이 말이나 이와 비슷한 말(*amurru*)을 조롱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어쨌든 이름의 뜻이 분명하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드문 이름이다.

4행

1 4 ¹IM-ri-^dKUR DUMU še-[...]

1 4 샤리-다간, [...]의 아들

첫째 이름(¹IŠKUR/IM-ri-^dKUR)을 전형적인 구조에 따라 읽자면 뒤에 신명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일반 명사나 동사에 해당하는 낱말이 나와야 옳다. 그런데 인명을 가리키는 한정사 다음에 나오는 첫째 낱말은 어표(IŠKUR)로 바람과 비의 신을 가리킨다. 만약 이런 읽기가 옳다면 이름의 뜻은 ‘이쉬쿠르가 다간이다’ 또는 ‘다간이 이쉬쿠르이다’라는 문장이 될 것이며, 슈메르 시대부터 슈메르 사람들이 섬기던 풍우의 신 이쉬쿠르와 메소포타미아 서쪽 지역의 신 다간을 동일한 신존재라고 선포하는 신학적인 언설이 된다. 고대 서아시아에서 이렇게 신적인 능력이 같지만 다른 시대나 지역에서 다른 이름으로 섬기던 신존재들을 동일시 하는 혼합주의 경향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 이름이 이런 종교전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일까?

그런데 첫째 낱말에 신을 가리키는 한정사가 없고 바로 다음에 음절 기호(ri)가 따라오며 첫째 기호를 ‘리’로 끝나도록 읽으라고 지시하는 상황에 주목한다면, 첫째 낱말이 신의 이름

이 아니라 일반명사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낱말은 ‘바람’이라는 뜻의 샤루(*šaru* = IM)가 될 것이며, 이름은 ‘다간 신이 나의 바람이다’라는 뜻의 샤리-다간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종교 전통에 관한 이론적인 주장을 이름에 담는 것은 서아시아 문화와 잘 어울리지 않으므로 후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부친의 이름은 첫째 기호 셰(še)만 보이므로 제1행의 부친명처럼 확실하게 재구성할 수 없다. 정확하게 읽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제1행과 4행의 부친명이 같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주-아쉬타르티와 샤리-다간은 형제지간이 될 것이다.

5행

[1] 4 ¹IŠKUR-^d20 DUMU ḥat-ti-[...]

[1] 4 샤리-샤마쉬, 핫티[...]의 아들

제5행의 첫째 이름(¹IM-^d20)은 제4행의 첫째 이름과 구조가 같다. 뒤에 나오는 낱말(^d20)이 신명이고 태양의 신 샤마쉬(*šamaš*)를 가리킨다. 첫째 낱말은 제4행에서 길게 설명한 어표(IŠKUR/IM)이고 신명과 일반 명사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읽으면 이 이름은 ‘샤마쉬 신이 바람이다’라는 뜻의 ‘샤르-샤마쉬’가 될 것이며,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샤마쉬 신이 나의 바람이다’라는 문장으로 보고 ‘샤리-샤마쉬’를 줄여서 쓴 형태로 볼 수도 있다.

부친의 이름은 역시 전체가 다 남아 있지 않고 췌기문자 두 개만 보인다(*ḥat-ti*). 악카드어 낱말 할투(*ḥattu*)는 히타이트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었고, 현재 할티(*hatti*)라고 쓴 것은 출신을 가리키는 어미(i)가 붙어서 ‘히타이트 사람’이라는 뜻으로 썼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히타이트 사람의 아들 샤리-샤마쉬가 될 것이다. 그러나 5행 끝이 훼손된 곳에 다른 기호가 더 있었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가능성으로 췌기문자를 할티(*ḥat-ti*)라고 읽으면 왕의 규를 가리키는 할투(*ḥattu*)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할티는 ‘나의 규’라는 뜻이 될 것이며, 뒤에 신명이 따라 나오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른 이름들이 메소포타미아 서쪽 지역과 관련이 있으므로 첫 번째 읽기를 따르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6행

[1] 4 ¹a-bi-la-[...] DUMU maš-ḥa-[...]

[1] 4 아비라[...], 마쉬하[...]의 아들

첫째 이름(¹a-bi-la-[-...])로 전체 형태가 모두 보존되지 않았다. 첫째 낱말은 아비(a-bi)이며 ‘아버지’라는 명사(*abu*)에서 나온 말이다. 둘째 낱말은 라(la)라는 음절로 시작하지만 전체 형태를 알 수 없다. 잘 알려진 이름 중에 아비-라림(*Abi-larīm* ‘아버지가 높임을 받으시기’)이라는 이름도 있고, 같은 구조로 아람어의 기원법을 사용한 서술어를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 훌륭한 이름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둘째 이름도 췌기문자 두 개만 보존되었는데(*maš-ḥa-[-...]*), 이를 기초로 이름을 재구성하기는 어렵다. 악카드어 낱말 중 이 기호로 시작하는 명사는 그릇이나 도구 이름이 많이 있고, 심지어 우리말 희생양에 해당하는 ‘대신 죄를 속하는 염소’라는 말(*mašḥulduppū*)도 있다. 그러나 이 중에 어떤 것을 이름으로 사용하는 관례는 찾기 어렵다. 이 낱말이 아람어 등 서셈어에 속한다면 어떤 액체를 ‘붓다’는 뜻의 마샤ḥ(*mašah*)가 적당하겠지만, 이 낱말 역시 이름으로 쓰기에 부적절하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낱말에서 나온 ‘마쉬아ḥ(*mašiah*)’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즉 구세주를 가리키는 호칭이 된다. 고대 인명으로 사용된 예가 없다.

7행

[1] 4 ^{1d}30-a-bu [-...]

[1] 4 썬-아부 [-...]

썬-아부(^{1d}30-a-bu)라는 이름은 달의 신 썬(*Sin* = ^d30)의 이름과 아버지라는 뜻의 일반 명사(*abu*)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이름이며, ‘썬 신이 (내) 아버지이다’라는 고백으로 읽을 수 있다. 다른 문서에도 등장하는 꽤 유명한 이름이다(Baker, 2002, p. 1112). 부친의 이름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뒷면(Rev.)

9행

[1] 4 ¹ia-di-^dKUR ŠEŠ [-...]

[1] 4 야다-다간, [-...]의 형제

야다-다간(¹ia-di-^dKUR)이라는 이름은 ‘알다’는 뜻의 동사에서 나온 서술어(*ia-di*)와 신명(^dKUR)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동사는 ‘알다’는 뜻으로 널리 사용되며(악카드어 *edû*, 서셈어 *yadaš*), 현재 형태는 ‘야다’이기 때문에 동사의 수동태 분사형으로 보인다. 신의 이름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간 신을

어표로 쓴 것이다. 그렇다면 ‘다간 신에게 알려진 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다간 신이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동사를 쓰고 신명 부분이 다른 이름들이 다른 문서에도 여럿 등장한다(Baker, 2000, pp. 486-487).

야다-다간 뒤에는 부친 명 대신 형제의 이름이 따라오는데, 이것은 그리 흔치 않은 현상이다. 아마도 그의 형 또는 동생이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 이름은 훼손되어 남아 있지 않고, 두 이름 사이에 관계를 설명하는 낱말(*šeš*)만 보존되었다.

10행

1 4 ¹en-^dšeš-šu DUMU [-...]

1 4 바알-아히슈, [-...]의 아들

첫째 이름(¹en-^dšeš-šu)은 일반 명사와 신을 가리키는 한정사가 붙은 신명으로 구성된 간단한 이름처럼 보인다. 그런데 해석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먼저 신의 이름부터 보면 한정사 뒤에 나오는 췌기문자(*šeš*)가 너무 잘 알려진 기호인데도 불구하고 어표인지 일반 명사인지 결정하기 어렵다. 신의 이름이라면 당연히 어표로 읽어야겠지만, 이 어표(^dŠEŠ)를 이름으로 쓰는 신은 없다. 달의 신 썬을 슈메르어 풍으로 쓰면 난나(*Nanna*)가 되고 이 이름은 쉼쉬가 들어간 혼합된 형태(*ŠEŠ.KI*)로 표기하지만, 위의 본문에는 뒷부분(*KI*)이 나오지 않는다. 이 기호를 일반 명사로 읽으면 ‘형제’를 가리키는 아후(*abu*)가 되는데, 메소포타미아에 이런 신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려면, 이 본문이 메소포타미아 본토가 아닌 지중해 동부 해안 지역에서 썼고 이 곳의 전통에 따라 ‘신적인 형제’를 섬겼다고 가정해야 한다. 특히 이름 제일 뒤에 인칭 어미로 보이는 기호(*šu*)가 첨가되어 있어서, 신명이 일반 명사라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읽으면 ‘그의 신적인 형제’라는 뜻이 될 것이다. 형제라는 명사를 신명처럼 사용하는 관행은 잘 알려져 있고 히브리 성서에도 비슷한 경우가 나온다. 앞에 나온 췌기문자 기호를 어표(EN)로 읽으면 일반 명사로 ‘주인’이라는 뜻이며 악카드어로 벨루(*bēlu*)라고 읽는다. 이렇게 볼 경우 ‘그의 신적인 형제가 주인이다’라는 문장이 완성되는데(벨루-아히슈), 두 요소가 모두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어색하게 들리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자면 ‘주인’이라는 말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마르둑 신을 부르는 호칭이고, ‘그의 신적인 형제가 마르둑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지중해 동쪽 해안 지역에서 ‘주인’은 바알

(bašalu)라고 부르며, 이 말은 호칭일 뿐만 아니라 바알이라는 신명이기도 하다. 이렇게 읽으면 ‘그의 신적인 형제가 바알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두 경우가 모두 첫째 췌기문자를 일반 명사가 아니라 호칭이나 신명으로 읽었는데, 신을 가리키는 한정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읽기가 적절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앞에 나온 이름들을 볼 때 이 문서가 메소포타미아 서쪽 지역에서 기록되었다고 전제하면, 바알-아히슈 정도로 읽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짐작해 본다. 부친의 이름은 남아 있지 않다.

논의

이 문서에 남아 있는 내용이 문서를 기록한 시대나 장소에 관해 직접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해석 관점을 잡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름들 중에서 분명히 메소포타미아 서쪽 지역 즉 지중해 동쪽 해안과 내륙 지역과 관련된 이름들이 있고 (주-아쉬타르티, 아홀라무, 할티), ‘다간’ 신이나 신적인 ‘형제’를 섬겨서 이름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악카드어가 아니라 아람어 문법을 원용할 뿐만 아니라, 점토판을 좌우로 길게 놓고 쓰는 문서 기록 방식을 놓고 볼 때 현대 시리아 지역에서 작성된 유물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주-아쉬타르티라는 이름은 고대 도시 에마르(Emar)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 보자.

고대 도시 에마르(é-mar)는 현대 시리아 할라브 주에 있는 텔 메스케네(Tell Meskene)로 확인되었다. 기원전 14세기 후반부터 기원전 12세기 초반에 작성한 췌기문자 문서 800여 점이 메스케네 발굴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이 중 일부는 히타이트어(히타이트 왕의 편지나 징조 보고서) 또는 후르리어(징조 보고서)로 작성하였지만, 대부분 슈메르어와 악카드어로 썼다. 슈메르어와 악카드어 문서들 중 경제 문서가 약 150점(간단한 메모나 다양한 물품 목록들), 입양이나 매매(농토, 주택, 과수원, 노예), 유언, 소송 등을 기록한 법률 문서가 약 200여건, 그리고 편지(약 20건)가 있다. 내용과 관련해서 문서와 문서 조각들 약 200여개가 엔투(entu) 여사제와 마샤르투(mašartu) 여사제의 즉위식, 키쭈(kissu ‘왕좌’?)와 주크루(zukru) 의식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독특한 종교 관례들을 묘사하고 있다. 에마르 기록 보관소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고전적 작품으로 전하는 본문들도 많이 보관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다양한 징조와 주문 모음집 뿐 아니라 다양한 낱말 모음집

도 있었다. <길가메쉬 서사시>의 일부, <위성류 나무와 대추야자 나무의 논쟁>, 그 외 지혜문학 문서들을 확인한 것도 의미가 크다.¹

에마르와 그 주변 지역에서 기록한 문서의 철자법과 문법은 서아시아 주변지역의 악카드어, 특히 알랄라(Alalah), 하투사(Hattusa), 우가릿(Ugarit) 등 시리아 북부 지역의 방언과 비슷했다. 음운론과 형태론은 본질적으로 중바빌리 방언이지만, 앗슈르 방언과 북서 셈어의 특징, 그 외 다른 특징들이 자유롭게 혼합되어 있다. 에마르에서 발견된 악카드어 문서에는 이전 시대나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표현과 어휘들이 나온다. 특별한 낱말들 중 북서 셈어에서 유래한 말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예를 들어 dābiḫu ‘제사를 드리는 자’, ḥud(d)ātu ‘갱신’, ḥamru ‘포도주’ 등). 사람 이름에 북서 셈어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1970년대 초까지 에마르 시는 마리(Mari), 누지(Nuzi), 우가릿(Ugarit)의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통해 정치적 또는 상업적 접촉을 가졌던 도시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1971년 중세 도시 발리스(Balis) 유적 발굴과 1972년 유프라테스 유역 긴급구조발굴 기간 중 우연히 석판을 발견하면서 텔 메스케나가 고대 도시 에마르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1972년과 1976년 사이에 여섯 차례의 발굴을 통해 후기 청동기 시대 도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간단하게 이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자. 에마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에블라(Ebla) 기록 보관소가 발견된 이후 기원전 2500년경 에마르 왕국이 존재했음을 언급한 문서가 나왔고, 왕들의 이름 네 개 정도를 복원할 수 있었다. 이들은 에블라의 여왕과 여러 문헌에 함께 언급되어 있어서 두 도시 사이에 왕조 동맹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지배자들은 옷과 귀금속 등 여러 물품을 주고 받았고, 이런 과정에서 상인들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에마르는 에블라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투툴(Tuttul)은 마리 지역에 속했다는 주장도 있다.

마리 왕국의 야흐둔림(Yahdun-Lim)부터 짐리림(Zimri-Lim)에 이르는 기간 동안 마리 기록보관소가 당시의 문서를 보관한 덕분에 기원전 18세기에 에마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이 도시는 암하드, 카르나, 카르케미쉬와 함께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서쪽 지역의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다. 그러니까 에마르는 동쪽으로 메소

¹ 메스케네의 공식 발굴에서 발견된 문서 외에 주변 지역에서 발견된 점토판들도 약 60개에 이른다. 1970년대 프랑스 연구진이 발굴을 마친 뒤 이 유적지는 관리자 없이 방치되었고, 1992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도굴의 대상이 되었다. 도굴을 통해 골동품 상점에 나온 토판들도 약 300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한다.

포타미아 그리고 서쪽으로 아나톨리아와 시리아를 잇는 중계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상업적인 중요성 이외에 주요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에마르는 주변 지역 왕들에게 조공을 바쳤는데(아마도 알레포와 마리와 카르케미쉬의 왕), 이는 에마르의 자치권에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지역의 정치 체제는 매우 특이한데, 왕이 원로들과 그들의 위원회와 권력을 분점했으며, 이런 위원회 제도는 기원전 2000년 이전부터 이 지역에서 계승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후기 청동기 시대가 되면 우가리트(Ugarit) 문서와 누지(Nuzi) 문서에 언급된 내용과 함께 1972년부터 1976년 사이에 에마르 현장에서 진행된 발굴을 통해 발견한 문서 수백 점을 기초로 좀 더 정확하게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발굴 결과 도시 중심 지역에서 지역 왕의 궁전인 힐라니(hilani), 가장 높은 지점에 지은 바알과 아쉬타르투 신전, 개인 기록 보관소가 있는 개인 주택, 그리고 또 다른 사원과 폐허 속에 묻힌 점술가의 도서관을 발견했다. 현장 발굴 작업 중에 고바빌리 시대의 점토판도 하나를 찾았으나 그것을 제외한 모든 명문 자료는 히타이트의 무르실리 2세(Mursili II, 재위. 기원전 1339-기원전

1295년경) 통치 말기 히타이트 지배 하에 있던 도시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기원전 14세기 말에서 기원전 1187년 사이에 에마르 왕조는 약 3세대에 걸쳐 당시 히타이트 제국 속주의 일부였으며, 실제로 독립적인 정체가 아니었다.²

따라서 수집된 문서는 기원전 14세기에 히타이트 지배 밑에서 오랫동안 주도적인 경제적 역할을 해 온 북부 시리아의 고대 도시 사이에 형성된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마르는 카르케미쉬 왕국 밑에 그리고 카르케미쉬는 당시 제국의 중심지였던 하투사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 왕 권은 토착 가문이 행사했는데 그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전차 부대장’이라는 장군이 주관하는 히타이트 지방 지역에 종속되어 있었다. 원로 위원회 또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 기록된 문서들은 대부분 사법, 공증, 또는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국제 사회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어서, 당시 에마르가 처해 있던 종속 관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위에서 살펴 본 유물이 쐐기문자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쪽 지역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반영하고 있는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윤성덕(연세대학교)

² 기원전 1187년은 바빌리의 멜리-쉬팍 2세의 제2년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청동기 시대의 몰락이라고 부르는 기원전 12세기의 파괴충을 가리킨다.

참고문헌 (References)

- Arnaud, D. (1975). Les textes d'Emar et la chronologie de la fin du Bronze récent. *Syria*, 52, 87-100.
- Baker, H. D. (Ed.). (2000). *The Prosopography of the Neo-Assyrian Empire* (Vol. 2/I). Helsinki: The Neo-Assyrian Text Corpus Project.
- Baker, H. D. (Ed.). (2002). *The Prosopography of the Neo-Assyrian Empire* (Vol. 3/I 1112). Helsinki: The Neo-Assyrian Text Corpus Project.
- Baker, H. D. (Ed.). (2011). *The prosopography of the Neo-Assyrian Empire* (Vol. 3/II). Helsinki: The Neo-Assyrian Text Corpus Project.
- Crowell, B. L. (2001). The development of Dagan: A sketch. *Journal of Ancient Near Eastern Religions*, 1(1), 32-83.
- Fleming, D. E. (1994). "The Mountain Dagan: 𒌷KUR and 𒌷KUR.GAL," *N.A.B.U.*, 1994(16), 17-18.
- Huehnergard, J. (1983). Five tablets from the vicinity of Emar. *Revue d'Assyriologie et d'archéologie orientale*, 77, 11-43.





논고

Essays



Section 3

1

논 고

췘기문자의 지역적 변천과정

유 성 환

단국대학교 고대문명연구소

I 췘기문자의 기원과 확산

1. 췘기문자의 기원
2. 췘기문자의 기원과 국지적 확산

II 슈메르어 췘기문자 체계의 국제적 확산

1. 슈메르어 췘기문자의 약카드어 표기
2. 췘기문자 체계의 엘람어 표기
3. 췘기문자 체계의 히타이트어 표기
4. 췘기문자 체계의 국제적 활용사례-‘아마르나 외교서신’
5. 췘기문자의 간략화-우가릿 문자와 페르시아

“쐐기문자”라는 용어는 기원전 3500년경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슈메르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 고안하고 사용했던 문자의 모양이 쐐기처럼 뾰족하고 각진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쐐기문자는 슈메르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고대 근동 전역으로 전파되어 아카드어(Akkadian), 에블라어(Eblaite), 엘람어(Elamite), 후르리어(Hurrian), 히타이트어(Hittites), 팔리어(Palaic), 루위어(Luwian), 우르라투어(Urartian), 우가리트어(Ugarite), 고대 페르시아어(Old Persian) 등 슈메르어와는 다른 아시아어족(셈어족)과 인도-유럽어족의 언어 등 약 15개 언어를 표기하는 데 두루 채택되었다.

쐐기문자는 또한 기원후 1세기에 이르기까지 3,000년 넘게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대개는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표면이 부드러운 점토판에 문자를 기입하는 방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휴대는 쉽지만, 내구성이 떨어지는 파피루스를 사용했던 인근의 이집트 문명과는 달리 수많은 문서가 양호한 상태로 보존될 수 있었다.

우루크 3기(Uruk III, 혹은 쟈멧 나즈르 시대/Jemdet Nasr, 기원전 3100년경)에는 같은 슈메르어를 사용했던 우르(Ur), 라가쉬(Lagash), 움마(Umma), 슈루팍(Shuruppak)과 같은 도시국가로 확산되어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와 함께, 키쉬(Kish), 마리(Mari), 에블라(Ebla)와 같은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들도 쐐기문자 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교역 등을 통해 도시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문자문화가 교역로를 타고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초기왕조 시대 말기(Early Dynastic IIIb, 기원전 2600-기원전 2350년) 무렵 쐐기문자는 단순한 행정문서나 서신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성언어를 완전히 재현함으로써 언어 정보를 시각적으로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독자적인 문자체계로 발전했다. 특히 도시국가 간의 갈등과 경쟁이 격화되면서 문자체계의 사용범위는 단순히 경제-행정적 영역을 넘어 정치-종교적 영역까지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신화, 찬가, 애가, 서사시, 지혜서 등을 망라하는 문학 작품들도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남북 메소포타미아를 통합한 사르곤의 아카드 왕조가 중앙집권 정책을 강화하면서 슈메르어를 표기하기 위해 발명되었던 쐐기 문자 체계가 아카드 왕조의 고유어인 아카드어를 기록하는데에도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과정은 쐐기문자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문자가 다수의 음가를 가지는 다가음多價音(polyphony) 기호와 서로 다른 문자가 같은 음가를 갖는 동음同音(homophony)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법의 유연성을 높였다.

히타이트 왕국(Hittite Empire, 기원전 1650-기원전 1180년경)은 오늘날의 튀르키예 동부에 위치한 아나톨리아(Anatolia) 평원을 근거지로 삼았다. 아나톨리아에 쐐기문자 체계를 전수한 사람들은 기원전 19세기부터 아시리아 본토에서 시리아 북부를 거쳐 아나톨리아를 왕복하며 주석과 직물을 거래했던 아시리아 상인들이었다. 아시리아 상인들에 의해 오래전에 이미 전래된 바 있는 쐐기문자 체계를 왕국의 공식적인 문헌 작성에 도입한 인물은 히타이트 통일왕조를 수립한 하투실리 1세(Hattusili I: 기원전 1650-기원전 1620년 재위)였다. 결과적으로 법전과 조약문, 왕실의 연대기, 신화와 서사문학 작품, 의례문 등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가 쐐기문자로 작성되었다.

한편, 수천 년 간 독자적인 문자체계를 사용해왔던 이집트인들은 외교 서신을 작성하기 위해 아카드어에 기반한 쐐기문자 체계를 채택했는데, 이렇게 작성된 외교 서신을 ‘아마르나 외교서신’이라고 통칭한다. ‘강대국 클럽(Club of the Great Powers)’에 속한 일원으로서 이집트는 당시 통용되던 국제적 규범에 따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외교적 위상을 유지하고자 했다.

우가리트 문자는 기원전 14세기경, 현재 시리아 북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했던 고대 도시국가 우가리트(Ugarit, 오늘날의 라스 샴라/Ras Shamra)에서 발견된 문자다. 우가리트 문자는 외형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되던 쐐기문자와 유사했지만, 그 구조와 원리는 쐐기문자 체계와는 완전히 달랐다. 메소포타미아의 쐐기문자 체계가 수백 개의 문자로 구성된 표의문자나 표음문자(음절문자)의 집합체였던 것과는 달리, 우가리트의 문자체계는 불과 서른 개의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어 글자 하나가 하나의 소리(음소)를 나타내는 알파벳이었던 것이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쐐기문자는 주로 다리우스 1세(Darius I, 재위. 기원전 521-기원전 486년)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백 개의 복잡한 기호로 구성된 메소포타미아의 쐐기문자 체계와 달리 아케메네스 왕조의 쐐기문자는 총 36개의 표음문자와 5개의 표의문자, 그리고 단어를 구분하는 기호로 구성되었다. 표음문자는 음절문자의 성격을 강하게 띄는데, 이런 특징은 자음만을 표기하는 우가리트의 알파벳과 대비된다.

I. 쐩기문자의 기원과 확산

1. 쐩기문자의 기원

“쐩기문자”라는 용어는 기원전 3500년경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슈메르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 고안하고 사용했던 문자의 모양이 쐩기처럼 뾰족하고 각진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한자어로는 “설형문자(楔形文字)”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사용된 “설형”이라는 용어 역시 “쐩기 모양”을 의미한다.

슈메르인들은 자신의 문자체계를 GAG, GU.ŠUM₂, SANGTAK 등으로 불렀는데,¹ 이들은 “쐩기 모양의 단단한 것,” “쐩기형 도구,” “쐩기형 물체” 등을 뜻한다. 이를 통해 슈메르인들도 그들이 사용하는 문자가 쐩기 모양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쐩기문자는 슈메르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고대 근동 전역으로 전파되어 악카드어(Akkadian), 에블라어(Eblaite), 엘람어(Elamite), 후르리어(Hurrian), 히타이트어(Hittites), 팔리어(Palaic), 루위어(Luwian), 우르라투어(Urartian), 우가리트어(Ugarite), 고대 페르시아어(Old Persian) 등 슈메르어와는 다른 아시아어족(셈어족)과 인도-유럽어족의 언어 등 약 15개 언어를 표기하는 데 두루 채택되었다.

쐩기문자는 또한 기원후 1세기에 이르기까지 3,000년 넘게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대개는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표면이 부드러운 점토판에 문자를 기입하는 방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휴대는 쉽지만, 내구성이 떨어지는 파피루스를 사용했던 인근의 이집트 문명과는 달리 수많은 문서가 양호한 상태로 보존될 수 있었다.

2. 쐩기문자의 기원과 국지적 확산

쐩기문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그림문자는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탄생했다. 이와 같은 그림문자가 고안된 목적은 곡물, 가축, 인력 등과 같은 소유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파악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이들 그림문자는 물표나 인장 등에 사용되다 일정한 표준화를 거쳐 문자체계로 진화하게 되었다.

1) 쐩기문자의 등장과 제한적 확산

역사상 가장 오래된 원형 쐩기문자 점토판은 메소포타미아의 초기 도시국가 중 하나인 우루크(Uruk, 오늘날 이라크의 와르카/Warka)의 신전구역인 에안나(Eana)에서 출토되었다. 학자들은 쐩기문자 체계가 우루크에서 발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기원전 4천년기 우루크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도시국가의 발전을 주도했던 문명의 중심지였다.

후기 우루크 시대(Late Uruk Period: 기원전 3350-기원전 3100년경)로 접어들면서 우루크는 빠른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2.5평방 킬로미터 규모로 확장되었으며, 거주민의 수 역시 20,000-50,000명에 달했다. 빠른 도시화와 함께 정치적, 경제적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거래 기록, 곡물이나 가축의 생산량과 재고, 세금의 징수 등과 관련하여 인간의 기억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정교한 관료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쐩기문자 체계가 등장했는데(Michalowski, 1994, p. 96), 1,000개가 넘는 기호들이 점차 줄어들고 표준화되면서 점토에 쐩기 모양으로 눌러 찍는 표기 방식이 자리 잡았다. 당시 문자의 전파는 우루크에 종속되었던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하부바 카비라(Habuba Kabira), 하지네비(Hacinebi), 텔 브락(Tell Brak)과 같은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문자문화를 접한 지역들 역시 우루크를 비롯한 일부 중심지의 전문 서기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2) 쐩기문자 체계의 광역적 확산

우루크 3기(Uruk III, 혹은 쟈멧 나즈르 시대/Jemdet Nasr, 기원전 3100년경)에는 같은 슈메르어를 사용했던 우르(Ur), 라가쉬(Lagash), 움마(Umma), 슈루팍(Shuruppak)와 같은 도시국가로 확산되어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와 함께, 키쉬(Kish), 마리(Mari), 에블라(Ebla)와 같은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들도 쐩기문자 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교역 등을 통해 도시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문자문화가 교역로를 타고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도시국가 내부의 행정체계가 정교해짐에 따라 쐩기문자 체계의 표준화가 진행되었으며, 문해력과 문서 생산 능력을 갖춘 서기관에 대한 교육과 관리 시스템이 수립되었다. 이런

1. 학계의 관례에 따라 슈메르어의 음역은 대문자로 처리했으며, 악카드어를 비롯한 나머지 언어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했다.

확산의 패턴에 근거하여, 과거 학계에서는 켈리문자 체계가 다 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사르곤이 악카드 왕조(Akkadian Empire, 기원전 2334-기원 전 2279년경)를 수립하기 전까지는 켈리문자 체계가 고립어 인 슈메르어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후 악카드 왕조 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켈리문자 체계가 슈메르어와 함께, 아 시아어족에 속하는 악카드어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 었다. 그러나 악카드 왕조가 붕괴한 후 우르 제3왕조(Ur III, 기 원전 2100-기원전 2003년경)가 들어서면서 슈메르어가 다시 왕조의 공식 언어로 채택되었지만, 이후 바빌리 고왕국(Old Babylonian Empire, 기원전 1894-기원전 1595년경)으로 접 어들면서 켈리문자 체계는 다시 쉼어를 위한 문자로 자리 잡았 고, 우르 제3왕조에 사용되었던 다소 인공적인 슈메르어 문어 체는 일종의 문화어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가정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는데, 그 강력한 증거로는 『에블라 문서(Ebla Tables)』를 들 수 있다. 오늘날의 시리아에 위치한 텔 마르 디크(Tel Mardik) 유적에서 1,800개에 달하는 점토판과 4,700개에 달하는 점토판 파편이 출토되었다. 이들 점토판은 특정 분류체계에 따라 일정한 순서로 배치된 채 건물의 바닥 에서 발견되었다. 아마도 문서 보관소에 정렬되어 있던 점토판들이 나무로 만든 선반이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그대로 내 려왔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에블라 문서』 - 켈리문자 체계의 유연한 적응성의 첫 번째 증거

대부분이 행정문서와 외교기록인 『에블라 문서』의 작성 시기는 기원전 3천년기 중반에 해당하는 기원전 2500-기원 전 2250년이며, 남부 메소포타미아를 제외하면 가장 이른 시 기의 문자기록에 속한다. 이들 문서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 은 이들 중 일부에는 슈메르어뿐만 아니라 아시아어족에 속 하는 에블라어의 표기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에블라 문서』에 속하는 전체 토판 중 80퍼센트는 경제-행정 문서로서 직물의 생산이나 금속의 교역, 토지의 분배나 개인적 거래에 관한 내용으로 밝혀졌다. 이들 텍스트 그룹의 어휘 중 약 80퍼센트는 슈메르어이며 대부분은 명사, 동사, 형 용사다. 반면, 나머지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에블라어의 어휘 는 표음적 방식을 차용했다. 요컨대, 현재의 서기관들은 이들 어휘를 표기하기 위해 슈메르어 켈리문자 중 일부를 표음문

자로 전환하여 사용했던 것이다. 표음적으로 표기된 단어의 경우 전치사, 대명사, 접속사 등과 같은 기능어가 대부분을 차 지하며, 에블라어 인명도 일부 발견된다.

에블라어가 악카드어나 아모리어(Amorite), 히브리어 (Hebrew)와 같은 아시아어족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 어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에블라 문서』 중 에블라어로만 작성 된 토판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실용적이지 않은 시 가詩歌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편, 메소포타미아의 서기 관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어휘목록의 작성관 례에 따라 슈메르어와 에블라어 어휘를 대조해 놓은 토판 또 한 발견되지만, 에블라의 서기관들은 자신들에게 친숙한 슈 메르어 단어는 에블라어와 굳이 병기하지 않았다.

고립어에 속하는 슈메르어의 문자체계를 변형하여 에블 라어의 일부 기능적 품사와 인명을 표기했다는 것은 이후 악 카드어, 히타이트어, 우가리트어의 표기에 켈리문자 체계가 도 입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의 전조로서, 메소포타미아 문자문화 의 초창기부터 켈리문자 체계가 단순히 하나의 언어를 위한 문자체계가 아니라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슈메르어 외의 다 른 언어에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적응성이 뛰어난 문화 적 행정적 기술이었으며, 이중 언어 및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전통이 문자 시대의 여명기부터 일찍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4) 왕권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기념비적 켈리문자 텍스트의 등장

초기왕조 시대 말기(Early Dynastic IIIb, 기원전 2600-기원전 2350년) 무렵 켈리문자는 단순한 행정문서나 서신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성언어를 완전히 재현함으로써 언 어 정보를 시각적으로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독자적인 문 자체계로 발전했다. 특히 도시국가 간의 갈등과 경쟁이 격화 되면서 문자체계의 사용범위는 단순히 경제-행정적 영역을 넘어 정치-종교적 영역까지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신화, 찬가, 애가, 서사시, 지혜서 등을 망라하는 문학 작품들도 이때부 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우루크의 동쪽에 위치한 라가쉬 (Lagash)의 에안나툼(Eannatum, 재위. 기원전 2450년경)과 같은 도시국가의 왕들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신전에 대한 봉 헌 등 자신의 치적을 기록했는데, 이웃 국가인 움마(Umma) 와의 국경분쟁을 묘사한 『독수리 석비』(Stele of Vultures)는 이 시대의 문자문화와 도상을 함께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 이라 할 수 있다(그림 1).



그림 1. 독수리 석비 부분, 기원전 2450년(고대왕조 예안나툼), 기르수 (Girsu) 발견
전체크기 180cm×130cm×11cm,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 2024 Musée du Louvre, Dist. GrandPalaisRmn / Stéphane Maréchal

꽤기문자 체계가 남부 메소포타미아 전역으로 확산된 과정은 단순히 문자체계가 전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 도시국가에서 다른 도시국가로 고도의 정교한 문화적 성취라 할 수 있는 문자체계가 전파되었다는 것은 정치적 지배, 경제적·행정적 필요, 문자가 가진 고유한 실용성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발생하는 복합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II. 슈메르어 꽤기문자 체계의 국제적 확산

1. 슈메르어 꽤기문자의 아카드어 표기

남북 메소포타미아를 통합한 사르곤의 아카드 왕조가 중앙 집권 정책을 강화하면서 슈메르어를 표기하기 위해 발명되었던 꽤기문자 체계가 아카드 왕조의 고유어인 아카드어를 기록하는데에도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과정은 꽤기문자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1) 어족의 차이에 따른 표기법의 문제

우선 슈메르어는 교착어膠着語(agglutinative language)로 음운적 복잡성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아카드어는 아시아어족에 속하는 언어로서 변하지 않는 자음을 두고 명사, 형용사, 동사 등과 같은 품사가 복잡하게 어형변화를 하는 굴절어屈折語(inflexional language)다. 삼중근三重根(three

radicals)으로 구성된 아카드어 동사 *parāsum* “나누다”를 예로 들면, *iprus* “그는 나누었다,” *iparras* “그는 나눈다,” *iptaras* “그는 나누어 버렸다” 등과 같이 삼중근 사이의 모음 변화와 특정 자음의 첨음화疊音化(gemination), 접사의 삽입을 통해 수와 성에 따라 어형변화한다.

이처럼 슈메르어와 아카드어가 본질적으로 다른 언어라는 사실은 슈메르어의 표의문자가 아카드어를 표기하는 데 그리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슈메르어 꽤기문자 체계를 아카드어를 표음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아카드의 서기관들은 대개 슈메르어의 꽤기문자를 표음문자로 사용했다. 그러나 문장 안에서 아카드어 단어 대신 슈메르어 단어를 사용하거나(예: 아카드어 *māru* “아들” 대신 슈메르어 DUMU “아들”을 사용하는 경우), 슈메르어 단어에 아카드어의 어미를 붙이는 방식으로 아카드어와 슈메르어를 혼용하는 경우(예: 슈메르어 GAL “위대하다”에 아카드어 어미 *-u*를 붙여 *rabû* “위대하다”를 표기하는 방법)도 있었다.

2) 발음의 차이에 따른 표기법의 문제

슈메르어의 표음문자는 아카드어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었다. 슈메르어와 마찬가지로 아카드어 텍스트에는 *a, e, i, u* 네 모음만 사용되는데, 아카드어에는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음 *o*는 슈메르어 표기법의 영향으로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시아어족에는 *b, ḫ, ʕ* 등 세 종류의 성문 마찰음聲門 摩擦音(glottal fricative)이 있지만, 아카드어 표기법에서는 *ḫ*만 발견된다. 이것 역시 슈메르어의 표기법이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한편 아카드어에는 *s, t, q* 등과 같은 강세음強勢音(emphatic sound)과 성문 폐쇄음聲門 閉鎖音(glottal stop) 등이 있지만 기존의 슈메르어 표기법으로는 이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성문 폐쇄음의 경우, 아카드의 서기관들은 새로운 문자를 발명하는 방법으로 대응했지만 불완전한 문자체계에 대한 해결책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달랐다. 결과적으로, *b*와 *p*의 차이, *t*와 *ʔ*의 차이, *g, k*와 *q* 사이의 차이는 일관되게 표기될 수 없었다(Walker, 1987, pp. 15-17; Seri, 2010, pp. 89-93).

3) 맥락 의존적, 다가적 문자체계의 탄생

이러한 한계 때문에 기존의 문자체계로 새로운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자가 다수의 음가를 가지는 다가음多價音(polyphony) 기호와 서로 다른 문자가 같은 음가를 갖는 동음同音(homophony)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법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다다음 기호의 경우, 슈메르어의 켈기문자 DU는 악카드어 텍스트에서 *du, tu, šu* 등으로 읽힐 수 있는데, 서기관들은 음운적, 문법적 맥락을 통해 해당 기호의 올바른 음가를 결정했다. 동음 기호는 같은 음가의 기호끼리 서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특정 단어나 문맥에서 특정 기호가 관습적으로 혹은 수사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특정 단어의 의미 범주를 표시하는 비음운적 결정사決定詞(determinative)는 다다음과 동음 기호로 인해 복잡해진 슈메르어에서 악카드어로 이행하면서 다다음 기호와 동음 기호가 채택됨에 따라 발생한 음가의 모호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기원전 3000년기 후반 이후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켈기문자의 수는 약 600개 정도로 추산되며, 이들 문자의 조합이 표현할 수 음가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정사의 사용, 관습적 표기법, 텍스트의 내재적·외래적 요소를 통해 파악 가능한 문맥의 도움으로 서기관들은 대체로 큰 어려움 없이 기호의 정확한 음가를 확정할 수 있었다.

기원전 18세기경 슈메르어는 구어로서의 지위를 잃고 악카드어로 대체되었지만, 슈메르어 단어 중 일부는 공간의 절약과 같은 편의성을 위해 악카드어 텍스트에 병기되었으며(예: “양”을 표기할 때 표음문자를 조합해야 하는 악카드어 *immeru* 대신 하나의 표의문자로 표현 가능한 슈메르어의 UDU 사용),² 역사적·종교적으로 기념해야 할 사건의 기록에는 메소포타미아 문자문화의 전통에 따라 슈메르어 텍스트가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다.

2. 켈기문자 체계의 엘람어 표기

엘람(Elam)은 메소포타미아의 동쪽에 자리한 자그로스 산맥(Zagros Mountains)과 페르시아만(Persian Gulf) 북부에 걸친 지역으로 중심지는 수사(Susa)였다. 수사는 후기 우루크 시기부터 이미 교역과 문화적 접촉을 통해 문자와 행정기법을 받아들였다. 정치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왕조와 대립했지만, 동시에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와 행정, 경제 분야에서 증대한 문자의 필요성은 이른 시기부터 이 지역에 문자 문화가 전파되고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

1) 초기 차용기(기원전 3천년기 후반)

엘람어는 고페르시아어, 악카드어와 함께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용되던 언어다. 원시 엘람어(Proto-Elamite)를 표기하기 위해 고안된 그림문자는 우루크 3기와 거의 일치하는데, 이런 사실은 엘람 지역의 문자문화가 메소포타미아 중심부의 그것과 비슷한 매우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루크 3기의 켈기문자 체계와 마찬가지로 원시 엘람어 역시 그림문자에서 음성문자(음절문자)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완전히 해독되지는 않았다. 현재 초창기 켈기문자의 그림문자와의 비교 등을 통해 해독을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2) 악카드어 매개기(기원전 23-기원전 22세기)

악카드 왕조 당시 엘람의 서기관들은 경제·행정적 사안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기록할 때 켈기문자 체계를 도입했으나 엘람의 왕 푸주르-인슈쉬나크(Puzur-Inshushinak, 재위. 기원전 2155-기원전 2110년경)은 악카드어와 함께 원시 엘람어의 그림문자에 기반한 선형 엘람문자(Linear Elamite)를 도입했다. (왕실 기록은 고대 근동의 문자문화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중 언어 문자체계에 따라 악카드어와 원시 엘람어로 기록되었으나 현재까지 완벽하게 해독되지 않았다.) 그러나 선형 엘람문자는 단명했으며, 이후 사용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후 60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생산된 문서는 단 네 점을 제외하면 모두 슈메르어 혹은 악카드어로 기록되었다. 슈메르어 켈기문자 체계가 엘람어 환경에 맞게 변용되는 과정은 악카드어 표기에서의 그것과 유사했다. 슈메르어와 달리 엘람어에는 복잡한 자음군이 존재했기 때문에 다가적 문자체계가 도입되었으며, 행정문서에는 슈메르어나 악카드어 단어가 병기되었다(Walker, 1987, pp. 41-42).

3) 켈기문자 체계의 정착기(기원전 2천년기 전반)

바빌리 고왕국의 함무라비(Hammurabi, 재위. 기원전 1792-기원전 1750년경)부터 엘람 중기(Middle Elamite Period, 기원전 1500-기원전 1100년경)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엘람어로 기록된 텍스트가 다시 등장했다. 당시 엘람어

2. 예를 들어, 함무라비 법전 195조의 음역은 다음과 같다: *šum-ma DUMU a-ba-šu im-ta-ḫa-aṣ KIŠIB.LÁ-šu i-na-ak-ki-su*. “만일 아들이 아버지를 때렸다면, 그들이 그의 손을 자를 것이다” 여기서 악카드어 *māru* “아들” 대신 슈메르어 DUMU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국한문 혼용체를 상기시킨다.

텍스트는 소수의 엘람 표의문자와 함께 악카드어 켈기문자 체계의 표음문자를 차용하여 작성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진흙 벽돌과 석재에 새겨진 봉헌문서이며 대개 엘람의 중심 도시인 수사와 인근 두르-운타쉬(Dur-Untash, 오늘날의 초가 잔빌, Choga Zanbil)에서 발견되었다.

4) 신 엘람어 단계(기원전 1천년기)

엘람 지역에서 문자문화의 역사는 2,500여 년에 달하지만, 엘람어로 작성된 문서가 대규모로 발견된 곳은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Achaemenid Persia, 기원전 550-기원전 330년)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Persepolis)였다. 그런데 당시 제국의 공용어는 아람어(Aramaic)였다. 이때 엘람어는 신 엘람어(New Elamite) 단계에 속했는데, 왕실 비문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신 엘람어 단계의 켈기문자 체계는 전기에 비해 더욱 단순화되었으며 일부 음절 기호는 음소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엘람어는 기본적으로 아시아어족에 속하지 않으며 고대 근동의 여타 언어와는 직접적인 친연관계가 없다. 이 때문에 신 엘람어의 해독은 오늘날의 이란 서부 케르만샤주(Kermanshah Province)의 비쉴툰 산의 설명에 새겨진 『비쉴툰 비문(Bisotun Inscriptions)』과 같이 악카드어, 고대 페르시아어, 엘람어가 같이 새겨진 다국어 텍스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3. 켈기문자 체계의 히타이트어 표기

히타이트 왕국(Hittite Empire, 기원전 1650-기원전 1180년경)은 오늘날의 튀르키예 동부에 위치한 아나톨리아(Anatolia) 평원을 근거지로 삼았다. 아나톨리아에 켈기문자 체계를 전수한 사람들은 기원전 19세기부터 아시리아 본토에서 시리아 북부를 거쳐 아나톨리아를 왕복하며 주석과 직물을 거래했던 아시리아 상인들이었다. 이때 벌써 아시리아 상인의 거점이었던 카네쉬(Kanesh, 오늘날 튀르키예의 쿨테페/Kültepe)에서는 악카드어의 북부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리아어(Assyrian) 켈기문자 텍스트가 작성되었다. 상인들이 사용했던 켈기문자 체계는 일부 표의문자와 약 100개 정도의 표음문자(음절문자)로 구성된 비교적 단순한 체계였다.

1) 히타이트 왕국의 언어적 배경

히타이트 왕국은 선주민인 하티인(Hattian)을 복속시키고 아나톨리아 평원을 장악한 히타이트인에 의해 창건되었다.

히타이트인은 코카서스(Caucasus) 산악지역을 통해 아나톨리아 평원으로 진입했는데, 이들 이외에도 조상이 같은 루위인과 팔라인이 각각 남서쪽과 북서쪽에서 이주했다. 히타이트인, 루위인, 팔라인이 사용했던 언어는 모두 인도-유럽어족의 한 분파인 아나톨리아어족에 속했으며, 히타이트어(혹은 네쉬어/Neshite), 루위어, 팔라어로 세분된다. 이들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도-유럽어족으로 알려져 있다.

2) 히타이트 왕국의 켈기문자 채택 과정과 결과

아시리아 상인들에 의해 오래전에 이미 전래된 바 있는 켈기문자 체계를 왕국의 공식적인 문헌 작성에 도입한 인물은 히타이트 통일왕조를 수립한 하투실리 1세(Hattusili I, 재위. 기원전 1650-기원전 1620년)였다. 결과적으로 법전과 조약문, 왕실의 연대기, 신화와 서사문학 작품, 의례문 등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가 켈기문자로 작성되었다.

히타이트가 채택한 켈기문자는 바빌리의 표준적인 체계가 아니라 대개는 알레포(Aleppo)나 알랄라크(Alalakh)와 같은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간략화된 체계였다. 히타이트어에는 주로 모음-자음(V-C) 혹은 자음-모음(C-V)으로 구성된 음절기호가 사용되었지만, 철자법의 일관성은 부족했다. 아울러 악카드어에서는 유성음(예: *b*)과 무성음(예: *p*)을 음소로 구분하지만, 히타이트어는 이런 구분보다는 단자음(예: *apa*- “저것”)과 이중자음(예: *appa* “뒤”)의 구분이



그림 2. 히타이트의 무와탈리 2세와 율루사 사이에 체결된 조약문
기원전 1300년경, 보아즈코이(Bogazköy) 발견
8.26×6.35cm, 영국박물관(108569)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악카드어 표기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자음과 이중자음의 표기법이 고안되었다(Van Den Hout, 2010, pp. 103-105).

히타이트 텍스트에 표기된 슈메르어 혹은 악카드어 표의문자는 히타이트어로 음독되었으며, 인칭, 수, 격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슈메르어의 표의문자에 히타이트어의 어미가 첨가되었다. 예를 들어, 슈메르어로 “왕”을 의미하는 LUGAL에 어미 *-uš*를 붙이면 주격 단수형인 *baššuš* “왕이”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히타이트의 서기관들은 당시의 일반적인 쉼기문자 표기관행에서 벗어나 단어 사이에 공백을 두어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였다.³

쉼기문자 체계의 도입과 함께 히타이트어와 함께 사용되었던 악카드어는 점차 사용빈도가 줄어들었으며, 투트할리아 4세(Tudhaliya IV, 재위. 기원전 1237-기원전 1209년경)가 즉위했을 무렵에는 외교문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텍스트가 히타이트어로만 작성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히타이트 신왕국 시대(Hittite New Kingdom, 기원전 1344-기원전 1207년경)부터 국제 무대에서 고대 근동의 강대국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히타이트의 표기체계는 과거 시리아 북부의 간략화된 체계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바빌리의 표준적 표기체계로 되돌아갔다(그림 2).

3) 루위어와 팔라어의 쉼기문자 문헌

현재까지 히타이트 왕국의 수도 하투샤(Hattusa)에서는 약 13개소의 점토판 보관소가 발견되었는데, 국가의 공식문서는 히타이트어를 비롯한 여덟 개의 언어로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히타이트 역시 다민족으로 구성된 다언어 문화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히타이트와 친연관계가 높은 루위어에는 ‘루위어 상형문자(Luwian hieroglyphs)’로 알려진 고유한 문자체계가 있었는데, 약 500개의 그림문자가 표의문자와 표음문자로 활용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루위어 상형문자는 기원전 15-기원전 14세기까지는 인장에 새겨진 인명이나 직함에만 발견되지만, 기원전 13세기부터는 부조나 비문과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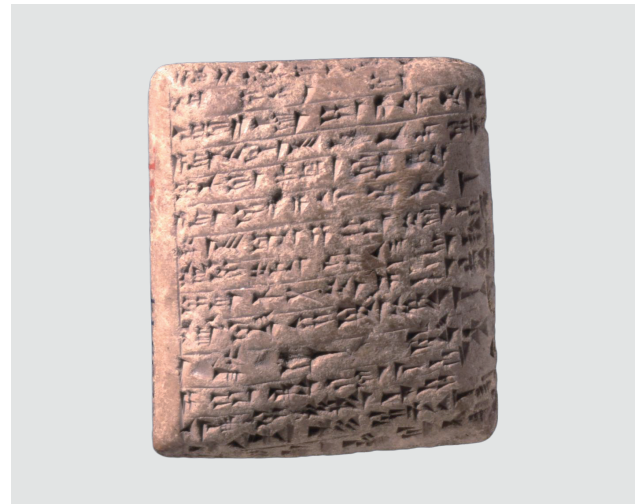


그림 3. 세켄의 왕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보낸 아마르나 외교서신
기원전 14세기(중기 바빌리), 이집트 엘아르마나(el Armana)
5.72×6.99cm, 영국박물관(E29844)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Shar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4.0 International (CC BY-NC-SA 4.0) licence.

은 왕실의 기념비적인 기록에서도 사용되게 되었다.

한편, 팔라어 문헌의 수는 매우 적으며, 이 때문에 팔라어의 문법 체계는 완전히 복원되지 못했다. 팔라어의 표기 방식은 히타이트어와 동일한 쉼기문자 규범을 따랐는데, 결과적으로 슈메르어와 악카드어의 표의문자와 표음문자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팔라어 문헌은 종교적, 주술적 맥락에서만 사용되었으며, 행정이나 외교 문서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4. 쉼기문자 체계의 국제적 활용사례 - ‘아마르나 외교서신’

‘아마르나 외교서신(Amararna Letters)’은 기원전 14세기 이집트의 신왕국 시대 제18왕조의 아멘호텝 4세/아켄아텐(Amenhotep IV/Akhenaten, 재위. 기원전 1353-기원전 1335년)이 건립한 수도 아케트아텐(Akhetaten, 오늘날의 텔 엘-아마르나/Tell el-Amarana)에서 발견되었다(그림 3).

초기 학자들은 이집트 고유의 문자인 성각문자聖契文字(hieroglyphic)와 신관문자神官文字(hieratic)가 수천 년 동안

3. 히타이트어 텍스트에서 슈메르어와 악카드어 단어가 혼용된 것은 히타이트어의 해독에 기여했다. 1902년 체코의 언어학자 베드르지흐 흐로즈니(Bedřich Hrozný, 1879-1952년)가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샤(오늘날의 튀르키예 동부 보아즈켈레/Boğazköy)에서 발견된 점토판을 연구하다가 *nu NINDA en e-iz-za-te-ni wa-a-tar-ma e-ku-ut-te-ni* “이제 너희는 빵을 먹고 물을 마신다”라는 문장을 접했는데, 이 문장을 통해 히타이트어가 인도유럽어족에 속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915년 그는 「Die Sprache der Hethiter」(히타이트인의 언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학계에 공식적으로 해독 사실을 알렸다. 이후 1920-1930년대에 독일과 튀르키예에서 발굴된 수천 개의 점토판 자료가 추가로 연구되면서, 히타이트어의 체계적인 해독이 가능해졌다.

일관되게 사용되었던 이집트에서 쐬기문자 점토판이 출토된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문서가 청동기 시대 후반부 등장한 소위 ‘강대국 클럽(Club of Great Powers)’의 구성 국가인 바빌리, 아시리아, 미탄니(Mitanni), 히타이트, 아르자와(Arzawa), 알라시아(Alasiya)의 왕들이나 이집트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보호국의 지배자들과 파라오가 주고받은 외교 서신이며, 이들 외교 공용어(lingua franca)로 여겨졌던 악카드어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Microop, 2010, pp. 195-222).

강대국과의 외교서신에서 해당국가의 왕과 파라오는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으며, 외교 관례에 따른 왕실 간의 선물 교환이나 혼인과 관련한 국가 간의 교섭이 주요한 내용을 이룬다. 반면, 이집트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의 왕들이 보낸 편지에는 파라오에 대한 충성 서약, 해당 지역에 대한 정세보고, 주변 국가의 침략에 따른 원군 요청과 같은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들 서신은 당시 고대 근동의 정치적 상황과 외교 관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간주된다.⁴

1) 이집트의 쐬기문자 체계 수용

수천 년 간 독자적인 문자체계를 사용해왔던 이집트인들이 외교 서신을 작성하기 위해 악카드어에 기반한 쐬기문자 체계를 채택한 것은 외교적 실용성에 기반한 결정이었다. ‘강대국 클럽’에 속한 일원으로서 이집트는 당시 통용되던 국제적 규범에 따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외교적 위상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집트의 궁정에는 외국어와 쐬기문자 체계에 익숙한 전문 서기관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악카드어는 물론, 가나안 지역의 방언, 히타이트어, 시리아 북부 미탄니의 언어였던 후르리어(Hurrian) 등과 같은 근동의 다양한 외국어를 공부해야 했는데, 이들 외국어의 학습을 위해 악카드어의 단어 목록이나 표준적인 서간체 등을 활용했다. 아마르나에서 출토된 연습용 토판은 이집트의 서기관들이 실제로 악카드어

쐬기문자를 반복적으로 필사하면서 연습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국가가 주도하여 외교에 필요한 전문적인 실무 인력을 양성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아마르나 외교서신의 다국어적·다문화적 특징

‘아마르나 외교서신’은 모두 점토판에 쐬기문자로 작성되었다. 아시리아어(EA 15), 후르리어(EA 24), 히타이트어(EA 31-32)로 쓰인 일부 서신을 제외하면 외교서신에 사용된 언어는 당시 국제공용어였던 바빌리어였다. 그러나 이들 중 표준적인 소위 ‘중기 바빌리어’(Middle Babylonian)로 작성된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EA 2-4, 6-11).⁵

바빌리 본토가 아닌 주변부에서 작성된 문서의 경우, 중심부에서는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 표의문자, 어휘, 표현, 문체 등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문자문화의 지역적 다양성과 보수성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요컨대, ‘아마르나 외교서신’은 현대의 독자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표준적인 국제공용어를 기반으로 한 균질적인 문서그룹이 아니라 각 지역의 다양한 관례와 문화가 반영된, 혼종적인 쐬기문자 문서군으로 정의될 수 있다.

‘아마르나 외교서신’의 가장 큰 특징은 악카드어라는 국제 공용어를 사용하는 환경 속에서도 언어의 지역적 다양성이 관찰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다양성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집트 북부 지역의 ‘후르리-악카드어(Hurro-Akkadian)’ 그룹, 이집트 서부의 ‘가나안-악카드어(Canaan-Akkadian)’ 그룹, 그리고 이집트에서 작성된 외교 문서 그룹이다. 우선 ‘후르리-악카드어’ 그룹은 악카드어 텍스트에 북부의 후르리어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주로 아시리아, 미탄니, 하티 등과 같은 북부 지역과 아무루(Amurru, EA 156-161, 164-171)에서 작성된 문서들이다.

반면, ‘가나안-악카드어’ 그룹은 주로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의 약소국이 작성한 서신에서 확인되는 일종의 중간언어(interlanguage)라 할 수 있다. ‘가나안-악카드어’는 어휘

-
4. 강대국 간에 교환된 ‘아마르나 외교서신’은 외교적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간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때 자국의 요청과 제안, 상호 관계의 확인, 외교 선물에 대한 교섭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는데, 이들 주제는 정중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었다. 아울러 대다수의 서간이 *šipru* “말하시오”라는 어구로 시작하는데, 이는 서신이 궁정에서 낭독되었음을 의미한다.
 5. EA는 *El Amarna*의 약자로 ‘아마르나 외교서신’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데 사용된다. 350개의 텍스트 중에서 강대국과의 외교서신은 바빌리(EA 1-14), 아시리아(EA 15-16), 미탄니(EA 17, 19-20), 아르자와(EA 31-32), 알라시아(EA 33-40), 하티(EA 41-44) 순으로 분류되었으며, 나머지는 이집트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종속국의 왕들이 파라오에게 보낸 서신들이다.

는 악카드어에서 왔지만 문법적, 통사적 구조는 서부 셈어에 속하는 원시 가나안어(Proto-Canaanite)를 따르기 때문에 표준 악카드어의 주어-목적어-동사(S-O-V) 구조가 아닌 동사-주어-목적어(V-S-O) 구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가나안-악카드어’ 그룹은 악카드어와 서부 셈어에 모두 노출된 독자만 해독이 가능한 인공적 절충 언어였다고 할 수 있다(Moran, 1992, pp. xxii-xxvi).

이집트에서 쐐기문자 체계는 외교의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정치와 행정, 종교와 주술 등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여전히 자국의 문자체계인 성각문자와 신관문자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쐐기문자 체계의 도입은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적 우월성을 인정하거나 문자문화의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감한 외교적 사안을 다루기 위해 근동지역의 보편적인 표기체계를 채택한 실용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이집트에서의 쐐기문자 체계의 수용은 내부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외부 질서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일종의 이중전략이었다.

5. 쐐기문자의 간략화 - 우가릿 문자와 페르시아

1) 우가릿 문자의 발견

우가릿 문자는 기원전 14세기경, 현재 시리아 북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했던 고대 도시국가 우가릿(Ugarit, 오늘날의 라스 샴라/Ras Shamra)에서 발견된 문자다. 우가릿은 청동기 시대에 이집트와 알라시아(오늘날의 키프로스, Cyprus) 등과 활발히 교역하며 번영한 페니키아의 교역도시 중 하나였다.

우가릿 문자는 1928년 우연히 발견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1,500점 내외의 점토판이 알려져 있다. 점토판의 내용은 신화와 종교에서 법률, 행정, 상거래, 서신 등 다방면의 주제를 망라한다. 우가릿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점토판 문서에는 우가릿어 뿐만 아니라 후르리어와 악카드어 등의 언어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특히 우가릿어 문서는 기존의 쐐기문자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2) 우가릿 문자의 특징과 구조

우가릿 문자는 외형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되던 쐐기문자와 유사하게 점토판에 쐐기 모양으로 새겨졌으며, 쐐기문자와 동일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그 구조와 원리는 쐐기문자 체계와는 완전히 달랐다. 메소포타미아의 쐐기문자 체계가 수백 개의 문자로 구성된 표의문자나 표음문자(음절문자)의 집합체였던 것과는 달리,



그림 4. 우가릿 알파벳으로 작성된 서신

기원전 1400-1200년경, 라스 샴라(Ras Shamra) 출토

4.2×5.3×1.7cm, 루브르 박물관(AO 19940)

© 2009 Grand Palais Rmn (musée du Louvre) / Franck Raux

우가릿의 문자체계는 불과 서른 개의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이 자음을 나타내는 음소 문자(phonetic characters)였다. 다시 말해, 우가릿 문자는 글자 하나가 하나의 소리(음소)를 나타내는 알파벳이었던 것이다(그림 4).

우가릿의 문자체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데, 서른 개의 알파벳 가운데 뒤의 세 개를 제외한 스물일곱 개는 보다 오래된 선형 알파벳의 모습을 쐐기문자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셈어 알파벳의 경우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자음에 대응하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후 변형된 우가릿 문자는 이런 이상적인 대응이 없었다. 따라서 기존의 알파벳 체계에 존재하는 음가 중 우가릿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음가도 있었고, 우가릿어에는 존재하지만 알파벳 체계에는 없는 음가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문자를 고안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트롭퍼, 2010, pp. 29-35).

셈어의 자음 알파벳 중 하나인 우가릿 알파벳은 후대에 출현한 그리스나 로마의 알파벳과는 달리 모음을 완전히 표기하지 않았으며, 성문 폐쇄음(?) 다음에 *a*, *i*, *u*의 음가를 나타내는 세 개의 문자를 사용하는 보조적인 방법을 채택했다. 아울러 짧은 수직 쐐기가 단어를 나누는 기호(word divider)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우가릿에서는 알파벳을 순서대로 적은 ‘아베체다리(abdecadary)’ 토판이 11개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북부 셈어 계열인 ‘아브자드(abjad)’ 계열과 남부 셈

어 계열인 ‘할라함(halaham)’ 계열로 나뉜다.⁶

3) 우가릿 문자의 역사적 의의

수백 개의 복잡한 기호를 외워야 했던 기존의 켈기문자나 성각문자에 비해 단 30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우가릿 문자는 배우고 쓰기가 훨씬 용이했다. 복잡한 문자체계는 소수의 서기관이나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우가릿 문자는 간결하고 효율적인 알파벳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문자를 사용하는 계층이 확대되고 기록 활동이 활발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우가릿 문자 중 ‘아브자드’ 계열은 이후 현대 알파벳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페니키아 문자를 비롯한 여러 셈어 계열 문자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페니키아 문자는 히브리 알파벳과 그리스 알파벳을 거쳐 로마 알파벳으로 발전했으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

4)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켈기문자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켈기문자(고대 페르시아어 켈기문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유래한 기존의 켈기문자를 기반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문자체계다. 우가릿 문자와 마찬가지로, 이 문자체계 역시 켈기문자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그 구조와 역사적 배경은 완전히 다르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켈기문자는 주로 다리우스 1세(Darius I, 재위. 기원전 521-기원전 486년)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원전 521년경 다리우스 1세는 왕실과 지배층의 언어인 페르시아어를 기록하기 위해 기존의 복잡한 켈기문자 체계를 단순화하여 새로운 문자를 창안하도록 지시했는데, 그의 업적을 기리는 거대한 암각 비문인 『비쉴톤 비문』에 처음 사용되었다(그림 5). 아케메네스 왕조의 켈기문자는 기존의 메소포타미아 켈기문자 체계에 비해 몇 가지 독특하고 혁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수백 개의 복잡한 기호로 구성된 메소포타미아의 켈기문자 체계와 달리 아케메네스 왕조의 켈기문자는 총 36개의 표음문자와 5개의 표의문자, 그리고 단어를 구분하는 기호로 구성되었다. 표음문자는 음절문자의 성격을 강하게

띄는데, 이런 특징은 자음만을 표기하는 우가릿의 알파벳과 대비된다. 한편, 표의문자는 왕, 나라, 신 등과 같이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에 국한되었다.

5)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켈기문자의 역사적 의의

아케메네스 왕조의 켈기문자는 켈기문자 체계의 마지막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자체계는 오랜 역사를 가진 켈기문자 체계가 최종 단계에서 극도로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형태로 진화한 사례다. 아케메네스 왕조는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고대 페르시아어 켈기문자는 왕실 비문과 공식 기록물에 주로 사용되어 제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왕의 권위를 과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켈기문자 체계가 수립된 계기를 제공한 『비쉴톤 비문』은 다리우스 1세 재위 초기의 권력 기반이 확립된 과정과 반란 세력의 존재, 제국의 행정 구조를 알 수 있는 일차 사료일 뿐만 아니라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를 최고신으로 하는 조로아스터교(Zoroasterism)와 왕권 신성화의 초기 증거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다. 이와 함께, 동일한 내용이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로제타 석비(Rosetta Stone)』와 함께 고대 문자 해독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유물 중 하나로 간주된다. 『비쉴톤 비문』 덕분에 고대 페르시아어의 켈기문자 체계가 해독되었고, 이는 다시 아카드어와 엘람어 켈기문자 해독의 길을 열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이해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켰다.

6) 우가릿 켈기문자 고대 페르시아어 켈기문자의 차이점

우가릿의 켈기문자와 아케메네스 왕조의 켈기문자는 외형적으로 켈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선, 우가릿 문자는 자음 중심의 알파벳인 반면, 아케메네스 왕조의 켈기문자는 표음문자(음절문자)와 표의문자가 혼합된 체계다.

아울러 우가릿 문자는 페니키아 문자를 통해 현대 알파벳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이어졌지만, 아케메네스 왕조의 켈기문자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 후 사용되지 않게 되었으며, 이후 페르시아어는 파흘라비 문자(Pahlavi Scripts,

6. ‘아브자드’ 계열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a b g h d h w z ḥ ṭ y k š l m d n z s’ p s q r t ḡ t i’ u s. 반면, ‘할라함’ 계열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h l ḥ m q w š r t s k n ḥ b p ‘a ‘z g d ḡ t z d y ṭ s (...[i’ u s]).



그림 5. 비소툰 비문
기원전 521년(페르시아제국), 25×15m, 이란 케르만샤주(Kermanshah)

아람 문자 계열)와 아랍 문자(Arabic Alphabet)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아케메네스 왕조의 췌기문자가 비록 우가릿 췌기 문자처럼 알파벳은 아니지만, 복잡한 췌기문자를 간소화

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제국의 행정 및 문화적 도구로 활용 되었다는 점에서 문자의 발전사에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Michalowski, Piotr (1994). "Mesopotamian Cuneiform: Origin." *The World's Writing Systems*. Oxford University Press.
- Mieroop, Marc Van De(2010). 고대 근동 역사(김구원, 강후구 역). CLC(원저 2004년 출판).
- Moran, William L. (1992). *The Amarna Letter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out, Theo Van Den (2010). "The Rise and Fall of Cuneiform Script in Hittite Anatolia." *Visible Language: Inventions of Writing in the Ancient Middle East and Beyond*. Oriental Institute Museum Publications.
- Seri, Andrea (2010). "Adaptation of Cuneiform to Write Akkadian." *Visible Language: Inventions of Writing in the Ancient Middle East and Beyond*. Oriental Institute Museum Publications.
- Tropper, Josef(2010). 우가리트어 문법(주원준 역). 한남성서연구소(원저 2002년 출판).
- Walker, C. F. B. (1987). *Cuneiform*. Reading the Past 3.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The Regional Transformation of Cuneiform

Sunghwan Yoo | Institute for Research on Early Civilizations, Dankook University

The term “cuneiform” derives from the wedge-shaped impressions of the script devised and employed by the Sumerians around 3500 BCE in ancient Mesopotamia to express their language. Although originally invented to record Sumerian, cuneiform spread across the ancient Near East and was adopted to write approximately fifteen languages belonging to both the Semitic and Indo-European families, including Akkadian, Eblaite, Elamite, Hurrian, Hittites, Palaic, Luwian, Urartian, Ugaritic, and Old Persian.

Cuneiform continued in use for more than three millennia, lasting until the first century CE. Because texts were usually inscribed on moist clay tablets rather than on perishable materials like Egyptian papyrus, a vast corpus of documents has survived in relatively good condition. During the Uruk III period (Jemdet Nasr, ca. 3100 BCE), cuneiform spread from Uruk to other Sumerian city-states such as Ur, Lagash, Umma, and Shuruppak, and further to northern Mesopotamian centers such as Kish, Mari, and Ebla. This diffusion was facilitated by increasing inter-city trade and exchange along major commercial routes.

By the end of the Early Dynastic period (ED IIIb, ca. 2600-2350 BCE), cuneiform had developed into a fully independent writing system capable of faithfully representing spoken language, and its usage expanded from economic and administrative records into political and religious domains. As a result, a wide range of literary works — myths, hymns, laments, epics, and wisdom texts — emerged.

With the rise of Sargon’s Akkadian Empire, the script originally created for Sumerian came to be used for Akkadian as well. This adaptation transformed the cuneiform system fundamentally, introducing features such as polyphony (a single sign with multiple phonetic values) and homophony (different signs with identical phonetic values), which greatly enhanced its flexibility.

The Hittite Empire (ca. 1650-1180 BCE), based in Anatolia, adopted cuneiform through long-distance trade conducted by Assyrian merchants who had been traveling between Assyria and Anatolia since the nineteenth century BCE. Under King Hattusili I (r. ca. 1650-1620 BCE), cuneiform became the kingdom’s official script for legal codes, treaties, royal annals, myths, epics, and ritual texts.

Meanwhile, the Egyptians, who had long maintained their own distinctive script traditions, adopted Akkadian-based cuneiform specifically for diplomatic correspondence. These documents, collectively known as the Amarna Letters, reflect Egypt’s participation in the “Club of the Great Powers” and its efforts to preserve diplomatic prestig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in the international order.

Ugaritic writing, discovered in the fourteenth century BCE at the coastal city of Ugarit (modern Ras Shamra, Syria), superficially resembled cuneiform in appearance but differed fundamentally in structure. Unlike the hundreds of signs in Mesopotamian cuneiform, Ugaritic consisted of only about thirty characters representing individual phonemes, making it a true alphabet.

Finally, the cuneiform script of the Achaemenid Empire, devised mainly during the reign of Darius I (r. 521-486 BCE), displayed a more streamlined structure. Unlike the complex Mesopotamian system, it employed 36 syllabic signs, 5 logograms, and word dividers. Its syllabic character set stands in contrast to the consonantal alphabet of Ugarit.

Keywords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 쐩기문자(cuneiform), 슈메르어(Sumerian), 아카드어(Akkadian), 아마르나 외교서신(Amarna Letters), 엘람어(Elamite), 히타이트어(Hittites), 후르리어(Hurrian), 우가릿어(Ugaritic), 고대 페르시아어(Old Persian), 쐩기문자의 기원과 확산(Origin and Spread of Cuneiform)

앗슈르와 바빌리에서 췌기문자가 소멸한 과정 : 비교 연구

에카르트 프람
예일대학교 고대근동언어문명학과

I —————
서문

II —————
앗슈르 췌기문자의 소멸

III —————
바빌리 췌기문자의 소멸

IV —————
맺음말

국문초록

췁기문자의 소멸에 관한 연구들은 대개 기원후1세기와 그 이전 3세기 바빌리 문명의 최종 단계에 초점을 맞춥다. 이 기간 동안 바빌리 췁기문자의 사용은 계속 줄어듸다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 글 역시 이러한 역사적 과정과 함께 약 700년 전 앗슈르 췁기문자의 소멸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두 문자의 소멸현상을 비교적 관점에서 조망함으로써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앗슈르(Assyria), 바빌리(Babylonia), 췁기문자(cuneiform), 필기체계의 소멸(disappearance of writing systems), 서기법(grammarology)

I. 서문

필기체계의 탄생과 역사, 특정 문자의 출현, 낯선 필기체계의 해독은 학자들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는 작가들도 자주 다루는 주제이다.¹ 기원후 15세기 조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나 장-프랑쥬아 샹폴리옹(Jean-François Champollion, 1790-1832년)의 이집트 상형문자 해독은 잘 알려진 사례이며 기억하고 기념하여 마땅한 사건이다. 다만 인류가 사용했던 필기체계들이 대부분 어느 순간 소멸하였음에도 그러한 소멸은 현상에 관해 논의하는 일은 드물다.² 본 연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켈기문자 및 그 ‘소멸’과 관련된 2가지 사례연구를 통해 필기체계의 소멸 현상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대 근동세계에 알려진 필기체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켈기문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젖은 점토 위에 갈대 필기구로 새긴 이 복잡한 상형-음절문자 필기체계는 기원후 1세기 혹은 그 후까지 사용되었다.

메소포타미아 역사 중 마지막 몇 백 년 동안 사용된 바빌리 켈기문자는 기원전 3500년 이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명된 필기체계에서 파생된 것으로 원래 슈메르어를 기록할 때 했다.³ 약 1000년 후 이 초기 켈기문자를 셈어(Semitic language)의 일종인 아카드어(Akkadian) 사용자들이 차용했으며 이는 고아카드어(Old Akkadian) 방언과 이 언어에서 파생된 두 가지 방언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현대 이라크 남부에서 사용된 바빌리어이고, 다른 하나는 그 땅 북쪽에 살았던 사람들의 언어인 앗슈르어이며, 기원전 2000년 이후부터 나타난다. 지역마다 다른 환경에서 발달하면서 바빌리와 앗슈르의 기호 형태가 다르지만, 이 둘의 구조와 주요 특징이 같고 기호 판독도 거의 동일하므로 현대 학자들은 통틀어 앗슈르-바빌리(Assyro-Babylonian) 필기체계라 부른다.⁴ 슈메

르어를 표기할 때도 같은 문자를 계속 사용했는데 이는 기원전 2000년경에 구어로 사용이 중단되었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끝날 때까지 중요한 문화 언어로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켈기문자는 에블라어(Eblaite, 아카드어의 방언으로 간주하기도 함), 히타이트어(Hittites, 오래된 인도유럽어), 후르리어(Hurrian), 엘람어(Elamite), 카슈어(Kassite), 우라르투어(Urartian) 등 여러가지 다른 언어를 기록하였다.⁵ 켈기문자는 이렇게 널리 퍼졌지만 기원전 1220년경⁶ 히타이트 왕국(Hittite Kingdom)이 멸망한 후 히타이트 켈기문자가, 기원전 7세기 말과 기원전 6세기 초에 앗슈르와 우라르투가 멸망하면서 앗슈르 및 우라르투 문자가 각각 소멸되었다.

학계에서는 바빌리 켈기문자가 기원후로 접어들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멸된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는 켈기문자의 최종적 종말을 의미하므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다만 켈기문자의 여러 초기 형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한 고찰도 가치가 있으며, 정치적 사건과 뚜렷하게 연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이했던 바빌리 켈기문자와 비교하면서 후자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원전 600년경 아시리아 켈기문자가 소멸하고 약 700년 후 바빌리 켈기문자가 최종적으로 소멸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봄으로 이 주제에 관해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자 한다.⁷ 관련하여 고려하고자 하는 요인으로는 가) 외국 침략자 또는 내부 권력투쟁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 나) 언어적 변화와 상실, 다) 문화 또는 종교적 변화, 라) 제국 및 지역 지배구조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요인 등이 있다.

II. 앗슈르 켈기문자의 소멸

앗슈르 제국의 전성기였던 기원전 7세기 중에는 앗슈르 켈기

1. 최근 연구로는 Ferrara, 2022 및 Hammer, 2025가 있다. 그 외 연구는 Kim & Kim, 2025를 참조하라.
2. 이 주제를 다룬 Baines et al., 2008은 세계 각지의 문자체계를 총체적으로 다룬다. 매우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여러 자료를 통해 다양한 문자체계의 노후화 시나리오를 유용하게 비교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상형문자 루비아어(Luwian), 신엘람어(Neo-Elamite) 켈기문자, 바빌리 켈기문자를 논하는 3개 장은 여기서 다루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소멸된 문자체계에 대한 것이다.
3. 물론 이는 매우 단순하게 정리한 것이며 여기서는 켈기문자의 발명이 아닌 소멸을 다룬다.
4. 오늘날 켈기문자 연구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호 목록은 Borger, 2010이다.
5. 현재까지 가장 포괄적인 연구(Streck, 2023, p. 198)에 따르면 현재 알려진 전체 켈기문자 수는 60만 개로 추정된다. 물론 세계 각지의 개인적 수집품이나 공공기관에 보관된 여러 문서를 모두 조사하지 못했으며 새로운 문서도 다수 발굴되는 실정이다.
6. 거의 동시기에 이집트와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외국 통치자들과 연락할 때 주로 켈기문자를 사용하던 시기가 끝났다.
7. 기원전 1,000년 메소포타미아의 켈기문자 사용 방식에 대한 포괄적 연구는 Schnitzlein, 2023을 참조하라.

문자가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었다. 이를테면 앗슈르 국가의 최고 관청과 앗슈르 신전의 기록실에서,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사용했고, 왕의 업적을 찬송하는 기념 비문, 신화와 서사시, 징조문집, 의학 참조서, 해설서, 개인적 또는 공식적 의식 설명서와 같은 문화적 본문, 편지와 법률 문서부터 채무증서와 행정문서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본문까지 다양한 문서를 기록하였다. 현대 탐험가들은 앗슈르 기록 보관소와 도서관의 폐허, 건물 아래 매립토와 같은 2차, 3차적 맥락에서 이러한 문서 수만 개를 발견했으며 그 중 상당수는 부서진 상태였다. 대부분은 점토판에 기록했고 일부는 돌과 금속에 새겼다. 또한 앗슈르 도서관 기록과 간기(colophon)에 따르면 나무나 상아로 만들고 밀랍을 덮은 필기용 판에 쐈기문자로 글을 쓰는 일도 많았지만, 이 서판들은 대부분 소실되었다. 앗슈르의 쐈기문자 문화는 니느웨(Nineveh)에 그 유명한 도서관을 짓고 이런 점토판을 수만 개나 수집한 앗슈르바니팔(Ashurbanipal) 왕의 통치기(기원전 668-기원전 631년) 중에 정점에 이르렀다(Finkel, 2019). 이 점토판들은 앗슈르어, 바빌리어, 그리고 슈메르어로 쓴 글을 새겼고, 앗슈르와 바빌리 풍 쐈기문자를 골고루 사용하였다.

그러나 기원전 600년경에 이 엄청난게 풍부한 문자기록 전통이 거의 소멸되었다. 앗슈르 중심부 대도시인 앗슈르(Ashur), 칼라카(Calah, 현대의 Nimrud), 두르-샤루킨(Dur-Šarrukīn, 현대의 Khorsabad), 니느웨에서 기원전 610-기원전 601년과 그 후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앗슈르 풍 쐈기문자로 쓴 문서는 거의 찾지 못했다.⁸ 이런 유적지들은 모두 철저하게 발굴했으므로 발굴지를 선정하면서 우연히 찾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앗슈르 문자가 갑자기 소멸한 주된 이유는 기원전 615-기원전 612년에 바빌리와 마다이(Medes) 동맹군이 앗슈르 중심부 영토를 침략하여 아라프하(Arrapha), 앗슈르 니느웨, 칼라카 등 아시리아의 주요 도시를 대부분 정복하고 파괴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3년 후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 앗슈르-우발리트 2세(Aššur-uballiṭ II, 재위. 기원전 612-기원전 609년 경)가 제국 서부에 있던 하란(Harran)에서 사라지면 1400년 동안 이어온 앗슈르라는 나라의 막을 내렸다(Frahm, 2023,

pp. 323-347). 니느웨성문과 앗슈르거리를 발굴했을 때 전사자의 해골, 불탄 궁전, 무너진 신전과 민가 등 고고학적 증거가 나오면서 바빌리와 마다이 군대가 “위대한 민족에게 끔찍한 패배를 안겼다”는 바빌리 역대기(the Babylonian Chronicle)의 놀라운 내용을 확인해 준다(Glassner, 2004, pp. 220-223).

그러나 앗슈르 도시 문화와 종교가 이 사건과 함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앗슈르시는 기원전 614년에 파괴되었지만 앗슈르신과 그의 아내 세루아(Šerua)를 향한 숭배는 기원후 2세기까지 800년이나 더 계속되었다(Livingstone, 2009). 니느웨와 칼라카에서는 문화가 지속된 증거를 찾기는 좀 어렵지만 이 도시들이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앗슈르 동부의 아르벨라(Arbela, 지금의 Erbil)에는 지금도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고고학자들이 접근하기 어렵지만 아케메네스(Achaemenid) 시대에 중요 도심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Hauser, 2017).

또한 비교적 최근에 새로운 발견한 증거에 따르면 아시리아의 핵심 영토 밖에서는 학자들이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처럼 기원전 612년 니느웨의 멸망과 함께 아시리아 쐈기문자가 곧바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투쉬한(Tuṣhan, 오늘날 터키 남동부 Ziyaret Tepe)에서 나온 앗슈르 쐈기문자 편지는 그 도시를 다스리던 앗슈르인 총독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작성 시기가 기원전 611년으로 밝혀졌다(Parpola, 2002-2003, pp. 86-87; Radner, 2014, pp. 83, 225). 적군이 접근하는 극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던 이 편지는 결국 답장을 받지 못했으며, 당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앗슈르 제국 주변부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

이 편지보다 훨씬 이후에 앗슈르 쐈기문자로 쓴 문서가 터키 하산케입(Hasankeyf) 시 인근 들판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보다 흥미로운 연구자료이다(Toptaş & Akyüz, 2021). 이 문서는 발과 과수원의 매매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으며, 이 때가 “(앗슈르) 잔 말은 자들의 수장 라바쉬(Lābaši)의 제9년”이었고 “우바키스테리(Ubakisteri)가 마다이의 왕이었던 시절이라고 썼다. 마이클 로프(Michael Roaf, 2021)가 설명한 것처럼 이 우바키스테리 앗슈르를 멸망시킨 마다이의 통치자

8. 앗슈르에서 연대를 기할 때 사용한 이름(eponym), 즉 앗슈르에서 연도 표시에 사용한 관리들의 이름으로 연대를 추정해야 하는데, 일부 앗슈르석판들은 아직 그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없으며 기원전 614년 도시 공격 이후 시기에 속할 수 있다. 해당 목록은 카렌 라트너(Karen Radner)와 그의 뮌헨 팀이 만든 ATAE 웹사이트(<https://oracc.museum.upenn.edu/atae/BrowseTextsbyDate/Extra-canonicalEponyms/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이 문서를 작성한 시기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우마키쉬타르(Umakištar, 또는 그리스인들이 Cyaxares라고 부름)일 수밖에 없다. 라바쉬의 이 작은 은신처는 마다이라는 강자가 새로 등장한 뒤 공식적으로만 지배하던 외딴 곳에서 앗슈르 제국의 지배층에 속한 사람인 ‘잔 맡은 자들의 수장’이 앗슈르 제국의 축소판을 유지하려 했던 마지막 노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609년 앗슈르-우발릿 2세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직후 라바쉬가 이 작은 영토를 세웠다고 가정하면 이 문서는 기원전 600년 또는 기원전 599년에 작성되었을 것이다.⁹ 이 문서를 작성한 키찌르-나부(Kišir-Nabû)는 앗슈르 출신이며 기원전 614년 메디아가 앗슈르를 공격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도망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키찌르-나부는 앗슈르에서 발견된 수많은 학술 문헌을 쓴 것으로 알려진 동명의 사제이자 퇴마사(exorcist)와 동일인일 수 있다.¹⁰

앗슈르 제국 서부의 지방 중심지인 구자나(Guzana)와 두르-카트림무(Dur-Katlimmu) 시를 발굴했을 때 앗슈르 마지막 통치자 앗슈르-우발릿2세 시대에 켈기문자로 작성한 법률 문서들을 발견하였다.¹¹ 기원전 603/02년과 600년에 두르-카트림무에서 작성한 점토판 4장은 이보다 훨씬 이후의 것이다(Radner, 2002, pp. 16-19, no. 37-40). 이 문서들은 모두 바빌리 왕 네부카트네צר 2세(Nebuchadnezzar II, 재위. 기원전 605-기원전 562년)가 왕위에 오른 뒤에 작성했고, 이는 두르-카트림무의 지방 당국이 바빌리 형식 대신 수년간 계속 앗슈르 필기 형식과 문자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치자를 도시의 새로운 군주로 인정했음을 가리킨다. 다만 기원전 600년 후에는 이러한 형식의 문서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국의 중심지였던 바빌리에서도 네부카트네צר 2세의 남쪽 궁전에서 발굴된 궁정기록보관소의 행정 문서 중에 앗슈르 켈기문자로 쓴 점토판이 발견되었다. 문제의 5가지 배급품 목록은 최근야야 전체가 공개되었다(Pedersén, 2025, no. 423-427, 이전 논의는 Pedersén, 2009). 그 중



그림 1. 기원전 597년 바빌리에서 발견한 배급품 목록으로, 앗슈르 켈기문자로 기록했고 확실한 연대 측정이 가능한 점토판들 중 가장 후대의 유물 발굴 사진

Bab 27276 Bab Ph 1235 (1 1), 1236 (1 1). The Cuneiform Digital Library Initiative (<https://cdli.earth/artifacts/532884/reader/238288>).

가장 후대에 쓴 문서 426번은 기록연대가 기원전 596년인데, 이는 앗슈르 켈기문자로 쓰고 연대 측정이 확실한 마지막 문서가 될 것이다(그림 1).¹² 바빌리와 마다이의 네부카트네צר 궁전의 중급 관료로 자리잡았거나 그러한 직책을 강요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빌리에 정착했던 앗슈르 사람들 중 일부는 그곳에 가족들과 오랫동안 살아왔고 앗슈르 전통 종교와 문화 활동에 계속 참여하였을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우룩(Uruk) 시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곳에서는 기원전 6세기 후반까지 앗슈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앗슈르신에게 헌정된 성소에서 앗슈르신을 숭배하였다(Beaulieu, 1997).¹³ 다만 이 공동체의 활동을 기록한 문서들은 앗슈르가 아닌

9. 보다 후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Frahm, 2023, p. 339를 참조하되 그 초판에는 키찌르-나부(Kišir-Nabû)가 “키찌르-앗슈르(Kišir-Ashur)”로 오기되어 있음에 유의하라. Maul, 2010, pp. 196-216은 키찌르-나부의 앗슈르지역 내 활동을 정리했다. 향후 연구에서 관련 내용을 보다 광범위하게 다룰 계획이다.

11. 판본과 다른 참고문헌 정보는 Radner, 2002, no. 199 ATAE 웹사이트(<https://oracc.museum.upenn.edu/atae/BrowseTextsbyDate/Ashur-uballitII611-609BC/index.html>)를 참조하라. 이 문서들을 기록한 날짜는 확실하지 않다.

12. 페데르센(Pedersén)은 “6년차” 또는 “9년차”(네부카트네צר 9년)로 읽어야 할지 확실하지 못하지만 CDLI 플랫폼(<https://cdli.earth/artifacts/532884/reader/238288>)의 사진을 보면 이 숫자는 확실히 “9”로 보인다.

13. 각 문헌에서 신의 이름을 An-šár로 표기한 것은 이 신을 우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늘의 신 An(u)과 동일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바빌리 문자를 쓰고 있다. 기원전 4세기 후반 한 우룩 퇴마사가 소장했던 점토판 중 앗슈르바니팔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앗슈르 석판(von Weiher, 1983, no. 46; Beaulieu, 2010)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유물로 간주해야 한다. 정리하면 앗슈르 췌기문자가 앗슈르 제국 멸망 후에도 활발하게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지만, 그 기간은 불과 10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앗슈르 문자는 최종적인 종말을 맞았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전체적으로 췌기문자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십 년 전의 2가지 특별한 유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첫 번째 유물은 요르단의 텔 타윌란(Tell Tawilan) 유적지에서 발굴되었고 바빌리 췌기문자로 쓴 법률 문서이며,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온 땅의 왕 다리우스(Darius)”가 즉위한 해에 (과거 앗슈르 영토였던) 하란(Harran) 시에서 바빌리 서기가 쓴 것으로 기록되었다(Dalley, 1984). 문이 페르시아 왕이 다리우스 1세인지 2세인지에 따라(3세는 배제 가능) 기원전 521년 3월 또는 기원전 423년 4월이 된다. 이 놀라운 문서를 공개한 스테파니 델리(Stephanie Dalley)는 이를 하란에서 췌기문자 전통이 계속됐다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반면 프랑수아 조안느(Francis Joannès)는 이 점토판에 에돔과 아람 풍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기 때문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리우스 1세 또는 2세의 통치 초기에 하란지역으로 출정한 군사원정 중 페르시아 군대와 동행한 서기가 쓴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Joannès 1987). 따라서 조아네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점토판은 앗슈르 멸망 후 하란에서 췌기문자가 수세기 동안 사용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 물론 이 도시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바빌리 왕 나보니두스(Nabonidus)가 하란에 기념비적인 췌기문자 비문을 남겼고(Weiershäuser & Novotny, 2020, pp. 185-198), 또 하란의 “이교도”적 관습이 중세까지 유지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Green, 1992) 췌기문자가 동쪽의 앗슈르 영토보다 하란에서 더 오래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

여기서 간단히 언급해야 할 두 번째 발견은 모술(Mosul)에서 북쪽으로 약 40킬로미터 떨어진 헬레니즘 시대 유적지 텔 피스나(Tell Fisna) 발굴 중 각종 유물이 가득한 구덩이에서 일본 고고학 팀이 찾아낸 점토판이다. 이 점토판에는 명확

한 필체로 썼지만, 다른 문서에 나온 적이 없고 기호를 이상한 각도로 써서 해독하기 어려운 ‘췌기문자’가 새겨져 있으며 본문 중간에는 역시 췌기문자인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 문서를 편집한 연구한 제레미 블랙(Jeremy Black)은 이 문서가 앗슈르 전통에 뿌리를 둔 소멸된 문자에서 파생된 일종의 천문학 연감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997). 반면 이 점토판에 대해 논의한 소수의 앗슈르학 학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브라운(David Brown, 2008, pp. 96-97)은 이 점토판을 바빌리 남부에서 수입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블랙이나 브라운 모두 이 석판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기묘한 기호 형태를 고려하면 이 문서가 바빌리 천문학 연감에서 영감을 받은가 필사한 위작(pseudo-writing)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된다.¹⁴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앗슈르 췌기문자는 앗슈르 제국 멸망 직후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소멸되었으며 관련 증거에 따르면 앗슈르에 침입한 적들의 대규모 공격이 그 주요 요인이었다. 하지만 기원전 614년 공격 당시 앗슈르 도시가 입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거주민들이 살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된 문자체계가 갑자기 소멸되었다는 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기원전 559년에 바빌리 총독이 앗슈르에 주둔했다는 증거가 있으며(Jursa, 2003, p. 173), 페르시아 왕 키루스(Cyrus)는 바빌리에서 발견한 유명한 원통 비문(Finkel, 2013)에서 530년대에 앗슈르신의 동상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 주장하였다.

앗슈르 췌기문자가 갑자기 소실된 현상과 관련해서는 2가지 추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앗슈르나צר팔 2세(Ashurnasirpal II, 기원전 883-기원전 859년)가 먼저 시행한 후 여러 통치자들이 계승한 ‘사회 재설계’ 프로그램의 결과로 앗슈르 고위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분열되고 권력은 왕에게 극도로 집중되었다는 점이다(Radner, 2011). 앗슈르 사회의 최고위층은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거의 없었고 고위 관리와 군부 지도자 중 상당수는 가족 의식이 결여된 환관이었다(Frahm, 발간 예정). 능력주의적 이상으로 발현되었으며 동시에 왕에 대한 반란의 가능성을 막는 장치였던 이러한 앗슈르 ‘상류층’의 원자화(atomization)는 앗슈르 왕조가 갑자기 종말을 맞았을 때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살아남은 앗슈르 고위층은 지도

14. 텔 피스나(Tell Fisna) 석판이 발굴 당시 정황으로 보아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간주해 왔지만 현대의 위조품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다만 이 문서를 더 연구할 가치가 있다.

자인 왕을 잃은 뒤 앗슈르 국가를 유지할 힘을 충분히 모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앗슈르 문화를 계승할 든든한 일꾼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도적 지성적 틀도 군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앗슈르 췌기문자는 이 문화의 필수 요소였다.¹⁵

그럼에도 또 다른 요인이 없었다면 췌기문자는 아시리아에서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기원전 11세기부터 앗슈르에는 아람인들이 꾸준히 유입되었고 중요 직책을 맡으면서 이들의 언어와 문자체계가 널리 확산되었다. 사실 아람어의 문화적 명성은 제한적이었지만 앗슈르 제국의 전성기에는 국제 공용어로 자리잡은 것은 앗슈르어가 아니라 아람어였다(Beaulieu, 2006). 아람어 본문은 보통 부패하기 쉬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했기 때문에 신앗슈르 시대의 아람어 문자 자료로 보존된 것들은 전체가 아람어이거나 아람어 비문(epigraph)을 덧붙인 극소수의 점토판에 불과하다. 그러나 앗슈르 왕국 말기에 아람 문자가 췌기문자와 함께 사용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Schnitzlein, 2023, pp. 400-412, 이전 문헌 참조). 앗슈르 제국이 멸망하면서 배우기, 읽기, 쓰기에 더 용이해서 위기나 재앙의 순간에 특히 적합했던 아람 문자가 앗슈르의 오래된 췌기문자체계를 완전히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앗슈르어는 상당기간 구어로 명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거나(Fales, 2021, p. 1348) 지난 140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다시 문자로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III. 바빌리 췌기문자의 소멸

바빌리 췌기문자의 소실에 대한 이야기는 앗슈르의 경우보다 복잡하지만 관련 연구가 많으므로¹⁶ 여기서는 일부 최근 자료와 참고문헌을 보충하며 기존 연구를 개괄하기로 한다.

기원전 1000년 이후 바빌리 역사에는 앗슈르 제국의 멸망과 매우 흡사한 순간이 있었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왕 키루스2세의 군대가 바빌리를 침공하여 수 차례 격렬한 전투 끝에 바빌리 도시를 점령하고 마지막 ‘토착’ 바빌리 왕인 나보니두스(Nabonidus)의 통치를 종식시켰다. 이후 바빌리는 페르시아 왕조부터 시작하여 기원전 331년 알렉산드로스

가 바빌리를 정복했고 수년 후에 셀레우코스(Seleucids) 왕조가, 그리고 기원전 141/125년부터는 파르티아 왕조가 통치했으며, 이후 이들 왕조는 어느 왕도 바빌리나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전통적인 도시에 거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시리아와 마찬가지로 아람어와 그 췌기체계는 바빌리 정복 전부터 수세기 간 바빌리 지역에서 사용되었으며 이 위기의 순간에 바빌리 췌기문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래된 바빌리 문자는 운명은 60여년여 전 앗슈르 췌기문자와 상당히 다른 운명을 맞았다. 실제로 바빌리 췌기문자는 적어도 600년은 더 바빌리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물론 모든 종류의 문서를 그 문자로 쓴 것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키루스 원통’과 일부 ‘정치적 선동을 위한 명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바빌리 서기관들이 새로운 통치자의 명예를 높이도록 그들을 대신하여 췌기문자 문서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페르시아인들은 곧 바빌리 췌기문자를 이용한 지배이념 강화에 대한 관심을 잃었고, 키루스의 ‘원통’과 셀레우코스왕조의 두 번째 통치자인 안티오코오스 1세(Antiochus I, van der Spek et al., 2025, pp. 989-1010)가 기원전 268년에 작성한 유사한 비문은 드문 예외로 남게 되었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Darius I)의 유명한 비쏘톤(Bisuton 또는 Behistun) 명문은 바빌리 췌기문자로 기록했고 페르시아어와 엘람어를 함께 썼는데, 아람어 필사본도 발견되었다. 신바빌리 왕조 시대에 정부 서신도 아람어로만 기록했는데, 이 시기가 되면 아람어가 널리 확산되었기 때문이다(Jursa, 2014). 이 분야에서 바빌리 췌기문자는 지배적 문자체계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보수적인 바빌리 신전 관련 분야에서도 알파벳을 쓰는 서기들이 기원전 7세기 문헌에 세피루(*sēpiru* 또는 *sepīru*)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고, 6세기 후부터 점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Bloch, 2018; Schnitzlein, 2023, pp. 423-435).

그럼에도 바빌리 췌기문자는 페르시아 통치 하에서 법률 문서와 편지부터 다양한 문화적 문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학양식에 계속 사용되었다. 이러한 문서는 이미 수백 년 동안 보존하고 필사해 온 것들이지만, 서기관들은 문학, 종교, 학술 작품, 특히 천문학-점성술에 관련된 새로운 문서도 작성했다.¹⁷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Xerxes, 재위. 기원전 485-

15. 앗슈르 췌기문자의 중요한 지원자였던 신전 역시 왕실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였다.

16. 특히 앞서 언급한 David Brown, 2008을 참조하라.

17. 기원전 539년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 메소포타미아에서 구할 수 있는 췌기문자 자료에 대한 최근 개요는 Alstola et al., 2023, p.7의 요약표를 참조.

기원전 465년)의 통치 초기에 바빌리가 여러 번 반란을 일으키는 등 위기가 있었는데, 왕은 이를 진압하면서 씽파르(Sippar), 바빌리, 보르썬파(Borsippa) 및 북부 바빌리 다른 도시에서 일부 중요한 개인 및 신전 기록 보관소를 파괴하였고 전통적인 성직록(prebend) 제도도 폐지하여 지방 고위층의 구조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Waerzeggers, 2018). 그래도 켈기문자 필기체계는 계속되었고 지역 사제들이 페르시아 시대 우룩의 종교 개혁을 강화하는데도 사용했으며 (Frahm, 2002), 특히 북부 바빌리에서 해방군으로 생각했을 셀레우코스 왕조가 등장하며 헬레니즘 통치로 전환된 후에도 살아남았다. 헬레니즘 시대에 켈기문자 문서를 계속 생산한 도시로는 바빌리, 보르썬파, 쿠타(Cutha), 키쉬(Kish), 님푸르(Nippur), 데르(Der), 우룩, 라르싸(Larsa) 등이 있다(Brown, 2008, p. 84).

다만 바빌리 서기관들은 서방에서 온 새로운 왕들이 바빌리 문화를 지지하게끔 설득하려 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베로소스(Berosus)라는 바빌리 출신 사제가 그리스어로 쓴 바빌리 문명사를 안티오코스 1세(Antiochus I, 또는 2세)에게 헌정했지만(Verbrugghe & Wickersham, 1996), 셀레우코스 통치자들은 가끔 방문하는 것 외에 전통이 깊은 대도시를 멀리하고 대신 티그리스에 지은 셀레우케이아(Seleucia)에 거주하면서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바빌론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바빌리 전통 도시 중심지, 특히 바빌리와 우룩지역의 지방 고위층들은 집단 행동을 삼갔으며 새로운 정치 현실을 맞아 대체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으로 이들은 셀레우코스 왕조가 가져온 그리스 문화의 요소를 지지하고 수용하였다. 우룩의 시민들은 바빌리 이름 외에 그리스 이름을 사용했고(Boiy, 2005) 바빌리 인장에 그리스 풍 문양을 쓰는 일이 확산되었으며(Lindström, 2003) 바빌리에 그리스식 극장이 세워졌다(van der Spek, 2001). 동시에 켈기문자 필기관행은 바빌리와 우룩의 도시 문화에는 깊이 뿌리내린채 지속되었다. 안티오코스 1세의 개혁으로 더 이상 점토에 기록하지 않던 노예 및 경작지 매도증서 외에 상업 및 특정 행정 업무는 계속 바빌리 켈기문자로 기록했으며 가끔은 편지를 쓸 때도 여전히 사용했다(Hackl, 2021, pp. 1467-1468).

또한 셀레우코스 시대에는 주로 바빌리에서 새로운 켈기문자 문학양식인 ‘사제 문학’(Jursa & Debourse, 2017, 2020)이 붐을 이루었는데, 이는 이전 2,000년간 메소포타미아 문학의 주요 관심사였던 왕의 위대함 보다는 바빌리 종교 지도자들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었다.¹⁸ 이 새로운 문학에서 왕들은 주변 인물이었으며 비썬이나 비판의 대상도 되었다. 이 시기에 켈기문자 학자들이 일으킨 또 다른 혁신으로 고도의 천문학 계산이 있다. 그 와중에도 전통적인 문학, 전례, 학술 텍스트에 대한 연구와 모방은 계속되었다.

셀레우코스 시대는 바빌리 다문화주의의 정점이었다. 바빌리와 우룩의 시민들은 자신이 활동했던 특정 사회, 경제, 종교 영역에 따라 바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를 사용했고 해당 언어가 대표하는 전통에 기반한 여러 정체성을 탐색하였다(Clancier, 2011).

그러나 셀레우코스 왕조의 마지막 수십 년간 켈기문자 문서를 생산하는 일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파르티아 왕조가 메소포타미아에서 권력을 장악한 후 이 경향이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셀레우코스에서 파르티아 통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랍인들의 습격 등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며 바빌리의 여러 도시가 혼란에 빠졌고 이는 아마도 지방 고위층이 평소처럼 필사 활동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법률, 행정, 서간문이 먼저 줄었으며,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문서들 중 우룩의 최종 기록은 기원전 108년(Kessler, 1984), 바빌리의 최종 기록은 그 보다 20여년 후였다.¹⁹

기원전 2세기와 기원전 1세기 초에 켈기문자로 쓴 편지들은 아주 적은 수만 알려졌는데, 이는 바빌리와 우룩의 신전, 즉 바빌리 문화와 가장 가깝게 지내던 시민들도 이 시기에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으며 바빌리 언어로 완전히 새로운 문서를 기록하기가 어려워졌음을 뜻한다(Hackl, 2021, pp. 1467-1469). 법률 및 행정문서, 소유권 증서, 편지와 쪽지 같은 문서를 지금은 소멸된 매체에 아람어와 그리스어로만 썼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빌리어가 서서히 구어라는 지위를 잃었다 해서 바빌리 문자 문화가 완전히 종말을 고한 것은 아니다. 현존하는 후기 켈기문자 문서들 중 대부분이 차지하는 바빌리

18. ‘제사장 문학(priestly literature)’이라는 용어는 현대 학자들이 히브리 성서에서 ‘제사장’ 자료를 발견한 데서 유래한다. 성서와 바빌리 문학은 모두 의식을 강조하고 통치자나 선설적 영웅이 아닌 종교적 인물의 개입으로 형성된 역사에 대한 이해와 같은 특정 이념적 약속을 공유한다.

19. 아래 날짜는 Brown, 2008, pp. 84-92과 Alstola et al., p. 2023을 참조하라. 이 2개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켈기문자 문서에 관해서는 따로 상세히 참조 및 논의할 것이다.



그림 2.

천문학 문서들 외에 바빌리 켈기문자로 쓴 가장 후대의 점토판 파편 중 하나: 기원전 22년에 지리학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틴티르(Tintir) 사본들 중 하나이며, 마지막 줄에 날짜를 기록한 문장이 일부 남아있다. BM 46073.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London. Electronic Babylonian Library (<https://www.ebl.lmu.de/library/BM.46073>).

에서는 발견되었는데, 기원전 80년경까지 슈메르어 에메살(Emesal) 방언으로 된 전례용 애가들을 필사하였고, 그 이후에도 전통문학 작품들을 새긴 점토판들을 기록하였다. 기원전 35년 10월 또는 11월에는 바빌리의 최고 신 마르둑(Marduk)에게 바치는 문학작 기도문을, 기원전 22년 2월 또는 3월에는 바빌리 도시의 신성한 지형을 이상적으로 설명한 틴티르(Tintir)는 작품의 5번째 점토판을 필사했는데 이 사본은 천문학과 관련이 없는 문서로는 바빌리에서 생산한 마지막 점토판이다(Jiménez & Mitto, 2024 / 그림 2 참조). 이러한 문서를 낀 점토판에는 대부분 날짜를 쓰지 않아 기원전 22년 이후에 복사된 다른 점토판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 '사제 문학'과 성전 의식을 기록한 마지막 점토판들을 기원전 1세기의 어느 시점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한 문학 및 종교 문서들보다 더 후대 기록들은 천문학에 관련되어 있는데, 모두 바빌리에서 발견되었고 특정 천체의 출현과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 가장 후대에 기록한 천문 일기(Astronomical

Diaries)는 기원전 60년²⁰에 작성하였으며 거의 동시기에 켈기문자로 '보통 항성 연감(Normal Star Almanacs)'과 점성술 자료도 마지막으로 작성하였다. 행성, 달, 태양 관측 기록은 기원전 10년까지 남아있고, 이른바 목표연도(Goal Year) 문서는 기원후41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후대의 켈기문자 문서는 새해 월별로 나타날 천체 현상을 예측하여 모아 놓은 이른바 '연감(Almanacs)'이다. 현대 학자들이 파악한 바빌리의 가장 후대 연감은 기원후 31/32, 36/37, 44/45, 61/62, 74/75년의 것들이다(Sachs, 1976).

2014년에 헤르만 흥어(Herrmann Hunger)와 타이에 드 용(Teije de Jong)은 1969년 우룩지역(Ue XVIII)에서 발굴되어 1976년에 처음 출판되었으나 잘 보존되지 않은 우룩 천문 연감이 실제로는 바빌론의 어떤 연감보다 훨씬 늦은 기원전 79/80년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재평가는 켈기문자 문화가 바빌론보다 우룩에서 더 오래 유지되었음을 보여 주면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현존하는 가장 후대의 켈기문자는 문서가 약 3,500년 전에 켈기문자를 발명한 도시의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Frahm, 2021).

최근 빅토르 지젠퍼그(Victor Gysembergh, 2023)는 이 시나리오를 지지하는데, 현대 학자들이 TU 11이라고 부르고 날짜가 없는 우룩 켈기문자 점토판을 "기원전 1세기 후반 또는 2세기 또는 3세기 중 특정 시점"에 작성했거나 실제로는 보다 후기에 작성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한다. 니딘 타-아누(Nidinti-Anu)의 아들인 아누-우발리트(Anu-uballit)이 아름다운 필체로 복사한 TU 11은 점성술, 천문학 및 기상을 예측하는 규칙을 담고 있다. 지젠퍼그가 제시한 연대는 654년의 주기에 대한 문서에 붙인 짧은 주석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기록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는 없다(TU 11, rev. 27-28).²¹ 지젠퍼그는 그 주석이 비잔틴 시대의 쉼다(Suda)와 게오르기오스 신크로스(George Syncellus), 플리니우스 세쿤두스(Pliny the Elder), 타키투스(Tacitus)의 작품에 기록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보았고,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Claudius) 시대에 유명한 이집트 불사조가 다시 나타났던 일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이 불사조가 등장한 지 654년 만에 다시 태어났고, 기원후 47년, 즉 영원한 도시 로마의 800주년을 기념하여 로마로

20. "천문 일기(Astronomical Diary)"는 광범위한 천체 관측 기록을 담고 있으며 때때로 역사적 사건이나 불길한 건물을 언급하는 문학 양식이다.

21. 본문에서 "654년"에 대한주석 뒤에는 이 석판을 복사한 원고에서 누락되었음을 가리키는 기호 소위 해피-주석(*hepi-gloss*)이 있다.

데려왔다고 한다. 지젬버그의 주장대로 불사조가 654년 주기로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서 결국 메소포타미아에도 영향을 미쳐 TU 11에 흔적을 남겼다면, 그 점토판을 기원후 47년 이전에 기록했을 리가 없다. TU 11을 쓴 서기의 형제가 우룩에서 쓴 매우 특이한 역수(reciprocal) 목록 TU 31도 똑같이 늦게 제작되었을 것이다.

다만 이 늦은 시기에 우룩에서 켈기문자 문화가 다시 융성했었다는 주장을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고 확실히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후대의 점토판이 기원전 108년 유물임을 고려할 때(Kessler, 1984), 연감, TU 11, TU 31에 대해 제시된 연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안 된다. 후기 바빌리 시대 천문학의 전문가인 존 스틸(John Steele)은 이미 연감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그는 “점토판의 천문학적 데이터가 모두 그 날짜[기원후 79/80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이 석판과 Ue XVIII 지역에서 발견된 다른 석판 중 가장 후대에 필사했던 시점 간에 300년의 공백이 있다고 지적한다(Steele 2019, p. 155). 이 논쟁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지만 존 스틸의 의구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TU 11과 TU 31에 관련된 사안이 훨씬 명확해진다. 지젬버그의 제안은 박식하고 정교하지만 면밀히 검토하면 오류가 드러난다. 기원전 3세기와 2세기 초의 것으로 이 두 점토판들과 우룩의 레쉬(Rēš) 사원에서 나왔으며 확실히 연대가 측정된 점토판들을 비교할 때 두 점토판의 제작 방식이나 서체가 뚜렷하게 유사함을 볼 때 이 문서들을 전부 기원전 3세기나 2세기 초에 썼다는 주장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핵심적 증거는 TU 11의 간기(coloph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리스 브락-번슨(Lis Brack-Bernsen)과 헤르만 홍어는 2002년 논문에서 이 점토판을 필사한 훈주(Hunzū)의 후손이자 이나-키빗-아누(Ina-qibit-Anu)의 손자 니딘티-아누의 아들 아누-우발릿이 기원전 215년과 214년에 각각 TU 16과 BRM 4, 12 점토판을 쓴 니딘티-아누의 아들 아누-우발릿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여 이 점토판의 연대를 기원전 3세기 후반으로 추정하였다. 지젬버그는 TU 11을 쓴 아누-우발릿의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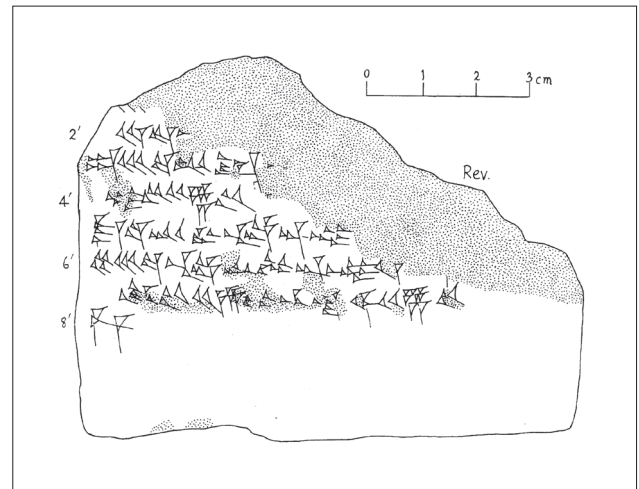


그림 3.

바빌리 켈기문자로 기록하고 확실한 연대 측정이 가능한 점토판들 중 가장 후대의 유물: 기원후 74/75년에 썼고 바빌리에서 발견한 천문 연감의 뒷면, 8번째 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켈기문자가 있다. 필라델피아의 드롭씨 컬리지(Dropsie College)에 보관되어 있었다. LBAT 1201. Abraham Sachs, 1976, p. 398)의 수작업 사본.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일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²² 그러나 사실 지젬버그 자신은 TU 16과 BRM 4, 12의 계보를 그 점토판을 쓴 서기의 것으로 그리고 그 소유자로 혼동하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두 사람은 다른 가문 출신이며 브락-번슨과 홍어가 재구성한 계보가 옳다.²³ 즉 TU 11과 TU 31은 기원후 1세기 이후가 아니라 기원전 3세기 말에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우룩에서 점토판에 켈기문자를 쓰는 관행이 기원후까지 살아남았다는 증거는 다소 미약하다. 당분간은 74/75년에 쓴 바빌리 천문 연감을 지금까지 발견된 켈기문자 문서들 중 가장 확실하게 연대 측정이 가능한 마지막 문서로 간주하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보인다(그림 3).

마지막 의문이 남는데 바로 헬레니즘과 파르티아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파피루스, 가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피지와 같은 점토가 아닌 다른 매체에 켈기문자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매체는 신앗슈르 시대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 널리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라크 땅에서 그런 예를

22. 지젬버그는 “TU 16의 간기에서 서기가 니딘티-아누의 아들이자 아누-벨슈누(Anu-belšunu)의 손자이며, (Ina-qibit-Ani가 아닌) 훈주의 후손인 아누-우발릿으로 언급되어 있고, BRM 4, 12의 간기에는 서기가 니딘티-아누의 아들인 아누-우발릿 그리고 이나-키빗-아누가 아닌 아누-벨슈누의 손자이고 훈주가 아닌 에쿠르-자키르(Ekur-zakir)의 후손”으로 언급된다.

23. TU 16과 BRM 4, 12에서 점토판의 소유자는 “에쿠르-자키르의 후손인 아누-벨슈누의 아들 니딘티-아누”이고, 서기는 “니딘티-아누의 아들, 훈주의 후손 아누-우발릿”이라고 적혀 있다. TU 11에서 석판 소유자는 “훈주의 후손이고 이나-키빗-아누의 아들인 니딘티-아누”이고 서기는 “그의 [즉 니딘티-아누의] 아들인 아누-우발릿”이라고 적혀 있다. 문제의 서기에 대해서는 Ossendrijver, 2011도 참조하라.

발견한 적은 없다.

일반적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파피루스, 가죽, 양피지에 쓰는 글은 모두 알파벳 문자를 사용했고, 처음에는 아람어, 나중에는 그리스어를 기록했으므로 앞서 언급한 세피루(*sēpiru*) 즉 바빌리의 여러 도시에서 이러한 매체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전문 서기들을 ‘알파벳 서기’라고 부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간혹 켈기문자를 유연하고 부드러운 소재에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학술적인 내용을 기록했고 바빌리에서 발견된 점토판들을 보면 간기 5개는 중 어떤 것은 파르티아 시대 초기로(기원전 100년경) 하계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Frahm, 2005; Sanders, 2025, pp. 229-236). 그 중 3개는 점토판에 쓴 문서의 다음 내용을 “양피지 두루마리”(바빌리어 ^{kus} *magallatu*, 아람어 *māgillā*에서 차용한 단어)에 기록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손상된 간기 2개는 해당 문서를 그러한 두루마리에서 필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 바빌리 전통 문서를 어떤 언어나 어떤 문자로 두루마리에 기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웰스너(Oelsner, 1972)는 이 두루마리가 그리스 문자로 음역되었다고 주장하고, 샌더스(Sanders, 2025, pp. 230, 232-34)는 아람어로 번역되었다고 추정한다.²⁴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두루마리를 언급하는 간기가 점토판에 새겨진 글에서 계속된 다음 내용(*(tuppu ša) arkišu*)을 언급하기 때문에 문제의 두루마리에 바빌리 켈기문자 문서를 잉크로 썼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Clancier, 2005, p. 90, fn. 23). 다만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다.²⁵

물론 샌더스가 제안한 것처럼 양피지 두루마리로 옮길 때 일부 켈기문자를 아람어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일부는 그리스 문자로 번역했을 수도 있다. 후자의 시나리오는 웰스너가 기한 것으로(1972) 바빌리에서 발견된 점토판 17개의 한

면에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바빌리와 수메르 켈기문자 문서에서 발췌한 내용을 새겼고,²⁶ 반대 면에는 이러한 내용을 그리스어로 음역하여 기록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²⁷ 몇몇 학자들이 이 점토판들을 ‘그레코-바빌로니아카(Graeco-Babyloniaca)’라고 부르면서 어떤 기능을 했을지 제안했지만, 필자는 여전히 웰스너의 주장을 지지하며 학생들이 바빌리어로 쓴 문서를 양피지에 그리스 문자로 음역하는 작업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레코-바빌로니아카 토판의 연대 측정은 상당한 논쟁거리이다. 마르크 겔러(Markham Geller, 1997)는 고문서학적 기준과 당시 음역체계에 근거하여 대부분이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 사이에 썼지만, HSM 1137은 기원후 2세기 또는 심지어 3세기까지 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후자의 주장은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아게 베스텐홀스(Aage Westenholz, 2007)는 그레코-바빌로니아카의 연대를 기원전 50년에서 기원후 50년으로, 데이비드 브라운(David Brown, 2008, p. 87)은 이 중 마지막 기록을 “그리스도 시대 무렵”에 썼다고 보고 있으며, 캐트린 스티븐스(Kathryn Stevens, 2019, p. 141)는 더 이른 기원전 2세기 말 또는 1세기 초로 본다.

다시 말해 바빌리에서 나온 증거는 켈기문자가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점토판 중 74/75년에 기록한 것이 마지막이며, 그 이후에도 계속 쓰였다는 시나리오를 증명할 추가 증거를 많이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고전 시대 자료에서 바빌리 문학과 학문을 대한 언급하지도 않는다(Westenholz, 2007, pp. 294-309; Geller, 1997에 대한 회신).²⁸ 바빌리 텍스트는 아람어,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쓴 작품과 후대의 구전 전통에서 새로운 맥락에 맞게 수정, 변형된 형태로 살아남았다(Westenholz, 2007, p. 308; Frahm, 2025).²⁹ 다만 본 논문은 바빌리 문화를

24. 모음을 표기할 수 없는 아람어는 바빌리 문자, 특히 수메르 문자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 문자로 음역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25. 앗슈르바니팔 도서관에 있는 점토판 3개의 간기에 잉크로 쓴 켈기문자가 알려져 있다(Schnitzlein, 2023, p. 350). 그 중 하나의 사진은 <https://cdli.ucla.edu/P3967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 Schnitzlein, 2023, pp. 438-442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점토판을 제작한 학생들은 이미 켈기문자를 써본 경험이 있었다.

27. 이 중 점토판 3개는 바빌리 문서의 그리스어 역본만 있다. 문제의 점토판에 대한 가장 최근 논의와 점토판 목록은 Lang, 2023과 Schnitzlein, 2023, pp. 437-442을 참조하라.

28. 본 연구의 범위 안에서 이러한 고전적 기록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기 어렵다.

29. 스테판 몰(Stefan Maul, 1995, p. 16)은 그리스어로 음역된 바빌리어 문서를 알렉산드리아의 사전학자 헤시키오스(Hesychius, 기원후 5세기 또는 6세기)가 소장했고, 그가 여러 바빌리 및 수메르어 단어에 대한 용례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어는 다른 방식으로 전해졌을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다루지 않고 켈리문자의 소멸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뿐이다.³⁰

IV. 맺음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의문이 남는다. 바빌리가 정치적 독립을 상실한 후에도 바빌리 켈리문자가 그토록 오랫동안 사용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결국 소멸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다루었다. 기원전 539년 바빌리가 페르시아에 정복당했을 때 유혈 사태는 있었지만 기원전 615-기원전 609년에 앗슈르가 겪었던 것과 같은 파괴를 경험하지는 않았다. 바빌리 북부의 여러 주요 신전을 감독하던 사제와 행정관들이 크세르크세스(Xerxes) 시대에 여러 번 반란을 일으킨 후 새로운 통치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바빌리 도시들의 지역 기관, 특히 신전은 거의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바빌리 도시의 지도층은 앗슈르의 '상류층'보다 통치자인 왕에게 심하게 의존하지 않았고 시민적 자부심이 강했으며 그들이 사용한 3계층 계보에서 알 수 있듯이 소속가문에 더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Joannès, 2024, pp. 20-25).³¹ 이는 그들에게 높은 자존감을 불어넣었고 역경에 직면했을 때도 강한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켈리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아람어가 점점 세계 공용어가 되고 아람 문자가 지역 간 의사소통의 기본 수단이 된 환경에서 켈리문자는 바빌리 엘리트들에게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특히 적합한 도구였으나 수세기에 걸쳐 점점 일상적인 세계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헬레니즘 시대의 바빌리 켈리문자로 쓴 '제사장 문학'은 아마도 이러한 내면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장 인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일 것이다.

다만 바빌리 고위층의 고립과 문화적 고착화 현상이 바빌리 켈리문자 문화가 결국 멸망한 주된 이유이다. 이 종말을 막을 수는 없었다. 바빌리 켈리문자는 다른 문자체계와 경

쟁하고 심지어 일상 용어였던 바빌리어가 소멸되었을 때도 살아남았다.³² 경제 위기가 여러번 있었지만 바빌리 문자를 종식시키지 못하였다. 헬레니즘과 파르티아 시대에 옛 바빌리 도시들은 티그리스 강가의 셀레우키아/크테시폰(Seleucia/Ctesiphon)이나 페르시아만 입구의 카락스 스파씨노우(Charax Spasinou) 등 새로운 도시들 때문에 점점 힘을 잃었고, 새 도시들이 이전에 바빌론과 바빌리와 우르시가 수행하던 중요한 기능을 대신하였다. 그러나 바빌리, 키쉬, 님푸르, 우룩, 라르싸 등지는 모두 파르티아 시대에도 고고학 유적이 상당수 남아 있으며, 일부는 사산왕조 시대의 유적도 남아 있어 아직 버려진 도시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Oelsner, 1986).

켈리문자가 기원후 100년경에 종말을 맞이한 것은 아마도 지성인들이 심각하게 고갈된 상태에 빠진 결과였을 것이다. 바빌리 문자 문화의 마지막 보루였던 바빌리 사제들은 셀레우코스 시대와 초기 파르티아 시대에 새로운 '사제 문학'을 창조하면서 마지막으로 켈리문자를 되살리기 위해 용감한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생각이 같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 문학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새로운 문학 작품들 속에는 더 넓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나 규범적 지침이 없었으니, 즉 히브리 성서처럼 위대한 이야기, 법률 규정, 영혼을 탐구하는 신학,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규칙에 관해 논의하는 내용이 없었다. 정교함이 날로 낮아지는 천문학 관련 문서를 계속 생산해도 그러한 자료의 부족을 보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바빌리 문화의 요소들이 적어도 한동안은 구두로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해 전승되었지만, 켈리문자는 결국 버려지고 말았다.

모든 일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을까? 켈리문자의 느린 소멸과 그에 따른 자료 부족으로 인해 파르티아 시대 바빌리는 여러 면에서 현대 사가들에게 일종의 암흑기인 '블랙박스'로 남아 있다. 언젠가 새로운 발견을 통해 켈리문자가 소멸된 이유를 다시 살펴보고 나은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기초로 판단할 때 이 글에서 설명한 시나리오가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감수: 윤성덕

30. 후자의 생존에 '최대주의' 입장에 선 Dalley, 1998을 참조하라.

31. 반면 앗슈르에서는 이름과 때로는 직위 및 직업으로 개인을 식별했고 아버지와 조상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32. 이는 앗슈르 언어보다 훨씬 전에 멸종된 앗슈르 켈리문자와는 매우 대조적이다(Fales, 2021).

2

Essay

Eckart Frahm

Department of Near Easter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Yale University

The Disappearance of Cuneiform Writing in Assyria and Babylonia

A Comparative Approach

I —————

Introduction

II —————

The disappearance of Assyrian
cuneiform

III —————

The disappearance of Babylonian
cuneiform

IV —————

Conclusions

I. Introduction

The birth and history of writing, the emergence of specific scripts, and the decipherment of unknown writing systems are popular topics, tackled regularly both by scholars and by authors writing for more general audiences (Ferrara, 2022, and Hammer, 2025).¹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Hangeul alphabet under King Sejong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15th century AD or the decoding of the Egyptian hieroglyphs by Jean-François Champollion are well-known and rightly celebrated examples. The disappearance of writing systems, in contrast, is discussed only rarely – even though most of the writing systems that were in use throughout human history have been lost at some point (Baines et al., 2008, p. 347).² In this essay, I hope to shed some new light on the topic through two case studies related to cuneiform writing and its “disappearances” in ancient Mesopotamia.

Of the various writing systems known from the ancient Near East, cuneiform was by far the most important. Normally inscribed with a reed stylus on wet clay, this complex logo-syllabic system of writing was in use well into the first century of the common era, if not longer.

The Babylonian cuneiform script employed during the last centuries of Mesopotamian history

was the offshoot of a writing system invented in Mesopotamia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fourth millennium BCE and initially used to record texts in the Sumerian language.³ Some one-thousand years later, the early cuneiform script was adopted by speakers of a Semitic language, Akkadian, which is attested in the form of the original Old Akkadian and two main dialects derived from it, both in use since roughly 2000 BCE: Babylonian, which was spoken in what is now the southern part of the modern Republic of Iraq, and Assyrian, the language of the people who lived in the northern part of that land. Due to the particular ways they evolved in their respective local environments, many sign forms in Babylonian and Assyrian cuneiform are different, but the structural set-up and the main features of the two varieties are identical and the readings of the signs are largely the same, which is why modern scholars speak of a unified “Assyro-Babylonian” writing system.⁴ The same script continued to be used for Sumerian, which ceased to be spoken around 2000 BCE but remained an important cultural language until the end of Mesopotamian civilization. Over time, cuneiform recorded other languages as well, among them Eblaite (considered by some a dialect of Akkadian), Hittite (the earliest attested Indo-European language), Hurrian, Elamite, Kassite, Urartian, and several additional ones.⁵ Each

1. For additional case studies, see also Kim & Kim, 2025.

2. One study that covers the subject, Baines et al., 2008, is a collective volume devoted to writing systems of different type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While not encyclopedic in scope, its various essays allow for useful comparison between diverse scenarios of script obsolescence. Three of the sixteen chapters of the volume, the ones on Hieroglyphic Luwian, Neo-Elamite cuneiform, and Babylonian cuneiform, deal with the disappearance of writing systems from the region also covered in the present essay: the ancient Near East.

3. This simplifies a much more complex story, but the present essay is about the disappearance of cuneiform writing and not its invention.

4. The most comprehensive and reliable modern sign list available for students of this script is Borger, 2010.

5. In what is the most comprehensive assessment to date (Streck, 2023, p. 198), the overall number of cuneiform texts currently accounted for is estimated at 600,000. Many additional ones housed in private and public collections all over the world have never been catalogued, of course, and new ones are being excavated on a regular basis.

of these varieties of cuneiform writing disappeared at some point, Hittite cuneiform, for instance, after the collapse of the Hittite kingdom around 1220 BCE⁶ and Assyrian and Urartian cuneiform with the fall of the Assyrian and Urartian states in the late seventh and early sixth centuries BCE.

Scholarship has focused very much on the disappearance of Babylonian cuneiform early in the common era, which is understandable, as it represented the final demise of cuneiform writing altogether. But thinking about the reasons why earlier varieties of cuneiform stopped to be used is worthwhile as well, and comparing their cases to that of Babylonian cuneiform – which was unusual in being not so evidently linked to political events – can help put the latter into sharper relief. The goal of this short essay is to make some progress in this direction by looking at the disappearance of Assyrian cuneiform around 600 BCE and the final loss of Babylonian cuneiform some 700 years later in tandem.⁷ Factors considered in the following include a) political crises caused by foreign aggressors or internal strife; b) language change and loss; c) cultural and religious transformations; and d) social factors such as shifts within imperial and local elites.

II. The disappearance of Assyrian cuneiform

For most of the seventh century BCE – the heyday of the Assyrian Empire – Assyrian cuneiform writing was ubiquitous. It was used in the chancelleries of the Assyrian state, in the

scriptoria of Assyrian temples, and by private citizens, and served to record a wide variety of texts: monumental inscriptions celebrating the deeds of Assyrian kings; cultural texts such as myths and epics, omen treatises, medical handbooks, commentaries, and descriptions of private and public rituals; and everyday texts ranging from letters and legal documents to debt notes and administrative memoranda. Modern explorers have recovered tens of thousands of such texts, many of them fragmentary, from the ruins of Assyrian archives and libraries, and from secondary or tertiary contexts such as the fill deposits underneath the floor levels of buildings. Most of them were written on clay tablets, while others were inscribed on stone and metal. Assyrian library notes and colophons suggest that cuneiform texts were, moreover, regularly written on writing boards made of wood or ivory and covered with a surface of wax, of which only few have survived. The apex of Assyrian cuneiform culture was reached during the reign of King Ashurbanipal (668–631 BCE), who collected tens of thousands of tablets in his famous libraries at Nineveh (Finkel, 2019). They were inscribed with texts in the Assyrian, Babylonian, and Sumerian languages, using both Assyrian and Babylonian cuneiform script.

By around 600 BCE, this enormously rich writing tradition had all but vanished. We have virtually no texts in Assyrian cuneiform from the great metropolises in the Assyrian heartland – Ashur, Calah (Nimrud), Dur-Šarrukin (Khorsabad), and Nineveh – that can be dated to the last decade of

6. At about the same time, the use of cuneiform came to an end in Egypt and the Levant, where it had been mainly employed to communicate with foreign rulers.

7. For a comprehensive general study of the practice of cuneiform writing in first millennium BCE Mesopotamia, see Schnitzlein, 2023.

the seventh century BCE or after.⁸ This can hardly be attributed to the accidents of discovery, as all these sites have been thoroughly excavated. So what had actually happened?

The main reason for the abrupt end of Assyrian writing is obvious: between 615 and 612 BCE, the combined forces of the Babylonians and the Medes had invaded Assyria's core territory and had conquered and largely destroyed most of Assyria's main cities, including Arrapha, Ashur, Nineveh, and Calah. Three years later, Aššur-uballiṭ II, the last claimant to the Assyrian throne, vanished from the city of Ḫarran, in the western part of the empire, which brought 1400 years of Assyrian statehood to a close (Frahm, 2023, pp. 323–347). The archaeological evidence – skeletons of the fallen in the city gates of Nineveh and the streets of Ashur, burned palaces, and collapsed temples and private houses – confirms the extraordinary statement in the Babylonian Chronicle that the Babylonians and Medes had “inflicted a terrible defeat upon a great people” (Glassner, 2004, pp. 220–223).

But Assyrian urban culture and Assyrian religion were not entirely gone with these events. Despite the destruction brought in 614 BCE on the city of Ashur, the worship of the god Ashur and his wife Šerua continued there for another 800 years, well into the second century AD (Livingstone, 2009). In Nineveh and Calah, the evidence for continuity is less prominent, but these cities were not entirely abandoned either. And Arbela (modern Erbil) in eastern Assyria, largely inaccessible to archaeologists due to its continued habitation, is known to have been an urban center of some significance in the

Achaemenid period (Hauser, 2017).

Relatively recent new discoveries have, moreover, shown that outside Assyria's core territory, Assyrian cuneiform writing did actually not disappear straight away with the fall of Nineveh in 612 BCE, as scholars had for a long time thought. A letter in Assyrian cuneiform from Tušḫan (modern Ziyaret Tepe in southeastern Turkey), for example, most likely written by the Assyrian governor of that city, has been dated to 611 BCE (Parpola, 2002–2003, pp. 86–87; Radner, 2014, pp. 83, 225). A dramatic – and ultimately unheeded – plea for help in view of the approaching enemy forces, the letter shows us a more peripheral region of the Assyrian state in its death throes.

Even later – and therefore more interesting – is another recently published document in Assyrian cuneiform, found in a field near the Turkish city of Hasankeyf (Toptaş & Akyüz, 2021). A record about the sale of several fields and orchards, it is dated to “the ninth year of Lâbasi, the (Assyrian) chief cupbearer,” when “Ubakisteri was the Median king.” As demonstrated by Michael Roaf (2021), this Ubakisteri can only be Umakištar (or Cyaxares, as the Greeks called him), the Median ruler who had brought about Assyria's fall. It seems that Lâbasi's little lair was a last effort by a member of Assyria's imperial elite – to which the “chief cupbearer” undoubtedly belonged – to uphold a miniature version of the Assyrian state in a remote area only formally controlled by the new Median strongman. Assuming that Lâbasi had established this tiny enclave directly after the disappearance of Aššur-uballiṭ II in 609 BCE, the document would have

8. A few tablets from Ashur are dated by eponyms – officials whose names were used in Assyria to mark individual years – who cannot yet be securely placed chronologically and might belong to the period after the attack on the city in 614 BCE. Editions of them are found on the ATAE website created by Karen Radner and her Munich team at <https://oracc.museum.upenn.edu/atae/BrowseTextsbyDate/Extra-canonicalEponyms/index.html>. For the time being, there remains a lot of uncertainty regarding the dating of these texts.

been written in 600 or 599 BCE.⁹ The scribe of the document, Kišir-Nabû, is explicitly said to have hailed from Ashur, from where he may have fled shortly before or after the Median attack on the city in 614 BCE. Kišir-Nabû may be identical with a homonymous priest and exorcist from Ashur who is known to have written numerous scholarly texts found there.¹⁰

Excavations in the cities of Guzana and Dur-Katlimmu, Assyrian provincial centers in the western part of the empire, have produced a few legal documents in Assyrian cuneiform from the time of Aššur-uballiṭ II, Assyria's last ruler.¹¹ Four tablets from Dur-Katlimmu, written in 603/02 and 600 BCE, respectively, are even later (Radner, 2002, pp. 16–19, nos. 37–40). They are all dated after regnal years of the Babylonian king Nebuchadnezzar II, indicating that the local authorities in Dur-Katlimmu acknowledged this ruler as the city's new overlord, even though, rather than resorting to Babylonian models, the Dur-Katlimmu scribes continued for a few years to use Assyrian tablet formats and the Assyrian script when composing written records. After 600 BCE, however, no such tablets seem to have been produced any more.

In Babylon itself, the new imperial center, tablets written in Assyrian cuneiform have been found as well, among administrative texts from an archive unearthed in Nebuchadnezzar II's South Palace. The five rations lists in question have only recently been fully published (Pedersén, 2025, nos. 423–427, earl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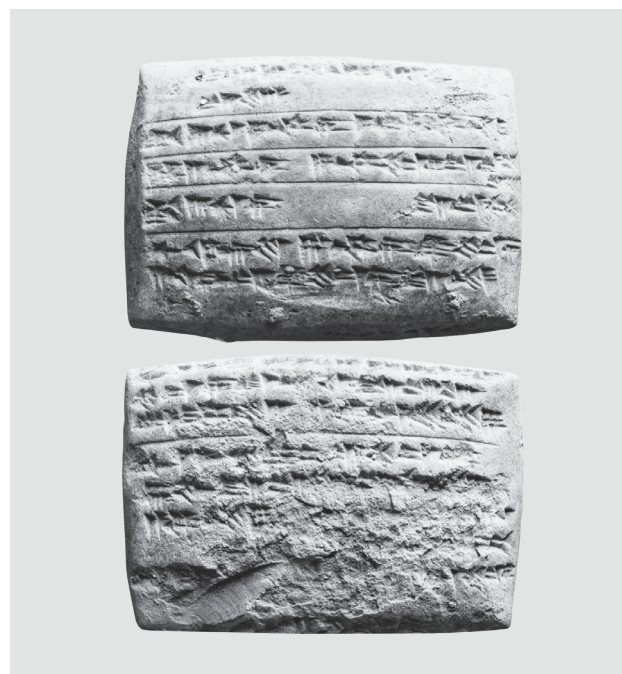


Fig 1. The latest securely datable tablet written in Assyrian cuneiform: a ration list from Babylon from 597 BCE.
Excavation photos Bab 27276 Bab Ph 1235 (1 1) and 1236 (1 1). The Cuneiform Digital Library Initiative (<https://cdli.earth/artifacts/532884/reader/238288>).

discussion: Pedersén, 2009). It seems that the latest of them, no. 426, dates to the year 596 BCE, which would make it the last securely datable text written in Assyrian cuneiform (Fig 1).¹²

Apparently, Assyrian survivors of the Babylonian and Median attacks on their land had at some point secured employment as mid-level bureaucrats in Nebuchadnezzar's palace chancellery in Babylon, or were forced to serve in such a capacity.

Other Assyrians who had their homes in Babylonia, some possibly from families that had

9. A slightly later date is not excluded.

10. For this possibility, see Frahm, 2023, p. 339 (in the first edition of the book, Kišir-Nabû's name is incorrectly rendered as "Kisir-Ashur"). Maul, 2010, pp. 196–216, provides a short sketch of Kišir-Nabû's career in Ashur. I am planning to cover the whole episode more extensively in a future article.

11. For editions and additional bibliographical references, see Radner, 2002, no. 199, and the ATAE website at <https://oracc.museum.upenn.edu/atae/BrowseTextsbyDate/Ashur-uballitII611-609BC/index.html>. The dates of the texts are not entirely certain.

12. Pedersén isn't quite sure if one should read "6th year" or "9th year" (of Nebuchadnezzar), but based on the photo on the CDLI platform (<https://cdli.earth/artifacts/532884/reader/238288>), the numeral seems quite clearly a "9."

lived there for quite some time, continued to engage in religious and cultural practices rooted in Assyrian traditions. Ample evidence for this has come to light in the city of Uruk, where individuals with clearly Assyrian personal names worshipped the god Ashur in a sanctuary dedicated to him well into the second half of the sixth century BCE (Beaulieu, 1997).¹³ But so far, all the known texts documenting the activities of this community are written in Babylonian rather than Assyrian script. An Assyrian tablet from Ashurbanipal's libraries found among tablets owned by a late fourth century BCE exorcist in Uruk (von Weiher 1983, no. 46; Beaulieu, 2010) must be considered an heirloom. To summarize: even though there is now evidence that the active use of the Assyrian cuneiform script survived the fall of the Assyrian Empire, it seems clear that it did so for only a little more than a decade. Then, Assyrian writing really did come to an end.

So, it is often assumed, did the practice of cuneiform writing in northern Mesopotamia in general – although two exceptional discoveries from a few decades ago may require a more qualified assessment of the situation. The first of these finds is a legal tablet in Babylonian cuneiform that was excavated at the site of Tell Tawilan in Jordan but was written, as the tablet itself states, by a Babylonian scribe in the (formerly Assyrian) city of Ḫarran during the accession year of “Darius, king of the lands” (Dalley, 1984). Depending on whether the Persian king in question was Darius I or Darius II (Darius III can probably be excluded), this would point to a date in March 521 or April 423 BCE. Stephanie Dalley, who published this remarkable text, considered it proof for a continued cuneiform tradition in Ḫarran. Francis Joannès, in contrast, suggested that the tablet – which features individuals

with Edomite and Aramaean names – might have been written by a scribe who accompanied a Persian army contingent during one of the military campaigns to the Ḫarran region that we know took place at the beginnings of both Darius I and Darius II's reigns (Joannès, 1987). In Joannès's view, the tablet can therefore not be taken as evidence for a continued use of cuneiform writing in Ḫarran in the centuries after the fall of Assyria.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o is right here, but given that the Babylonian king Nabonidus left monumental cuneiform inscriptions in Ḫarran (Weiershäuser & Novotny, 2020, pp. 185–198), and in light of the fact that Ḫarran's “pagan” customs survived well into the Middle Ages (Green, 1992), it seems not unfeasible that cuneiform writing did survive longer in Ḫarran than it did in the Assyrian territories further to the east.

The second find that must be briefly discussed here is a clay tablet uncovered by a Japanese archaeological team in a pit filled with artifacts from the Hellenistic period at the site of Tell Fisna some 40 kilometers north of Mosul. The tablet is inscribed with well executed but mostly unattested and unintelligible “cuneiform” signs – many with wedges oriented in odd ways – interspersed with numbers likewise recorded in cuneiform. Jeremy Black, who edited the text (1997), argued that it might be some kind of Astronomical Almanac deriving from an otherwise lost branch of writing ultimately rooted in Assyrian traditions. David Brown, in contrast, one of the few Assyriologists who have discussed the tablet (2008, pp. 96–97), considered it more likely that it was an import from southern Babylonia. Neither Black nor Brown questioned the authenticity of the tablet, but given its strange sign forms, one wonders if the text might not actually be an ancient exercise

13. The god's name is rendered as An-šár in the respective texts, possibly in an attempt to assimilate him to the sky god An(u), who played an important role at Uruk.

in pseudo-writing, possibly inspired by a Babylonian Astronomical Almanac.¹⁴

Be this as it may: the evidence continues to suggest that Assyrian cuneiform writing as we know it was given up in northern Mesopotamia shortly after the fall of the Assyrian Empire – and the massive destruction wrought on Assyria by its enemies was definitely a major factor in its disappearance. But the sudden loss of a writing system that had been in place for so long still requires some additional explanation, especially when considering that especially at Ashur life did eventually go on, despite the damage the city had suffered during the attack of 614 BCE. There is evidence that a Babylonian governor was stationed in Ashur in the year 559 BCE (Jursa, 2003, p. 173), and the Persian king Cyrus claimed, in his famous Cylinder inscription from Babylon (Finkel, 2013), that he repatriated a statue of the god Ashur back to his home city in the 530s.

I believe two additional factors must be considered when pondering the sudden loss of Assyrian cuneiform. The first is that, as a result of a sustained “social reengineering” program initially implemented by Ashurnasirpal II (883-859 BCE) (Radner 2011) and later continued by several other rulers, the Assyrian elite had become over time highly fragmented and extremely focused on the king. Within the highest echelons of Assyrian society, there was little civic pride, and many of the highest officials and army leaders in Assyria were eunuchs who lacked any sense of family (Frahm, forthcoming). Brought about in the spirit of meritocratic ideals and as a bulwark against possible insurrections against the king, this atomization of

Assyria’s “upper class” had unforeseen consequences when the Assyrian royal dynasty suddenly came to an end. Bereft of their guiding star, the king, the surviving members of the Assyrian elite did not only prove unable to muster enough strength to keep Assyrian statehood going; they also failed to take over the role of stalwarts of Assyrian culture, whose institutional and intellectual scaffolding had likewise been closely related to the monarch. Assyrian cuneiform writing was, of course, an integral component of this culture.¹⁵

Still, despite everything, cuneiform writing might have survived in Assyria if there had not been yet another factor. From the 11th century BCE onwards, the Assyria state had experienced a steady influx of Aramaeans, who increasingly took over important positions, and whose language and writing system became more and more widely used. In fact, even though its cultural prestige remained limited, it was Aramaic and not Assyrian that established itself as the lingua franca during Assyria’s imperial heyday (Beaulieu, 2006). Because Aramaic texts were usually written on perishable leather or papyrus, all that is preserved of Aramaic writing from Neo-Assyrian times is a very limited number of clay tablets and other objects either entirely inscribed in Aramaic or supplied with Aramaic epigraphs. But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Aramaic script was used side by side with cuneiform during the Assyrian kingdom’s last centuries (Schnitzlein, 2023, pp. 400–412, with earlier literature). When Assyrian statehood came to an end, the Aramaic alphabet, easier to memorize, read, and write – and therefore particularly suited for moments of crisis and catastrophe – seems to have replaced Assyria’s age-old cuneiform writing system

14. The possibility that the Tell Fisna tablet is a modern forgery, though apparently ruled out by the circumstances of its discovery, should perhaps not be entirely excluded either. The text deserves further study.

15. Assyrian temples, another important sponsor of Assyrian cuneiform writing, had likewise heavily relied on royal support.

entirely. Assyrian was probably still spoken for quite some time (Fales, 2021, esp. p. 1348), but it would henceforth never again be written in the script in which it had been recorded for the previous 1400 years.

III. The disappearance of Babylonian cuneiform

The story of the loss of Babylonian cuneiform writing is more complex than the Assyrian case, but also better explored,¹⁶ which means that a basic outline of the established facts, supplemented with some new data and new bibliographical references, will suffice here.

There was a moment in first millennium BCE Babylonian history that seems to closely resemble the fall of the Assyrian Empire, at least at first glance. In 539 BCE, troops of the Persian king Cyrus II invaded Babylonia and, after a series of bloody battles, seized the city of Babylon, bringing the rule of the last “native” Babylonian king, Nabonidus, to an end. From now on, Babylonia would be ruled by foreign dynasties, first the Persians, then, a few years after Alexander’s conquest of Babylon in 331 BCE, the Hellenistic Seleucids, and eventually, beginning in 141/125 BCE, the Parthians; and none of the kings belonging to those dynasties would henceforth reside in Babylon or any other of the traditional cities of southern Mesopotamia.

But despite the fact that, just as in Assyria, the Aramaic language and the Aramaic alphabet had been in use in Babylonia for centuries prior to the land’s conquest and could have replaced Babylonian cuneiform writing entirely in this moment of crisis, the fate of the age-old Babylonian script wa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Assyrian cuneiform some sixty years earlier. In fact, Babylonian cuneiform remained in use in Babylonia for another 600 years, at the very least.

This did, admittedly, not apply to all areas of writing. Initially, as the aforementioned “Cyrus Cylinder” and a few other “propaganda texts” show, Babylonian scribes continued to produce cuneiform texts on behalf of and for the greater glory of their new overlords. But the Persians soon lost interest in such exercises of ideological self-aggrandizement through the medium of Babylonian cuneiform, and Cyrus’s “Cylinder,” along with a similar inscription composed in 268 BCE for the second ruler of the Seleucid dynasty, Antiochus I (van der Spek et al., 2025, pp. 989–1010), remained rare exceptions. The famous Behistun text of the Persian king Darius I was recorded in Babylonian cuneiform too, but also in Elamite and Persian, as well as in Aramaic. State correspondence was now likewise conducted exclusively in Aramaic – as it largely already had been during the time of the Neo-Babylonian dynasty (Jursa, 2014). Babylonian cuneiform never regained its position as the preeminent writing system in this domain. And even in the – more conservative – sphere of the Babylonian temple, alphabet scribes known as *sēpirus* (or *sepīrus*), first attested in texts from the seventh century BCE, seem to have played an increasingly significant role from the sixth century onwards (Bloch, 2018; Schnitzlein, 2023, pp. 423–435).

Still, Babylonian cuneiform continued to be used under Persian rule to record numerous text types, from legal documents and letters to a wide variety of cultural texts. Some of the latter with century-old histories were faithfully copied, but scribes also composed new literary, religious, and scholarly works, especially astronomical-astrological ones.¹⁷

16. See especially the aforementioned article by David Brown (2008).

17. For a largely up-to-date overview of the cuneiform sources available from Mesopotamia from the time between 539 BCE and the first century AD, see Alstola et al., 2023, with a table summarizing the evidence on p. 7.

There were crises, including a series of Babylonian revolts at the beginning of the reign of the Persian king Xerxes I (485–465 BCE), whose repression seems to have led to the termination of some important private and temple archives in Sippar, Babylon, Borsippa, and other cities in northern Babylonia, and to a restructuring of the region's urban elite, marked by the abolishment of the traditional prebend system (Waerzeggers, 2018). But cuneiform writing went on, was employed by local priests to bolster a religious reform in Persian-period Uruk (Frahm, 2002), and survived the transition to Hellenistic rule with the rise of the Seleucid dynasty, which was probably considered by many, especially in northern Babylonia, a liberation. Cities that continued to produce cuneiform texts during Hellenistic times included Babylon, Borsippa, Cutha, Kish, Nippur, Der, Uruk, and Larsa (Brown, 2008, p. 84).

But Babylonian scribes largely failed in their attempts to co-opt the new kings from the west into fully endorsing Babylonian culture. A priest from Babylon known by the (Hellenized) name Berossus dedicated a history of Babylonian civilization written in Greek to Antiochus I (or II) (Verbrugghe & Wickersham, 1996), yet except for occasional visits, the Seleucid rulers stayed away from the age-old metropolis, residing instead in the newly founded city of Seleucia on the Tigris, which began to sideline Babylon, especially in economic terms.

The local elites in the traditional urban centers of Babylonia, most notably Babylon and Uruk, reacted to the new political realities in seemingly inconsistent but probably, in fact, complementary ways. On the one hand, they endorsed and adopted elements of

the Greek culture brought along by the Seleucids. Citizens in Uruk assumed Greek names in addition to their Babylonian ones (Boiy, 2005), Greek motifs began to proliferate on Babylonian seals (Lindström, 2003), and a Greek-style theater was built in Babylon (van der Spek, 2001). At the same time, the practice of cuneiform writing remained deeply engrained in the urban culture of Babylon and Uruk. Except for bills of sale for slaves and arable land, which, in the wake of reforms under Antiochus I, were no longer documented on clay, business transactions and certain administrative acts continued to be recorded in Babylonian cuneiform, which was also still used, albeit only occasionally, for letter writing (Hackl, 2021, pp. 1467–1468).

The Seleucid period saw, moreover, mostly in Babylon, a boom in the production of a new type of cuneiform “priestly literature” (Jursa & Debourse, 2017 and 2020), aimed at extolling the virtues of the religious leaders of Babylonian cities rather than praising the greatness of kings – a main preoccupation of Mesopotamian literature during the previous two thousand years.¹⁸ Kings became rather marginal figures in this new literary genre and occasionally even targets of – mostly oblique – criticism. Ever more sophisticated astronomical calculations were another innovation introduced by cuneiform scholars during this time. All the while, traditional literary, liturgical, and scholarly texts continued to be studied and copied as well.

The Seleucid era marked the apex of Babylonian multi-culturalism. Depending on the specific social, economic, and religious domains in which they operated, the citizens of Babylon and Uruk spoke (and wrote) Babylonian, Aramaic, or Greek, and they

18. The term “priestly literature” draws on the identification by modern scholars of a “priestly” source in the Hebrew Bible. Both literary strands, the Biblical and the Babylonian, share certain ideological commitments, such as a strong emphasis on ritual and an understanding of history as shaped by the interventions of religious figures rather than by rulers or legendary heroes.

navigated multiple identities grounded in the traditions represented by these languages (Clancier, 2011).

But in the course of the last decades of the Seleucid régime, it seems that the production of cuneiform texts began to slowly decline, a process that continued more precipitously after the Parthian dynasty assumed power in Mesopotamia. During the transition from Seleucid to Parthian rule, Arab raids and other disturbances led to chaos in several Babylonian cities, which probably had an impact on the ability of their municipal elites to carry on with their scribal activities in the same way as in previous years. Legal, administrative, and epistolary texts fell out of use first – the last datable one known from Uruk was written in 108 BCE (Kessler, 1984), the last ones from Babylon some 20 years later.¹⁹

Very few letters written in cuneiform are known from the second and early first centuries BCE, suggesting that even those citizens of Babylon and Uruk most closely associated with the temples – and thus with Babylonian culture – probably spoke Aramaic as their first language at this point and found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produce completely new texts in the Babylonian language (Hackl, 2021, pp. 1467–1469). Legal and administrative documents, title deeds, and messages and memos were now apparently written exclusively in Aramaic and Greek, on media that have not survived.

But the slow demise of Babylonian as a spoken language did not mark the end of Babylonian written culture altogether. In Babylon, from where the lion share of the extant late cuneiform texts originates, liturgical lamentations in the Sumerian Emesal dialect were copied until c. 80 BCE, and a few tablets inscribed with traditional literary texts are known from even later times. A literary prayer to Babylon's chief deity, Marduk, was copied in



Fig 2.

One of the fragments comprising the latest known clay tablet inscribed in Babylonian cuneiform with a non-astronomical text: a manuscript of the topographic series Tintir from 22 BCE, with parts of the date formula preserved in the last lines.

BM 46073.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London. Electronic Babylonian Library (<https://www.ebl.lmu.de/library/BM.46073>).

October/November 35 BCE and a manuscript of the fifth Tablet of a composition known as “Tintir,” an idealized account of the sacred topography of Babylon, in February/March 22 BCE, which makes it the last dated non-astronomical tablet from Babylonia (Jiménez & Mitto, 2024; Fig 2). Since most tablets inscribed with such texts have no date formulas, there may of course be others that were copied after 22 BC. The last tablets recording “priestly literature” and temple rituals were most likely written at some point in the first century BCE as well.

Even later than the aforementioned literary and religious texts are several astronomical tablets, all again found at Babylon and datable based on the information they provide about the appearances

19. For the dates given in the following, see Brown, 2008, pp. 84–92, and Alstola et al., 2023. Cuneiform texts not yet considered in these two studies will be specifically referenced and discussed.

and movements of specific celestial bodies. The latest known Astronomical Diaries were written in 60 BCE,²⁰ and from about the same time date the last extant examples of “Normal Star Almanacs” and horoscopes recorded in cuneiform. Observational records on the planets, the moon, and the sun are attested until 10 BCE, and so-called Goal Year texts possibly from as late as 41 AD. The very last datable cuneiform texts are so-called “Almanacs,” collections of celestial phenomena predicted for each month of a new year. The latest Almanacs from Babylon known to modern scholars are from 31/32, 36/37, 44/45, 61/62, and 74/75 AD, respectively (Sachs, 1976).

In 2014, Herrmann Hunger and Teije de Jong claimed that a poorly preserved Astronomical Almanac from Uruk, excavated in 1969 in area Ue XVIII and first published in 1976, was actually written even later than any of its counterparts from Babylon, in the year 79/80 AD. This reassessment produced considerable excitement, as it seemed to show that cuneiform culture survived in Uruk longer than in Babylon. The latest extant cuneiform text, it appeared, came from the same city where cuneiform had been invented some three and a half millennia earlier (Frahm, 2021).

A recent article by Victor Gysembergh (2023) claims to offer additional support for this scenario. It argues that an undated cuneiform tablet from Uruk known to modern scholars as TU 11 was written “at any time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1st century CE, or even during the 2nd or 3rd century,” with a later date actually more likely. Copied in a beautiful hand by a certain Anu-uballit, son of Nidinti-Anu, TU 11 provides rules for making astrological, astronomical, and meteorological predictions. The dating suggested

by Gysembergh is based on a note in the text about a cycle of 654 years, whose exact nature is not recorded (TU 11, rev. 27–28).²¹ Gysembergh argues the reference to this cycle was inspired by stories, preserved in the Byzantine Suda and the works of George Syncellus, Pliny the Elder, and Tacitus, about a reemergence of the famous Egyptian Phoenix bird during the reign of the Roman emperor Claudius. Reborn 654 years after its previous appearance, as some of the accounts claim, the Phoenix had allegedly been brought to Rome in 47 AD, on the occasion of the 800th anniversary of the eternal city. If this event gave rise to widespread beliefs in a 654 year-long Phoenix cycle, as Gysembergh claims – beliefs that eventually also reached Mesopotamia and are reflected in TU 11 – then that tablet could not have been written before 47 AD. Another Uruk tablet, TU 31, a highly unusual list of reciprocals written by the brother of the scribe of TU 11, had to be equally late.

But how reliable are these claims of a late flowering of cuneiform culture in Uruk really? Given that the latest securely dated tablet from the city is from 108 BCE (Kessler, 1984), the dates proposed for the Almanac, TU 11, and TU 31 should not be taken at face value. Regarding the Almanac, John Steele, one of the world’s leading experts in Late Babylonian astronomy, has already expressed his reservations. He states that “not all of the astronomical data contained on the tablet agree with that date [of 79/80 AD]” and points to the 300 year-long hiatus between it and the period when the latest of the other tablets found in area Ue XVIII were copied (Steele, 2019, p. 155). The case is certainly not yet closed, but Steele’s doubts must be taken seriously.

20. The term “Astronomical Diary” designates a well-attested text type that combines extensive notes on celestial observations with more sporadic ones on historical events and incidents of an ominous nature.

21. In the text, the note about the “654 years” is followed by a so-called *hepi*-gloss, which marks missing signs in the manuscript from which the tablet was copied.

With TU 11 and TU 31, the matter is much clearer: Gysembergh's ideas, though erudite and sophisticated, do not stand scrutiny. One suspects as much already when observing the pronounced similarities in tablet manufacture and script that link the two texts with securely datable tablets from the Rēš temple in Uruk, all of which were written during the third and early second centuries BCE. But the key evidence comes from the colophon of TU 11. Lis Brack-Bernsen and Hermann Hunger, in an article from 2002, had dated the tablet to the late third century BCE because they thought that its scribe, Anu-uballiṭ, son of Nidinti-Anu, grandson of Ina-qibīt-Anu, descendant of Ḫunzû, was identical with an Anu-uballiṭ, son of Nidinti-Anu who had written the tablets TU 16 and BRM 4, 12, copied in 215 and 214 BCE, respectively. Gysembergh, arguing that the Anu-uballiṭ of TU 11 had a different grandfather, considered this impossible.²² In truth, however, Gysembergh himself is mistaken, as he conflates the genealogies given in TU 16 and BRM 4, 12 for the scribe of the tablet on the one hand, and for its owner on the other. Both are actually from different families, and Brack-Bernsen and Hunger's genealogical reconstruction is correct.²³ This means that TU 11 and TU 31 must indeed have been written towards the end of the third century BCE, and not in the first century AD or later.

All things considered, then, the evidence for a survival of cuneiform writing on clay tablets in Uruk well into the common era remains rather weak. For the time being, it seems best to consi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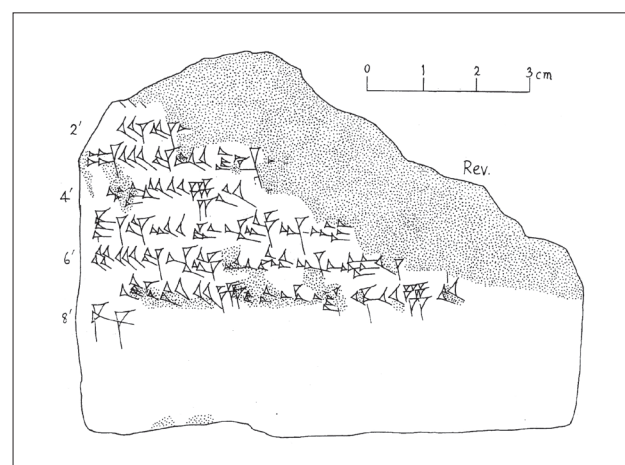


Fig 3.
The latest securely datable tablet written in Babylonian cuneiform: reverse of an Astronomical Almanac from Babylon from 74/75 AD, with the last recorded wedge in line 8'. Formerly housed at Dropsie College, Philadelphia. LBAT 1201. Hand copy by Abraham Sachs (1976, p. 398).

the Astronomical Almanac from Babylon written in 74/75 the last securely datable cuneiform text found so far (Fig 3).

One last question remains: is it possible that during the Hellenistic and Parthian period, and possibly even later, cuneiform was written on other media than clay, such as papyrus, leather, and, most importantly, parchment? These media are known to have been widely used in Mesopotamia from the Neo-Assyrian period onwards, even though no examples have survived in the Iraqi soil.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all writing on papyrus, leather, and parchment in Mesopotamia was in alphabetic scripts, first Aramaic and later also Greek – hence the designation “alphabet scribes” for the aforementioned *sēpirus*, the professional scribes

-
22. Gysembergh claims that “in the colophon of TU 16, the scribe is referred to as Anu-uballiṭ, son of Nidinti-Ani and grandson of Anu-bēlšunu (not Ina-qibīt-Ani), descendant of Ḫunzû; in the colophon of BRM 4, 12, the scribe is referred to as Anu-uballiṭ, son of Nidinti-Ani and grandson of Anu-bēlšunu (not Ina-qibīt-Ani), descendant of Ekur-zākir (not Hunzû).”
23. Both in TU 16 and in BRM 4, 12, the owner of the tablet is “Nidinti-Anu, son of Anu-bēlšunu, descendant of Ekurzakir,” while the scribe is “Anu-uballiṭ, son of Nidinti-Anu, descendant of Ḫunzû.” In TU 11, the owner of the tablet is “Nidinti-Anu, son of Ina-qibīt-Anu, descendant of Ḫunzû,” and the scribe “Anu-uballiṭ, his [i.e., Nidinti-Anu’s] son.” For the scribes in question, see also Ossendrijver, 2011.

who are known to have worked with these media in various Babylonian cities. But the possibility that cuneiform texts were at least occasionally written on flexible and supple materials as well should not be discarded. In fact, five colophons on clay tablets from Babylon inscribed with scholarly texts, some securely datable to the early Parthian period (c. 100 BCE), suggest as much (Frahm, 2005; Sanders, 2025, pp. 229–236). Three of them mention that sequels of the texts inscribed on the tablets were written on a “parchment scroll” (Babylonian ^{kuš}*magallatu*, a loan word from Aramaic *məgillā*), and two unfortunately damaged colophons may even claim that the texts in question were copied from such scrolls. It is not clear in which language, and in which script, these traditional Babylonian texts were penned down on the scrolls. Oelsner (1972) suggests they were transliterated into Greek letters, while Sanders (2025, 230, pp. 232–34) assumes they were translated into Aramaic.²⁴ But in my view (see also Clancier, 2005, p. 90, fn. 23), the fact that the colophons referring to the scrolls consider the texts inscribed on the latter “continuations” (*(tuppu ša) arkišū*) of the texts on the tablets makes it more likely – though no proof can yet be offered – that the scrolls in question included inked versions of Babylonian cuneiform texts.²⁵

Of course, when transferred to parchment scrolls, some cuneiform texts may also have been translated into Aramaic, as suggested by Sanders, while others may have been rendered in Greek letters. One important argument for the latter scenario, advanced

by Oelsner (1972), is the existence of seventeen clay tablets from Babylon inscribed on one side with excerpts from Babylonian and Sumerian cuneiform texts typically studied in school,²⁶ and on the other with Greek transliterations of these texts.²⁷ Several possible functions have been suggested for these so-called Graeco-Babyloniaca, but I still find it quite plausible, as Oelsner suggested, that they helped students with the task of transliterating Babylonian texts in Greek letters on parchment.

The dating of the Graeco-Babyloniaca has been a matter of considerable debate. Based on paleographic criteria and the transliteration system they use, Markham Geller (1997) claimed that most of them were written between the first century BCE and the first century AD, but that one, HSM 1137, might be as late as the second or even third century AD. This latter suggestion has not found much support, however. Aage Westenholz (2007) dates the Graeco-Babyloniaca to the period from 50 BCE to 50 AD, David Brown (2008, p. 87) believes the last of them were written “around the time of Christ,” and Kathryn Stevens (2019, p. 141) places them even earlier, to the late second or early first century BCE.

The evidence at hand from Babylonia, in other words, does not provide a lot of additional evidence for the scenario that cuneiform continued to be written long after the last known datable tablet had been drawn up, in 74/75 AD, and neither do the references to Babylonian literature and scholarship in classical sources (Westenholz, 2007, pp. 294–309,

24. That they were transliterated into Aramaic script is unlikely, as Aramaic, unable to express vowels, was poorly suited to render Babylonian and especially Sumerian texts.

25. Inked cuneiform is known from the colophons of three tablets from the libraries of Ashurbanipal, see Schnitzlein, 2023, p. 350. A photo of one of them is found at <https://cdli.ucla.edu/P396725>.

26. As demonstrated by Schnitzlein, 2023, pp. 438–442, the students who produced the tablets already had some experience in writing cuneiform.

27. Three of the tablets have only Greek versions of the Babylonian texts. For the most recent discussions and lists of the tablets in question, see Lang, 2023, and Schnitzlein, 2023, pp. 437–442.

responding to Geller, 1997).²⁸ Babylonian texts survived in works written in Aramaic, Hebrew, and Greek, and in the oral traditions of later times, though revised and adapted to new contexts (Westenholz, 2007, p. 308; Frahm, 2025).²⁹ But the subject of this article is the disappearance of cuneiform writing, and not of Babylonian culture in general.³⁰

IV. Conclusions

At the end, two questions remain. Why did Babylonian cuneiform continue to be used so long after Babylonia had lost its political independence? And why did it eventually disappear?

Some answers to the first question have already been touched upon. When in 539 BCE Babylonia was conquered by the Persians, there was some bloodshed, but not the same amount of destruction that had been brought upon Assyria between 615 and 609 BCE. The local institutions in Babylonian cities – especially the temples – remained largely intact, even though the priests and administrators who oversaw several major sanctuaries in northern Babylonia were severely punished by the new rulers after a series of revolts during the time of Xerxes.

The leading circles in Babylonia's urban centers were less focused on the ruling king than Assyria's

“upper class” had been, had a stronger sense of civic pride, and a deeper connection to the families to which they belonged, as is evidenced by the three-tiered genealogies they used (Joannès, 2024, pp. 20–25).³¹ This imbued them with higher self-esteem and greater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Cuneiform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ll of this. In an environment in which the Aramaic language became more and more the *lingua franca* and the Aramaic script the default vehicle for transregional communication, cuneiform writing offered the Babylonian elites a particularly suitable tool to reinforce their unique identity – which, over the centuries, became more and more detached from the concerns of the wider world. The “priestly literature” in Babylonian cuneiform from the Hellenistic period is perhaps the most impressive manifestation of this inward-centered mentality.

But the growing isolation and cultural entrenchment of the Babylonian elites is perhaps also a main reason why Babylonian cuneiform culture did eventually die. This demise was not inevitable. Babylonian cuneiform had survived the existence of competing writing systems and even the loss of Babylonian as a living language.³² Several economic crises had not brought it to an end either. During the Hellenistic and Parthian periods, the old Babylonian cities were more and more overshadowed by new foundations such as

28. In the context of this essay, the complex topic of how to interpret these classical accounts cannot be discussed in greater detail.

29. Stefan Maul (1995, p. 16) argues that Babylonian texts, transliterated into Greek, might still have been available to the lexicographer Hesychius of Alexandria (5th or 6th century AD), who provides glosses for a number of Babylonian and Sumerian words. But those words could also have been handed down in other ways.

30. For the survival of the latter, see, *inter alia*, as an example of a “maximalist” position, Dalley, 1998.

31. In Assyria, in contrast, individuals were identified by their personal names and sometimes their titles and occupations, but rarely by references to their fathers and forefathers.

32. This is very much in contrast to Assyrian cuneiform writing, which came to an end long before the Assyrian language died out (Fales, 2021).

Seleucia/Ctesiphon on the Tigris or Charax Spasinou on the head of the Persian Gulf, which took over important functions previously carried out by the cities of Babylon and Ur. But Babylon, Kish, Nippur, Uruk, and Larsa all have substantial archaeological remains from the Parthian, and some even from the subsequent Sasanian period, so they were certainly not yet abandoned (Oelsner, 1986).

That cuneiform writing came to an end around 100 AD was perhaps primarily the result of a profound intellectual exhaustion. Babylonian priests, the last stalwarts of Babylonian written culture, had made a valiant last attempt at revitalizing the latter when they created a new “priestly literature” during the Seleucid and early Parthian periods. But even within their own small circle of likeminded citizens, the impact of this literature remained limited. The new corpus did not include the formative narratives and normative directives needed to sustain a broader community – in short, it was no Hebrew Bible, with

its great stories, legal stipulations, theological soul-searching, and rules on how to lead one’s daily life. The continuing production of astronomical texts of an increasingly less sophisticated nature could not compensate for this existential void. And so cuneiform was eventually abandoned, even though elements of Babylonian culture continued to be handed down orally and through other media, at least for a while.

Is this really how it happened? Not least because of the slow demise of cuneiform and the concomitant lack of written sources, Parthian Babylonia remains in many ways a “black box” for modern historians, a kind of dark age. We can only hope that new finds will one day allow us to revisit the question of why cuneiform disappeared and come up with better answers. But for the time being, the present writer believes the evidence at hand points to the scenario outlined in this essay.

참고문헌 (References)

- Alstola, T., et al. (2023). Sources at the End of the Cuneiform Era. *Studia Orientalia Electronica*, 11.2: 5-29.
- Baines, J., J. Bennet, and S. Houston (ed.) (2008). *The Disappearance of Writing Systems: Perspectives on Literary Communication*. Equinox.
- Beaulieu, P.-A. (1997). The Cult of AN.ŠĀR/AŠŠur in Babylonia After the Fall of the Assyrian Empire. *State Archives of Assyria Bulletin*, 11: 55-73.
- . (2006). Official and Vernacular Languages: The Shifting Sands of Imperial and Cultural Identities in First-millennium B.C. Mesopotamia. pp. 187-216 in *Margins of Writing, Origins of Cultures* (ed. S. L. Sanders).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 . (2010). The Afterlife of Assyrian Scholarship in Hellenistic Babylonia. pp. 1-18 in *Gazing on the Deep: Ancient Near Eastern and Other Studies in Honor of Tzvi Abusch* (ed. J. Stackert, B. N. Porter, and D. P. Wright). CDL Press.
- Black, J. (1997). Hellenistic Cuneiform Writing from Assyria: The Tablet from Tell Fisna. *Al-Rafidan*, 18: 229-238.
- Bloch, Y. (2018). *Alphabet Scribes in the Land of Cuneiform: Šēpiru Professionals in Mesopotamia in the Neo-Babylonian and Persian Period*. Gorgias Press.
- Boiy, T. (2005). Akkadian Greek Double Names in Hellenistic Babylonia. pp. 47-60 in *Ethnicity in Ancient Mesopotamia* (ed. W. H. van Soldt and D. Katz). Nederlands Instituut voor het Nabije Oosten.
- Borger, R. (2010). *Mesopotamisches Zeichenlexikon*. Zweite revidierte und aktualisierte Auflage. Ugarit-Verlag.
- Brack-Bernsen, L. and H. Hunger (2002). TU 11: A Collection of Rules for the Prediction of Lunar Phases and Month Lengths. *SCIAMVS*, 3: 3-90.
- Brown, D. (2008). Increasingly Redundant: The Growing Obsolescence of the Cuneiform Script in Babylonia from 539 BC. pp. 73-101 in: Baines et al. (ed.), 2008.
- Clancier, P. (2005). Les scribes sur parchemin du temple d'Anu. *Revue d'Assyriologie*, 99: 85-104.
- . (2011). Cuneiform Culture's Last Guardians: The Old Urban Notability of Hellenistic Uruk. pp. 752-773 in *The Oxford Handbook of Cuneiform Culture* (ed. K. Radner and E. Robson). Oxford University Press.
- Dalley, S. (1984). The Cuneiform Tablet from Tell Tawilan. *Levant*, 16: 19-22.
- . (ed.) (1998). *The Legacy of Mesopotamia*. Oxford University Press.
- Fales, F. M. (2021). Neo-Assyrian. pp. 1347-1395 in *History of the Akkadian Language* (ed. J.-P. Vita). Brill.
- Ferrara, S. 2022. *The Greatest Invention: A History of the World in Nine Mysterious Scripts*. Farrar, Straus and Giroux.
- Finkel, I. (ed.) (2013). *The Cyrus Cylinder: The King of Persia's Proclamation from Ancient Babylon*. I. B.Tauris.
- . (2019). Assurbanipal's Library: An Overview. pp. 367-389 in *Libraries Before Alexandria: Ancient Near Eastern Traditions* (ed. K. Ryholt and G. Barjamovic). Oxford University Press.
- Frahm, E. (2002). Zwischen Tradition und Neuerung: Babylonische Priestergelehrte im achämenidenzeitlichen Uruk. pp. 74-108 in *Religion und Religionskontakte im Zeitalter der Achämeniden* (ed. R. G. Kratz). Gütersloher Verlaghaus.
- . (2005). On Some Recently Published Late Babylonian Copies of Royal Letters. *Nouvelles Assyriologiques Brèves et Utilitaires* 2005/43.
- . (2021). Uruk urbs aeterna: Observations on the "Longue Durée" of Cuneiform Culture in the City of Gilgameš. pp. 149-172 in *Uruk: Altorientalische Metropole und Kulturzentrum* (ed. M. van Ess). Harrassowitz.
- . (2023). Assyria: *The Rise and Fall of the World's First Empire*. Basic Books.
- . (2025). *Enuma eliš* Outside the Cuneiform Tradition. pp. 151-165 in *Enuma Elish: The Babylonian Epic of Creation* (ed. J. Haubold et al.). Bloomsbury Academic.
- . (forthcoming). Elites in the Neo-Assyrian Empire. In *Elites and Empires* (ed. M. Biran, Y. Pines, and J. Rüpke). De Gruyter.
- Geller, M. J. (1997). The Last Wedge.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87: 43-95.
- Glassner, J.-J. (2004). *Mesopotamian Chronicles*.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 Green, T. (1992). *The City of the Moon God: Religious Traditions of Harran*. Brill.
- Gysembergh, V. (2023). Babylonian Astral Sciences and Mathematics in Uruk After 47 CE.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des Morgenlandes*, 113: 69-82.
- Hackl, J. (2021). The Death of Akkadian as a Written and Spoken Language. pp. 1347-1395 in *History of the Akkadian Language* (ed. J.-P. Vita). Brill.
- Hammer, J. 2025. *The Mesopotamian Riddle: An Archaeologist, a Soldier, a Clergyman, and the Race to Decipher the World's Oldest Writing*. Simon & Schuster.
- Hauser, S. R. (2017). Post-Imperial Assyria. pp. 229-246 in *A Companion to Assyria* (ed. E. Frahm). Wiley.
- Hunger, H., and T. de Jong. (2014). Almanac W22340a From Uruk: The Latest Datable Cuneiform Tablet.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104: 182-194.
- Jiménez, E., and T. Mitto (2024). The Latest Dated Non-astronomical Tablet. *Nouvelles Assyriologiques Brèves et Utilitaires* 2024/47.
- Joannès, F. (1987). À propos de la tablette cunéiforme de Tell Tawilan. *Revue d'Assyriologie*, 81: 165-166.
- . (2024). Social Aspects of Babylonian Names. pp. 19-36 in *Personal Names in Cuneiform Texts from Babylonia (c. 750-100 BCE)* (ed. C. Waerzeggers and M. M. Groß).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ursa, M. (2003). Observations on the Problem of the Median "Empire" on the Basis of Babylonian Sources. Pp. 169-179 in *Continuity of Empire (?): Assyria, Media, Persia* (ed. G. B. Lanfranchi, M. Roaf, and R. Rollinger). S.A.R.G.O.N. Editrice e Libreria.
- . (2014). The Lost State Correspondence of the Babylonian Empire as Reflected in Contemporary Administrative Letters. pp. 94-111 in *State Correspondence in the Ancient World, From New Kingdom Egypt to the Roman Empire* (ed. K. Radner). Oxford University Press.

- Jursa, M., and C. Debourse (2017). A Babylonian Priestly Martyr, a King-like Priest, and the Nature of Late Babylonian Priestly Literature.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des Morgenlandes*, 107: 77-98.
- . (2020). Late Babylonian Priestly Literature from Babylon. pp. 253-281 in *Stones, Tablets, and Scrolls: Periods of the Formation of the Bible* (ed. P. Dubovský and F. Giuntoli). Mohr Siebeck.
- Kessler, K. (1984). Eine arsakidenzeitliche Urkunde aus Warka (W 18568). *Baghdader Mitteilungen*, 15: 273-281.
- Kim, G., and Kim, H. (ed.) (2025). *The Dawn of Writing Systems: Cuneiform and Egyptian Hieroglyphs Through the Behistun Inscription and the Rosetta Ston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Incheon, Korea.
- Lang, M. (2023). Construction of Identities and Late Babylonian Archives as Found in the Fragments of the “Graeco-Babyloniaca.” *Studia Orientalia Electronica*, 11.2: 130-137.
- Lindström, G. (2003). *Uruk: Siegelabdrücke auf hellenistischen Tonbulln und Tontafeln*. Von Zabern.
- Livingstone, A. (2009). Remembrance at Ashur: The Case of the Dated Aramaic Memorials. pp. 151-158 in *Of God(s), Trees, Kings, and Scholars: Neo-Assyrian and Related Studies in Honour of Simo Parpola* (ed. M. Luukko, S. Svärd, and R. Mattila). Finnish Oriental Society.
- Maul, S. M. (1995). La fin de la tradition cunéiforme et les “Graeco-Babyloniaca.” *Cahiers du Centre Gustave-Glotz*, 6: 3-17.
- . (2010). Die Tontafelbibliothek aus dem sogenannten “Haus des Beschwörungspriesters.” pp. 189-228 in *Assur-Forschungen* (ed. S. M. Maul and N. Heeßel). Harrassowitz.
- Oelsner, J. (1972). Zur Bedeutung der “Graeco-Babyloniaca” für die Überlieferung des Sumerischen und Akkadischen. *Mitteilungen des Instituts für Orientforschung*, 17, 356-364.
- . (1986). *Materialien zur babylonischen Gesellschaft und Kultur in hellenistischer Zeit*. Eötvös Loránd Tudományegyetem.
- Ossendrijver, M. (2011). Exzellente Netzwerke: die Astronomen von Uruk. pp. 229-237 in *The Empirical Dimension of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ed. G. J. Selz and K. Wagensonner). LIT Verlag GmbH & Co. KG.
- Parpola, S. (2008). Cuneiform Texts from Ziyaret Tepe (Tušṭan). *State Archives of Assyria Bulletin*, 17: 1-113.
- Pedersén O. (2009). Neo-Assyrian Texts from Nebuchadnezzar’s Babylon: A Preliminary Report. pp. 193-199 in *Of God(s), Trees, Kings, and Scholars: Neo-Assyrian and Related Studies in Honour of Simo Parpola* (ed. M. Luukko, S. Svärd, and R. Mattila). Finnish Oriental Society.
- . (2025). *The South Palace Archives in Babylon: Administrative Records in the Palace of Nebuchadnezzar II*. Harrassowitz.
- Radner, K. (2002). *Die neuassyrischen Texte aus Tall Šēḫ Ḥamad*. Dietrich Reimer Verlag.
- . (2011). The Assur-Nineveh-Arbela Triangle: Central Assyria in the Neo-Assyrian Period. pp. 321-329 in *Between the Cultures: The Central Tigris Region from the 3rd to the 1st Millennium BC* (ed. P. A. Miglus and S. Mühl). Heidelberger Orientverlag.
- . (2014). An Imperial Communication Network. pp. 64-93 in *State Correspondence in the Ancient World: From New Kingdom Egypt to the Roman Empire* (ed. K. Radner). Oxford University Press.
- Roaf, M. (2021). Cyaxares in Assyria. *Nouvelles Assyriologiques Brèves et Utilitaires* 2021/118.
- Sachs, A. (1976). The Latest Datable Cuneiform Texts. pp. 379-398 in *Kramer Anniversary Volume* (ed. B. Eichler et al.). Butzon & Bercker / Neukirchener Verlag.
- Sanders, S. L. (2025). Alphabetic Scrolls in a Cuneiform World: Notes on the Study of an Invisible Literature. pp. 211-242 in *Jehu’s Tribute: What Can Biblical Studies Offer Assyriology?* (ed. J. L. Cooley and R. L. Thelle). Eisenbrauns.
- Schnitzlein, B. (2023). *Untersuchungen zur Schreibkultur Mesopotamiens im 1. Jahrtausend v. Chr.* De Gruyter.
- Steele, J. (2019). Astronomical Activity in the “House of the āšipus” in Uruk. pp. 147-170 in *Scholars and Scholarship in Late Babylonian Uruk* (ed. C. Proust and J. Steele). Springer.
- Stevens, K. (2019). *Between Greece and Babylon: Hellenistic Intellectual History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eck, M. (2023). *Altorientalistik. Einführung*. Nomos.
- Toptaš, K., and F. Akyüz (2021). A Neo-Assyrian Sale Contract from the Province of the Chief Cupbearer (rab-šāqē) Kept at the Hasankeyf Museum (Batman).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111: 77-87.
- Van der Spek, R. J. (2001). The Theatre of Babylon in Cuneiform. pp. 445-456 in *Veenhof Anniversary Volume: Studies Presented to Klaas R. Veenhof on the Occasion of His Sixty-fifth Birthday* (ed. W. van Soldt). Nederlands Instituut voor het Nabije Oosten.
- Van der Spek, R. J., et al. (2025). *Babylonian Chronographic Texts from the Hellenistic Period*. SBL Press.
- Verbrugge, G. P., and J. M. Wickersham. (1996). *Berosos and Manetho, Introduced and Translated: Native Traditions in Ancient Mesopotamia and Egypt*.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Von Weiher, E. (1983). *Spätbabylonische Texte aus Uruk II*. Gebr. Mann Verlag.
- Waerzeggers, C. (2018). The Network of Resistance: Archives and Political Action in Babylonia Before 484 BCE. pp. 89-133 in *Xerxes and Babylonia: The Cuneiform Evidence* (ed. C. Waerzeggers and M. Seire). Peeters.
- Weiershäuser, F., and J. Novotny (2020). *The Royal Inscriptions of Amēl-Marduk (561-560 BC), Neriglissar (559-556 BC), and Nabonidus (555-539 BC), Kings of Babylon*. Eisenbrauns.
- Westenholz, A. (2007). The Graeco-Babyloniaca Once Again.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97: 262-313.

The Disappearance of Cuneiform Writing in Assyria and Babylonia: A Comparative Approach

| **Eckart Frahm** Department of Near Easter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Yale University

Studies related to the disappearance of cuneiform writing usually focus on the last phase of Babylonian civilization in the first century of the common era and the three centuries preceding it. During this period, the use of Babylonian cuneiform became gradually restricted to fewer and fewer domains of writing, before the script disappeared entirely. The essay at hand analyzes this historical development as well, but it also looks at the demise of Assyrian cuneiform writing some seven hundred years earlier, in an attempt to gain new insights into both incidents of script obsolescence through a comparative perspective.

3

논고

박준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고대 동·서아시아 인장문화의 비교 연구 가능성

I —————

글을 시작하며

II —————

인장의 시작

III —————

점토 봉투(clay envelope)와 檢

IV —————

인장을 대신한 방법들

V —————

글을 마무리하며

인장(印章)은 신뢰 관계를 보여주는 신뢰(信標)로, 문자보다도 오래된 역사를 갖는다. 긴 시간을 거치며 인장은 계속 변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신뢰 방식이 파생되었다. 신뢰는 문맹(文盲)의 여부, 서사재료(書寫材料)의 변화, 남녀의 성차, 신분 차이 등에 따라 여러 형식으로 고안되어 하나의 인장문화(印章文化)를 형성하였다. 이 글은 서사재료의 변화가 영향을 주었던 고대 동아시아의 인장문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고대 동·서아시아 지역의 비교 연구 가능성을 타진하는 밑거름으로 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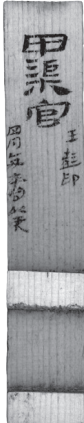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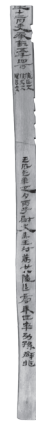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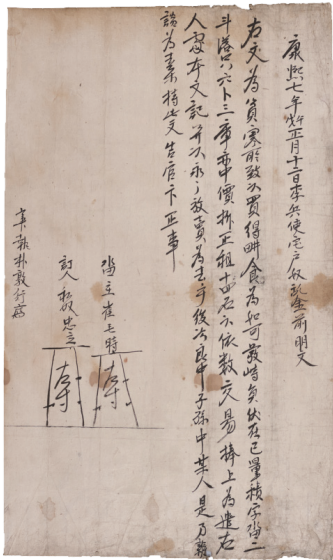
고대 동아시아의 인장은 문서 행정 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통일된 방대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명령은 지방 정부까지 전달되어야 했고, 그 반대로 지방 정부의 주요 현안은 중앙 정부에 신속하게 보고되어야 했다. 이때 명령과 보고는 철저히 문서 기록으로 전달되었고, 전달 과정에서 변개나 위조가 불가능하도록 특별한 장치를 하였다. 이 장치가 충분히 신뢰를 줄 때, 문서의 효력과 권위를 근간으로 하는 문서 행정 제도는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다.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 고대 동아시아의 문서는 대나무나 나무로 만들었다. 가늘고 긴 나무 막대에 붓으로 쓴 글자는 누군가에 의해 쉽게 변경될 수 있었다. 이처럼 취약하게 노출된 문서 기록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신뢰로 검(檢)이 사용되었다. 검은 나무 문서를 봉합할 때 사용하는 판을 가리킨다. 나무 문서에 검을 덧대고, 나무 문서와 검을 함께 끈으로 묶은 후에 검 위에 있는 끈의 매듭을 진흙으로 메우고, 그 메운 곳에 인장을 찍어서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었다(그림 1, 2). 이와 같은 신뢰 방법은 그 재질이 다를 뿐, 기본적인 개념은 서아시아의 점토 봉투(clay envelope)와 유사하다.

아직 종이 사용되기 이전,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인장 외에 두 가지 신뢰 방법이 있었다. 하나는 나무 문서 중앙에 큰 글자를 쓰고, 글 글자의 가운데를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 가지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나무 문서 모서리에 특정한 숫자를 상징하는 홈을 새긴 후 나누어 가지는 방법이다(그림 3, 4). 중세 유럽의 탈리(Tally)와 유사하다. 고대 동아시아의 신뢰가 인장 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문맹 여부와 큰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맹 여부는 신분적인 계급이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남녀 성차도 어느 정도는 관여되었을 것이다.

고대 동아시아의 신뢰는 문서의 재질이 나무에서 종이로 바뀌면서 몇 가지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무엇보다 나무 문서의 크기에 맞춰 2-3cm에 불과하던 인장이 종이 크기에 맞춰 10cm 이상까지도 커졌다. 커진 인장은 화려해졌고, 더욱 권위적인 상징물로 변했다. 또한 종이에 인주를 묻혀서 찍었기 때문에 인장은 음각(陰刻)보다 양각(陽刻) 중심으로 새겼다. 또한 인장 외에 나무 문서 시대의 신뢰 방법은 나무를 반으로 자르거나 모서리에 홈을 새겼지만, 종이 문서로 바뀌면서 문서에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직접 그려 넣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특히 종이 문서 시대에 비로소 서명(署名)이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이름과 같은 특정 글자를 디자인화하여 만들었다(그림 5, 6, 7). 고대 서아시아의 경우, 서사재료가 점토에서 양피지 등으로 변화함으로써 원통 인장(cylinder seal)은 사라지고 스탬프 인장(stamp seal)만 남게 되었다. 이후 어느 시점부터 서명과 인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신뢰 방법이 고안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대 동·서아시아의 인장은 비슷한 방법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인장을 찍는 방법에 있어서 진흙이 공통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두 지역의 인장문화는 독특한 변화 과정을 거치며, 서아시아는 서양식 인장문화로, 동아시아는 동양식 인장문화로 정착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더 세부적인 단계까지 고려한다면, 지역적 변화 양상은 시대와 국가(왕조)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복잡했을 것이고, 그 대부분의 인장문화는 아직 규명되지 못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두 지역 인장문화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교 연구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림 1. 검(檢, Sealing Tablet) 중국 니야(Niya) 출토, 3.5×5.1cm, 영국도서관(Or.8211/1588) 국제헌장프로젝트 CC-BY Licence © British Library Board	그림 2. 검(檢, Sealing Tablet) 기원전 202년-기원후 220(중국 한), 2.8×15.1cm, 두께 1.1cm, 대만중앙연구원역사어언연구소(133.4) CC BY-NC-ND 3.0 TW ©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Academia Sinica Center for Digital Cultures	그림 3. 글자를 반으로 잘라서 나눈 나무 문서 기원전 202년-기원후 220(중국 한), 1.7×19.2cm, 두께 0.3cm, 대만중앙연구원역사어언연구소(89.21) CC BY-NC-ND 3.0 TW ©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Academia Sinica Center for Digital Cultures	그림 4. 모서리에 특정 숫자를 상징하는 홈을 새긴 나무 문서 상징하는 홈을 새긴 나무 문서 기원전 53년(중국 한), 1.3×23.7cm, 두께 0.8cm, 대만중앙연구원역사어언연구소(311.034) CC BY-NC-ND 3.0 TW ©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Academia Sinica Center for Digital Cultures
	 	 	
그림 5. 손가락을 그린 전답 매매 문서 1668년(한국 조선), 53.7×32.3cm, 국립한글박물관(한구 14286) © National Hangeul Museum	그림 6. 나무 문서 시대에 검(檢, Sealing Tablet)에 찍었던 인장 25-220(중국 후한), 2.41×2.38cm, 대만국립고궁박물관(故銅 000136N) CCB Y 4.0 © NATIONAL PALACE MUSEUM	그림 7. 종이 문서 시대의 인장 1450년(한국 조선), 10.2×10.2cm, 국립고궁박물관(종묘 13559) ©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주제어

인장(印章, seal), 원통 인장(cylinder seal), 스탬프 인장(stamp seal), 점토 봉투(clay envelope), 검(檢, sealing tablet), 봉니(封泥, lute block), 서명(署名, signature), 신표(信標, trust marker)

I. 글을 시작하며

인류는 문자 발명 이전부터 이미 인장을 사용했다. 경제적 소유 개념과 소유물에 대한 거래 행위가 함께 나타나면서, 인류는 거래에서 비롯될 수 있는 손익에 대한 온갖 마찰을 방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고안된 것이 인장印章이었다. 인장은 신뢰를 근간으로 소유 관계를 구분 지었고, 거래 행위의 온전한 마무리를 증명했다. 무엇보다 인장은 그 자체로 신뢰信標, 곧 신뢰를 보여주는 표지標識였다. 그 역할은 경제적 범위로부터 계속 확장되어, 서화 예술의 미적 가치나 행정 조직의 정치적 권력을 상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처음 확인할 수 있는 서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인장은 여러 가지 비슷한 면이 있었다. 특히 진흙에 찍어서 봉인封印하는 유사한 방법으로 인해, 두 지역의 인장을 동서 교류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新関, 1995). 서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인장은 시간적 선후 관계가 분명하고, 진흙에 찍는 비슷한 사용법과 자연물의 형태를 본떠 만든 초형肖形의 인문印文을 일부 유사하게 사용했다. 따라서 문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서아시아의 인장이 실크로드를 따라 동아시아까지 전해졌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서아시아와 동아시아 인장은 비슷한 부분을 비교했을 경우, 교류 관계에 대한 개연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슷한 것 이상으로 이질적인 방식을 보인다는 점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장에 새기는 문양이나 문자의 내용, 찍는 방법, 인장의 재질, 사용 주체와 그 방법 등 비슷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 다름은 기본적으로 두 지역의 서사재료書寫材料 차이에서 비롯되었고, 이 글에서는 특히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인장은 신표이고, 신표의 본질은 비밀 보장과 비밀 유지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인장은 그 자체로서의 인장뿐만 아니라, 신표의 역할을 갖는 여러 방식의 ‘인장문화’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인장문화는 인장의 대용代用 방법인 서명署名·화압花押·화지畫指 등을 모두 포괄한다. ‘signature’는 인장을 의미하는 라틴어 ‘sigillum’에서 파생되었고, 서명署名의 서寫는 봉니에 인장을 찍는 검檢에서 비롯되었다. 인장이거나 서명이나 사실상 연원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인장뿐만 아니라 인장문화까지 포괄하고자 하며, 인장문화까지 확장 될 경우 필연적으로 문자를 아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신표 방식이 나뉘는 확인하게 된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몇몇 인장 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새璽와 인印이다. 모두 전국시대 진秦에서 사용되던 명칭이었는데, 진이 전국을 통일한 이후 황제의 인은 새璽로, 관원官員의 인은 인印으로 통일하였다. 그래서 새인璽印이 모든 인장의 통칭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당唐 측천무후則天武后가 ‘璽’와 ‘死(죽을 사)’의 소리가 같은 것을 꺼려서 새璽를 보寶로 바꿨다. 이후 왕조는 이를 답습하여 황제의 인을 어새御璽에서 어보御寶로 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인장印章이다. 인장은 현재 인印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한漢 왕조가 관원에게 발급한 관인의 명칭에 인印과 장章 두 종류가 있었고, 후에 합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인을 의미하게 되었다. 진한秦漢 이후 인장과 동일하게 인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인신印信도 사용되었다(片岡, 2008, pp. 10-11). 조선朝鮮에서는 국왕의 인장인 보寶와 일반의 인印을 구분하였다. 이를 합쳐 보인寶印이라고 하였고, 문서에 찍는다는 표현으로 보는 안보安寶, 인은 답인踏印이라고 써서 그 의미를 구별하였다. 날인(捺印, なついん)은 전혀 안 쓴 것은 아니지만, 일본식 도장圖章이 유입된 이후에 보편화된 최근의 용어로 보인다.

II. 인장의 시작

인류가 처음 인장을 사용한 것은 기원전 5000년경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때는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인장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가 새겨진 형태는 아니었다. 어떤 것에 ‘처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처음이라고 하는 대상의 개념적 정의에 따라 시기가 들쭉날쭉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인장도 마찬가지로, 인장을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처음 시작된 시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여하튼, 기원전 5000년경에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는 인장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개념을 정의하는 것 같다. 첫째 기준은 ‘찍는 행위’이다. 찍는다는 것은 편리함을 전제한다. 휴대가 가능한 작은 물건으로 보다 무른 재질에 특정한 기호를 동일하게 찍는 것이다. 동일한 기호를 찍어냄으로써 행위 내용에 대한 일관된 권리와 책임을 표현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둘째 기준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것은 ‘신뢰 표시의 기능성’이다. 일관된 형태로 찍힌 인장은 소유자를 표시하고 도난 등으로부터 안전과 신뢰를 보증해야 했다. 이와 같은 개념적 기준이 모두 충족되었던 인장이 기원전 5000년경부터 나타났던 것이다.

인장은 서아시아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인장은 돌과 같



그림 1. 스탬프 인장
기원전 5000년경, 이란 서부 테페 기안(Tepe Giyan) 출토, 지름 4.1cm, 높이 1.1cm, 영국박물관(BM128665)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은 굳은 재질로 만들어졌고, 연한 진흙에 찍혔다. 서아시아의 인장은 눌러서 찍는 스탬프 방식과, 원통으로 굴려서 찍는 롤러 방식이 있었다. 시기적으로는 눌러 찍는 방식의 인장이 먼저 사용되었는데, 이를 스탬프 인장(stamp seal)이라고 한다.

(그림 1)은 기하학적 문양이 새겨진 초기 스탬프 인장이다(Collon, trans. Ikeda, 1998, p. 10). 문자가 없었던 시기여서 인문印文은 직선과 사선을 교차한 규칙적인 문양으로 표현되었다. 뒷면에 있는 작은 구멍은 이 인장이 휴대용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장의 인면印面은 곡면인데, 무르고 두툼한 진흙 같은 재질에 찍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스탬프 인장에 이어 기원전 3500년경 원통 인장(cylinder



그림 2. 원통 인장
기원전 2000년경, 이라크 중부 텔 아스마르(Tell Asmar) 출토, 지름 1.5cm, 높이 4.0cm, 시카고대학교 고대문화연구소(A7468)
© Institute for the Study of Ancient Cultures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seal)이 등장한다. 원통 인장은 원기둥을 돌려서 찍어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원기둥 둘레만큼의 공간이 인면으로 사용되었다. 스탬프 인장에 비해서 넓어진 인면에는 동물, 투쟁, 수렵, 연회, 신화, 예배, 알현, 일상생활 등 다양한 도안이 인면으로 사용되었다(古代オリエント博物館, 1991, pp. 26-55). 문자 발명 이후에는 이러한 도안에 간단한 글이 추가되었다.

(그림 2)는 그림과 문자가 새겨진 원통 인장이다. 신과 인간의 중재자인 여신 라마(Lama)와 남성 예배자 그리고 작은 여신이 전사戰士의 신 티쉬팍(Tishpak) 앞에 서 있다. 티쉬팍은 대좌에 앉아 있고, 어깨에는 두 마리의 용 머리가 길게 나와 있다. 인장의 명문에는 “티쉬팍, 강력한 왕, 우룸(Urum)의 지배자. 에슈누나(Eshnunna)의 영주 키리키리(Kirikiri)가 아들 빌탈라마(Bilalama)에게 주다.”라고 쓰여있다. 인장 끝에는 금으로 된 덮개가 있고, 인장 가운데 구멍에는 막대 흔적이 남아있다(Collon, trans. Ikeda, 1998, p. 26).

원통 인장도 휴대가 가능하도록 중앙에 구멍을 뚫었다. 휴대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에 더하여 아무나 이 인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였을 것이다. 또한 인문印文이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한 것은, 인장을 음각陰刻으로 새겼기 때문이다. 인장을 음각으로 새긴 것은 인장을 찍었던 서사재료가 점토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인장은 중국 안양 安陽 은허殷墟 출토로 전하는 동인銅印 세 점이다. 흔히 이 세 점의 동인을 ‘안양삼새安陽三璽’라고 부른다. 20세기 초, 안양 삼새가 세상에 알려진 후 여러 학자의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 인장들이 은허에서 발굴되었다는 이야기만 전할 뿐, 이를 확증할 증거가 없었던 것이 큰 쟁점이었다. 그래서 위조품이라는 설, 또는 후대에 만들어진 인장이라는 설이 오랜 기간 팽배했다. 그러나 최근 은허에서 비슷한 형식의 인장이 연이어 발굴되면서 이 문제는 해소되었다(何连海, 2017).

(그림 3)은 「亞禽(아금)」 동인으로, 안양삼새 중 하나이다. 인면印面은 ‘禽’, ‘示’, ‘亞’의 세 글자가 양각陽刻으로 새겨졌다. ‘禽’은 당시 특정 씨족을 상징하는 족휘族徽의 하나로 (그림 4)와 같이 상나라 동기 銅器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亞’와 두 개의 ‘示’는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신 신감神龕의 형태를 상징한다. 따라서 이 인장은 상나라 말기 금씨족禽氏族의 인장으로 추



그림 3. 「亞禽(아금)」 동인(銅印)
기원전 13~기원전 11세기(중국 상(商) 말기), 중국 은허(殷墟) 출토,
2.6×2.6cm, 높이 1.5cm,
대만국립고궁박물원(中銅 000397N)
CCB Y 4.0 © NATIONAL PALACE MUSEUM



그림 5. 「天帝使者之印(천제사자지인)」 동인(銅印)
25~220년(중국 후한), 2.41×2.38×1.93cm,
대만국립고궁박물원(故銅 000136N)
CCB Y 4.0 © NATIONAL PALACE MUSEUM



그림 4. 동기(銅器)에 있는 족徽
(族徽) 탁본
출처: 藤枝晃, 1971, p. 12

정된다(台北 國立古宮博物院, 2012, p. 14).¹

「亞禽(아금)」 동인은 2-3cm의 작은 크기에 끈을 매달 수 있는 반원형의 꼭지가 상단부에 있다. 이 인장도 휴대를 위한 용도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몇몇 연구자들은 「주례周禮」 기록에 근거하여, 이를 부절符節의 한 형태로 이해하기도 한다.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을 하사함으로써, 그것을 지닌 사람은 그 권위와 권한을 그대로 부여받았다는 의미가 된다.

인문印文은 양각陽刻으로 만들었는데, 초기 인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주요한 특징이다. (그림 3)과 (그림 4)를 비교

하면 인문의 새 모양이 반대로 표현되었는데, 인장을 찍었을 때 글자의 좌우가 바뀌게 되는 것을 고려해서 인문을 반대로 새긴 것이다. 따라서 이 인장은 처음부터 무엇인가에 찍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인장을 도기陶器나 동기銅器에 대량의 문양을 넣기 위한 용도로는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동銅을 재질로 하며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반영된 인장이 은허殷墟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이보다 초보적인 형태의 인장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인장 실물이 현전하지 않고 문헌 기록의 신빙성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후대의 몇몇 기록은 안양삼새 이전부터 이미 인장이 존재했었다고 설명한다.

(그림 5)는 전서체篆書體의 한자漢字를 음각으로 새긴 인장으로, 안양삼새보다 더욱 안정적이고 규범화된 형식을 보인다. 인장은 정치적 변동과 상업적 발흥으로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기원전 5세기-기원전 3세기)부터 사용이 늘었고, 통일 제국을 건설한 진한시대(秦漢時代, 기원전 3세기-기원전 2세기)에 정형화된 형식이 완성되었다.

당시 인장은 문서 행정 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통일된 방대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황제를 포함한 중앙 정

1. 이와 함께 台北 國立古宮博物院 홈페이지 유물 설명문 참조.

부의 명령은 지방까지 전달되어야 했고, 그 반대로 지방의 주요 현안은 중앙 정부에 신속하게 보고되어야 했다. 이때 명령과 보고는 철저히 문서 기록으로 전달되었고, 전달 과정에서 변개나 위조가 불가능하도록 특별한 장치를 하였다. 이 장치가 충분히 신뢰를 줄 때, 문서의 효력과 권위를 근간으로 하는 문서 행정 제도는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황제는 인장을 본인의 권력과 동등하게 여겼고, 인장을 내려주는 사인(賜印)의 방식으로 행정 조직과 주변 지역 국가와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지가 반영되어, 인장은 철저히 계급적 질서에 의해 명칭·크기·형태·자체字體·인뉴印紐 등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형식적 요소를 차등 있게 구분하였으며, 이를 예식(禮式)이라는 위계질서의 프레임에 맞춰 법전(法典)에 실어 법제화하였다(박준호, 2016, pp. 165-190).

III. 점토 봉투(clay envelope)와 검(檢)

초창기 사용되었던 인장은 기본적으로 봉인(封印)의 기능을 제한한다. 봉(封)이라는 글자는 제후에게 나눠준 땅을 가리켰는데, 그 땅의 경계를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다는 뜻까지 포함하였다. 그래서 봉인은 인장을 사용해서 열지 못하게 막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인장이 찍힌 진흙으로 봉인하는 신표 방식은 서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모두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봉인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질적이었다.

(그림 6)은 인장이 찍혀 있는 원형의 점토 봉투와 그 안에 들어있던 토큰이다. 점토 봉투에는 날개를 펼친 새와 염소 뿔 등을 새긴 인장이 찍혔고, 토큰은 작은 원뿔 세 개와 둥근 판 세 개로 구성되었다. 토큰은 목적지까지 보내는 물품의 수량 등을 의미하였다. 이 토큰을 원형의 점토 봉투에 넣은 후, 이 원형 봉투에 인장을 찍어서 봉인했다. 만약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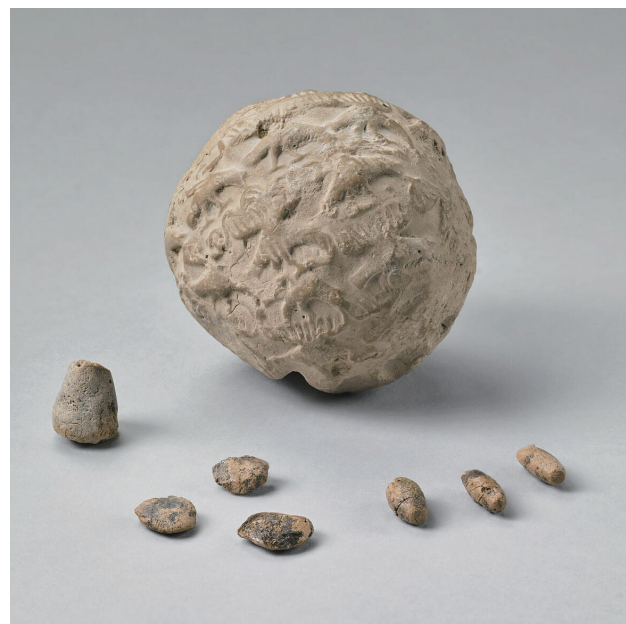


그림 6. 점토 봉투와 토큰(Token)

기원전 3500년경, 이란 남서부 수사(Susa) 출토, 지름 6.5cm, 루브르박물관(sb1927)

© 2023 Musée du Louvre, Dist. GrandPalaisRmn / Raphaël Chipault

지에 도착한 물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 점토 봉투를 깨서 안에 들어있는 토큰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봉투 안에 들어 있던 토큰을 봉투 외면에 기록하여 간단하게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후에는 봉투 자체도 넓은 판으로 만들어 더 쉽게 기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때 봉투나 판에 기록된 표기 형식을 최초의 문자로 보고 있다(Collon (trans. Ikeda, 1998, pp. 18-19).

(그림 7)은 아시리아의 상업 식민지였던 카네쉬(Kanesh)에서 작성된 것으로, 채권자·채무자·증인이 1미나(mina)와 6.5셰켈(shekel)의 은을 수확기에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점토 봉투이다. 봉투 안에는 점토판에 쓰인 계약서가 들어 있다. 봉투 하단에는 맥주 같은 것을 빨대로 마시는 인



그림 7. 점토 봉투

기원전 1920년~기원전 1850년경, 튀르키예 중부 킬테페(Kültepe) 출토, 5.0×6.0cm, 영국박물관(BM113583)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물이 묘사된 아시리아 상인의 봉인이 있고, 봉투 상단에는 군중의 모습이 묘사된 아나톨리아 거래 상대방의 봉인이 있다(Collon, trans. Ikeda, 1998, pp. 40-41).² 이렇게 봉투를 만든 것도 안에 들어 있는 문서 원본 내용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행여 문서 내용으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봉투를 부수고 안에 있는 문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오랜 시간 지속되지 못하였다. 한결 쉽게 점토 봉투를 만들지 않고 점토판 문서에 글자를 쓴 후 점토가 마르기 전에 바로 원통 인장을 찍은 방식도 있었다(古代オリエント博物館, 1991, pp. 15-17).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주로 대나무나 나무에 글을 썼다. 이를 죽간竹簡 또는 목牍木牘이라고 하였고, 이 둘을 합쳐서 간牍簡牘이라 불렀다. 가늘고 긴 나무 막대에 가지런히 쓴 글자는 굳어서 딱딱해진 점토보다 누군가에 의해 변경이 쉽게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취약하게 노출된 문서 기록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검으로 봉인한다는 뜻의 봉검封檢이 신표로 사용되었다. 검檢은 나무 문서를 봉합緘할 때 사용하는 판을 가리킨다.³ 문서에 검을 덧대고, 이를 끈으로 묶은 후에 검 위에 있는 끈의 매듭을 진흙으로 메우고, 그 메운 곳에 인장을 찍어서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⁴ 그래서 한나라 때 사전인 『석명釋名』에서 검檢은 ‘열지 못하게 금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⁵

(그림 8)은 20세기 초 영국의 스타인(Mark Aurel Stein, 1862-1943)이 타클라마칸 사막에 위치한 고대 도시 유적 니야(Niya)에서 발굴한 검검이다.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대상물을 묶었던 끈과 인장이 찍힌 봉니封泥가 모두 남아있다. 크기로 보았을 때, 물품 등을 봉인할 때 썼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8. 검(檢, Sealing Tablet)
중국 니야(Niya) 출토. 3.5×5.1cm,
영국도서관(Or.8211/1588)
국제돈황프로젝트 CC-BY Licence
© British Library Board



그림 9. 검(檢, Sealing Tablet)
중국 거연한간(居延漢簡). 기원전 202-기원전 220년,
중국(한). 2.8×15.1cm. 두께 1.1cm, 대만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133.4) CC BY-NC-ND 3.0 TW
©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Academia Sinica Center for Digital Cultures

(그림 9)는 중국 한나라 변방의 군사 주둔지였던 거연居延 지역에서 발굴된 검이다. 하단에 있는 홈에 끈을 묶고 봉니를 바른 후 인장을 찍었다. 상단 중앙에 크게 쓴 ‘甲渠官(갑거관)’은 이 문서를 받을 수신처에 해당한다. 이를 서嚮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서명이 유래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설명하겠다. 우측에 작게 쓴 ‘王彭印(왕팽인)’은 봉니에 찍은 인장의 인문印文이고, 좌측에 작게 쓴 ‘四月乙丑卒同以來’은 이 문서가 도착한 날과 이 문서를 가지고 온 하급 관원[卒]의 이름[同]이다(大庭脩, 1992, pp. 227-228).

진흙이라는 봉인 재료의 공통점이 있더라도, 서아시아 인장과 동아시아 인장의 차이는 무엇보다도 서사재료書寫材料에서 비롯된다. 서아시아의 원통 인장은 점토라는 서사재료에 최적화된 신표 방법이었다. 대형의 점토 덩어리에 원통의 인장을 굴리게 되면, 그 내용을 변개하지 못하도록 글자를 덮는 데 적합했다. 원통 인장은 췌기문자의 확산과 보조를 맞추며 삼천 년 넘게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서사재료가 진흙에서 양피지 등으로 바뀌고, 췌기문자가 아람문자와 같은 알

2. 이와 함께 The British Museum 홈페이지 유물 설명문 참조. https://www.britishmuseum.org/collection/object/W_1919-0712-332
3. “其所用以封之板，謂之檢。”(王國維, 「簡牘檢署攷」, 『王觀堂先生全集』, 文華出版公司, 1968).
4. “書函之上，既施以檢，而復以繩約之，以泥填之，以印按之，而後題所予之人，其事始畢。”(王國維, 「簡牘檢署攷」, 『王觀堂先生全集』, 文華出版公司, 1968).
5. “檢，禁也。禁閉諸物使不得開露也。”(『釋名』卷6).

파벳으로 대체되면서 원통 인장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Collon, trans. Ikeda, 1998, p. 22). 이후 스탬프 인장이 다시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고, 인장을 봉니封泥에 찍는 방식은 서구 사회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 같다.

동아시아의 인장도 서사재료의 변화에 직면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간독簡牘과 같은 나무 서사재료는 105년 채륜蔡倫이 종이를 만들면서 변화하게 된다. 나무와 종이의 공존 기간이 있기는 하였지만, 종이는 빠른 속도로 중심적인 서사재료의 자리에 올랐다. 서사재료가 바뀔에 따라 인장도 몇 가지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간독 크기에 맞춰 2-3cm에 불과하던 인장이 종이 크기에 맞춰 10cm 이상 까지도 커졌다는 점이다. 커진 인장은 화려해졌고, 그래서 인장은 더욱 권위적인 상징물로 변했다. 또한 종이에 인장을 찍으면서 붉은색 인주印朱를 사용하였다. 인주를 묻혀서 찍었기 때문에 인장의 인문은 기존 음각陰刻 중심으로 새기던 것에서 양각陽刻 중심으로 새기게 되었다. 인장을 양각으로 새긴 것은 인장을 찍었던 서사재료가 종이였기 때문이다.

IV. 인장을 대신한 방법들

아직 종이가 사용되기 이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인장 외의 다른 방법의 신표가 있었다. 특히 신분적으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인장을 사용하기 어려웠다. 인장을 만드는 것도 힘에 부치는 일이었고, 인장에 새겨진 글자를 읽거나 쓸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금전적 거래 등 일상의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고대 동아시아의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주례周禮』는 여러 참고가 된다. 『주례』에는 거래나 송사訟事 등에 관한 나무 문서 시대의 신표 방식이 소략하게라도 기술되어 있고, 이에 대한 한나라 때 정현鄭玄, 127-200의 주注를 통해 우리는 몇몇 주요 사실에 접근할 수 있다. 다음은 소재小宰가 담당하였던 주요 업무에 대한 『주례』의 일부 기록이다.

소재小宰는 관부官府의 팔성八成에 의거하여 나라의 정무를 다스린다. …… 넷째, 칭채稱責은 부별傳別에 의거하여 판결한다. …… 여섯째, 취여取予는 서계書契에 의거하여 판결한다. …… 일곱째, 매매賣買는 질주質劑에 의거하여 판결한다. ……⁶

무엇 하나 낯설지 않은 내용이 없지만, 인장 문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은 칭채稱責과 부별傳別, 취여取予와 서계書契, 매매賣買와 질주質劑의 세 가지이다.

첫째, 칭채와 부별을 설명하겠다. 정현鄭玄의 주注에 의하면, 칭채稱責은 대자貸子의 의미로, 무엇을 빌리고 이자를 주는 등의 경제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 행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재는 부별傳別에 의거하여 판결한다는 것이다. 정현은 부별을 “하나의 찰(札, 나무 문서)에 크게 글자를 써서 글자의 가운데를 잘라 나눈 것을 이른다.”⁷라고 하였다. 거래 당사자들이 하나의 신표를 둘로 쪼갠 후 나누어 소지하고, 증빙이 필요할 경우 나누어 가진 신표 두 개를 합쳐서 증빙하는 방법이다. 관련해서 별荊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석명釋名』에서 “별荊은 나누는 것이다. 중앙에 크게 글자를 쓰고 가운데를 잘라 나누는 것이다.”⁸라고 하였다. 아울러, 현재까지도 일본에서는 인장을 의미라는 용어로 判子(はんこ)가 있는데, 판判은 ‘절반半을 칼로 자른다.’라는 나무 문서 시대의 신표 방식에서 유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0)은 모두 관청에서 관리하는 물품에 대한 기록이다. 수량 관리나 출납 등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모두 목간의 가운데에 반으로 잘려있는 ‘同(동)자’를 볼 수 있다.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나무 문서가 하나 더 있을 것이고, 同(동)자를 기준으로 두 문서를 합치하여 확인했을 것이다.

둘째는 취여와 서계이다. 취여取予는 물품을 주고받거나, 드나드는 물품을 의미한다. 이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재는 서계에 의거하여 판결한다는 것이다. 서계에 대해 정현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의 긴요한 것을 말한다. 무릇 부서簿書(장부)의 중요한 항목과 소송의 요긴한 글을 모두 계契라고 한다.”⁹라고 하였다. 중국 한나라 때의 사전인 『설문해자說文

6. “以官府之八成，經邦治。一曰聽政役以比居，二曰聽師田以簡稽，三曰聽閭里以版圖，四曰聽稱責以傳別，五曰聽祿位以禮命，六曰聽取予以書契，七曰聽賣買以質劑，八曰聽出入以要會。”(『周禮注疏』天官 小宰) ※『周禮注疏』는 “金容天·朴禮慶 譯註，『譯註 周禮注疏』2， 전통문화연구회，2025.”를 참조하였다.

7. “傳別，謂爲大手書於一札，中字別之。”(『周禮注疏』天官 小宰).

8. “荊，別也。大書中央，中破別之也。”(『釋名』卷6).

9. “書契，謂出予受入之凡要。凡簿書之最目，獄訟之要辭，皆曰契。”(『周禮注疏』天官 小宰).



그림 10. 중국 거연한간(居延漢簡)

기원전 202~기원전 220년(중국 한), (좌) 1.7×19.2cm, 두께 0.3cm (89.21)/
(중) 1.2×15.5cm, 두께 0.3cm (312.19)/ (우) 1.1×19.1cm, 두께 0.3cm (285.14),
대만중앙연구원역사언어연구소[(좌) 89.21/ (중) 312.19/ (우) 285.14]
CC BY-NC-ND 3.0 TW

©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Academia Sinica Center for Digital Cultures



그림 11. 중국 거연한간(居延漢簡)

기원전 53년(중국 한), 1.3×23.7cm, 두께 0.8cm,
대만중앙연구원역사언어연구소(311.034) CC BY-NC-ND 3.0 TW

©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Academia Sinica Center for Digital Cultures

解字』에서 “권券은 계契이다. 권券으로 나누는 문서이다. 칼로 그 가장자리를 나눠서 표시하기 때문에 서계書契라 한다.”¹⁰라고 하였고, 『석명』에서는 “계契는 새기는 것刻이다. 새겨서 그 수를 아는 것이다.”¹¹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권券이나 계契는 목간의 측면에 표시를 새겨서 증빙하는 문서였다.

(그림 11)은 한나라 때 국경 지방에서 봉수烽燧를 담당 하던 관리들의 녹봉 지급과 관련된 문서이다. 목간의 우측 상단 모서리에는 홈이 새겨졌는데, 이를 각치刻齒 또는 권치券齒라고 한다. 부별傳別과 비슷하게 두 개의 목간에 동일한 각치를 새기고, 이를 합쳐 증빙을 삼는 방식이다. 또한 각치를 새길 때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 패턴에 따른 각치는 숫자를 상징하였는데, ‘ㄷ’은 5,000 혹은 1,000, ‘ㄱ’은 100, ‘ㄴ’은 50, ‘ㅇ’은 10, ‘ㅡ’은 1을 의미하였다(富谷至, 2008, pp. 92-95). (그림 11)의 각치는 ‘ㄷㄱㄱㄱㄱ’인데, 각치가 의미하는 숫자 5400은 목간에 기재된 급여전給與錢의 금액과 정확

하게 일치한다.

(그림 12)는 중세 유럽에서 금전적 거래의 영수증으로 사용되었던 탈리(Tally)이다. 나무 가장자리에 홈을 새겨 금액을 표시한 후, 이 막대를 쪼개어 거래 당사자들이 나누어 가졌다. 당연히 거래의 신표로 사용되었고, 거래를 종료할 때 두 막대를 맞대어 금액 등을 확인했다. 중국 나무 문서 시대의 각치刻齒와 거의 유사한 신표 방법이였다(大庭脩, 1998, pp. 118-119).

셋째는 매매와 질주이다. 매매賣買는 말 그대로 사고파는 것을 의미한다. 매매에 문제가 있을 때 소재는 질주質劑에 의거하여 판결한다는 뜻이다. 질주에 대해 정현은, “두 글을 하나의 찰札(나무 문서)에 쓰고, 같은 내용을 나누는 것이다. 긴 것을 질質이라고 하고, 짧은 것을 주劑라고 한다. 부별傳別과 질주는 모두 지금의 권서券書이다. 방식이 달라서 그 이름이 다른 것뿐이다.”라고 하였다.¹² 질質은 긴 목찰을 가리키고, 주劑

10. “券, 契也. 券別之書, 以刀判契其傍, 故曰書契.” (『說文解字』第四篇下).

11. “契, 刻也. 刻識其數也.” (『釋名』卷6).

12. “質劑, 謂兩書一札, 同而別之. 長曰質, 短曰劑. 傳別質劑, 皆今之券書也. 事異, 異其名耳.” (『周禮注疏』天官 小宰).



그림 12. 탈리(Tally)

영국 14세기 말-15세기 초, 1.0×18.4cm, 런던박물관(70.77)
© London Museum

는 짧은 목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나무 문서 시대의 부별·서계·질주는 종이 문서 시대가 되면서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신표 방식이 나타나는데, 이를 화지¹³指라고 한다. 화지는 손가락을 그려 넣은 것을 뜻한다. 종이 문서에 자신의 손가락을 그려 넣어 신표를 삼는 것이다. 사람마다 손가락은 크기가 제각각이고, 언제 어디서나 당사자가 쉽게 증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화지는 507년에 작성된 북위¹⁴北魏 매지권¹⁵買地券에서 처음 용례가 보인다(仁井田陞, 1983 [1937], pp. 37-39). 본문 중에 ‘화지위신¹⁶指爲信’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손가락을 그려서 신표로 삼는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실제 화지는 659년에 작성된 계약 문서에서 볼 수 있다(仁井田陞, 1960, p. 672).

종이 문서 시대에 신표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서명¹⁷署名이다. 동아시아에서 서명이라는 용어는 화지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 이전에는 서署라는 단일 용어만 있었다. 『설문해자』에 의하면, “검¹⁸은 서署를 쓴 것이다.”¹³ 그리고 “서署는 부서¹⁹部署이다.”¹⁴라고 설명한다. 또한 『석명』에 의하면 “문서 검²⁰에 쓴 것을 서署라고 한다. 서署는 보내는 것이다. 보낼 곳의 관호²¹官號를 제²²題로 쓴 것이다.”¹⁵라고 풀이한다. 또한 왕국유(王國維, 1877-1927)는 “서署는 검²³에 쓴 제²⁴題를 가리킨다.”라고 하였다.¹⁶

이를 종합하면, 서署는 문서를 보낼 때, 검²⁵을 봉인하고 그 여백에 이 문서를 받을 곳(관청)을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같으면, 편지봉투에 쓰는 ‘받는 사람(곳)’에 해당한다. 『설문해자』에서 부서²⁶部署라고 설명한 것도, 문서를 받는 관청을 지칭했기 때문이다.

서署에 명²⁷이 합쳐진 서명²⁸署名이라는 용어는 최소한 나

무 문서 시대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물론, 담당 관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간독²⁹簡牘에 자필로 기록한 사례는 확인되지만, 이것을 서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격적인 개념의 서명은 사실상, 종이 문서 시대인 5세기경부터 확인된다. 이후 서명³⁰署名과는 별개 개념의 화압³¹花押이 등장했고, 성명과 서명과 화압의 다양한 조합으로 분화되기에 이른다. 그래서 성명³²姓名, 성³³姓+서명³⁴署名, 성명³⁵姓名+화압³⁶花押, 성³⁷姓+화압³⁸花押, 화압³⁹花押 등과 같이 다종한 성⁴⁰姓·명⁴¹名·서署·압⁴²押의 조합이 중국 송나라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분화된 사용 방식은 예식⁴³禮式에 기준하는 상하 위계질서에 따랐고, 그 내용은 『경원조법사류⁴⁴慶元條法事類』나 『홍무예제⁴⁵洪武禮制』 같은 법전에 규정되었다. 이 원칙을 19세기 말까지 충실하게 유지한 것이 조선⁴⁶朝鮮이었고, 일본은 에도시대 어느 시점부터 도장⁴⁷圖章이 중심이 되어 다른 길을 걸었다(박준호, 2016, pp. 93-118).

(그림 13)은 1668년 조선⁴⁸朝鮮에서 작성된 논을 매매하는 계약 문서이다. 문서의 끝에는 논을 파는 사람, 증인, 필집⁴⁹筆執(문서 작성자)이 손가락을 그려 넣거나 서명⁵⁰署名하였다. 전통 시대의 매매에서 파는 사람, 증인, 문서 작성자가 계약서에 서명 등을 하는 것은 대동소이하다. 이때 그려 넣은 손가락을 수촌⁵¹手寸 또는 화지⁵²畫指라고 하였다. (그림 13)에서 논을 파는 사람과 증인은 계약서에 손가락을 그려 넣었다. 이 두 사람은 신분적으로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비록 이름은 있었더라도, 그 이름을 쓰지 못했고, 이름으로 하는 서명도 할 수 없었다.

조선시대 서명은 신분에 의한 제약이 없었다. 오로지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면 노비⁵³奴婢도 서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13. “檢，書署也。”(『說文解字』第六篇上).

14. “署，部署也。”(『說文解字』第七篇下).

15. “書文書檢曰署，署予也。題所予者官號也。”(『釋名』卷6).

16. “署，謂題書其檢上也。”(王國維，「簡牘檢署攷」，『王觀堂先生全集』，文華出版公司，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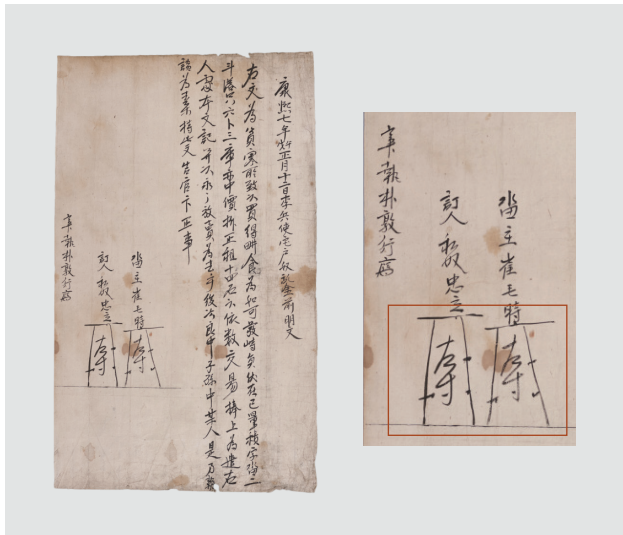


그림 13. 손가락을 그린 전답 매매 문서
1668년(한국 조선), 53.7×32.3cm, 국립한글박물관(한구 14286)
© National Hangeul Museum

기준을 고대 사회에까지 소급한다면, 나무 문서 시대의 신표 방식이 문맹文盲 여부에 의해 다양하게 나뉘었다는 결론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해서, 글을 배워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인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였고, 글을 배우지 못해서 쓸 수 없는 사람은 부별傳別과 서계書契와 질주質劑를 하였던 것이다. 이를 서사재료의 종류와 문맹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나무 문서 시대		종이 문서 시대	
글을 아는 경우	작은 인장(印章)		큰 인장(印章)	서명(署名)·화압(花押)
글을 모르는 경우	별(荊)·부(符)·부(傅)	권(券)·계(契)	화지(書指)	

다만, 조선시대 여성의 신표는 예외적이다. 여성은 대부분 글을 배우지 못해서 서명이나 화압이 없었다. 그래서 손바닥을 그리거나[수장手掌] 손가락을 그려서[수촌手寸] 신표를 했고, 일부 상류 계급의 여성은 인장을 찍었다. 인문은 본인의 성姓 혹은 관향貫鄉을 쓰거나 남편의 이름을 써서 ‘김씨’·‘서울 김씨’·‘홍길동처 김씨’와 같이 했다. 여성의 인장은 특별히 ‘도서圖書’라고 불러서 엄밀하게는 인장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인장을 찍는다는 뜻으로 답인踏印이라 쓰지 않고, 착도서着圖書라 하였다. 또한 왕실을 제외한 일반 여성은 검은색 먹물을 인장에 묻혀서 찍었기 때문에 흑인黑印이었다.

V. 글을 마무리하며

인류가 상호 관계를 맺으며 공동의 사회생활을 할 때부터 아마도 신표는 사용되었을 것이다. 기원전 5000년경, 인장이 처음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신표가 상당히 정형화된 시기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는 주어진 환경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신표를 생각해 냈다. 주변 자연환경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서사재료가 만들어졌고, 이 서사재료의 물질적 특성에 맞도록 신표 방법도 고안되었다.

서아시아의 서사재료는 점토였다. 무른 점토에 할 수 있는 신표로서 스탬프 인장과 원통 인장은 최적화된 방법이었다. 이 외에도 점토 봉투를 활용하는 등 변이된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반면, 동아시아의 서사재료는 나무였다. 나무 문서에 검檢을 덧대고 끈으로 묶은 다음 진흙으로 마무리하는 봉인 방법을 사용했다. 이 외에도 나무 문서에 글자를 쓰고 그 글자의 중앙을 반분하는 방법, 나무 문서의 모서리에 같은 모양의 홈을 새기는 방법이 있었다. 이후 서사재료가 나무에서 종이로 바뀌면서, 진흙에 찍던 인장은 종이에 찍는 인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서명署名이 새롭게 사용되어, 인장과 서명은 최근까지 신표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문서를 반분하거나 모서리에 홈을 새기는 방법은 종이 문서 시대에는 손바닥이나 손가락을 문서에 그리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유럽은 서사재료가 바뀌었음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서아시아의 인장 전통을 유지했던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시기부터 서명을 사용하는데, 이 서명이 어떤 연원으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필자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서명은 이름 글자를 디자인화하여 만들었고, 화압은 이름과 무관하게 상징적인 문자를 선택한 후 이를 디자인화하여 만들었다(林讓, 1992). 서명과 화압 두 종류의 신표를 사용한 것은 여러 조합을 통해 상하의 위계 관계를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수천 년 전, 비슷한 방법으로 시작되었던 인장은 지역성을 반영하는 서사재료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변모하였다. 이 인장은 서사재료의 종류, 문맹의 여부, 남녀의 성차 등에 의해 여러 방식의 인장 문화로 확장되었을 것이다. 아직 규명되지 않은 인장 문화의 다양한 전개 양상은 앞으로 여러 전문가의 공동 연구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 비교 연구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부족한 필자에게 花押 등에 대해 무한의 연구 기회를 주셨던 林讓 東京大学名誉教授 靈前に 삼가 이 글을 바칩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簡牘檢署攷. (『王觀堂先生全集』所收).

釋名.

說文解字.

周禮注疏.

金容天, 朴禮慶 (역주). (2025). *역주 周禮注疏 2*.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박준호. (2016). *고문서의 서명과 인장*. 하남: 박이정.

Dominique Collon 著, 池田潤 譯. (1998). *オリエントの印章*. 東京: 學藝書林.

古代オリエント博物館. (1991). *印章の世界 - 古代オリエント美術と歴史の語り部*. 東京: 古代オリエント博物館.

大庭脩. (1992). *漢簡研究*. 京都: 同朋舎.

大庭脩. (1998). *木簡 - 古代からのメッセージ*. 東京: 大修館書店.

富谷至. (2008). *木簡・竹簡の語る中国古代*. 東京: 岩波書店.

藤枝晃. (1971). *文字の文化史*. 東京: 岩波書店.

仁井田陞. (1960). *中國法制史研究: 土地法・交易法*. 東京: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仁井田陞. (1983 [1937]). *唐宋法律文書の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新関欽哉. (1995). *東西印章史*. 東京: 東京堂出版.

片岡一忠. (2008). *中国官印制度研究*. 東京: 東方書店.

台北 國立故宮博物院. (2012). *印象深刻: 院藏璽印展*. 台北: 國立故宮博物院.

林讓. (1992). *花押覚書—研究の周辺. 歴史と地理*, 442-445, 6月・9月合併号.

何连海. (2017). 传藏、著录与界说—近百年殷商古印的学术小史. *中国书法*, 315, 10月号.

How the Shift from Wooden Tablets to Paper Affected Seal Culture in Ancient East Asia?

| **Junho Park**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A seal is an official marker of trust that has a history even longer than that of writing systems. Over a long period of time, seals have evolved continuously and various types of trust markers have been produced along the way. Trust markers were designed in different forms depending on the level of illiteracy, changes in writing and transcribing materials, gender differences, and social status, forming a unique seal culture.

This article is a brief introduction to the seal culture of ancient East Asia and the ways in which it was influenced by changes in writing materials, and aims to serve as a foundation for exploring the potential for future comparative research on ancient East and West Asia.

In ancient East Asia seals were inseparable from the documental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region. To govern a vast, unified territory, central government orders had to be relayed to local governments, while the main issues of local governments needed to be promptly repor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At this time, orders and reports were strictly transmitted in the form of written records, and special measures were taken to prevent their alteration or forgery during the transmission process. Once these measures became sufficiently reliable, the document-based administrative system, which depended on the validity and authority of written documents, could be fully maintained.

In ancient East Asia, documents were made of bamboo or wood prior to the invention of paper. Characters and letters, written with a brush on long, thin wooden sticks, could be modified easily.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such vulnerable documentary records, a sealing tablet (geom, 檢) in the form of a board was used to seal a black wooden document, thereby serving as a trust marker. This method consisted in attaching a sealing tablet to a wooden document, tying them together with a string, filling the knot of the string on the sealing tablet with mud, and stamping a seal on the filled-in area to prevent it from being opened arbitrarily (Fig 1 and 2). This method of sealing is similar in its basic concept to the clay envelope of West Asia, although different materials were u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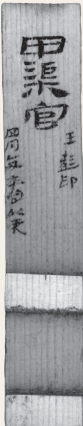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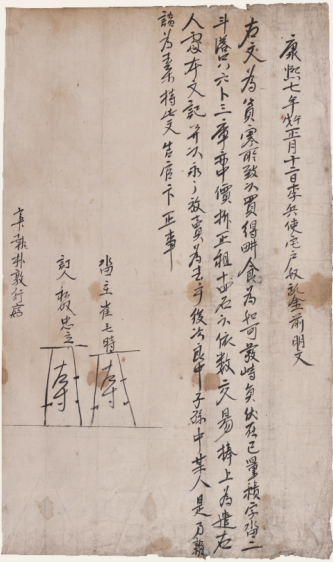
Before the use of paper, ancient East Asia had two general types of trust markers, in addition to seals: One involved writing large letters in the center of a wooden document, and then cutting the center of the letters in half, while the other consisted in carving grooves symbolizing specific numbers into the corners of a wooden document, and then dividing the document in two in order to share it (Fig 3 and 4). This is similar to the tally stick or tally used in medieval Europe. The fact that ancient East Asia had different kinds of trust markers aside from seals has led to an assumption that they were related to levels of literacy in some way. Social class would hav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illiteracy, and gender differences are also likely to have played a role to some degree.

The trust markers used in ancient East Asia inevitably underwent several changes as the material used to produce documents shifted from wood to paper. Most significantly, seals, which were originally made to fit the size of wooden documents and hence were only two or three cm in size, eventually grew to over ten centimeters to match to the size of a sheet of paper. The larger seals grew increasingly ornate and, ultimately, became a symbol of greater authority. As they were imprinted with ink on paper, seals were engraved primarily in relief rather than intaglio. In addition to seals, the method of

marking wooden documents consisted in cutting a wooden document in half or carving grooves along its edge, but with the change to paper documents, people would imprint their finger or palm on a document. In particular, signatures first appeared in the era of paper documents, and were basically created by designing specific characters or letters to represent people's names (Fig 5, 6 and 7). In ancient West Asia, as writing materials changed from clay to parchment, cylindrical seals were abandoned, leaving only stamp seals. It is estimated that at some point in time after this, a method of using both a signature and a seal was devised.

Seals in ancient East and West Asia originated in similar ways. It is particularly interesting to note that clay was commonly used when stamping a seal. The seal culture of these two regions underwent unique transformations, with West Asia settling into a Western style of seal culture and East Asia into an oriental one. However, when considering these phases in greater detail, the regional changes would have been very complex depending on the era, country (dynasty), and modes of use. It is still thought that most features of the ancient seal culture have yet to be identified.

In conclusion, to elucidate the changing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eal cultures of these two Asian regions, it is expected that comparative research with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experts will be required in the future.

			
Fig 1. Sealing Tablet (geom, 檢) Excavated at Niya, Xinjiang, China. 3.5×5.1cm, The British Library's 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 (Or.8211/1588) CC-BY License © British Library Board	Fig 2. Sealing Tablet (geom, 檢) C. 202 BC - 220 AD (Han Dynasty of China), 2.8×15.1×1.1cm,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of Academia Sinica in Taiwan(133.4) CC BY-NC-ND 3.0 TW ©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Academia Sinica Center for Digital Cultures	Fig 3. A wooden document divided by cutting the characters in half C. 202 BC - 220 AD (Han Dynasty of China), 1.7×19.2×0.3cm,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of Academia Sinica in Taiwan(89.21) CC BY-NC-ND 3.0 TW ©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Academia Sinica Center for Digital Cultures	Fig 4. A wooden document with grooves carved along its edge symbolizing specific numbers C. 53 BC (Han Dynasty of China), 1.3×23.7×0.8cm,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of Academia Sinica in Taiwan(311.034) CC BY-NC-ND 3.0 TW ©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Academia Sinica Center for Digital Cultures
			
Fig 5. Farmland Trading Document c. 1668 (Joseon Dynasty of Korea), 53.7×32.3cm, National Hangeul Museum (Hangu 14286) © National Hangeul Museum	Fig 6. A seal stamped on a sealing tablet from the era of wooden documents C. 25-220 AD (Later Han China), 2.41×2.38cm, National Palace Museum in Taipei, Taiwan (故銅 000136N), CCB Y 4.0 © NATIONAL PALACE MUSEUM	Fig 7. A seal stamped on paper from the era of paper documents c. 1450 (Joseon Dynasty of Korea), 10.2×10.2c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Jongmyo 13559) ©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Keywords 인장(印章, seal), 원통 인장(cylinder seal), 스탬프 인장(stamp seal), 점토 봉투(clay envelope), 검(檢, sealing tablet), 봉니(封泥, lute block), 서명(署名, signature), 신표(信標, trust marker)





부록

Appendices





윤 성 덕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한국고대근동학회 학술이사

윤성덕은 히브리 성서와 고대근동학을 전공한 연구자이며, 현재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이다.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에서 유대민족사학 석사학위를, 미국 히브리 유니온 칼리지(Hebrew Union College-Jewish Institute of Religion)에서 히브리 성서와 고대근동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히브리 성서의 신학적 사상과 고대 서아시아의 지해문학, 그리고 랍비 유대교 사상의 형성과 전개이다. 그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교 사상을 고대 근동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조명하는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여러 학술 논문을 통해 성서 본문과 메소포타미아 문헌의 사상적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고대 서아시아의 '논쟁(Dialogue) 문학'과 인간 이해를 주제로 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히브리어와 아카드어 등 고대 언어 교육을 통해 후학 양성에도 힘쓰며, 히브리 성서, 고대 이스라엘 역사, 서아시아 문화와 종교를 강의하고 있다.



주 원 준

한남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고대근동학회 초대회장

주원준 박사는 가톨릭 평신도 신학자이자 한남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이다.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구약학과 고대근동언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등에서 구약성서와 고대근동 종교를 강의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성서 언어학, 고대근동의 신화와 종교,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사이다. 그는 한국고대근동학회(KANES) 초대 회장이며, '21세기 제롬 성경 주해' 번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구약성경과 신들』, 『구약성경과 작은 신들』, 『인류 최초의 문명과 이스라엘』이 있으며, 성서 언어학 및 비교신화학 분야의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인류 최초의 문명과 이스라엘』은 2022년 '올해의 최우수 교양도서'와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되었다. 그는 EBS 강좌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고대근동 문명과 성서의 역사적 배경을 알리고 있으며, 평신도 신학과 학문 대중화에도 힘쓰고 있다.



유 성 환

단국대학교 고대문명연구소 연구교수, 한국고대근동학회 학술이사

유성환 박사는 고대 이집트 문명과 신화를 연구하는 이집트학자이며, 현재 단국대학교 고대문명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Patterns of Ancient Egyptian Child Deities」 연구로 이집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고대 이집트 문헌의 한국어 번역, 이집트 신화 및 서아시아 신화의 비교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초의 소설, 시누헤 이야기』를 비롯한 원전 번역서를 출간하였다. 저서로 『고대 이집트 전쟁론』이 있으며, 서사문학·장례문서·의학 파피루스 등 다양한 문헌을 문헌학적으로 분석해 왔다. 2022년 『서양사론』에 게재된 「고대 서아시아의 팬데믹」 논문은 한국서양사학회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그는 2022년 공식 출범한 한국고대근동학회(KANES)의 창립 멤버이자 학술이사로 활동 중이며,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서 고대 이집트 의학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또한 KBS <역사저널 그날>과 tvN <벌거벗은 세계사> 등에 출연하여 고대 문명 연구의 대중적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에카르트 프람

예일대학교 고대근동언어문명학과 교수

에카르트 프람(Eckart Frahm) 교수는 예일대학교의 고대근동언어문명학과 존 M. 머서 석좌교수로, 고대 아시리아와 바빌리의 정치사 및 지성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석학이다. 그는 괴팅겐대학교에서 앗시리아학(부전공: 이집트학, 이슬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박사후 강의자격(Habilitation)을 얻었다. 그의 저서로는 『Babylonian and Assyrian Text Commentaries: Origins of Interpretation』(2011)과 『The Assyrians: The Rise and Fall of the World's First Empire』(Basic Books, 2023) 등이 있으며, 또한 『A Companion to Assyria』(2017)와 『Ancient Mesopotamia Speaks: Highlights of the Yale Babylonian Collection』(2019)과 같은 편저서도 포함된다. 그는 현재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알려진 수백 건의 켈리문자 주석 문헌을 편집하는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으며, 예일대학교 바빌리 컬렉션과 관련된 전시 및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클라우스 바겐조너

예일대학교 고대근동언어문명학과 연구원, 피바디 자연사박물관 인류학부 연구원

클라우스 바겐조너는 켈리문자 문헌을 연구하는 학자로, 고대 필사본의 물질성과 필경 전통에 관한 전문가이다. 그는 빈 대학교(University of Vienna)에서 아시리아학(Assyriology)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예일대학교에서 고대근동언어와 문명학을 가르치는 강사로 재직 중이다. 또한 예일대학교 피바디 자연사박물관 인류학부의 큐레이터 협력연구원(Curatorial Affiliate)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주요 연구 관심사는 슈메르어 및 아카드어 어휘 목록, 켈리문자 학술 문헌의 전승, 그리고 고대근동 문자체계의 물질성에 관한 연구이다. 그는 이와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Ancient Mesopotamia Speaks: Highlights from the Yale Babylonian Collection』(2019)을 에카르트 프람, 아그네테 라센과 함께 공동 편집하였다. 또한 켈리문자 유물의 디지털 기록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그는 켈리문자 디지털 도서관 사업(Cuneiform Digital Library Initiative, CDLI)에서 유럽과 미국 각지의 소장품 수천 점을 디지털화하고 목록화하는 일을 담당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인문학기금(NEH)의 지원을 받아 예일대학교 바빌리 컬렉션에 소장된 약 35,000점의 설형문자 유물을 전면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현재 이 이미지들은 현재 피바디 박물관 검색 포털과 여러 온라인 자료 저장소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그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제공한 소장품 사진을 바탕으로 켈리문자의 라인아트(line art) 도면 제작을 담당하였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박 준 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 연구교육부장(문헌학 전공, 문학박사)

주요 논저: 『풀어쓴 징비록 류성룡의 재구성』(동아시아, 2009), 『예의 패턴: 조선시대 문서 행정의 역사』(소와당, 2009), 『고문서의 서명과 인장』(박이정, 2016)

성 민 정 국립세계문자박물관 · 연구교육부 학예사(미술사학 전공, 문학석사)

주요 논저: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 연구』(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김 해 정 국립세계문자박물관 · 연구교육부 연구원(미술사학 전공, 문학석사)

주요 논저: 『조선 후기 전라도 지역 보살입상 연구』(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봉림사 목아미타여래좌상 양식분석』, 『봉림사 목아미타여래좌상 정비공사 보고서』(화성시, 2015)



Sungduk Yun

**Research Professor of the Institute of Christianity and Korean Culture, Yonsei University,
A member of the academic board of directors, KANES**

Sungduk Yun is a researcher who majored in the Hebrew Bible and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and currently works as a research professor of the Institute of Christianity and Korean Culture at Yonsei University. H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Theology at Yonsei University, and earned a master's degree in the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from the Hebrew University in Jerusalem and a Ph.D. on the Hebrew Bible and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from the Hebrew Union College - Jewish Institute of Religion in the U.S.A. His major field of interest covers the history of civilization of the ancient West Asia,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Hebrew Bible, as well as the cultural traces in the rabbinic traditions. He has been searching for noble perspectives on biblical interpretation and rereading of ancient Mesopotamian literature, and published academic papers on that matters. At present, he is engaged in comparative research on the "disputation literature" of ancient West Asia and its influence on the larger cultural context of the world. In addition, he strives to foster younger students by teaching ancient languages such as Hebrew and Akkadian, and gives lectures on the Hebrew Bible,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the culture and religion of Ancient West Asia.



Wonjun Joo

**Chief Researcher of the Hannim Biblical Institute, First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Wonjun Joo is a Catholic and a theologian who currently works as a chief researcher of the Hannim Biblical Institute. He received a Ph.D. on Old Testament Study and Ancient Near Eastern Languages from the Faculty of Catholic Theology at the University of Würzburg in Germany, and teaches the Old Testament and Ancient Near Eastern Religion at th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of Sogang University. His main research areas are biblical linguistics, mythologies, relig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and the religious history of Israel. He is the first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KANES), and currently serves as the head of the translation committee for "The Jerome Bible Commentar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He has published a number of books including *The Old Testament and the Gods*, *The Old Testament and the Minor Gods*, and *The First Civilization of Mankind and Israel*, as well as various papers in the fields of biblical linguistics and comparative mythology. In particular, his book *The First Civilization of Mankind and Israel* was selected as the "Best Liberal Arts Book of the Year" in 2022, while his book was selected as Sejong Book) in the "Liberal Arts" category in 2023. He is also dedicated to informing the general public about Ancient Near Eastern civilizations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to the Bible through his EBS lectures, and to popularizing theology and scholarship for ordinary Christian believers.



Sunghwan Yoo

**Research Professor of the Institute for Research on Early Civilizations, Dankook University,
Academic Director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Sung Hwan Yoo is an Egyptologist who studies ancient Egyptian civilization and mythology and currently works as a professor of the Institute for Research on Early Civilizations at Dankook University. H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and the Department of Korean-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of the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 received a Ph.D. in Egyptology from Brown University in the U.S.A. for his research on "Patterns of Ancient Egyptian Child Deities." He focuses on Korean translations of ancient Egyptian texts and comparative studies of Egyptian and West Asian mythology. He has published translations of original texts, including *The Story of Sinuhe: The First Novel of Ancient Egypt*, as well as his book *The Ancient Egyptian Theory of War*, and has analyzed various ancient texts and documents, including epic literature, funerary documents, and medical papyri, from a philological perspective. In particular, his paper *Pandemics of Ancient West Asia*, published in the *Western History Review* in 2022, was selected as an excellent paper by the Korean Society for Western History. He is a founding member and academic researcher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KANES), and has carried out research on ancient Egyptian medicine as a senior researcher of the Institute of Humanit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Furthermore, he has appeared on KBS's program *The Day*, *History Journal*, and tvN's program *Naked History*, contributing to popularizing the study of ancient civilizations.



Eckart Frahm

Professor of Assyriology, Department of Near Easter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Yale University

Eckart Frahm, the John M. Musser Professor of Near Easter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at Yale, is one of the world's foremost experts in the political and intellectual history of ancient Assyria and Babylonia. He received his Ph.D. in Assyriology (with minors in Egyptology and Islamic Studies) at Göttingen University and earned a postdoctoral lecture qualification ("Habilitation") at Heidelberg University. His books include, among others, *Babylonian and Assyrian Text Commentaries: Origins of Interpretation* (2011) and *The Assyrians: The Rise and Fall of the World's First Empire* (Basic Books, 2023), as well as the edited volumes *A Companion to Assyria* (2017) and *Ancient Mesopotamia Speaks: Highlights of the Yale Babylonian Collection* (2019). He is leading an international collaborative project aimed at editing the hundreds of cuneiform commentaries known from ancient Mesopotamia and has been involved in exhibitions and research related to the Yale Babylonian Collection.



Klaus Wagensohnner

**Researcher of the Department of Near Eastern Languages & Civilizations, Yale University,
Researcher of the Division of Anthropology at Peabody Museum of Natural History, Yale University**

Klaus Wagensohnner is a researcher of cuneiform texts and an expert on ancient manuscripts, their materiality, and scribal traditions. He earned a Ph.D. in Assyriology from the University of Vienna and currently serves as a Lecturer of Ancient Near Easter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at Yale University. He is also a Curatorial Affiliate with the Division of Anthropology at the Peabody Museum of Natural History. His main research interests include Sumerian and Akkadian lexical lists, the transmission of cuneiform scholarly texts, and the materiality of ancient Near Eastern writing systems. He has published numerous papers and co-edited several exhibition catalogues, including *Ancient Mesopotamia Speaks: Highlights from the Yale Babylonian Collection* (2019, together with Eckart Frahm and Agnete Lassen). He is also actively engaged in research on the digital recording of cuneiform artifacts. From 2011 to 2015, he worked for the Cuneiform Digital Library Initiative (CDLI), digitizing and cataloguing thousands of cuneiform documents in collections acros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Between 2019 and 2022 he was involved in the NEH-funded full digitization of approximately 35,000 cuneiform artifacts housed in the Yale Babylonian Collection. These images are now being made available through the Peabody Museum Search Portal and other online repositories. In this context, he was responsible for creating line art drawings of cuneiform artifacts housed in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in Korea. The line art drawings were produced based on high-resolution photographs produced by the museum.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Junho Park

Department of Manager, Research and Education Division,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Ph.D. in Philology

Selected Publications: A Newly Interpreted Jingbirok: Ryu Seong-ryong's Reconstruction (Dongasia, 2009), Patterns of Propriety: A History of Administrative Documents in the Joseon Dynasty (Sowadang, 2009), Signatures and Seals in Old Korean Documents (Pakijeong, 2016)

Minjeong Sung

Curator, Research and Education Division,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M.A. in Art History

Selected Publication: "A study on the Yeombul-Wangsaengcheobgyeongdo of Eunhaesa" M.A. thesis, Dongguk University, 2018

Hyejung Kim

Assistant Curator, Research and Education Division,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M.A. in Art History

Selected Publications: "Study of late Joseon standing Bodhisattva statues from the Jeolla province region," M.A. thesis, Hongik University, 2012

"An Analysis of the Stylistic Features of the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of Bongnimsa Temple," in Conservation Report on the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of Bongnimsa Temple (Hwaseong City, 2015)

소장품 소개

English Abstract



1. Tablet of Round Ark

This artifact belongs to the flood narrative tradition that was widespread in the Ancient Near East. The tablet preserves a total of sixty lines of text, densely inscribed across its obverse, bottom edge, and reverse. The text provides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vessel constructed to save life during the primeval deluge.

While the tablet was produced by a highly skilled scribe, the irregular angles of the signs and the overlapping of lines suggest that it was not executed with careful deliberation or visual clarity. For this reason, the text is difficult for novices to read. Rather than serving as a tablet intended for public recitation, it may have been produced for use within a restricted community of expert scribes.

The protagonist of this tablet is Atra-Hasis (line 2), who twice addresses the moon god Sin (lines 45, 49) as "my Lord." This particular invocation provides evidence that the tablet incorporates a distinct literary tradition. Furthermore, the tablet lacks the narrative account of the flood itself, thus leaving the cause and significance of the deluge unclear. The instructions for building the 'round ark' are likewise unique in character. Taken together, this tablet presents a new and distinctive transmission concerning the motif of the "vessel" within the broader flood tradition.



2. Gudea's Clay Cone

When Gudea, the king of Lagash, built the Eninnu temple and dedicated it to the god Ningirsu, he placed this inscription to demonstrate his piety and devotion. The inscription belongs to the literary form known as a "dedicatory inscription," which could be written on clay tablets, stone steles, bricks, or clay cones. Clay cones in particular were driven into the walls or foundations of buildings, rendering the inscriptions illegible to onlookers. Such texts were therefore intended for the god who owned the building or for a future king who might later repair it.

The ten-line inscription on the cone states that Gudea, the Ensi (governor) of Lagash, established religious rituals right and dedicated the temple to Ningirsu. Lagash, an ancient city with a long tradition in southern Iraq, appears to have enjoyed a period of relative freedom and prosperity, as Gudea ruled during a time without political overlords. This artifact reflects the cultural and historical atmosphere of that period particularly well.



3. Sumerian Accounting Tablet

This artifact is an administrative document from a governmental institution in the Sumerian city of Umma, recording the numbers of livestock received or distributed over a given period. The text is written on a relatively large clay tablet divided into five columns with narrow incised horizontal lines, with blank lines inserted where needed to separate paragraphs. The document was likely compiled systematically from smaller records describing individual items, indicating meticulous planning by one or more professionally trained scrib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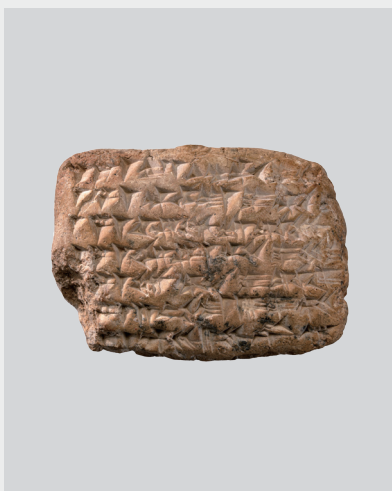
This tablet reveals the highly organized administrative structure of Umma. It also shows that the ancient Sumerians classified and evaluated livestock—such as cattle, sheep, and goats—according to breeding methods, age, and wool quality. In addition, it indicat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upplied offerings for various religious ceremonies held at multiple temples. The tablet also provides good examples of unique methods for reckoning years and months, as well as insight into the work practices of professionals such as shepherds.



4. Cuneiform Tablet of a House Sale Contract

This clay tablet records a contract for the sale of a house, confirming the transaction as legitimate and irrevocable before witnesses. The condition, location, and price of the property were accurately described, and any cancellation was prohibit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king's name. Nine witnesses testified, each identified by name and patronymic for verification. The date was recorded in accordance with contemporary customs, including the names of the month and year.

Although it resembles an official contract and contains the essential elements, each element is only briefly noted rather than fully described. The unusually low price of the house raises questions about the true nature of the document. In addition, although the tablet follows conventional layout, the handwriting is unusually large and almost lapidary, and the absence of horizontal lines and a seal is anomalous. These features suggest that the tablet may not be a genuine contract but rather a student's practice copy.



5. Cuneiform Administrative Tablet

This artifact, composed of horizontal lines filled with numbers and names on a clay tablet, is a typical administrative document. Although it is somewhat unusual that the tablet was written horizontally rather than vertically, the handwriting demonstrates the skill of a well-trained scribe. Each line contains the same numbers, though the context is unclear, making it im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the figure represents a single quantity (64) associated with an item or two distinct units of measurement.

The names recorded on the tablet, though written in cuneiform, suggest a religious and cultural background characteristic of the eastern Mediterranean coast, corresponding to modern Syria. In particular, the name *Zu-Aštarti* in the first line appears in another document as the ruler of the ancient city of Emar in Syria. Because the father's name is corrupte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same individual is referenced here. Nonetheless, this tablet suggests that it was written not in mainland Mesopotamia but in a western urban center. It thus provides evidence that cuneiform civilization extended into the western periphery of Mesopotamia and was used there for routine administrative purposes.

이 책에 수록한 문서들은 췈기문자를 사용해서 슈메르어와 악카드어 본문을 기록하였다. 현재 일상생활에서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췈기문자를 읽는 작업은 언제나 학자들의 추정¹에 머문다. 그러나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고 또 같은 어족에 속한 현대어와 비교하여 연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추정다. 복원된 췈기문자는 라틴 알파벳으로 자역할 수 있는데(transliterate), 슈메르어와 악카드어는 음운론 측면에서 볼 때 함께 다룰 수 없으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췈기문자의 자음

	순음	치경음	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비음	m (𐎠)	n (𐎡)		ḡ (𐎢)	
파찰음	무성 p (𐎣)	t (𐎤)	ʒ	k (𐎧)	ʔ (𐎨)
	강조	t̪ (𐎥)	ʃ (𐎦)	q / k̪ (𐎩)	
	유성 b (𐎬)	d (𐎭)	z (𐎮)	g (𐎰)	
마찰음	무성	s (𐎱)	š (𐎳)	ḫ (𐎵)	
	유성			R	
근접음		r (𐎺)	l (𐎻)	y (𐎽)	w (𐎿)

음절 관련 세목

〈ʔ〉은 우리말에 해당 자음이 없으나 초성일 때 ‘ㅇ’으로 종성일 때 표기하지 않는다.

〈d〉은 초성일 때 ‘ㄷ’으로 종성일 때 ‘ㅌ’ 또는 ‘드’로 표기한다.

〈ḫ〉은 우리말에 해당 자음이 없으나 초성일 때 ‘ㅎ’으로 종성일 때 ‘호’로 표기한다.

〈t〉은 우리말에 해당 자음이 없으나 초성일 때 ‘ㄷ’으로 종성일 때 ‘ㅌ’ 또는 ‘드’로 표기한다.

〈k〉은 초성에서 ‘ㄱ’으로 종성일 때 ‘ㄲ’ 또는 ‘크’로 표기한다.

〈s〉은 초성에서 ‘ㅅ’으로 종성일 때 ‘ㅆ’ 또는 ‘쓰’로 표기한다.

〈š〉은 우리말에 해당 자음이 없으나 초성일 때 ‘ㅅ’으로 종성일 때 ‘ㅆ’로 표기한다.

〈q〉은 우리말에 해당 자음이 없으나 초성일 때 ‘ㄲ’으로 종성일 때 ‘ㄲ’ 또는 ‘끄’로 표기한다.

〈š〉은 초성일 때 ‘ㅅ’, 세, 쉬, 쇼, 슈’로 종성일 때 ‘쉬’로 표기한다.

〈t〉은 초성일 때 ‘ㄷ’으로 종성일 때 ‘ㅌ’ 또는 ‘트’로 표기한다.

췈기문자의 모음

	앞	중앙	뒤
닫힌 소리	i (𐎶)		u (𐎶)
중간	e (𐎶)		-
열린 소리		a (𐎶)	

그 외 지역에 사용되는 다른 표기 방법

췈기문자가 다른 모양이지만 같은 소리가 나는 경우 숫자를 아래첨자로 붙여서 구분한다. 예를 들어 ‘가’라는 음절을 가리키는 췈기문자 기호들을 보자.

ga	ga ₂ / gá	ga ₃ / gâ	ga ₄	ga ₅

췈기문자 본문에서 명사의 성격을 구분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는 한정사를 사용하는데, 명사 앞이나 뒤에 붙인다. 자역할 때는 위첨자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의 이름을 쓸 때는 ‘디쉬(disš)’라는 의미 한정사를 이름 앞에 붙이는데, 자역할 때는 이 기호를 숫자로 읽어서 ‘1’이라고 표기한다. 예를 들어 앓슈르 왕이었던 앓슈르바니팔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쓴다.

𐎶	𐎶	𐎶	𐎶	𐎶
1	aš	šur	DÜ	A

¹Aššur-bāni-apli

그 외에도 여자 이름(f), 나무나 식물(GIŠ), 새(MUŠEN) 땅(KUR), 도시(URU), 사람이나 직업(LÚ), 신(d), 별(MUL) 등을 구별하여 쓴다.

슈메르어는 대개 라틴 소문자로 자역하는데, 읽기가 불확실한 경우 대문자로 표기한다. 악카드어는 음절 문자인 경우 라틴 소문자를 이탤릭체로 쓰고, 어표인 경우 라틴 대문자로 표기한다. 악카드어 자역은 문법에 맞게 다시 쓰는 문법역을 거친 뒤 현대어로 번역하게 된다.

췈기문자 문서는 점토나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재료 위에 쓰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되기도 한다.

그래서 분명히 문장이 계속 이어지지만 읽을 수 없는 경우 사각괄호[...]를 써서 표기하며, 때때로 자주 쓰는 표현이 나오면 훼손된 부분의 내용을 짐작해서 괄호 안에 쓰기도 한다.

반대로 관례에 따라 꼭 필요한 낱말인데 고대 서기가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이 말을 생략했을 경우 홑화살괄호<...>를 써서 표기한다. 이것은 발견한 본문에는 없지만 후대 학자들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삽입한 낱말이다.

고대어로 쓴 문서를 현대어로 번역할 때 번역 언어의 어법에 맞게 문장을 쓰기 위해 본문에 없는 말을 삽입하기도 하는데, 이 때는 소괄호(...)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번역문 안에 있는 소괄호는 원문에 없으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삽입한 낱말이다. 윤성덕(연세대학교)

인덱스

Index

(ㄱ)

검檢 Sealing Tablet	166, 167, 168, 169, 172, 173, 176, 177, 181
고바빌리 Old Babylonia	14, 16, 21, 26, 37, 38, 39, 44, 60, 68, 103, 104, 119
고대 페르시아어 Old Persian	11, 27, 29, 32, 123, 124, 127, 128, 132, 133, 135, 142
구데아 Gudea	21, 24, 37, 39, 62, 66, 67, 68, 69, 70, 90, 188
그레코-바빌로니아카 Graeco-Babyloniaca	146, 160, 164
그림문자 Pictogram	10, 12, 13, 14, 15, 16, 17, 41, 124, 127, 129
길가메쉬 Gilgamesh	21, 44, 54, 55, 90
길가메쉬 서사시 Epic of Gilgamesh	21, 26, 44, 49, 54, 55, 56, 59, 60, 61, 107, 118

(ㄴ)

네부카트네짜르 2세 Nebuchadnezzar II	21, 26, 140, 152, 164
니느웨 Ninua, Nineveh	11, 15, 20, 22, 26, 108, 139, 150, 151, 164

(ㄷ)

다리우스 Darius	123, 132, 135, 141, 142, 153, 155
-------------	-----------------------------------

(ㄹ)

라르싸 왕조 Larsa Dynasty	26, 37, 39, 96
라르싸 Larsa	20, 21, 38, 95, 106, 107, 108, 143, 147, 156, 162
로고그램表語文字 Logogram	31, 54, 55, 56, 57, 58, 59, 60

(ㄴ)

마리 문서고 Mari Archives	23, 27
메소포타미아 Mesopotamia	11, 12, 15, 16, 17, 18, 19, 21, 22, 23, 24, 26, 29, 30, 31, 32, 37, 38, 41, 42, 43, 44, 60, 61, 68, 70, 71, 92, 94, 95, 103, 104, 106, 107, 108, 115, 116, 117, 118, 123, 124, 125, 126, 127, 131, 132, 135, 138, 141, 142, 143, 145, 146, 149, 150, 153, 154, 155, 157, 158, 159, 163, 164, 185, 187, 189
물표 tokens	12, 13, 16, 124

(ㄷ)

바빌리(바빌로니아) Babili(Babylon)	6, 11, 14, 15, 16, 17, 18, 19, 20, 21, 23, 26, 27, 37, 38, 39, 41, 44, 60, 68, 70, 88, 89, 103, 104, 106, 107, 118, 119, 125, 127, 128, 129, 13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52,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2, 164, 165, 185
봉니封泥 Lute Block	168, 169, 173, 174, 181
비소툰 Bisotun, Behistun	11, 27, 29, 41, 128, 132, 133, 142, 155, 164

(ㄷ)

사르곤 Sargon	14, 15, 18, 23, 24, 26, 108, 123, 125, 126, 135
서기書記(서기관) Scribe	11, 12, 14, 15, 16, 18, 28, 29, 30, 31, 32, 33, 44, 58, 72, 83, 106, 107, 124, 125, 126, 127, 129, 130, 132, 141, 142, 143, 145, 146, 152, 153, 155, 156, 158, 159, 163, 165, 191
서명署名 Signature	167, 168, 173, 176, 177, 181, 185
셈어 Semitic language	16, 118, 123, 124, 125, 131, 138

슈메르 Sumer	13, 15, 18, 21, 23, 24, 25, 37, 38, 39, 41, 42, 55, 56, 58, 62, 68, 69, 70, 72, 86, 87, 89, 90, 94, 95, 104, 108, 116, 123, 124, 125, 146
슈메르어 Sumerian	11, 12, 13, 14, 15, 16, 18, 22, 23, 25, 29, 31, 32, 37, 54, 55, 57, 58, 59, 60, 61, 62, 68, 69, 72, 89, 90, 95, 96, 104, 106, 108, 117, 118, 122, 123, 124, 125, 126, 127, 129, 135, 138, 139, 144, 146, 149, 150, 157, 160, 161, 185, 187, 189, 190
슈메르 왕명록 Sumerian King List	21, 26
신표信標 Trust Marker	167, 168, 169, 172, 173, 174, 175, 176, 177, 179, 181

(ㅇ)

아다드 Adad	60, 115
아마르나 Amarna	26, 122, 123, 129, 130, 135
아람어 Aramic	14, 16, 32, 115, 117, 118, 128, 142, 143, 146, 147
아마르수엔 Amar-Suena	86, 88, 92, 93, 94
아트라하시스 Atrahasis	37, 44, 49, 54, 56, 58, 59, 60, 61
악카드어 Akkadian	11, 12, 14, 15, 16, 22, 23, 25, 26, 27, 31, 32, 37, 38, 44, 49, 50, 59, 68, 69, 87, 103, 104, 105, 106, 107, 110, 115, 116, 117, 118,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8
알파벳 Alphabet	14, 23, 27, 123, 131, 132, 133, 142, 146, 190
앗슈르 Ashur, Aššur, Assyria	11, 16, 17, 20, 21, 22, 24, 107, 108, 115, 118, 137, 147, 190
앗슈르바니팔 Ashurbanipal	11, 15, 22, 26, 139, 141, 146, 190
에마르 Emar	110, 115, 118, 119
에블라 Ebla	20, 21, 23, 25, 41, 118, 123, 124, 125, 138
에세쉬 èš-èš	84, 93
에안나 Eana	124
에안나툼 Eannatum	125, 126
엘람(어) Elam(Elamite)	23, 25, 27, 106, 108, 123, 124, 127, 128, 132, 135, 138, 142
우가릿 Ugarit	20, 23, 118, 119

우룩 Uruk	12, 14, 20, 21, 24, 141, 144
원형배 점토판 Tablet of Round Ark	37, 38, 44
인장 Seal	30, 41, 96, 110, 124, 129, 143,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7, 181
점토 봉투 Clay Envelop	12, 167, 168, 172, 173, 177
점토판 Tablet	12, 24, 25, 27, 44, 57, 72, 81, 96, 110, 125, 129, 131, 140, 141, 144, 146, 173
젬뎃 나즈르 Jemdet Nasr	14, 21, 24, 123, 124, 135

(표)

표준화 Standardization	10, 13, 14, 37, 124
필기체계의 소멸 Disappearance of Writing Systems	137, 138, 163, 165

(ㅎ)

함무라비 Hammurabi	21, 23, 26, 106, 127
헨리 롤린슨 Henry Creswicke Rawlison	11, 29
후르리어 Hurrian	22, 118, 123, 124, 130, 131, 135, 138
히타이트 Hittites, Hittite	22, 23, 26, 27, 32, 41, 116, 118, 119, 122, 123, 124, 128, 129, 130, 135, 1381 149, 150

문자와 문자문화 1

SCRIPTS AND
WRITING CULTURE

쇠기문자

CUNEIFORM

총괄 엄성근(사무총장)

관리 박준호(연구교육부장)

기획·편집 김혜정, 김가희

글 윤성덕(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주원준(한남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유성환(단국대학교 고대문명연구소 연구교수)

에카르트 프람(예일대학교 고대근동언어문명학과 교수)

박준호(국립세계문자박물관 연구교육부장)

성민정(국립세계문자박물관 학예사)

김혜정(국립세계문자박물관 연구원)

라인아트 클라우스 바겐조너(예일대학교 고대근동언어문명학과 연구원)

번역·감수 윤성덕, 주원준, 유성환

지원 성민정, 양지선, 김리원, 박솔희, 장지정

김지혜, 조나영, 김보빈, 최민경

디자인 디자인공방

사 진 김영광아카이브연구소

발행일 초판 1쇄 2025.12.

발행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22004)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17

www.mow.or.kr

ISSN 3092-2747

General Director Seongkeun Eom (General Secretary)

Managed By Junho Park (Department Manager, Research & Education Dept.)

Edited By Hyejung Kim, Gahee Kim

Contributor Sungduk Yun (Research Professor of the Institute of Christianity and Korean Culture, Yonsei University)

Wonjun Joo (Chief Researcher of the Hannim Biblical Institute)

Sunghwan Yoo (Research Professor of the Institute for Research on Early Civilizations, Dankook University)

Eckart Frahm (Professor of Assyriology, Department of Near Easter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Yale University)

Junho Park (Department Manager, Research & Education Dept.)

Minjeong Sung (Curator)

Hyejung Kim (Assistant Curator)

Line Art Klaus Wagensohnner (Researcher of the Department of Near Eastern Language & Civilization, Yale University)

Translation & Supervision Sungduk Yun, Wonjun Joo, Sunghwan Yoo

Editorial Support Minjeong Sung, Jisun Yang, Liwon Kim, Solhee Park, Jijeong Jang
Jihye Kim, Nayoung Cho, Bobin Kim, Mingyeong Choi

Design Designgongbang

Photo Kim Young Gwang Archive Laboratory

Publishing Date 2025.12.

Published by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217, Central-ro, Yeonsu-gu, Incheon, Republic of Korea (22004)
www.mow.or.kr

문자와 문자문화 1

SCRIPTS AND
WRITING CULTURE